

912.99

912.45

034

4500

1991.12.28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지도교수 하 치 근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1991년 6월

380685

동아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송 상 조

송 상조의 문학박사 학위
청구 논문을 인준함.

주심	박	태	권
부심	김	형	주
위원	현	평	효
위원	김	봉	모
위원	하	치	근



1991년 6 월

동아대학교 대학원

차 례

1. 들어가기	5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7
1. 3. 선행 연구 개관	7
1. 3. 1. 표준어에서	7
1. 3. 2. 방언에서	12
2. 파생어의 본질	14
2. 1. 파생어의 한계	14
2. 2. 파생어의 구성과 성격	16
2. 2. 1. 파생어의 형성	16
2. 2. 2. 파생어의 형태적 구성	18
2. 2. 3. 파생어의 직접성분 분석	20
2. 2. 4. 파생어의 주변적 성격	22
2. 3. 파생법의 유형	26
3. 접미 파생어의 특징	29
3. 1. 뿌리의 양상	29
3. 1. 1. 뿌리의 설정 기준	29
3. 1. 2. 뿌리의 유형	30
3. 2. 파생 접미사의 설정 기준	35

3.3. 굴곡 접미사와 파생 접미사	37
3.4. 파생 접미사의 양상	44
3.4.1. 형태에 따라	44
3.4.2. 기능에 따라	46
3.4.3. 의미에 따라	52
3.4.4. 쓰에 따라	53
3.5. 파생 접미사의 동요	54
4.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의 양상	57
4.1. 방언 파생어의 특징	57
4.1.1. 형태적 특징	57
4.1.2. 통합에 따른 특징	64
4.2. 이름씨 파생의 양상	68
4.2.1. 접미사 목록	68
4.2.2. 뿌리의 유형	76
4.2.3. 파생의 양상	78
4.3. 움직임씨 파생의 양상	108
4.3.1. 접미사 목록	108
4.3.2. 뿌리의 유형	111
4.3.3. 파생의 양상	112
4.4. 그림씨 파생의 양상	125
4.4.1. 접미사 목록	125
4.4.2. 뿌리의 유형	126
4.4.3. 파생의 양상	127

4. 5. 매김씨 파생의 양상	131
4. 5. 1. 접미사 목록	131
4. 5. 2. 뿌리의 유형	132
4. 5. 3. 파생의 양상	132
4. 6. 어찌씨 파생의 양상	135
4. 6. 1. 접미사 목록	135
4. 6. 2. 뿌리의 유형	137
4. 6. 3. 파생의 양상	138
4. 7. 토씨 파생의 양상	147
4. 7. 1. 접미사 목록	147
4. 7. 2. 뿌리의 유형	148
4. 7. 3. 파생의 양상	148
4. 8. 영변화 파생	155
4. 8. 1. 이름씨 <-----> 풀이씨	157
4. 8. 2. 풀이씨 <-----> 어찌씨	159
5. 맺음말	161
참고 자료 및 문헌	164
영문 요약	172

빈 면

1. 들어가기

사람에게는 ‘언어’라는 도구가 주어졌는데, 이 도구로 서로 생각을 교환하며 사람다움을 누린다. 사람들은 어느 고장에서든, 태어나면서부터 그 고장의 언어와 그에 따른 문화를 익히며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다른 고장과는 내부적으로 같은 점도 있겠지만 주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천부적으로 익혀 부려 쓰는 말도 음운, 어휘, 형태, 의미 등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과거부터 제주도 방언(이하 방언)에 대해서는 특이하다는 견해가 있었다.¹⁾ 근래에는 이승녕의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1957)와 현평효의 여러 논저를 통해서 그의 특수성을 지적하여 왔다.²⁾ 그리고, 강근보, 김홍식 등을 거치고, 이 지방에서 태어난 분들이나, 다른 지방의 분들을 거치면서 여러 부문에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³⁾

오늘날도 이 지역에 교육이나 정보 매체에 의해서 표준어를 보급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는 표준어와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그리 쉽게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과 다른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소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역에 따라서 음운 체계가 다르고, 환경이 다름으로 생기는 말은 비록 형태가 같더라도, 말활이(화자)나 들을이(청자) 사이에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언의 특수성에서 보면, 방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의가 있는 일이다.

1) 김정(1520), 제주풍토록에는 ‘語音細高如針刺且多不可曉’, 김상헌(1601), 남사록에는 ‘俚語以藪爲花岳爲吾老音…’, 이원진(1653), 탐라지에는 ‘村民俚語難澁先高後低’라고 했다.

2) 현평효(1962, 1985), 제주도 방언 연구 (자료편), 정연사.
_____(논고편)(1985). 참조

3) 현평효(1979, 1980), 제주도 방언 연구에 대한 사적 고찰 (상,하), 제주도 제76호, 77호.
_____(1988), 제주도 방언의 연구사 및 연구 동향, 허당 이동림박사 정년퇴임 기념 논총.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가 부려 쓰는 말 가운데는 어떤 말들은 뿌리만 있으면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더라도, 새 낱말을 만들지 않고, 합성법이나, 파생법, 영변화, 반복법 따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물에 대한 적절한 말로 쉽게 재구성하여 언어 생활을 불편 없이 이루어 간다. 그 가운데서도 파생법은 말만들기 방법의 하나로 즐겨 쓰인다.

파생법은 이미 있는 뿌리에 접사를 통합시켜 새로운 낱말을 효과적으로 만들므로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방법들도 말만들기 방법으로 다 쓰이기는 하나 파생법과 서로 겹치는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여 서로 구분이 불분명할 때도 있어서 논의가 분분하게 이뤄지는 일도 있다.

특히 말은 새로운 사물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물이 생길 때마다 그에 따라 모두를 새로운 말로 만들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음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파생법(derivation)이라는 방법을 개발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밝히는데는 파생법이 방언적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접미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은 이미 표준어의 그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관점에 따라 목록이 다르게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 방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파생어와 뿌리, 그리고, 접미사의 갈래를 형태, 의미, 기능의 면에서 나눠 보면 어느 정도 그 규칙이 정리되고, 윤곽이 드러나리라 믿는다. 또한, 파생어와 다른 형태의 말들과의 관계도 아울러 살펴 보고 그 범위를 정하려 한다.

물론 방언의 접미사를 이처럼 다루려는 것은, 말을 형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것이 적절하다면, 표준어에는 물론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좀 더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컨대, 방언의 파생어를 살펴 보는 것은 그 목록을 작성하고, 방언 파생어의 특징을 밝히고, 그 목록의 작성에 따른 형태, 의미, 기능의 이론을 바로 세우는 데에 있다 하겠다.

4) 김계곤(1969a),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인천교대 논문집, 제 4집, pp. 57~99.

_____(1969b), 현대 국어의 뒷가지 처리에 대한 관전, 한글 제 144호, pp. 96~139.의 목록과, 고영근(1974), 국어 접미사 연구, 백함 출판사.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논문에서 파생어에 대한 연구 방법 및 범위는, 공시적으로 형태론의 하위 범주인 파생법 가운데서 접미 파생법, 영변화 파생법만을 다룬다.

그리고, 접근 방법은 전통적 방법, 구조주의적 방법은 물론 변형 문법의 이론으로 우리말에서 이뤄졌던 방법을 원용한다.⁵⁾

그리고, 파생어의 가장 기본적인 목록 작성도 포함되므로 뿌리나 접미사의 형태, 의미, 기능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특히 접미사 설정의 기준에서 어떤 형태소를 접미사로 처리하느냐 하는 점은, 본래부터 접미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접미사로 처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의 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요 현상⁶⁾에 관심을 가지고 고찰함은 물론, 형태소와 형태소의 통합에 따른 형태음소적 변동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방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적인 방법이 중심이 되겠으나, 방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통시적인 방법도 원용되어 말밑(어원)을 밝혀야 할 때도 있다.

1.3. 선행 연구 개관

1.3.1. 표준어에서

이미 앞선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⁷⁾ 연대를 따라, 형태론 중의 파생법에 관한 것만으로 범위를 잡아 다룬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법서는

5) 하치근(1989a),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p. 30.에서 형태론에 접근하는 두가지 방법은 그 하나가 이미 만들어진 파생어, 합성어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내는 규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6) 고영근(1974), 앞의 책, pp. 68~80.

7) 고영근(1983), 국어 문법의 연구, pp. 115~116.

하치근(1985), 조어론 연구 경향에 대하여, 부산한글 제 4 집, pp. 207~236.

이석주(1989), 국어 형태론, 한샘, pp. 11~18.

홍중선(1990),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 국어학 제19집, pp. 359~362.

「역대 한국 문법 대계」(탑출판사)를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우리 국어 문법사에서 형태론의 하위 범주로 파생법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주시경의 「국어 문법」(1910)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국어 문법」의 ‘기똥박굵’(p. 110 이하)에서 보면, ‘어느 기든지 서로 박구어 쓰지 못하면 말을 꿈일 수가 없음으로 각기 기의 결에를 서로 박구어 씬이 잇으니 이를 기똥박굵이라 이름이라.’ 하고 하위 범주로 ‘움본임’에는 ‘먹음, 가기, 먹기, 남아지, 먹지’를, ‘임움본임’에 ‘돌질’, ‘임본엇’에 ‘해롭, 사람스롭, 먹음직하, 쓸만하’를, ‘임본움’에 ‘일함, 말하, 나무하, 동(動)하’ 따위를, ‘억본움’에 ‘더하’, ‘움억본움’에 ‘자세하’ ‘엇억본움’에 ‘자게하’, ‘엇억본움’에 ‘히게하’, ‘임움억본움’에 ‘일게하’, ‘임엇억본움’에 ‘크기 는하’ 따위로 씨끝, 접미사 또는 합성어의 성분까지를 포함하여, 폭 넓게 ‘기똥박굵’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는 씨끝과 접사의 혼동 등으로 체계가 어지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파생어에 대한 의식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똥박굵’은 오늘날의 파생법으로 본다면, 씨끝 바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배적 접사나 가의적 접사’에 거의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똥박굵’(p. 116이하)에서는 ‘돌질’을 보기로 들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돌」은 임인데 「질」을 더하여도 임이라. 그러하나 ‘돌과 질’은 그 뜻이 한가지가 아니니 이 「질」은 그 뜻을 바꾸라고 더한 것이라 하고 이와 같은 것은 많으니라.’하였다. 이 ‘-질’에 대한 설명에서는 접사의 기능이나 통사적으로의 [대치성, 어휘성]까지도 살피고 있다.

그리고, 「조선어 문법」(1913)에서는 ‘제움이 남음되게 하는 것’(p. 126)에는 접미사를 ‘-이-, -우-, -히-’를 들고, ‘남움이 제움되게 하는 것’(p. 127)에서는 접미사를 ‘-이-, -히-, -기-’를 다루면서, ‘돌-이-, 쓰-이-’를 들고, 움직씨의 갈래 파생을 내세우고 있다. ‘시김’(pp. 129~130)에서는 접미사를 ‘-이-, -히-’를 들고, 보기로 ‘먹-이-’와 ‘먹게 하’는 한 가지라고 했고, ‘-어 지-’를 더하여 ‘제움’이 되게 하고, ‘게와 하-’를 더하여 ‘시김, 남움’이 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초창기의 파생법으로서는 체계 있게 짜였고, 선각자로서의 면모가 돋보인다.

그후 김두봉의 「조선 말본」(1916)에서 ‘뜻바꿈’의 보기에서 ‘더하여 바꾸임’과

‘덜고 더하여 바꾸임’에서 약간의 언급이 있고, 「집터 조선 말본」(1922)의 ‘임의바꿈’ (p. 52-55)에서 뜻바꾸인 보기를 통하여, 접미사 ‘-님, -들, -스럽-, -ㅁ-, -암’ 따위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홍기문은 「조선 문전 요령」(1927 : 135)에서, ‘명사 보조’에 접미사 ‘-보, -인(人), -가(家), -씨(氏), -님’ 따위를, 상태, 작위 및 성질의 접미사로 ‘-질, -새’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명사 첨가’에서는 ‘가외적 접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26개, 그 외에 형태음소적 변동이 일어나는 것도 24개의 보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口氣’(p. 120~122)에서는 접미사 ‘-이-, -히-, -기-, -리-’가 통합되어 ‘능동적 구기’를 이룬다고 하고, 움직씨 뿌리에 통합시키면 ‘수동 구기’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 지-’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⁸⁾ 그리고 ‘-치-’ 강세 접미사를 아울러 설명하고 있다.⁹⁾ 그리고 반복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이 한 특징이다.

『조선 문법 연구』(1947)의 품사론에서 ‘어를 파생하는 접두 보조(접두사)와 연체 보조(접미사)’로 나누어 다루려 하였다.

박승빈도 「조선어학 강의 요지」(1931 : 184)에서 ‘시-, 새-’ 따위의 접두사를 다루고 있으나, 별다른 설명은 없고, ‘무형 명사에서는 용언으로부터 전성하는 것이 많다’고 하고, ‘-이, -바, -기’(p. 87~88)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두 접사의 기능상 차이를 밝히려는 시도로 전통 문법에서는 보기 드문 일로 평가된다.¹⁰⁾ ‘-다우-, 스러우-, ㅎ-’(p. 94)가 이름씨에 붙어서 용언을 만든다고 하였고, 조용사 ‘-히-, -리-, -기-’가 있다고는 하였으나 파생어로서의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 이후 주시경의 문법을 계승한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 : 960)의 ‘씨의 바꿈’ (품사의 전변)에서는 다시 ‘씨의 몸바꿈’을 정의하여 ‘이미 다 이뤄진 씨가 그 몸을 바꾸어서 다른 갈래의 씨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름씨로 된 것, 움직씨로 된 것 등 여덟 가지로 바뀐다고 하고, 몸바꿈법을 보면, 첫째는, 이미 이루어진 씨 또는 씨 줄

8) 홍기문(1927), 조선 문전 요령, 탑출판사 영인, p. 122.에서는 ‘-지-’는 본래 원측의 뜻으로 사용하던 동사로 ‘살아지-’ ‘하야지-’의 ‘-지-’라고 하면서 지금은 가능력 표현의 의미로 쓰여진다고 하면서 ‘신이 뉘어진다’ 등의 보기를 들고 있다.

9) 홍기문(1927), 위의 책, p. 122.에서는 ‘-치-’는 자동사는 물론이고 그 아래 붙을 때 어의의 ‘맹렬 또는 강경’한 형세를 더한다고 했다. 그런데 타동에 붙을 때는 다시 피동이 무의지한 우연적 수동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다.

10) 고영근(1983), 앞의 책, p. 56. 참조

기가 다른 아무 것을 더하지 아니 하고 그 본형 그대로 다른 씨 줄기 또는 다른 씨로 몸바꾸는 것이니 이는 곧 용법이 달라진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영변화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바꿈에서 씨가지를 더하여 아주 다른 갈래로 몸바꿈하여 가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접사법에 의한 파생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씨의 뜻바꿈’(p. 966)에서는 ‘말의 씨가 혹은 그 소리를 변함이 없이 으뜸꼴 그대로, 혹은 그 소리를 변하여서, 그 뜻을 여러 가지로 바꾸는 것을 씨의 뜻바꿈이라 한다.’고 하면서, 방대한 양의 보기를 들었다. 그리고, ‘씨가지’(p. 894)에서는 앞가지, 허릿가지, 뒷가지로 나누었다. 그 책(p. 451)에서는 ‘입음·하임’의 접사를 ‘도움줄기’로 다루고 있어서 약간의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파생법에 관한 거의 완벽한 체계를 세웠다.

이어서 정인승의 「표준 중등 말본」(1949 : 37~40)에서는 최현배의 「우리 말본」(1937)의 범위를 파생법에 관한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몸바꿈’과 ‘뜻바꿈’으로 파생법을 나누고, ‘몸바꿈’은 지배 접사로서 씨의 바꿈을 보기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뜻바꿈’에서는 한정적 접사를 들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어휘성 접사와 대치성 접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 중등 말본」(1956 : 21)에서는 ‘뜻 부분’과 ‘형식 부분’으로 된 낱말이 있다 하고, 뜻을 지닌 부분을 ‘뿌리’라 하고, 뜻을 안 가진 부분을 ‘접사’라 하였다. 뿌리의 앞에 붙는 것을 ‘앞가지(접두사)’, 뒤에 붙는 것을 ‘뒷가지(접미사)’ 혹은 ‘끝가지’라 하여 오늘날과 별 차이가 없는 관점을 보였다. 그리고 「표준 고등 말본」(1956 : 52~57)의 ‘가지의 종류’에서는 특히 통합에 따른 파생어 형성과, 통합에 따른 가지의 분류를 시도했는데 규칙적인 가지(-질, -껏, -히-, -이-, -이 따위)와 불규칙적 가지(-우, -개, -으라미 따위)로 분류한 특징을 보인다.

이어서 이희승의 「초급 국어 문법」(1949 : 153~157)에서는 ‘접착어’라는 용어로 파생어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히-, -기-, -리-’ 따위는 ‘삽요어(插腰語)’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그의 저서인 「국어학개설」(1955 : 260~290)에서는 ‘단어의 구성’에 대한 분류 체계를 세분하고, ‘파생어(derived word)’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홀소리나 닿소리의 교체에 의해 뜻이 같으면 ‘내적 파생어(internal derived word)’로, 접사가 첨삭되어 뜻이 분화가 일어나면 ‘외적 파생어(external derived word)’로 나누었다. ‘파생어’란 용어와 더불어 통합에 따른 하위 분류로 ‘내적, 외적’

의 분류도 새로운 관점에 의한 것이다.

그후 이승녕의 「국어 조어론고」(1961 : 1~178)에서는 비교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조어론의 전반을 방대하게 고찰하고 있다. 특히 ‘고대 토이기어와 국어와의 조어 방식의 비교’는 형태론적 접근의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세 국어 문법」(1961 : 75~87)에서는 구조 언어학적 이론의 바탕 위에서 ‘조어편’을 따로 설정하고 파생어를 이루는 뿌리와 접미사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후, 허웅의 「언어학개론」(1963 : 174~186)에서는 ‘형태론’에 관한 ‘형태소’와 ‘변이 형태’, ‘형태 분석’의 방법을 설명하고, 파생어는 합성법(compounding)의 하위 범주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고 파생어는 다시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로 나누나, ‘접요파생어는 그 예가 극히 드물다(p. 184)’고 하였다. 그후 형태론의 체계를 집대성한 「우리 옛말본-형태론」(1975)은 형태론에 대한 저술로서 형태론에 관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 뿌리의 종류에서 형태 분석을 위한, 가상적 뿌리나, ‘불구 뿌리’의 설정, 그리고, 접미사도 그 종류를 나누어 놓은 점은 파생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형태론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파생 접사와 굴곡 접사의 차이라든지 이때까지 ‘보조 어간 또는 도움 줄기’로 다뤄지던 ‘-이-, -히- 따위’를 여러 면에서 고찰하여, 접미사로 처리한 것은 그의 공로다.

강성일의 「국어학논고」(1982)에서도 옛말에서의 파생어를 가려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동명사 씨끝의 이름씨 파생을 지적한 점은 특징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가 있지만 부분적인 업적은 살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만, 필요에 따른 자리에서 인용되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름과 저서를 일부만 밝히는 정도로 하고 넘기려 한다.

김계곤의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1968~1978)의 일련의 연구로 접사 목록의 작성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석득의 「국어 구조론」(1971)에서는 피·사동 접사에 관한 고찰과 아울러 ‘굴곡적 파생 접사’ 설정을 주장하여 접사의 범위를 넓혔다. 고영근의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1974)와 「국어 형태론 연구」(1989)에서 접미사의 설정 기준으로 ‘의존성, 특수성, 어휘성, 외부와의 통합의 비제약성’을 내세워 접미사의 목록을 작성하고, 아울러 파생력에 따른 접사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송철의(1977)에서 형태음소론적 접근에 의해서 파생어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음운의 변동도 고찰하였다. 하치근의 「국어 파생접미사 연구」(1987)와 「국어 파생형태론」(1990)에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이석주의 「국어형태론」(1989)에서도 파생어에 대한 논의가 관여성과 비분리성을 바탕으로 계속되고 있다.

1.3.2. 방언에서

방언에서도 파생법에 관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살펴 보면, 이승녕의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1957 : 11~27)에서는, 방언이 육지부의 어간형성과 겹으로는 같거나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방언형으로 재구조화한 것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표준어 ‘-아, -오’가 방언에서는 ‘-애, -외’로, ‘-오, -우’가 ‘-이’로, 어간말음이 ‘-으’이던 것이 ‘-이’로 ‘-ㄹ’이던 것이 ‘-를, -루’, 그 이외에도 ‘-이’로 어간 말음을 지닌 것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칫하면 어간 말음에 ‘-이’를 연결시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음충돌회피현상(hiatus)에서 모음간에 ‘-ㅁ-’음을 발달시킨 듯이 보이는 예도 있기는 하다고 하면서 ‘-앵이’ 접미사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어간 말음에 ‘-ㅁ-’이 첨가된 것도 있고, 교체를 통하여 ‘-ㅁ-’을 취한 것도 있다고 했다. 표준어 ‘-벌’을 ‘-버룻’으로 되는 것과 ‘궂’이 ‘고단’으로 나타나는 점과, 지소 접미사의 ‘-생기, -새기, -생이, -애기’ 따위를 지적하여 방언 파생법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문헌어와 상통하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김홍식의 논문들에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접미사의 쓰임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 「‘缺’語에 대한 소고」(1975 : 11~27)에서는 ‘가위’가 문헌에 나타나는 형태와 방언의 형태를 비교해서 ‘ㄹㅅ-개’로 추정하였다. 그것의 변천을 ‘ㄹㅅ개(割子蓋) > ㄹㅅ애 > ㄹ새 > ㄹ새 > ㄹ애 > 가익 > 가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지방의 지명에 대하여」(1978)나 「제주도 지방의 지명어휘고」(1985, 1986)에서는 주로 지명에 나타나는 접미사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말뼉(어원)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방언 ‘가쟁이’어고」(1979), 「제주도 방언의 ‘낭’어고」(1982)에서는 ‘어휘의 방언적 특색을 표시하는데는 접미사의 접미 작용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하고 통시적으로 특수한 어휘에 붙은 접미사들을 밝히었다. ‘낭’과 ‘가쟁이’에서 뿌리는 ‘낭’에서는 ‘나-’를 근원적 뿌리로 보고, -ㄱ-은 접미사로 보아 방언에서 생산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쟁이’는

뿌리 ‘갯-’과 1차 접미사 ‘-앙-’과 2차 접미사 ‘-이’와 통합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방언의 한 특색이라 하였다. 그리고, 「‘비바리’ 어고」(1980 : 315~330)에서는 ‘비바리’의 형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고」(1982 : 1~28)와 「접미사 ‘-개’에 대하여」(1982 : 193~209)에서는 인칭과 사물 접미사 목록을 작성하고 그의 분포와 변천, 변이 형태를 지적하였다.

강영봉의 「제주도 방언의 어명 연구」(1986 : 61~65)에서 물고기의 이름에 쓰이는 접미사들을 조사하였다. ‘-이, -지/-찌/-치, -다리/-도리/-더리/-라니, -악/-억, -어, -바리, -자리’ 등을 들고, 특히 분포에 대한 관심을 보여 인칭이나 사물 접미사와의 관계를 밝히려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시적인 방법에 의하여 지명, 동식물명, 인칭, 사물 접미사와 특수 어휘에 대한 관심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홍식의 여러 논문들은 방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살펴면서, 통시적 체계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¹¹⁾ 그러나, 공시적인 방법의 접근도 방언 사전의 편찬이나, 어휘 목록의 작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 되리라고 본다.

-
- 11) 김홍식(1976), ‘缺’어에 대한 소고, 제대 논문집 제7집.,
 _____(1979), 제주도 지방의 지명에 대하여, 제대 논문집 제10집.,
 _____(1980a), 제주도 방언 ‘가쟁이’ 어고, 제대 논문집 제11집.,
 _____(1980b), ‘비바리’ 어고, 현평호 박사 회갑기념논총.,
 _____(1982a) 제주도 방언 ‘낭’ 어고, 제대 논문집 제14집.,
 _____(1982b), 접미사 ‘개’에 대하여, 심여택선생 화갑기념논총.,
 _____(1983),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고, 탐라문화 제2호.,
 _____(1985), 제주도 지방의 지명 어휘고(I), 제대 논문집 제20집.,
 _____(1986), 제주도 지방의 지명어휘고(II), 제대 논문집 제 22집. 참조.

2. 파생어의 본질

이 장에서는 파생어의 개념과 파생어의 형성 과정 및 파생어의 유형을 살핀다.

파생어는 자립 형태소나 또는, 실질 형태소를 뿌리로 하고, 의존 형태소를 접사로 하여 이루어낸 단일 개념의 낱말이다. 단일 개념의 낱말에도 단일어나 합성어가 있다. 단일어에도 하나의 자립·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실질·의존 형태소에 의존·형식 형태소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도 있다. 그리고, 합성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자립이나 실질 형태소로 이뤄졌다. 이렇기 때문에 파생어는 단일어나 복합어와 다르다.

이렇게 뿌리에 의존 형태소를 통합시켜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을 파생법이라 하고, 파생법에는 접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접두 파생법, 접요사나 접미사에 의한 것을 접요 파생법 및 접미 파생법이라 한다. 그외에도 파생법에는 반복법에 의한 파생법과, 영변화 파생법이 있으며, 음운의 교체로 이뤄지는 내적 파생법이 있다. 방언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2. 1. 파생어의 한계

언어형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모든 요소들의 가치는 공존하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련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낱말과 그 뜻도 그러하다. 그 형태소의 결합에 따라, 하위 분류하면, 단일어(simple word)와 복합어(complex word)로 나뉘어지는데,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compound word)와 파생어(derivational word)로 나뉜다.(허용 : 1975)

그런데, 단일어나 합성어나 또한 파생어나 모두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다른 영역을 지니면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서로 다른 짜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때는 그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말이

자립성이나, 실질성을 잃고 의존 형식으로 옮겨 가는 이른바 ‘동요’(oscillation)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차츰차츰 자립성을 잃고 의존적인 형태소로 변하여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의 것을 ‘동요’에 포함시키고, 어느 정도의 것을 제외시켜야 하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 접미사의 결정 여부로, 파생어가 되든지, 합성어가 된다.” 물론, 합성어나 파생어, 그리고, 관용어의 개념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리 선명하게 나뉜 것 같지 않고, 서로 겹쳐져 있는 점도 있다.

언어 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뿌리나, 접미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일어나 합성어와 파생어는 그 경계가 분명하지 못한 점도 있다. 불구 뿌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파생어도 단일어가 될 수 있고, 또 동요현상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합성어가 되기도 한다.

- (1) ㄱ. 병-붕이, 땡-가리, 병-것, 꿈-다리, 번-데기
 ㄴ. 방엿-귀, 낫-게염, 말-머리, 귀인-데가리, 썸-토메기

(1) ㄱ.은 불구 뿌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단일어로 처리해야 하고, ㄴ.에서는 동요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합성어가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것들을 파생어로 다룬다.

그리고, 실질·자립 형태소의 뿌리에 의존·형식 형태소가 통합된 것에서도 단일어와 파생어로 나누어진다.

- (2) ㄱ. 먹-고, 먹-어서, 먹-으니, 먹-더라도, 먹-었-다.
 ㄴ. 짚-이, 높-이, 혈-이, 꽃-이, 앞-이, 돌-이

1) 고영근(1974), 앞의 책, pp. 68~80.

Bauer.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 Press. p. 39.

하치근(1989b), 국어 파생 접미사의 통합 양상에 관한 연구, 언어와 언어교육제4집, p. 27.

허웅(1975), 우리 옛말본 -형태론-, P.97.

2) 고영근(1974), 앞의 책, p. 9.와

_____(1989), 국어 형태론 연구, p. 505.에서 접사성 전성명사가 통합되어 완전한 합성어가 아닌 것, 즉, 준파생어를 설정하고 있다.

허웅(1975), 앞의 책, p. 129.은 ‘파생적 합성어’라 하고, ‘한 성분의 가지에 매우 가까우나, 아직 그 줄기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은 합성어’라고 한다.

(2)에서 ㄱ의 뒷요소는 어떤 줄기에도 거의 제약없이 통합되는 굴곡의 가지로, 이는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줄기의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므로 비록 두 형태소가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단일어로 처리하여 한 낱말로의 끝바꿈으로 보는 것이 문법 설명의 간결성을 충족한다. ㄴ은 파생력이 높은 접미사지만, 다음 (3)에서처럼 뿌리와 통합에 제약을 받는 형태소이다.

(3) *가-이-, 보-이-

따라서 같은 의존·형식 형태소지만 들은 다른 것이다. ‘*가-이-’는 바르지 못한 파생어지만, ‘보-이-’는 바른 파생어다. 이처럼 파생어는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에서 바른 파생어가 이루어진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변화 파생법은 뿌리만 있고, 접미사의 형태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끝 없는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는 파생법에서 다를 수 있고, 반복법도 또한 뿌리에 접미사가 일단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생법으로 보고 다를 수 있다.

2.2. 파생어의 구성과 성격

2.2.1. 파생어의 형성

우리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면 그에 따른 말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완전히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좀더 경제적인 방법에 의한 말만들기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말을 만드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파생법이다. 이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에 대하여 어떤 유연성이 있는 뿌리에 접사를 선택하여 통합하는 방법이다. 이미 있던 뿌리와 접사를 선택하는 것은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언어 사용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생어는 ‘임시적 파생어’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쓰이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언어 사회의 공인을 받게 되면 파생어로 정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사물이 출현 ---> 새로운 말의 필요성 인식 ---> 사물과 유연성 있는
 뿌리와 접사의 선택 ---> 임시 파생어 형성 ---> 사회의 공인 ---> 파생
 어로 정착

뿌리와 접사가 통합되어 파생어를 이룰 경우, 뿌리와 접사가 가진 독립된 형태소로서의 상황과 서로 통합을 이루었을 때와는 각각 다른 형태나, 기능, 뜻을 지니게 되고, 통합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파생어의 뿌리를 의미부로 보고, 접사를 형식부로 보았을 때, 이들의 통합 구조는 파생어를 이루었을 때 의미부에 종속부가 따라 붙는 종속 구조를 이룬다.³⁾ 그리고 이들의 통합에 따라서, 의미부가 지니고 있던 문법적 구조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동심구성(endocentric construction)과 이심구성(exocentric construc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문법 구조가 바뀌었으면 이심구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심구성이 된다.⁴⁾ 우리말의 파생어는 모두가 종속 구성의 동심이든지, 이심 통합 구성이 된다.

또한 접미사가 뿌리와 통합이 되면서, 뿌리나 접미사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형태음소적 변동의 고찰이 요구 되고,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파생어의 의미가 투명하나, 불투명하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형 문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수용 가능한 파생어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⁵⁾

3) 이렇게 보는 것은 통합에 따른 중심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른 것이지, 한 낱말이 이루어진 상태로 본다면, 꼭 종속 구조로만 볼 수도 없을 것 같다. 우리말에서 뒤에 붙는 요소들이 씨를 결정하는 점에서 씨를 결정하는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4) 김석득(1971), 국어 구조론, 연세대 출판부, p.15.에서는 직접구성요소 X가 주요소이고, Y가 부차적 요소이며, 그것이 $XY \Rightarrow X$ (곧, XY의 핵인 X와 그 배합 구조 총체 X의 문법적 기능이 같음)을 구성하면, $XY \Rightarrow X$ 는 “동심적 구성”이고, 만일 $XY \rightarrow Z$ 이면, “이심적 구성”이라고 했다.

5) 이기동(1983), 언어와 인지, 한신문화사, pp. 291~294. 에서 파생 가지가 연결될 수 있는 뿌리와 연결될 수 없는 뿌리가 있다는 점으로 언어 규칙과 관계하여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1. 일반 사람들이 다 쓰는 낱말 풀이의 실제 용인 낱말.
2. 어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낱말 풀이의 잠재 용인 낱말.
3. 어휘 규칙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낱말 풀이의 비용인 낱말.

여기에 의하여 파생 가지가 연결되어 나타난 낱말, 높이, 깊이 따위는 1.에 속하고, 짝이, 작이, 둥글이는 2.에 속한다 하겠다.

2.2.2. 파생어의 형태적 구성

국어의 형태 구조는 첨가어(agglutinative language, 또는 교착어)의 특징이 있어서, 뿌리⁶⁾의 수를 적게 하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 내는 접사법이 발달한 언어이다.⁷⁾ 그렇기 때문에, 뿌리만을 가지고서는 뜻으로는 어떤 유연성(motivation)을 예측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문법 구조나, 통사 구조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도 의미부나 형식부의 논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⁸⁾

의미부는 앞에서 뿌리의 유형을 다루면서 살펴 본 것처럼 자립·실질의 뿌리도 있고, 실질·의존의 뿌리도 있어서 상징 뿌리나 불구 뿌리가 모두 이에 속한다. 형식부는 접사가 차지하는데, 이는 의존 형태소이면서도 뿌리를 최종의 위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⁹⁾ 즉, 이름씨 뿌리에 움직씨 파생의 접미사가 통합되면 움직씨로, 움직씨 뿌리에 이름씨 파생의 접미사가 붙으면 이름씨로 된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고정된 품사를 받고 만들어진 말도 월에서는 곡용이나 활용을 거쳐야 온전한 성분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것도 의존 형태소와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임시로 다른 씨가 가진 월 성분으로 작용하려면 역시 씨끝의 활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씨를 새롭게 만들고자 할 때도 접미사와 통합으로 씨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점이 우리말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뿌리에 통합된다는 점에서는 토, 씨끝, 접미사가 다 같은 점이나, 접미사는 뿌리에 붙어서 서로 두 성분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낱말이 된다는 점이 씨끝이나 토씨와 다른 점이다. 또, 통어적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토씨와 씨끝의 도움을 받아야만 원칙적으로 통어적인

6) 여기에 사용되는 뿌리는 어기(base), 어근(root), 줄기(stem) 따위의 뜻을 지니는 모든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7) 송문준(1989), 입음말에 대하여, 언어학 제 11호, pp. 122~123.에서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낱덩이가 형태소인데, 형태소들을 이어서 낱말을 만 들고, 다시 낱말을 이어서 이음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말본이며, 형태소의 수는 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말꼴을 자꾸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굴곡의 가지나 생산하는 힘이 큰 파생의 가지 그리고, 문법적 낱말인 허사가 관련 되는 곳에서는 말꼴이 곱절 가까이 늘 수도 있다.’고 했다.

8) 이길록(1978), 국어 문법 연구, 일신사, pp. 177~178.에서도 접사 체계의 분석은 한국어 문법 구조 분석이 중추가 된다고 하였다.

9) 우리말은 합성어를 이룰 때에도 뒷 성분의 씨를 닮게 되며, 파생어도 접미사가 지배하는 씨로 파생이 되고, 풀이씨에서도 씨끝과 통합이 되었을 때 월성분 으로 씨끝이 지정하는 기능을 따르게 되는 점을 가리킨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¹⁰⁾ 다음 보기를 보자.

- (4) ㄱ. 아름다우-ㄴ, 먹-어서, 곱-기-가
 ㄴ. 책-을, 책-은, 사람-이, 사람-도
 ㄷ. 장사-아치, 앞-사귀, 뒤편-개

(4)에서 ㄱ.은 풀이씨의 줄기에 ‘-ㄴ, -어서, -기, -가’ 따위가 붙어서, 의존·실질의 뿌리를 자립 형식으로 만들고, 바로 월성분의 자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ㄴ.은 실질·자립의 뿌리로 낱말을 이루고 있으나, ‘책, 사람’ 따위도, 이론적으로 월에서 성분으로 기능을 한다고 할 뿐이지, 바로 월성분의 자리가 되지는 못한다. 반드시 ‘-을, -은, -이, -도’ 따위와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에라야 완전한 월성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또, ㄷ.은 파생어로서 ‘장사, 앞’과 같은 자립·실질의 뿌리지만, 그대로 월성분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때에도 토씨가 통합되어야 한다.

접미사와 통합이 되어 자립·실질의 낱말을 이루고 있음은 한가지이지만, 접미사와 통합되기 이전의 뜻과는 달라진다. 새로운 낱말이 되었다는 것은 오직 낱말로서만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파생어가 임자씨일 경우에는 토씨가, 풀이씨일 경우는 씨끝이 다시 통합되어야만 월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미사는 어휘화의 수단으로 쓰이고, 새로 만들어진 파생어의 씨를 결정한다.¹¹⁾ 토씨가 씨끝은 낱말과 낱말의 연결이나, 월성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문법적인 요소로 쓰이고 있지만 새로운 낱말도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뿌리가 가진 씨를 바꾸지도 못한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새로운 낱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생어도 단일어나 합성어가 지니는 기능이나 의미,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낱말과 다를 바 없이 다른 낱말이 적용되는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¹²⁾ 다만 파생어는 형성 과정에서 형태소가 하나로 된 단일어와는 다르다.¹³⁾

10) 이 말은 우리말에서 토나 씨끝이 생략되어 문장의 성분으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붙여 썼다.

11) 하치근(1989), 국어 파생 접미사의 통합 양상에 관한 연구, 언어와 언어 교육 제4집, p. 33. 에서 자질 스며들기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리고 있는데 제Ⅳ유형의 접사는 자질 스며들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뿌리에 이미 접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뿌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12) 파생어도 형태론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고, 음운론, 어휘론, 통어론 따위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13)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합성어가 자립·실질의 형태소가 둘로 이루어졌을 때는 파생어와 선명하게 분별이 되나, 한 개의 형태소가 자립·실질의 형태소이고 하나가 자립·실질성이 약한 형태소일 때는 파생어와 분별이 어려울 때도 있다. 파생어도 자립·실질의 형태소에 하나의 의존 형태소를 통합했을 때는 선명하게 분류가 되나, 실질·의존 형태소에 의존성이 애매한, 즉, 자립·실질성이 약한 형태소와 통합될 때에는 식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립인지 실질인지 알 수 없는 불구 뿌리에 의존 형태소가 통합이 되어 파생어를 이루었을 경우, 단일어와 분별이 모호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것은 다만, 분별 기준의 문제이지 파생어와 합성어 또는 단일어의 식별의 혼란의 문제는 아니다.

파생어는 뿌리와 접사의 통합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통합에 따라 파생어를 나눠 볼 수 있다.

- (5) ㄱ. 떡-거리, 삭-다리, 돌-챙이, 봉그-쉬, 용-다리, 높-이, 곱-세
 ㄴ. 아진-배기, 두름-성, 들을-내기, 곱음-작, 질-매, 구문-쟁이

(5) ㄱ.의 뿌리가 씨를 알 수 있거나, 없거나 뿌리에 접미사가 바로 통합되어 파생어가 이루어진 것이고, ㄴ.에는 뿌리에 씨끝이 붙어서 접미사가 통합된 것이다. 앞엿것을 직접 통합으로 볼 수 있고, 뒤엿것을 간접 통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뿌리에 씨끝 따위가 통합된 것도 일종의 파생어로 보고, 겹뿌리¹⁴⁾가 되어 바로 접미사가 통합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간접 통합을 인정하여 다루고 있다.

2.2.3. 파생어의 직접 성분 분석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은 새로운 낱말의 형성이기 때문에 직접 성분(IC, immediate constituent) 분석은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¹⁵⁾ 파생어의 형성은 주어진 형태소가 서로

14) 이 논문에서 겹뿌리는 뿌리에 씨끝이 통합되어 파생 접미사가 통합된 것을 제외하고, ‘깊-숙-, 여-단-, 앞앞-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15) 이익섭(1965), 복합 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제 30호, pp. 121~130.에서도 모든 형태소를 성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올린 말들은 복합어이면서 파생어이지만 모든 형태소를 그대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즉, ‘설늪은이, 단팔죽’을 ‘설/늪은이, 단/팔죽’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통합에서 긴밀의 정도라든지, 우리말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합하면서 낱말이 갖춰야 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 말의 형성 과정을 보면, 임시 단계 ---〈규칙화 단계(여과장치로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으로 조정되어) ---〉 어휘화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성분으로 분석하더라도 본래의 형태소 성분으로 바로 분석이 되지 않고, 다시 어휘화 단계에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 가야 본래의 성분을 찾아 낼 수 있다. 파생어는 단일 개념의 낱말이다. 이렇게 보아야 접미사의 기능에서 새 말을 만든다는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파생어는 자립이나 실질성의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이뤄졌다. 월의 직접 성분 분석에서는 토나, 씨끝은 분석이 되어야 하지만, 접미사나 접두사는 형태론적 입장이라면 분석이 가능하지만, 통어론에서는 분석되어서는 그 월에서, 그 자리에 놓였던 파생어나 합성어와 똑같은 낱말의 뜻을 이룬 성분의 말이 될 수는 없다.¹⁶⁾ 만일 파생어를 분석했을 때에는 월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합성어를 이루는 두 성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앞성분과 뒷성분이 통합되어 새로운 단일 개념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직접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순서 없이 형태 분석을 시도했을 때, 형태 분석 자체에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월을 분석해 보면,

(6) ㄱ. 장돌-뱅이 / 가 | 가 / ㅁ//저

ㄴ. 영수//는 | 학교//에서 / 공부함 /// ㄴ다.

(부호는 분석의 순서: | 은 1, /는 2, //은 3, ///은 4번째임)

(6)과 같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 ‘장돌-뱅이’를 ‘장돌／뱅이’로 통어론적으로는 분석되지 않는다. 만일, 바로 앞에서처럼 분석한다면, ‘장돌-뱅이’는 하나의 낱말이 안된다. 파생어의 분석은 형태론의 처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만일 월에서 두 개의 성분으로 분석했을 때는 파생어를 형성한 총체(파생어의 형태나, 의미 기능 따위)가 통합되기 전의 두 성분이 가지고 있던 형태, 의미, 기능을 그대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직접성분 분석을 할 때는 씨끝이나, 토씨 그리고 합성어의 성분이나,

16) 파생어나 합성어를 성분 분석을 했을 때, 성분 분석한 그 말이 분석 이전의 말과 꼭 같지는 않다는 뜻으로 썼다.

파생어를 가르고 있다.

- (7) ㄱ. 장사-아치 :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홀하게 일컫는 말
 ㄴ. 오다-가다 : 가끔 어쩌다가. 혹시 우연히

라고 되어 있는데, ‘장사’와 ‘아치’를 분석을 했을 때에 그 총체적인 뜻의 어디까지를 중심부의 뜻으로, 어디까지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눌 수 없으며, ‘오다-가다’도 마찬가지이다.¹⁷⁾

그런 점에서는 합성어가 파생어보다는 총체가 가진 뜻과 두 성분을 분리했을 때 의미부나 형식부의 뜻에 가까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형태론의 입장에서는 몰라도 통어론의 처지에서는 파생어나 합성어를 성분 분석을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하나의 낱말이고, 단일 개념이기 때문이다.

2.2.4. 파생어의 주변적 성격

가. 파생어의 의미성

의미면에서도 뿌리와 접미사가 서로 의존적이지, 어느 한 쪽만 의존적인 것으로 보기에 파생어라는 입장에서는 곤란하다.¹⁸⁾ 위의 ‘장사-아치’에서 그 뜻 풀이를 보면 어디가 중심이라고 갈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형태 결합체를 의미면의 밑소에 따라 직선상에 배치한 것(이석주, 1989 : 99)을 참조해 보면

←밑접	(의미적 작용)	소원→
합성어	파생어, 굴절어	구

로 되어 있는데 밑접도에 있어서는 합성어와 파생어 사이에서는 도리어 파생어가 형

17) 김석득(1988), 구성요소의 뜻과 총합체의 뜻과의 관계, 동방학지, 제59집, pp. 69~70.에서, ‘형태론적 통합체를 이루는 합성어나 파생어는 모두 낱말을 새로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낱말은 구성소의 뜻이 서로 곱하여진 곱합의 값(승적) 곧 곱셈값으로 바뀐다. 그런데 실제로 그 뜻의 바뀔에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뜻의 자세한 정도의 차이에 관한 한 사실상 이에 대한 명백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18) 이석주(1989), 국어 형태론, 한샘, p. 98.에서는 ‘접사의 의미는 항상 의존적’이라고 한다. 유목상(1985), 연결서술어미 연구, 집문당, p. 72.에서는 접미사는 선행 의미 요소와 어울려 통어적 단위로 발전시키는 지표(marker)라고 한다. 지배관계로 보아, 조사는 명사를, 어미는 동.형용사의 의미부인 어간을 지배한다고 했다.

형태가 ‘CVCV나, VCVC형’이 되지 못할 때는 어떤 변동이든지 일어나기 마련이어서 그 변동의 하나 하나를 다 캐기란 힘들고 이 논문에서는 파생어를 다루는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만을 골라 일부를 다루려 한다.²⁴⁾

다. 파생어의 문법성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어떤 뿌리에 어떤 형태소가 통합되었을 때는 통합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물론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되면서 일어나는 변형이 형태론적 범주에서 일어나면 형태론적 변형이라 하고, 통어론적 범주에서 일어나면 통어론적 변형이라 한다.(김석득, 1971 : 15 참조)

ㄱ. 형태론적 문법성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면, 문법적 구조, 즉, 씨가 바뀌게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때에 문법적 구조가 바뀌면 이심적 구성이라 하게 되고, 문법적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동심적 구성이라 하는데, 결합된 내부적 구성소간의 관계는 자립이나 실질 형태소의 뿌리에 의존 형태소가 통합되었으므로 종속적 구성(subordinate construction)이 되고, 파생어는 모두 이 범주에 든다.

- (8) ㄱ. 막다 : 막-히-다, 먹다 : 먹-이-다, 앓다 : 앓-지-다
 ㄴ. 밀다 : 밀-치-다, 넘다 : 넘-치-다, 깨다 : 깨-수-다
 ㄷ. 딸 : 딸-내기, 잎 : 잎-상귀, 곱다 : 곱-닥-하다,
 ㄹ. 높다 : 높-이-다, 밝다 : 빠-히-다, 넓다 : 넓-우-다
 ㄴ. 사나이 : 소나이-답다, 향기 : 상기-롭다, 덥다 : 덥-겅이(더겅이)

24) 허웅(1985), 음운학, 샘문화사, pp. 288~289.에 31가지의 변동 규칙 일람표가 그려져 있다.
 송철의(1977), 앞의 책, pp. 95~99.에서는 파생법에서만 다섯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모음조화, 모음 탈락, 경음화, ‘마’탈락, ‘가’탈락 따위이다.
 그의 김규철(1981), 단어 형성 규칙의 정밀화, 언어 6권 2호, p. 127.,
 김영선(1990), 현대 국어 파생어에 나타난 음운 현상, 국어 국문학 제10호, (동아대학교) p. 245.
 에서 /ㄷ/탈락,
 이강훈(1982), 국어 복합명사에서의 경음화 현상, 언어 제 7권 2호, pp. 299~309.와,
 오정란(1987), 국어 복합어 내부의 경음화 현상, 언어 제 12권 1호, p. 45.에서 /ㅅ/개입 등을 다루고 있다.

(8)에서 ㄱ., ㄴ., ㄷ.은 모두가 같은 씨에서 같은 씨로 파생이 된 보기들이기 때문에 동심 구성의 파생어가 되고, ㄹ. ㅁ.,은 파생어가 다른 씨로 되었으니 이심 구성의 파생어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종속적 파생 구조가 되었다.

ㄴ. 통어론적 문법성

통어론적 변형은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이 되었을 때, 월 성분의 자리에 변동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나누어 본 유형이다. 여기에서는 다시 비통어적 변형과 통어론적 변형으로 나뉘는데, 비통어적 변형은 성분의 자리에 변동이 없을 때를 말하고, 통어론적 변형은 성분의 자리에 변동이 있을 때를 말한다. 먼저, (8) ㄱ. ㄴ. ㄷ. ㄹ. ㅁ.에서 통어론적 변형 구조에 드는 것은 문법 구조가 바뀐 (8) ㄹ. ㅁ.은 범주에 들고, 씨의 범주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통어적 성분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8) 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나머지 (8) ㄴ. ㄷ.은 비통어적 변형 구조에 들게 된다.

라. 파생어의 생산성

접미사는 그 통합이 자유로운 지, 제약적인 지에 따라서 생산성이 결정된다. 어떤 접미사들은 분포가 넓어 많은 뿌리에 자연스럽게 통합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많은 수의 뿌리에 통합되어서 파생어를 만들었을 때, 생산성(productivity)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그렇지 못하였을 때는 생산성이 모자란 것으로 보게 된다.²⁵⁾

(9) ㄱ. -쟁이, -다리, -바치, -뱅이, -개 따위

ㄴ. -도와, -악서니

(9) ㄱ.은 많은 뿌리에 붙어서 많은 파생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접미사들이지만, ㄴ.은 제한적으로 한 두 개의 뿌리에 붙어서 파생어를 만들 뿐이다. 이렇게 파생어의 생산성을 가르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범위를 정하고, 규칙을 세우는데 이 용할 수가 있다.

25) 파생 접미사가 많은 뿌리에 통합되어 굴곡 접미사와 거의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는 입음·하임 접미사와, ‘-이, -개’ 따위들도 있다.

2. 3. 파생법의 유형

가. 접사에 의한 파생법

우리말에서 접사에 의한 파생법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접두 파생법으로 뿌리의 앞에 접두사가 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접미 파생법으로 뿌리의 뒤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 (10) ㄱ. 돌-배, 개-살구, 개-떡,
 ㄴ. 침-바치, 동녕-질, 꿩(피)-쉬

(10)에서 ㄱ.은 접두 파생어이고, ㄴ.은 접미 파생어이다. 우리말에서는 이러한 파생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형태가 겹으로 드러나므로 외적 파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접요사에 의한 파생법도 고려되어야 하나, 표준어나, 방언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 (11) ㄱ. 기슭 - 기스락, 어른 - 어르신, 자지 - 잠지²⁶⁾, 허리 - 허구리,
 더럽다 - 더지럽다
 ㄴ. 지슬 -*지스락, 어른 -어루신, 조쟁이, 허리-*허구리,
 더럽다 - *더지럽다

(11) ㄱ.은 표준어에서 접요사가 개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김계곤 ; 1983 : 82-91), ㄴ.은 방언을 그에 대응시켜 본 것이다.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방언에서도 ‘엽구리, 늑신이, 독므릅팍(무르팍)’ 따위가 쓰이지만 표준어에서 다루고 있는 접요사로 보이지 않는다. 방언에서 ‘독므릅-팍’, ‘잠지팍’ 따위가 쓰이지만, ‘팍’은 ‘넓적한 부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팍’이 자립성은 없지만 접요사로 처리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접요사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나. 음운 교체에 의한 파생법

이러한 파생법은 음운을 교체하여 파생어를 이루는 방법인데, 우리말에는 특히 상

26) 방언에서도 ‘잠지’라는 말은 쓰이지만, 뜻이 다르다. ‘잠지’는 ‘불기’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징어에 많이 나타난다.

(12) ㄱ. 꺾꺾하다, 꺾꺾하다, 꺾꺾하다

ㄴ. 벨렁벨렁하다, 벨렁벨렁하다,

ㄷ. 늙다 : 늙다, 적다 : 작다(방언에서는 ‘죽다’로 두 뜻으로 쓰임)

따위인데, ㄱ.은 닿소리 교체로 이루어진 것이고, ㄴ.는 홀소리의 교체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파생법은 접사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적 파생이라 할 수 있고, 파생의 결과 ㄷ.에서처럼 뜻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ㄱ., ㄴ.처럼 뜻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거나, 정도성을 나타내기만 하는 것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ㄱ., ㄴ.은 파생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ㄷ.은 뜻의 분화가 일어났으므로 파생으로 볼 수 있다.

다. 영변화 파생법

영변화 파생법은 우리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영변화 파생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다루고 있다. ‘무형의 접사’가 뿌리에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다루고 있다.

(13) ㄱ. 신 <---> 신다, 웨(升) <---> 웨다, 드르(덩이) <---> 드르다(擧)

ㄴ. 떨 <---> 떨다, 모도 <---> 모도다, 늦 <---> 늦다

따위인데, (13) ㄱ.은 이름씨와 풀이씨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ㄴ.은 풀이씨와 어찌씨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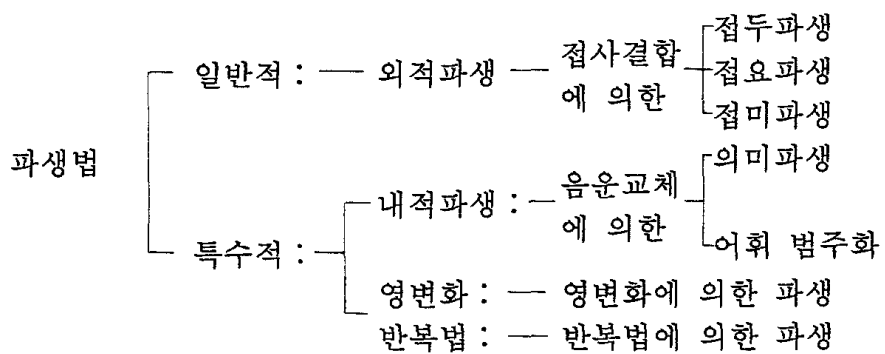
라. 반복법에 의한 파생법

반복법에도 뿌리의 씨를 알 수 있는 것과, 뿌리의 씨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뿌리의 씨를 알 수 있는 것은 접사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만, 뿌리의 씨를 알 수 없는 것은 접사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불구 뿌리를 인정하는 처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접사를 가려낼 수가 있다. 즉, 뿌리와 접미사의 중복으로 처리한다.

- (14) ㄱ. 갈리갈리(가르-), 고붓고붓(곱-), 공글공글(공글-), 노릿노릿(노리-)
 ㄴ. 가딱가딱, 굴각굴각, 끈닥끈닥, 드르륵드르륵, 맨들맨들, 무룩무룩

(14)에서 ㄱ.은 뿌리의 씨를 알 수 있는 것이고 ㄴ.은 뿌리의 씨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3. 접미 파생어의 특징

3. 1. 뿌리의 양상

파생어의 뿌리의 양상은 여러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계통상으로 고유어 뿌리와 외래어 뿌리로, 말만들기에서는 홑뿌리와 겹뿌리로, 품사론의 입장에서는 품사에 따른 뿌리로, 음운 변동상으로는 줄인말이나 덧난말로,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의 뿌리나 의존 뿌리로, 실질성의 유무에 따라 실질 뿌리 따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1. 1. 뿌리의 설정 기준

파생어는 일정한 뿌리를 성분으로 하고, 그에 통합될 수 있는 접사(affix)를 필요로 하는 조어법(word formation)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어에 쓰이는 뿌리의 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뿌리는 중심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뿌리에 이용되는 형태소는 실질·자립 뿌리이든 실질·의존 뿌리이더라도 쉽게 그 뜻을 알아 볼 수 있거나, 어렵게라도 그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불구 뿌리이더라도 동형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써 정도라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질-방, 먹-히-’에서 뿌리가 중심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뿌리의 뜻의 범위에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낱말이 형성된다.

둘째, 뿌리는 중심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파생어에서는 항상 접사와 통합되었을 때 뿌리는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접사는 종속적 자리를 차지하여 파생어의 구조는 뿌리는 중심이 되고 접사는 종속이 되는 종속적 구조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뿌리는 실질·자립이든, 실질·의존의 형태이든, 바로 파생 접사와만 통합이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굴곡 접사 이외의 요소와 통합이 되었을 때는 그 요소도 일차 파생을 거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새로운 뿌리가 형성되고 나서 다시 파생

접사가 통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파생어의 통합은 주로 뿌리와 파생 접사의 직접 통합이라는 원칙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뿌리의 종류로는, 자립할 수 있는 낱말로 이루어진 뿌리(자립 뿌리), 풀이씨 줄기(의존 뿌리), 낱말을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특수 뿌리(깊숙-, 늑수그레-, 넓적- 따위), 합성 뿌리(여-단-이), 합성 특수 뿌리(앞앞-이, 뭉뭉-이, 다달-이) 따위를 들고 있다.(허용, 1983 : 132)

넷째, 뿌리는 언어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라야 한다. 파생어는 접미사와 통합이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언어 관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이나 들을이들 사이에 서로 어색함이 없어야 한다. 뿌리가 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접사와의 통합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수많은 파생 어휘가 생기고, 언어 생활에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 불구 뿌리가 뿌리로서 기능을 하는 것도, 토박이(native speaker)들의 언어인식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요인이 하나다. ‘병-붕이, 병-땡이, 병-어리, 두루-붕이, 솟-붕이’ 따위에서 ‘병-’은 불구 뿌리지만, 방언에서는 많이 쓰이는 뿌리다. ‘솟-’도 ‘암 수’의 ‘솟’인지는 잘 분간이 되지 않지만, ‘솟-놈(순박한 사람), 솟-투름-’ 등의 보기에서 볼 때 뿌리로 잘 쓰인다.

다섯째, 겹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접미사의 특성이 제한적인 뿌리에 통합되는 점이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간접 통합’과 겹치는 점도 문제가 되기는 한다. 그러나, 간접 통합은 씨끝의 형태와 통합된 것으로 제한하여 처리하면 된다.

낱말을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특수 뿌리(깊숙-, 늑수그레-, 넓적- 따위), 합성 뿌리(여-단-이), 합성 특수 뿌리(앞앞-이, 뭉뭉-이, 다달-이) 따위를 겹뿌리로 처리하면 폭 넓게 처리할 수 있다.

3.1.2. 뿌리의 유형

뿌리의 유형을 가르려는 것은 파생어를 뜻이 있는 의미부(핵)와 형식부(또는 종속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접미사와 통합되는 뿌리의 유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뿌리의 유형은, 형태의 구조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단일 뿌리와 겹뿌리로 나눌 수 있다. 단일 뿌리는 하나의 형태소로 자립, 의존성을 지녔든지, 의존성을 지녔더라도 실질성을 지닌 뿌리이고, 겹뿌리는 둘 이상의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뿌리이다.

그런데, 겹뿌리는 대개 자립·실질의 뿌리를 형성하게 되므로, 파생어에서는 이 두 종류의 뿌리를 모두 뿌리로 보고 접미사와의 통합을 다루게 된다. 이들을 유형별로 나눠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자립의 뿌리

파생 접미사의 뿌리의 유형은 자립성이 있고 없음에 따라, 자립 뿌리와 의존 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립성과 실질성을 함께 가진 뿌리에는 이름씨, 어찌씨, 매김씨 뿌리를 들 수 있고, 풀이씨 줄기에 굴곡 접미사의 형태를 가진 ‘-ㄴ, -ㄹ, -ㅁ’ 따위와 통합된 뿌리도 포함시킬 수 있다.

- (15) ㄱ. 침-바치, 싸움-쟁이, 꺾-쉬 따위
 ㄴ. 두루-봉이
 ㄷ. 솟-봉테
 ㄹ. 아진-배기

(15)에서, ㄱ.은 이름씨 뿌리이고, ㄴ.은 어찌씨 뿌리(불구 뿌리로도 볼 수 있음)이고, ㄷ.은 매김씨 뿌리이고,¹⁾ ㄹ.은 풀이씨 줄기에 굴곡 접미사 ‘-ㄴ’이 붙어 뿌리를 만들고 나서 접미사와 통합이 된 보기이다. ㄹ.에서는, 씨끝 ‘-ㄴ’이 붙었을 때는 자립성(줄기와 씨끝과의 관계에서만 보았을 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리에 함께 실었다. 그리고, 합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씨를 이루었거나, 파생에 의해서라도 위와 같은 씨가 되었을 때도 이 범주에 든다.

나. 의존성의 뿌리

실질성만 있고 자립성을 지니지 못한 뿌리는, 풀이씨 줄기의 형태를 지닌 것들이다. 그리고, 합성이나, 파생에 의해서라도 풀이씨가 되어 뿌리를 이루었을 때는 이 범주에서 다룰 수가 있다.

1) 김석득(1971), 앞의 책, pp. 2~3.에서는 자립과 의존의 중간 상태의 뿌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솟-’에 대하여서는 의존 형태소로 처리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봉테’가 뚜렷한 접미사이므로, ‘솟-’을 자립·실질의 뿌리로 본다.

(16) ㄱ. 아우-(아구-)생이, 녀-치, 굽-으렁이

위에 올린 파생어의 뿌리는 ‘아우-/아구-’는 ‘벌리-’에 대응되는 방언으로서 움직 씨 뿌리이고, ‘녀-’이나, ‘굽-(曲)’은 그림씨 뿌리이지만, 뿌리만 가지고는 자립성을 지니지 못하고, 반드시 씨끝이 붙어야만 자립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질성이 있다는 것은 어휘적으로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다. 불구 뿌리

불구 뿌리란 어떤 씨에서 나온 것인지를 공시적인 관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어원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거나, 동형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씨로 추정 가능한 뿌리를 말한다. 파생어에는 이러한 뿌리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들이 꽤나 있다.

(17) ㄱ. 병-뎡이, 솔-붕이/-붕이, 난-쟁이 따위

(17)의 뿌리들은 어떤 씨인지는 알 수 없지만 파생어로서는 충분히 쓰인다. 그리고, 만일 불구 뿌리의 씨를 추정한다면, 통합되는 접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도 있다. 여기의 ‘병-, 난-’따위는 이름씨 계열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18) ㄱ. 등-뎡이, 들-뎡이
ㄴ. 뗏-쟁이, 도둑-쟁이

따위로, ‘-뎡이, -쟁이’는 주로 이름씨 뿌리에 쓰이고 있다.

라. 상징 뿌리

상징어에는 짓시늉말과, 소리시늉말이 있는데, 파생어에서는 이러한 말에서 나온 뿌리들도 많다. 우리말 문법에서는 상징어를 씨가름할 때는 어찌씨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한 뿌리는 어찌씨에 들지만 차이가 있다. 어찌씨 뿌리는 자립·실질성이 뿌리가 되지만, 상징어에서 나온 뿌리는 대부분 실질·의존 형태로서 접미사와 통합되는 것이 많다.

2) 이 뿌리는 이름씨로도 볼 수 있다.

(19) ㄱ. 벨롱-거리다, 버작-이, 덜렁-이 따위

‘벨롱-거리다’는 ‘벨롱벨롱’에서, ‘버작-이’는 ‘버작버작’에서, 그리고, ‘덜렁-이’는 ‘덜렁덜렁’에서 왔는데, 접미사와 통합 될 때는 반복어의 한 쪽을 줄이고 통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일에, ‘벨롱벨롱’에 접미사가 통합 되지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특별한 때가 아니면 그러한 방법으로는 거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징 뿌리와 통합으로 나누었다. 반복어에서 한 짝의 소리 ‘벨롱-, 버작-, 덜렁-’ 따위는 자립의 형태소는 되지 못하고 실질성만 지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벨롱벨롱’에 접미사가 통합이 바로 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자립, 실질의 뿌리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마. 영변화 현상을 가져오는 뿌리

영변화란 말은 어원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씨가 다른 낱말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 없이, 이름씨와 풀이씨, 또는 풀이씨와 어찌씨가 되어, 서로 호응하면서 쓰여지는 파생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씨와 풀이말의 관계는 부림말과 풀이말이 되고, 어찌말과 풀이말 사이에서는 서로 한정 관계의 관계를 이루는 말이다. 이러한 말은 우리 말에서는 풀이씨와 이름씨, 풀이씨와 어찌씨에서 주로 나타난다.³⁾

영변화의 뿌리는 이름씨와 풀이씨가 어느 것이 먼저 생겼느냐⁴⁾가 확인되어야 하고, 어찌씨와 풀이씨는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먼저 생겼느냐를 결정하여야 한다. 파생어의 형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씨와 풀이씨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름씨가 먼저 생겼으면, 나중에 풀이씨가 파생될 수도 있고, 반대로, 풀이씨가 먼저 생겼으면 필요에 따라서 풀이씨에 따른 이름씨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에 한가지로 어느 씨가 먼저 생겼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⁵⁾ 이런 점에서 영변화의 뿌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이름씨가 먼저 생겼다고 본다면, 이름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풀이씨가 먼저 생겼다면 풀이씨 뿌리에 ‘무형의 접사’가 붙어 이름씨나 어

3) 우리말에서는 영변화 현상은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방언에서는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4) 이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이름씨가 먼저 생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풀이씨가 먼저 생겼다는 견해이다.

5) Leech(1975), Semantic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pp. 202~203.에서는 역사적으로 파생은 어느 쪽으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휘 규칙은 쌍방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씨씨를 파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 보기를 들면, 아래와 같다.

- (20) ㄱ. 신- 신다, 되- 되다, 떠- 떠다, 봄/뽀- 봄다/뽀다
 ㄴ. 신다- 신, 되다- 되, 떠다- 떠, 봄다/뽀다- 봄/뽀
 ㄷ. 덜- 덜다, 바르-바르다, 살피-살피다

따위가 되는데, ㄱ.이나 ㄷ.의 과정으로 본다면 접미사가 통합되어 풀이씨가 된 것으로 보게 되어 앞의 자립·실질의 뿌리에 들게 되고, ㄴ.의 과정으로 본다면 풀이씨 뿌리에 ‘무형의 접사’가 붙어, 파생어의 뿌리는 실질성의 뿌리에 들게 되나, 여기에서는 단정을 지을 수 없어 개별적인 파생어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 (21) 신, 되, 떠, 봄 <---> 신다, 되다, 떠다, 뽀다
 덜, 살피 <---> 덜다, 살피다 따위

(21)도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바. 동족어 뿌리

동족어(cognate object)는 이름씨와 풀이씨 뿌리가 어원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며, 접미사는 주로 ‘-ㅁ’을 통합시켜 이름씨가 된 것을 말하는데,⁶⁾ 이름씨와 풀이씨의 관계는 부림말과 풀이말의 관계를 갖는다. 영변화도 어느 면에서는 이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는 접미사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처리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접미사가 ‘-ㅁ’인 것만을 이 범위 안에 넣어 다룬다.⁷⁾ 방언에서도 이러한 파생을 하는 말은 표준어에서 되는 것은 제주 방언에도 대부분 있다.

- (22) ㄱ. 담 - 다다, 짐 - 지다
 ㄴ. 잠 - 자다, 춤 - 추다, 삶 - 살다, 셈 - 세다

따위들인데, ㄱ.은 통어적인 구조로는 ‘부림+풀이’인데 파생된 이름씨는 대상이 되

6) 홍재성(1989), 한국어 자동사/타동사 구문의 구별과 사전, 동방학지 제 63호, pp. : 189~191)에서는 동족어의 목록 69개를 들고 있는데, 접미사는 ‘-기, -개, -이, -ㅁ’를 들고 있다.

7) 다른 형태의 것을 동족어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따로 다루었을 때 동족어의 접미사는 많아지고 다른 형태의 접미사들과 식별이 어려움이 있다.

었고, ㄴ.은 역시 같은 ‘부림+풀이’의 구조이지만 파생어는 풀이말의 행위를 이름씨화한 것이다.

3. 2. 파생 접미사의 설정 기준

이제까지 뿌리의 유형을 몇가지 점에서 살펴 보았는데, 이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파생 접미사의 설정 기준을 고찰하여 보면,⁸⁾

첫째는 의존성을 띠어야 한다. 만일에 의존성을 띠지 못하고 자립성을 띠면 접미사로서는 받아 들일 수가 없다. 의존성을 띠면서도 안으로는 어휘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립성이 있고, 어휘성을 지니면 그것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든지, 다른 낱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23) ㄱ. 침-바치가 온다.

ㄴ. *바치가 온다.

(23)에서 ㄱ.은 자립·실질성을 지니고 있어, 낱말로서 자유롭게 곡용이 이뤄지고, 또 바른 월이 되었지만, ㄴ.은 자립성도 없어서 낱말이 되지 못하고, 바른 월도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치’는 뿌리와 통합해서 파생어를 이루는 접미사가 된다.

둘째는 긴밀성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되어 새로운 낱말이 파생되었으므로 토씨나, 씨끝보다도 형태, 의미, 기능적으로 더 긴밀히 뿌리와 결합되어야 한다.⁹⁾ 만일 뿌리와 접사가 긴밀하게 통합되지 못했다면 구나 절, 그리고, 토

8) 고영근(1974), 앞의 책, p.27.에서는 접미사의 설정 기준으로 1. 의존성을 띠는 것. 2. 특수성을 띠는 것. 3. 어휘성을 띠는 것. 4. 조사나 어미와의 통합에 제약이 없을 것,을 들고 있다.

하치근(1989a), 앞의 책 pp.104~108.에서는 7가지의 접미사의 설정 기준을 들고 있다. 1. 조어력(파생력)이 있어야 한다. 2. 분포, 뜻, 기능상에 있어서 특수성을 띠어야 한다. 3. 의미상으로 상응하는 다른 말과의 교체가 가능하므로 어휘성이 있어야 한다. 4. 씨끝이나, 토씨와 통합에 있어서 제약이 없어야 한다. 5. 뿌리와 접미사 사이에는 분리성이 없어야 한다. 6. 의존성을 띠어야 한다. 7. 월 안에서 분명한 「임자-풀이」, 짜임새를 이루고 있으며 문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굴곡 접사이며, 어휘성이 파악되면 파생 접사이다. 라고 그 기준을 밝혔다.

9) 하치근(1987b), 국어 파생 형태론 연구, 언어와 언어 교육 제 2집, p.132에서 굴곡 접사는 문법적 범주를 표시하는 문법소(tagmeme)이고 파생 접사는 기본 요소를 확대시키는 의의소(lexeme)라고 했다.

씨나 씨끝과 구별을 할 수 없게 되고, 파생법의 설정 자체가 의의가 없어진다.

- (24) ㄱ. 돌-멩이, 봉그-쉬
 ㄴ. 가-다, 곱-다

(24)의 ㄱ.에는 두 성분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돌-큰-멩이, *돌-죽은-세기’ 따위는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ㄴ.에는 줄기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가-ㄴ-다’, ‘고오-왔-다’ 따위가 이뤄져서 파생 접미사보다는 긴밀성이 덜하다고 보아야 한다. ‘-멩이, -쉬’는 이렇기 때문에 접미사가 된다.

셋째는 어휘성을 지녀야 한다.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이 되어 새로운 낱말을 이루게 될 때, 접미사도 뿌리와 마찬가지로 어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낱말의 뜻에 보탬이 있어야 한다. 만일 접미사가 그러한 어휘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뿌리의 뜻만 있게 되므로, 씨끝이나 토씨와 다름이 없게 된다. 통합된 뿌리와 접미사의 뜻에서 접미사의 몫으로 다른 말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 (25) ㄱ. 돌-멩이, 두돌-에기, 놀-게/-게기
 ㄴ. 코-거리, 뿔-떼기, 앞-생기

(25)에서 ㄱ.의 ‘돌-멩이’는 그대로 돌의 뜻이 아니라, ‘작거나, 옮기는데 큰 힘이 들지 않는 돌’을 뜻한다. ㄴ.에서는 뿌리의 뜻에 ‘상황적인 뜻’만을 더하고 있지만 새로운 뜻을 만들고 있어서 접미사로 처리할 수 있다.

넷째는 파생 접미사는 어휘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 형태적으로는 토씨나, 씨끝과 통합이 자유로와야 하고, 뿌리와 통합해서 어휘적 기능의 범주를 이루어 월 성분으로서 능히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26) ㄱ. 득-겅이, 까-주-, 놀-게기
 ㄴ. 곱-닥-ㅎ-, 시-금-지-

(26)의 ㄱ.이나, ㄴ.에 파생어가 형성된 씨에 따라, ㄱ.은 굴곡 접사와 통합에 제약을 받지 않는 낱말로 쓰이고 있으며, ㄴ.은 뿌리가 일차 통합되고 나서 2차 통합은 제약을

받으나, 2차 통합이 되고 나서는 월 성분으로서도 제약 없이 통합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ㄱ.과 ㄴ.도 접미사로 처리하게 된다.

다섯째는 접미사는 분포, 뜻, 기능에서 특수성을 지녀야 한다. 같은 씨의 뿌리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뿌리가 있고, 통합이 되지 않은 뿌리가 있다. 만일 같은 씨의 뿌리에 빠짐없이 통합이 된다면 씨끝이나, 토씨와 구별이 어렵게 되고, 또 많은 어휘가 생겨나서 언어 생활이 도리어 덜 효과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파생어의 형성은 언어 경제의 가장 뛰어난 최대 최소의 원리의 하나로 보이기 때문이다.

- (27) ㄱ. ㄷㄹ-겐이, 붕그-쉬, 굶-앵이, 놀-게기
ㄴ. 가-ㄴ-, 보-ㄴ-, ㅎ-ㄴ-, 크-게, 좇-게
ㄷ. *밧-겐이, *줍-앵이, *발-게기

(27)에서 ㄱ.의 접미사들은 생산성이 높더라도 같은 조건의 뿌리 ㄷ.에는 통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ㄴ.은 주로 풀이씨 줄기에 거의 제약 없이 통합된다.¹⁰⁾ 그러므로, ㄱ.은 접미사로 처리되나, ㄴ.은 파생 접미사로는 처리할 수 없고, 굴곡 접미사로 처리하게 된다.

3.3. 굴곡 접미사와 파생 접미사

형태론은 활용 형태론과 어휘 형태론으로 나뉘어지는데, 굴곡 접미사는 전자에, 파생 접미사는 후자에 든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의존 형태소라는 점이고, 통시적으로 볼 때, 실사에서 변한 것도 있다는 점이다.¹¹⁾ 지금까지 이들의 분포되는 자리나 통합되고 나서의 의미면에서의 차이, 통어범주의 변화, 낱말로서의 성격의 차

10) 불완전 움직씨는 활용의 제약을 받는다.

11) 서태룡(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국어학회, p.21.에서의 굴곡접사로 쓰이는 형태소들이 통시적인 관점에서 실사에서 의존 형태소로 변천한 것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 왔다.¹²⁾ 이러한 입장에서 다루어지는 접미사는 의존 형태로서 국어에서는 파생 접미사와 굴곡 접미사, 그리고, 준굴곡 접미사로 나누어진다. 파생 접미사는 뿌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통어 범주를 바꾸는 것과, 파생어를 이루더라도 뿌리가 가진 통어 범주는 그대로 있으면서도 월에서 본래 있던 말과 대치되지 못하는 것이 있고, 통어 범주는 그대로 있으면서 뿌리가 가진 뜻에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그런데, 굴곡 접미사는 주로 풀이씨의 줄기에 붙어서, 이어지는 말과의 문법적인 기능만 할 뿐, 일체 씨를 바꾸는 일은 없다. 그리고, 준굴곡 접미사는 입자씨에 주로 붙어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 (28) ㄱ. 가-고, 가-서, 가-더라도.
 ㄴ. 책-이, 책-을, 있-음, 먹-기.
 ㄷ. 입-히-, 높-이-, 까-주-.

(28)에서 ㄱ.은 씨끝의 활용이고, ㄴ.은 곡용과 전성인데, 전성은 월성분의 변환을 가져오고, ㄷ.에서는 주로 어휘적 의미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셋은 의존 형태소로 뿌리나 줄기에 통합된다는 점이 일치하는 점인데, 의존 형태소라도 뿌리에 통합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의존 형태소 중에는 뿌리에 통합이 되지 않고 씨끝의 도움에 의해서 실질성을 획득하는 것도 있다. 소위 매인 이름씨는 그러한 부류에 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낱말을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도 볼 수도 있다.

12) 이석주(1989), 앞의 책, pp. 87~109.에서는 파생 접사와 굴곡 접사의 구별 기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학자들(Bloomfield, Bloch, Trager, Gaeng, Langacker, Nida, Stageberg)의 견해와, 우리 나라 학자(주시경, 최현배, 고영근, 허웅, 김석득)의 견해를 따로 수집, 나열하고 그를 통합하여 구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외국의 학자의 견해들은, 접사는 1. 내적 구성 경향, 2. 불규칙적으로 단어를 구성, 3. 대체로 단일어와 같은 외적 분포류에 속함, 4. 통어 범주를 바꿈, 5. 새 단어 형성에 참여, 6. 통계적으로 어미보다 수가 많음.을 들고 있고, 씨끝은 1. 외적 구성의 경향, 2. 규칙적으로 단어를 구성, 3. 단일어와 같은 외적 분포류에 속하지 않음, 4. 통어 범주를 바꾸지 못함, 5. 새 단어를 형성하지 못함, 6. 한 단어에 하나만 사용, 7. 통계적으로 접사보다 수가 적다.

우리 나라의 학자의 견해를 종합한 것을 보면, 접사는 1. 내적 구성의 경향, 2. 어근 대치의 한정성, 3. 통어 범주를 바꿈, 4. 새 단어 형성. 5. 기본 의미에 의미 첨가, 씨끝은 1. 외적 구성의 경향, 2. 어근 대치가 광범위 3. 통어 범주를 바꾸지 않음, 4. 새 단어를 형성하지 않음, 5. 문법적 의미 첨가. 따위를 들고 있다.

- (29) ㄱ. 갈 것, 먹을 수
 ㄴ. 간 이, 온 데

(29)의 ㄱ.에서 씨끝 ‘-르’ 뒤의 ‘것, 수’나 ㄴ.의 ‘-ㄴ’ 뒤의 ‘이, 데’ 따위가 있는데, ‘수, 이, 데’는 의존 형태소지만 뿌리에 통합되지는 않는다.

- (30) ㄱ. 지들-커, 방엿-귀, 턱-결이

(30)에서 ‘-커, -귀, -결이’ 따위는 관점에 따라서는 합성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파생어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파생 접미사와 굴곡 접미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 접미사는 굴곡 접미사보다는 통합에서 긴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¹³⁾ 그런데도, 이들의 구별이 어려운 이유는 먼저 형태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통합에 있어서 제약의 정도가 분명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실사에서 의존 형태소로 넘어오는 과정이 분명하지 못하여 이것의 상태가 단정적으로 선명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 (31) ㄱ. 방엿-귀, 귀-야덜
 ㄴ. 앞-의, 느-앞의

(31)의 ㄱ.에서는 ‘-귀’, ‘-야덜’은 통시적으로는 실사에서 의존 형태소로 넘어온 것이고, 다.의 ‘앞-의’는 통합에서 분리성이 인정되고, ‘느-앞의’에서는 같은 ‘앞의’라도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형태가 같은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대대로’에서 ‘-로’는 굴곡 접미사로도 쓰이고 파생 접미사로도 쓰이는 형태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형태는 같지만 다른 형태소로 보아 파생 접미사로도 쓰이고 굴곡 접미사로 쓰이는 형태소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남는다.

13) 하치근(1989b), 앞의 논문, p. 15.에서는 접미사가 갖춰야 할 조건은 1. 특정한 통어 범주에만 속하는 뿌리에만 붙어야 하고, 2. 특정한 통어 범주에 속하는 단어만을 파생하고, 3. 접미사가 가진 자질이 뿌리에 스며드는 자질 스며들기(percolation)작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
 조일규(1988), 국어 파생법과 한계, 언어와 언어교육 제 3집, pp. 104~110.에서 파생 가지의 특성으로 1. 의존성, 2. 어휘성, 3. 보충성, 4. 제한성, 5. 특수성으로 한계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피동·사동의 접사는 분포에 제약이 거의 없이 씨끝과 통합이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 지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이들을 선명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굴곡 접미사와 파생 접미사는 함께 의존 형태소로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같은 기능의 경우는 굴곡 접미사에서 문장 성분을 바꿀 때는 전성어미 ‘-ㅁ, -기, -은/-는’ 따위가 붙어서 다른 통어범주의 기능을 하게 하는 점에서는 접미사 ‘-ㅁ, -기, -은/-는’의 기능과는 같지만 품사 분류에서는 접미사와는 다르다.¹⁴⁾ 그리고, 접미사도 어떤 것은 본래 실사이던 것이 의존 형식으로 변한 것이 있는데, 굴곡 접미사도 이같은 것이 있다. 먼저 파생어부터 살펴 보면, ‘-부터’같은 것이다(허웅 ; 1975 : 81, 하치근 ; 1987 : 13). 방언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 ‘-ㄴ라’, ‘-신디’, ‘-드레/-디레’ 따위가 이런 범위에 드는 것들이다.¹⁵⁾ 굴곡 접미사도, ‘-면서’, ‘-으니’ 따위(서태룡 ; 1988 : 66)가 있고, 방언에서도 어원적으로 통어 범주가 다른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파생에 의해서 다른 통어 범주로 쓰이는 것들이 있다.¹⁶⁾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굴곡 접미사도 준굴곡 접미사(토씨)와 같이 파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굴곡 접미사와 파생접미사는 비슷한 점이 많다. 이 둘의 다른 점을 살펴 보자.¹⁷⁾

첫째, 뿌리와의 통합에서, 규칙성의 유무를 가지고 굴곡 접미사와 파생 접미사를

14) 심재기(1980), 명사화의 의미 기능, 언어 제 5권1호, p. 83.에서 전성명사와 동명사를 나누고 전성명사는 통사적 의미적 기능에 충실하나, 동명사는 명사적 특성과 동사적 특성을 공유하고, 전자가 일부의 동사 뿌리에 통합되는 반면 후자는 많은 움직씨 뿌리에 통합되는 점을 들고 있다.

15) 강근보(1977), 제주 방언의 접미사 연구, 논문집 제 9집, 제주대학, pp. 11~13.,

강영봉(1981), 제주도 방언의 후치사 연구, 제주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후치사로 다루고 있다.

16) 방언에서는 ‘하영, 족영’에서 ‘-영’은 씨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럴 때에는 접미사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17) 이 둘의 다른 점은 많은 연구 보고가 있다. 이것은 이 둘이 다른 점이 밝혀져야만 낱말의 분류나 사전의 편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로인 점도 있고, 더 나아가서 형태론의 정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하치근(1987 : 9~14)이 여러 방면에서 살펴 보고, 정리한 것이 있어서 원용하였다.

Bloomfield(1935 : 222~223), B.Bloch & Trager(1976 : 54~55, 김태한역), R.W. Langacker(1973 : 78~80). N.C.Stageberge(1981 : 92), Bauer(1983 : 28), J.L.

Bybee(1985:81) 허웅(1975 : 74~76), (1982 : 244~245), 이길록(1978 : 187~194), 강성일(1982 : 18~19), 김봉모(1984 : 17), 이석주(1989 : 87~103) 등이다.

나누고 있다. 앞엿것은 이러한 규칙이 있고, 뒤엿것은 없다. 이러한 것은 어형 변화표(paradigm)에 빈칸(gap)의 유무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굴곡 접미사는 뿌리와의 통합에 접미사보다 제약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파생 접미사는 이에 비해 훨씬 제약을 많이 받는다.

- (32) ㄱ. 먹-고, 자-고, 입-고, 불-고, 곴-고....
 ㄴ. 먹-히-, *자-히-, 입-히-, 불-히-, *곴-히-....
 ㄷ. 자-이우- 곴-게 하.

(32)에서, ㄱ.은 거의 빈 칸이 없는데, ㄴ.은 같은 형태의 접사지만, 통합에 제약을 받아 ㄷ.과 같은 다른 형태가 보충되든지 빈 칸이 생긴다.

둘째는 조어력의 유무를 가지고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은 통어범주를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에 따라서, 굴곡과 파생의 접미사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통어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도 있다.

- (33) ㄱ. 먹-거리, 두루-봉이, 넓-히-.
 ㄴ. 먹-히-, 들-질, 꿔-쉬.
 ㄷ. 일찍-앵이, 코-거리, 까-주-.
 ㄹ. 먹-었-다, 먹-는-다, 먹-더-라.

(33)에서 ㄱ.은 통어 범주를 바꾸고, ㄴ.은 통어 범주는 바꾸지 못했지만, 월에서 대치성 없이 어휘성을 지니고 있고, ㄷ.은 통어 범주는 바꾸지 못하나, 대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 비하면, ㄹ.은 문법적 기능만 담당하고 있어서, 앞의 ㄱ. ㄴ. ㄷ.과는 다르다. 그래서, ㄱ. ㄴ. ㄷ.의 ‘-거리, -히-, -앵이’ 따위는 파생 접미사가 되고, ㄹ.은 굴곡 접미사다.

셋째는 파생 접미사에는 어휘적인 뜻이 있어, 의미적으로 상응하는 자립성 있는 다른 말과 대치가 가능하나, 굴곡 접미사는 그렇지 못하다.¹⁸⁾

18) Bauer(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 p. 29.,

김봉모(1984), 국어 입음 움직씨 연구, 부산사대 어문교육논집 제 8 집, p. 17.,

하치근(1987a),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참조

- (34) ㄱ. -붕이, -다리, -이-.
 ㄴ. -더-, -왔-, -다.

(34)의 ㄱ.에 쓰인 것들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다. ‘-붕이’는 ‘모자란 사람’, ‘-다리’는 ‘사람이나 사물’의 뜻으로 쓰였고, ‘-이-’는 ‘하임·입음’의 뜻을 지니는데, ㄴ.은 굴곡의 범주를 이루는 바, 뜻이 있더라도 일정한 문법적 뜻만을 지니고 있다.

넷째, 굴곡 접미사는 월 속에서 다른 씨끝으로 바뀌 쓰더라도 뜻과 기능에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파생 접미사는 같은 뜻을 지닌 접미사로 바뀌 쓰기가 잘 되지 않고, 이은말이나, 다른 낱말로 대체된다.

- (35) ㄱ. 먹-고 : 먹-으면서, 먹-으나 : 먹-더라도.
 ㄴ. 먹-히- : 먹게 하-, 먹-기 : 먹는 것(일).

(35)의 ㄱ.에서는 두쪽의 씨끝을 바꿔 쓰더라도 뜻이나 기능에 큰 변동이 없지만, ㄴ.에서는 접사를 바꾸면 뜻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접사와 뿌리의 통합은 극히 제약적이다.

다섯째는 굴곡 접미사는 월 속에서 공기관계를 이루나, 파생 접미사는 꾸밈관계, 지배관계, 또한 바꿈관계를 이루는 것이 있다.

- (36) ㄱ. -면서 : -는다, -지 : 앓는다, -지 : 말라.
 ㄴ. 돌-챙이, 입-히-, 불-히-, 윈-다리.

(36)에서, ㄱ.의 씨끝은 풀이말과 월에서 공기관계를 이루나, ㄴ.에서는 꾸밈이나, 지배 관계만을 나타낸다.

여섯째, 굴곡 접미사는 연결되는 뿌리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나, 파생 접미사는 연결되는 뿌리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 불구뿌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 (37) ㄱ. 더블-, 가로-.
 ㄴ. 하임·입음의 접미사.

(37)에서 ㄱ.의 불완전 움직씨에는 씨끝의 통합이 제한적이나, 그외의 풀이씨에서는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ㄴ.의 하임·입음의 접미사도 많은 풀이씨 뿌리에 통합되

지만, 역시 제한적이다. ‘*가-이-, *오-이-, *가-히-, *오-히-’ 따위가 이뤄지지 않는다. 오직 장형 사동만 이루어질 뿐이다.

일곱째는 굴곡 접미사는 같은 씨의 뿌리에 거의 제한 없이 붙을 수 있음이 원칙인데, 파생 접미사는 씨가 다른 뿌리들을 취하는 일이 흔히 있다. 특히 우리말의 접미사는 단일 뿌리 가설(unitary base hypothesis)이 잘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⁹⁾

(38) ㄱ. 공-다리, 삭-다리, 원-다리, 역쉬-다리.

(38)에서 ‘-다리’ 접미사는 여러 뿌리에 통합되고 있다. 여러 뿌리에 통합되는 접미사는 우리말에는 많다.

여덟째, 파생 접미사와 굴곡 접미사가 한 뿌리에 겹칠 때에는 파생 접미사가 굴곡 접미사보다 앞에 분포된다(유목상 ; 1990 : 199).

(39) ㄱ. 입-히-더라도, 역-쉬-가, 입-히-시-더라도.

ㄴ. *입-더-히-, *입-시-히-더라도.

ㄷ. 원-다리, 아진-배기, 곱-닥-이, 멀-찍-이.

(39)의 ㄱ.에서는 접미사가 씨끝보다 앞에 통합되어서 바른 파생이 되었다. 그러나, ㄴ.과 같은 통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ㄷ.은 바른 파생이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앞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도 간접 통합이나, 겹뿌리의 설정은 유용하다. ㄷ.에서 ‘-ㄴ 다리, -ㄴ 배기’는 간접 통합으로, ‘-닥-, -찍-’은 뿌리에 통합되었을 때는 불완전 접미사가 되나, 일차 뿌리와 통합되고 나서 다시 뒤에 접미사와 통합되었을 때는 겹뿌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굴곡 접미사는 그 자체의 문법적인 뜻에 일관성이 있으나, 파생 접미사는 그 자체의 어휘적인 뜻에 일관성이 없다.

(40) ㄱ. -았-/-었-, -ㄴ다, -더-.

ㄴ. 공-다리, 역쉬-다리, 원-다리, 가-다리.

19) Aronoff(1976), Word-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1, p. 48.
Scalise(1987), Generative Morphology,(전상범역, 한신문화사), p. 178.

(40)에서, ㄱ.은 일정한 문법적인 뜻을 지니나, ㄴ.은 그렇지 못하다. 인칭, 사물, 동물명에 쓰여 뜻이 다르다.

열째, 굴곡 접미사는 계열에 빈 간이 없으면서도, 한정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으나, 파생²⁰⁾ 접미사는 개별적이고, 다양해서 정확한 숫자로 나타낼 수 없이 많다.

위에 든 차이점 외에도, 뜻에서의 의미적 관여성의 친소 정도와, 일반성의 유무, 그리고, 의미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이 두 접미사를 분별하는 기준을 세울 수도 있다. (이석주 : 1989).

3. 4. 파생 접미사의 양상

접미사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형태, 의미, 기능 및 생산성에 따른 유형과 동요 없이 본래 접미사와, 동요에 의한 접미사들을 살펴 보자.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많은 연구는 밝히고 있다.

3. 4. 1. 형태에 따라

가. 완전 접미사와 불완전 접미사

형태적 유형은 접미사가 갖춰야 할 요소들을 갖췄는 지에 따라서 완전 접미사(perfect suffixes)와 불완전 접미사(imperfect suffixes)로 나눌 수가 있다.²⁰⁾ 완전 접미사는 지배 접사로,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어휘성]), 접사의 성질로서, 의존 형태소임을 요구하는 것이고([+의존성]), 접사가 지닌 특성을 말함이다([+특수성]).²¹⁾ 그리고, 통합되는 씨끝의 종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제약성]). 이러한

20) 하치근(1988), 국어 파생 접미사의 유형 분류, 한글 제 199호, pp. 38~44.에서, 파생접사는 완전 접사와 불완전 접사로 나누고, 완전 접사는 [+어휘성] [+의존성] [+특수성] [−제약성]을, 불완전 접사에는 [+어휘성] [+의존성] [+특수성] [+제약성]을 들고 있다.

21) 고영근(1974), 앞의 책, pp. 17~21.에서는 뿌리와 접사의 통합에 따른 제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에서 완전 접미사를 들면 아래와 같다.(하치근 ; 1988 : 39)

- (41) ㄱ. {-스럽-} : -다. -ㄴ. -게. -ㄴ수록. -ㄴ데. -고. -지만.
 ㄴ. {-거리-} : -다. -ㄴ. -게. -ㄴ수록. -ㄴ데. -고. -지만.
 ㄷ. {-이-} : -다. -ㄴ. -게. -ㄴ수록. -ㄴ데. -고. -지만.

이처럼 씨끝과의 통합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 접미사라 한다. {-스럽-}이나 {-거리-}, {-이-}는 모두 [+의존성], [+특수성]과 [+어휘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약성]을 지닌다.

다음에 불완전 접미사의 보기를 들면, 아래와 같다.

- (42) ㄹ. {-쭉-} : 길쭉하다. {-으마룽-} : 늡으마룽하다.
 ㅁ. {-작-} : 넓작하다. {-직-} : 늡직하다.

(42)에서 이 접미사들도 다른 접미사와 같이 의존성, 어휘성, 특수성을 다 지니고 있지만,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되었을 때, ‘길쭉-, 늡으마룽-, 넓작-, 늡직-’과 같이 자립성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2차적 요소들(하- 따위)과도 통합에 있어서 극히 제약적인 것이다. 이렇게 뿌리와 1차적 접사가 통합된 형태에는, 자립성을 얻기 위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 하다’를 붙이거나, 반복이 가능한 ‘길쭉-’ 같은 것은 다시 되풀이 하여 ‘길쭉길쭉’의 형태로 만들어야 자립성을 얻을 수 있다.²²⁾ 그리고, 1차 접미사 뒤에 정상적인 씨끝이나, 토의 통합은 잘 안되는 것으로 보이나 도움 토는 붙는 일이 있다. ‘길쭉하다’에서 ‘-쭉-’과 같은 접미사를 불완전 접미사라 한다. 완전 접미사와 불완전 접미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파생 접미사 { 완전 접미사 : [+어휘성, +의존성, +특수성, -제약성]
 불완전 접미사 : [+어휘성, +의존성, +특수성, +제약성]

나. 맺음 접미사와 안맺음 접미사²³⁾

파생 접미사는 형태적으로 다시 맺음 접미사와 안맺음 접미사로 갈라 볼 수 있다.

22) 반복법에 의한 접미사는 불완전 접미사에서 제외시킨다.

23) 박지홍(1984), 우리 현대 말본, 과학사, p. 52.에서는 ‘맺음 뒷가지, 못맺음 뒷가지’로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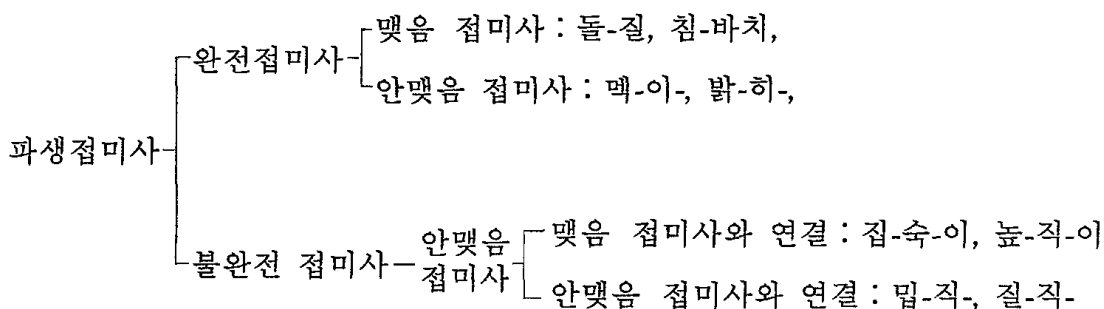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되고 나서, 파생어가 자립성을 가지고 낱말을 이루어 바로 토와 연결될 수 있을 때는 맺음 접미사이고, 자립성을 지니지 못하고, 풀이씨 줄기처럼 다른 요소와 더 통합이 되어야만 자립성을 얻게 되는 것을 안맺음 접미사라 한다. 보기를 들면 아래와 같다.

(43) ㄱ. 장들-뱅이, 바놓-질, 명-챙이/-챙이, 따-님.

ㄴ. 짚-숙-, 사랑-스럽-, 밭-직-, 곱-닥-, 들-콤-, 먹-이-.

(43) ㄱ.의 ‘-뱅이, -질, -챙이/-챙이, -님’ 따위는 모두 맺음 접미사로서 다음에 오는 토와 연결이 자유롭고, 다른 낱말과의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숙-, -스럽-, -직-, -닥-, -콤-, -이-’ 따위는 뿌리와 통합이 되더라도, 풀이씨의 줄기만 될 뿐, 온전한 파생어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사랑-스럽-’에서는 씨끝이 바로 붙을 수는 있지만, ‘사랑-스럽-’만으로는 의존 형태일 뿐 자립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안맺음 접미사가 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형태에 따른 접미사의 유형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완전 접미사는 2차적 요소(토씨나 씨끝)와의 통합이 자유로운 것을 가리키고, 불완전 접미사는 2차적 요소와의 통합이 극히 제한적인 것(하-, 지-, -이, 특수 도움 토씨 정도와만 통합)을 가리키고 있다.

3. 4. 2. 기능에 따라²⁴⁾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에 따른 여러 현상을 기능적인 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4) 접미사의 기능에 대한 다음 연구가 있다.

최현배(1971), 우리 말본, 정음사, pp. 659~660. ‘더러는 그 뜻을 더하며, 더러는 껌목을 바꾸며,

통합 전의 뿌리와 새로운 파생어 사이에서, 뿌리와 파생어의 그 기능의 다름을 가지고 보면, 접미사의 기능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뿌리에 뜻을 더하는지, 씨를 바꾸는지를 보고, 뜻만을 더하면 [+어휘성] 자질을 주고, 뿌리의 씨를 바꾸면 [+문법성] 자질을 준다. 이 때에는 파생어 자체에서 일어나는 접미사의 내적 기능이 되지만, 파생어도 월의 성분을 이룰 수 있으므로 월에서의 변화를 살펴서 접미사의 기능을 정할 수도 있다.²⁵⁾ 이때에는 접미사의 외적 기능이 되는데, 기능의 범위를 보면, 파생어의 월 성분과 뿌리의 월 성분이 서로 대치가 가능한 지에 따라 [+대치성] 자질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I 유형의 접미사 :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

I 유형의 접미사들은 뿌리와 통합되었을 때, 뿌리가 가지고 있던 씨를 바꾸지 못하고, 어휘성만을 더하는 접미사인데, 통어적으로는 뿌리의 성분의 자리에, 파생어의 대치도 불가능하게 하는 접미사이다.

- | | |
|-----------------------|--------------|
| (44) ㄱ. {-쟁이}(욕-,도독-) | ㄴ. {-질}(돌-) |
| ㄷ. {-팽창이}(코-) | ㄷ. {-푸데}(증-) |
| ㄹ. {-히}(입-) | ㅂ. {-기}(벗-) |

(44)에서 ㄱ. ~ㄷ.은 모두가 이름씨 뿌리로서, 접미사가 통합되어 파생어가 되었을 때에도, 역시 이름씨가 되었다. 이들은 본래 같은 이름씨이기 때문에 월 성분의 자리가 같을 수도 있지만, 이 파생어들은 같은 월 성분으로 대치가 불가능하다. 만일 월 성분의 대치가 가능해지려면, 뿌리와 호응(일치)하는 주변적인 요소가 새로 파생된 파생어와 일치하는 때라야 대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밖에도 움직씨 뿌리에 수여

더러는 말가락을 고루는 일을 하는 씨가지'라고 했다.

고영근(1974), 앞의 책, pp. 57~59.에서는, '加意的, 造語的'이라는 말 대신에, '語彙的과 統辭的'이라 바꾸어 부르려 한다고 했다.

하치근(1988), 앞의 논문, pp. 31~38.에서, 기능별 유형을 4유형으로 나누었다.

Hockett(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The MacMillan Co, p. 243은 접미사의 기능을 지배적 기능과 한정적 기능으로 나누었다.

- 25) 김석득(1971), 앞의 책, pp. 4~6.은, 접사 형태소는 한 단어의 구성 요소라는 견지에서 형태론이라는 독립된 단어에서만 논의할 수 없고, 형태, 통사적인 연구를 겸해야 한다고 했다. 접사는 형태론을 넘어 통사론의 영역으로 들어감으로써, 통사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접미사(-애-)가 통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ㄱ. ㅂ.은 움직씨 뿌리에 입음·하임의 접미사가 통합되어 다시 움직씨를 파생했지만 앞에서와 같이 대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게, 뿌리가 일치를 이루는 주변 요소들과 파생어가 요구하는 주변 요소가 다르다는 것은 뿌리와 파생어는 어휘적으로 다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월에서의 대치성을 보면,

- | | |
|---------------------|------------------------|
| (45) ㄱ. 그는 욕을 잘 한다. | (46) ㄱ. *그는 욕쟁이를 잘 한다. |
| ㄴ. 그는 줌을 잘 잔다. | ㄴ. *그는 줌푸대를 잘 한다. |
| ㄷ. 그는 아기를 안았다. | ㄷ. *그는 아기를 안기었다. |

(45)의 ㄱ. ㄴ. ㄷ.은 바른 월이 되었지만 (46)은 바른 월이 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보면, 파생어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휘성] 자질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위에 올린 접미사들은 I 유형의 접미사라 한다. 그리고, 특히 이름씨 뿌리에 통합된 접미사들은 대부분 실사의 수준에 이르러, 뿌리 없이 ‘-쟁이’나, ‘-쟁이’ 따위로 실생활에서도 쓰이는 일이 있어서, 준합성어를 파생한다. (고영근, 1974 : 9, 하치근, 1988 : 36)

나. II 유형의 접미사 :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

II 유형의 접미사는, 접미사와 통합되어 파생어를 이루었을 때, 파생어의 씨는 뿌리의 본래의 씨와는 다른 씨가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 물론, 이 때에는 월의 성분에서 씨가 다르므로 저절로 월 성분이 놓이는 자리가 달라서 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때문에 어휘성을 얻게 되고 아울러 문법성을 지니게 되는 것들이다. 보기를 들면, 아래와 같다.

- | | |
|-------------------------|-------------------|
| (46) ㄱ. {-스럼-}(스랑-, 복-) | ㄴ. {-롭-}(새-, 가소-) |
| ㄷ. {-답-}(고장-, 소나이-) | ㄹ. {-음-}(감치-, 놀-) |

(46)에서, 이들은 모두가 뿌리가 가지고 있는 씨를 파생어에서는 다른 씨로 만들고 있다. 즉, ㄱ., ㄷ.은 이름씨 뿌리에서 그림씨가 파생되었고, ㄴ.은 매김씨나 볼구 뿌리를 그림씨로, ㄹ.은 움직씨 뿌리를 이름씨로 파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성]

자질이 주어지고, 또한, 월에서는 [-대치성]이지만, 씨가 다르고, 새로운 뜻이 이루어졌으므로 [+어휘성]의 자질을 지닌다.

다. III유형의 접미사 :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

- (47) ㄱ. {-뱅이}(가난-, 아진-) ㄴ. {-쉬}(꽤-, 봉그-)
 ㄷ. {-질}(선생-, 빔-) ㄹ. {-미}(구들-, 꽤-)

(47)에서, 이들은 I 유형과 II유형의 접미사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가난-뱅이, 꽤-쉬, 빔-질, 구들-미’들은 이름씨 뿌리에 접미사가 붙어 역시 이름씨를 파생했지만 통어적으로는 [+대치성]을 얻지 못하고, [-문법성]만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I 유형 접미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풀이씨의 뿌리에 통합된 ‘아진-뱅이, 봉그-쉬, 꽤-미’에서는 같은 꼴의 접미사 ‘-뱅이, -쉬, -미’가 붙어서, 이름씨 뿌리에 통합되었을 때와 같은 의미 자질을 지닌 이름씨 파생어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II유형의 접미사의 기능과 같다. 다만, 이 접미사의 꼴은 같고, 의미 자질도 같은데, 어떨 때는 I 유형으로, 어떨 때는 II유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III유형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입음이나, 하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도 이 III유형에 들게 된다.

- (48) ㄱ.박다->박히다, 먹다->먹히다, 잡다->잡히다
 ㄴ.붓다->붓히다, 붓다->붓히다, 줍다->줍히다

따위인데, ㄱ.은 움직씨에서 접미사가 통합되더라도 파생어는 역시 움직씨가 되어 씨의 바꿈이 일어나지 않아, [+어휘성, -대치성, -문법성]의 자질을 지니고, ㄴ.에서는 그림씨 뿌리에 ‘-히-’ 접미사와 통합되어 움직씨를 파생하였다. 그래서 [+어휘성, -대치성, +문법성]의 자질을 지녔다. 그런데 이들 접미사 {-이-, -히-, -기-, -리-, -우-, -구-, -추-}들도, 움직씨에 붙거나, 그림씨에 붙거나, ‘동형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들을 같은 접미사로 보고 III유형의 접미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히-’를 ‘-히₁-, -히₂-’로 설정하고서 같은 형태이더라도 다른 접미사로 보면, 유형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라. IV 유형의 접미사 : [-어휘성²⁶⁾, -문법성, +대치성]

- (49) 가. {-따니}(딸-) 나. {-비}(아재-)
 다. {-다랗-}(높-) 르. {-닐-}(걷-다)

(49)는 이름씨 뿌리인 가., 나.에 접미사가 통합이 되어 파생어를 만들었을 때도 역시 파생 이름씨가 되었고, 다., 르.의 풀이씨 뿌리에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도 그림씨나, 움직씨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미사들은 [-문법성] 자질이 주어지게 되고, 통어적으로는 뿌리와 파생어의 씨가 다르지 않고 뿌리가 가지고 있던 주변 요소나 환경과도 일치된다. 뿌리가 놓였던 월 성분의 자리에 파생어를 놓더라도 바른 월이 된다는 점이 I, II, III 유형의 접미사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접미사는 [+대치성] 자질이 주어지고, 어휘적으로는 뿌리가 가지고 있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어휘성] 자질이 주어져서 IV 유형의 접미사로 가르게 된다.²⁷⁾

- (50) 가. 저 아이가 딸이냐? 저 아이가 딸네기냐?
 나. 그 이가 우리 아재다. 그 이가 우리 아재비이다.
 다. 저 집이 높다. 저 집이 높다랗다.
 르. 집 주위를 걷는다. 집 주위를 거닌다.²⁸⁾

(50)에서 앞에 쓰인 낱말과 뒤에 접미사가 통합된 파생어가 월 성분의 자리에 쓰이더라도 모두가 바른 월이 되었다. 이것은 접미사에 [+대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살펴 보았던 접미사의 유형을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하치근 : 1988 참조).

26) [-어휘성]은 지소, 비하, 강조, 정도 등의 감정적 요소를 더하는 보조적인 의미 자질이다. 뿌리에 [-어휘성]이 더해지면 뜻이 분화가 되지 않고, 뿌리와 꾸밈의 관계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자질도 통어적으로 대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어휘성]의 접미사로 보아야 한다.

27) 노대규 외(1987), 국어학 서설, 정음사, p. 205.에서는 이러한 파생어들을 어휘적으로 다른 별개의 단어로 보고 있다. 만일 별개의 낱말로 보게 되면 [-어휘성]에 이의가 생길 수 있다.

28) 최규일(1989), 한국어 어휘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닐-’을 접미사로 보고 있지 않다.

특 성 / 유 형	I	II	III	IV
어휘성(선택자질)	+	+	+	-
문법성(씨바꿈)	-	+	±	-
대치성	-	-	-	+

마. 그외의 접미사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 과정에서 이 위에서는 뿌리의 씨를 알고 접미사가 통합 되어 파생어를 만들 때만을 다루어서 얻어낸 유형의 분류인데, 불구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파생어가 문제로 남는다.

- (51) 가. {-덩이/-덩이} : (병-, 영-, 돌-) 나. {-쉬} : (죽-, 께-)
 다. {-개/-개} : (병-, 업-) 라. {-챙이/챙이} : (얼-, 돌-)

따위들이 있는데, ‘병-덩이(덩어리), 죽-쉬(미련한 사람), 병-개(모자란 사람), 얼-챙이/-챙이(토순이)’의 형태로 통합 파생되어 쓰이고 있다. 이들이 파생어라는 사실은 곁에 있는 ‘돌-덩이(돌덩이), 께-쉬(피가 있는 사람), 업-개(업저지), 돌-챙이(돌을 다루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가 파생어로 쓰이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 불구 뿌리들은 어느 시기까지는 실사로 쓰이다가, 이제는 그 씨도 알 수 없는 꼴이 된 것이다. 그러나, 파생어의 뜻을 미루어 보아, ‘돌-덩이’에서와 같이 뜻의 중심은 뿌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뿌리에 통합되는 접미사의 처리는 그리 쉽지는 않지만 일단 V 유형의 접미사로 처리해 둔다. 그 이유는 파생어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의미부를 이루게 되고,²⁹⁾ 거기에 접미사가 붙어 파생어를 만들기 때문이다. 만일 접미사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의미부라면, 이 불구 뿌리로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접두사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동형성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낱말의 뜻만을 보게 되면 단일어(simple word)로 볼 수도 있다(허웅 ; 1975 : 84-85).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분명한 씨를 알 수 없으므로 ‘?’의 자질로 처리하여 둔다.

29) 허웅(1975), 우리 옛말본 -형태론-, 샘문화사, pp. 84~85.에서 ‘외-롭-’에서 ‘외-’를 접두사로 보아 버리면 ‘-롭-’도 접미사이므로 이 말에는 뿌리가 없는 것이 되어서 곤란하므로 ‘외-’는 접두사로 볼 것이 아니라 뿌리로 보고 매김씨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3.4.3. 의미에 따라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 하나이다. 그런데, 의미에 대한 접근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³⁰⁾ 전통 문법,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주로 씨의 파생에 중점을 두고, 어휘적 파생어나, 통어적 파생어에 중점을 두어 뜻 파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변형 문법에서는 생산력에 의한 규칙 설정을 목표로 하여 의미 영역을 설정하여 의미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³¹⁾ 그리고, 통어적인 면에서의 고찰도 이루어지고 있다.³²⁾ 그러나, 파생어는 뜻을 나타내는 의미부와 문법적이나, 파생적 기능을 하는 형식부의 통합이기에, 그 통합이 개별적이고 제약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면이 있다.³³⁾ 그리고, 모든 통어범주를 따라 새로운 규칙을 설정해야 하는 점도 있다.

원래 뿌리도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접미사가 통합되었을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세가지 이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었을 때, 뿌리가 가지고 있던 의미에 접미사와의 통합으로 접사의 의미 성분을 더하면서도 파생어의 뜻은 본래 뿌리의 뜻에 주변적이거나 상황적인 뜻만을 이루는 수가 있고, 통어적으로도 월성분의 자리를 교체하지 않는 일도 있다. 둘째는 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에 변화를 주더라도, 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의 범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통어적 성분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염선모 ; 1987 : 21~27). 그리고 셋째는 뿌리와 접사의 통합으로 제 3의 뜻이 파생되어 단일어나 관용어적인 처지에 이른 것도 있다. 앞의 둘은 예측성 또는 투명의 자질³⁴⁾을 획득할 수 있고, 나중의 것은 비예측성 또는 불투

30) 김석득(1988), 앞의 논문.에서 구성요소의 뜻과 총합체의 뜻과의 관계에서, 파생어는 종속구조에 들며, 동심구조와 이심구조를 이루며 뜻은 $A+b \Rightarrow Ab \Rightarrow Ab$ 또는 $A+b \Rightarrow Ab$ 라고 하고 있다.

31) 하치근(1987,1988), 앞의 책.에서 인칭접미사의 유형을 존칭과 비칭으로 나누고, 다시 8가지로 하위 분류하였으며, 사물 접미사를 조각, 도구, 물건으로 나누었고, 행위 접미사는 4가지로 나누고 다시 6가지로 하위 분류하였으며, 상태 접미사를 상태 표현에서 4가지, 정의 표현에서 3가지로 나누어 정밀화시키고 있다.

32) 김석득(1971), 앞의 책.과 하치근(1987), 앞의 책.에서 형태론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통어론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33)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이 일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은 실정이어서 어떤 접미사가 어떤 자질의 뿌리에 통합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많은 예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많은 이들이 들고 있다.

34) 예측성이나 투명이란 용어는 뜻 파악에서의 직관에 중심을 두고 붙인 말이다.

명의 자질을 얻을 수 있다.

- (52) 가. 때-거지, 활-개, 득-갱이, 주먹-곡시
나. 낭-깨기, 불-경, 머리-꾸베기, 속-내
다. 놀-개기, 꺾-앵이, 남-제기,
르. 세-역, 비-바리, 지들-커, 고-소리

따위들인데, 가., 나., 다.은 모두 뜻의 파악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고, 르.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접미사를 의미 성분으로 보았을 때는 뿌리에 통합되어 파생어가 어떤 의미 성분으로 나뉘느냐에 따라 접미사의 의미 성분은 공통적 성분, 시차적 성분, 분류적 성분, 관계적 성분, 보조적 성분, 잉여적 성분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임지룡 ; 1990 : 109~113 참조). 그러나 이러한 성분적 분류는 파생어 하나 하나를 대상으로 시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접미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역시 경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³⁵⁾

이 논문에서는 뒤에서 다루어지는 파생어의 목록을 통해서, 의미 유형의 일곱 가지 (G. Leech ; 1974 : 10~27) 중에서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 정도나 다룬다.³⁶⁾

3.4.4. 씨에 따라

파생 접미사를 범주별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는 씨에 따른 분류로 모든 씨에 걸쳐, 파생 접미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접미사는 모두 하위 분류가 이뤄지는데, 주로 하위 분류는 뜻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이름씨 파생 접미사에 대해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하치근 ; 1989 : 123~303.참조)

35) 염선모(1987), 국어 의미론, 집문당, pp. 35~36.에서도 경계의 설정이 필요하나, 경계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36) 개념적 의미는 달리 외연적 의미(denotative meaning) 또는 인지적 의미(cognitive meaning)라고도 한다.

임지룡(1990), 의미 성분 분석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제 22호, p. 102.에서 의미의 구조적인 검토는 의미의 여러 차원 가운데 개념의미(conceptual meaning)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특히, 이름씨 파생 접미사는 주로, 인칭, 사물, 행위, 상태, 지소 접미사 따위로 나뉜다.

인칭 접미사를 다시 하위 분류했을 때는, 다시 존칭과 비칭으로 나뉘고, 다시 하위 분류를 시도하면, 존칭에는 계층적으로 나뉠 수 있으며, 비칭으로는 습관적, 신체적, 전문적, 지역적, 인격적, 애칭, 상황적 따위로 나뉜다. 사물 접미사를 하위 분류했을 때, 토막, 도구, 물건 등으로 분류되며, 행위 접미사는 다시 하위 분류하면, 동작성의 대상화, 실체성의 동작화, 상태성의 동작화, 동작성의 정밀화가 이뤄진다. 상태 접미사는 다시 상태 표현, 정의 표현 등으로 나뉜다.

움직씨 파생의 접미사는 주로, 입음, 하임, 강세, 수여 접미사로 하위 분류되고, 그림씨 파생의 접미사는 주로 정도성 접미사로 하위 분류된다.

움직씨나 그림씨 따위의 파생 접미사는 위에서 말한 정도의 하위 분류가 이뤄지고 있어서 더 하위 분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시각에 따라서는 복잡하게 하위 분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밀한 하위 분류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일반적인 분류에만 접근한다.

3. 5. 파생 접미사의 동요 (oscillation)

접미사를 보면 어떤 것은 순전한 접미사로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어원적(말뭉치)으로 다른 씨에서 온 것들도 있다. 그리고, 자립성이나 실질성을 지녔던 것이 자립성이나 실질성을 잃고 의존성만 파악되는 것도 있다. 순전한 접미사로 보이는 것에서는 별 이론이 없지만, 자립·실질 형태소에서 접미사의 자리로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접미사로 보기도 하고, 실사로 보기도 하여 단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³⁷⁾

동요 현상은 자립 형식과 접미사 사이에서는 문법화(grammaticalisation)와 비문법화(degrammaticalisation)의 두 현상을, 의존 형식 사이에서는 굴곡법과 파생법의 동요를

37) ‘-치기, -걸이’ 따위가 이런 대상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것을 접사로 보기도 하고, 달리는 실질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도 한다.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접미사가 뿌리와 유연성(motivation)을 잃고 뿌리에 융합되어 가는 일도 목격할 수 있다(고영근 ; 1974, 1989 : 587)

여기에서는 본래 접미사로 보이는 것은 제외하고, 다른 말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즉, 동요를 겪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살핀다.

접미사의 동요 현상의 결정은 낱말 만들기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동요하고 있는 말들을 어떤 규칙을 정하고서, 잘 처리를 했을 때, 파생어와 다른 종류의 말들과 혼란을 피할 수 있고, 또한 뚜렷한 파생어를 설정할 수가 있다. 우리말의 접미사 목록이 관점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를 가져 오고, 사전의 목록이 다른 것은 이 동요를 다룸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접미사의 동요에서는 실사가 어느 정도로 자립성이나, 실질성을 잃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의존성을 지니고 있을 때, 이 때의 처리가 어렵다. 이 때, 처리가 파생어가 되기도 하고, 합성어나 단일어가 되기도 하며, 아울러 씨의 분류도 또한 혼란을 불러 오기도 한다. 준합성어나, 준파생어를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고영근 ; 1974).

- (53) ㄱ. -기(내기), -(으)ㅁ(슬픔), -게(이렇게), -고(그리고), -(으)ㄴ (갖은),
-ㄴ고로(그런고로)
ㄴ. -까지(여태-), -까지로(그-), -로(진실-), -나(얼마-), -나마(이-), -대로
(마음)
ㄷ. 하다, 지다, 되다, 시키다
ㄹ. -님, -끼리, -들

(53)의 ㄱ.들은 씨끝이 굴곡 접미사로도, 파생 접미사로도 쓰이는 것이고, ㄴ.은 준 굴곡 접미사로도, 파생 접미사로도, ㄷ.과 통합된 낱말들에 대해서는 합성어로도, 파생어로 보기도 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굴곡 파생 형태론’을 설정하고 굴곡 파생 형태소로 처리하기도 한다(고영근 ; 1974 : 72, 하치근 ; 1990 : 49~56). 그리고, ㄷ.의 보기들을 많은 연구들은 실사로 보기도 하나 의존 형태소로 처리하기도 해서 어려움이 있다. ㄹ.은 보기에 따라서는 실사로도, 아니면 파생 접미사로 처리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동요를 가운데 놓고서 파생어가 되기도, 합성어가 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접미사로, 또는 토씨로, 아니면 매인 이름씨로 갈리기도 하니 동요에 따라 생기는 파생어에 대해서는 뿌리의 설정 기준이나, 접미사의 설정 기준의 적용이 요구된다.³⁸⁾

38) 이에 대한 전해는 김계곤(1968), 앞의 논문, p. 2., 고영근(1974), 앞의 책, pp. 69~79., 하치근(1988) 앞의 논문, p. 26.
홍사만(1985), 국어 어휘 의미 연구, 학문사, p. 201.에서도 나타나 있다.

4.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의 양상

4.1. 방언 파생어의 특징

표준어와 제주도 방언 파생어를 대비시켜 방언 파생어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어와 다른 체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생기는 현상을 살펴는 데는, 먼저 형태적인 면에서는 뿌리와 접미사로 나뉘 볼 수 있고, 통합에 따른 특징으로서는 형태 음소적 변동의 특징과 그리고, 낱말발 형성의 특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4.1.1. 형태적 특징

가. 뿌리의 특징

첫째는, 제주도 방언에는 고어의 잔영으로 볼 수 있는 어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어휘가 많은 것은 파생어의 뿌리로도 쓰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어의 뿌리도 고어의 잔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다. 몇 예를 들면,

(1) 눔-을, 눔-빠, 눔-세, 두르-겡이, 작지-왓, 아우-셈이

따위들이 있다.

둘째는 접받침 뿌리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 표준어에서 접받침으로 쓰이는 ‘앉-, 읽-, 닦-, 삶-, 뚫-, 낚-, 뭍-, 값-, 흙-, 취-, 여덟-, 닦-’ 따위와 ‘많-, 꿇-’이 방언에서는 ‘알-

1) 현평효(1964), 제주도 방언의 단모음 설정, 한국언어문학 2집.,

_____(1985), 제주도 방언 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pp. 387~453. 등

김광웅(1988), 제주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36~47. 방언의 특수 현상으로는 중화현상, 구개음화, 경음화, 유기음화 현상을 들고 있다.

익-, 답-, 돛-, 녀-, 목-, 갑-, 후-, 칩-, 여덟-/답-'으로 흘받침으로 이뤄지고,²⁾ '닿-, 꿇-, 은 뒤에 닿소리와 연결될 때는 겹받침으로 나타나지만 흘소리가 올 때에는 뒤의 'ㅎ'은 떨어진다.³⁾ 그렇기 때문에 파생어를 형성했을 때도 표준어의 파생어 형태와는 다른 꼴을 지니게 된다.

(2) ㄱ. 앓-앵이, 앓인-배기, 익-히-, 답-시리

ㄴ. 침전물, 앓은-뱅이, 읽-히-, -다듬게

셋째는 방언형의 뿌리가 있을 수 있다.⁴⁾ 통시적으로 말뚝(어원)을 제대로 밝힐 수 없거나, 어디에서 생겼는 지를 알 수 없는 형태의 말들이 방언에는 많다.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몇개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3) 쪼-영, 냉-가리, 간세-다리, 셈-토맥이, 간국-다리, 몰맹-다리, 출-래

넷째는 불구 뿌리가 많다. 불구 뿌리가 많다는 것은 표준어와 비교했을 때 사용되는 방언이 층위가 표준어와 다르거나 여러 층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된다.⁵⁾ 파생어의 불구 뿌리를 다루면서, 단일어로 처리하면 편리하고 쉬울 수 있는 것을 굳이 불구 뿌리를 설정하는 것은, 방언 사용자의 언어 인식으로는 단일어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구 뿌리의 보기를 들면,

(4) 땡-가리, 험-개미, 도-고리, 공-다리, 흑-곰

따위들이다. 이들에 통합되는 접미사에는 많은 변이 형태를 지니고 있거나, 접미사의 형태가 파생력이 높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다섯째는 풀이씨에서 그림씨와 움직씨로 함께 쓰이는 낱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어의 잔영이 많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림씨와 움직씨를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표준어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어느

2) 김광웅(1988), 위의 책, p. 54.에서는 자음군 탈락규칙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left[\begin{array}{c} C \\ +cor \end{array} \right] \rightarrow \emptyset / \left\{ \begin{array}{c} C \text{ —} \\ \text{—} C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c} \# \\ C \end{array} \right\}$$

(단, [+cor]인 자음끼리의 결합은 긴장도가 낮은 유음이 탈락)

3) 이러한 현상은 겹받침이 끝소리가 'ㅎ'일 때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4) 방언형으로 재구된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5) 현평효(1985, 1987), 앞의 책, p. 107.에서 여러 층위가 어우러져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도 적용이 되지만 방언 특유의 방법에 의해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ㄴ, -ㄴ’을 줄기에 통합시켜 놓고,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림씨로, ‘-ㅁ, -ㅁ’을 대입시켜 보아 이뤄지면 움직씨로, 둘 다가 이뤄지면 두 씨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보기를 들면,

(5) ㄱ. 얹은 얹은(심한 곱보의 상태), 굵은 굵은(심하게 굵은), 는 는(늘-), 눈 눈(늘은)

ㄴ. 엮음 엮음(엮어 매는), 굵음 굵음(꾸벅 꾸벅하는), 늠늠(늘-음 늘-음), 늠 늠(쌓음 쌓음)

따위로 같은 형태의 줄기가 통합되는 씨끝의 다름으로 두 개의 씨로 갈리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씨끝과 통합되지 않았을 때는 씨 가름이 쉽지 않고, 두 개의 씨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말이 방언에서는 더러 있다.

여섯째는 이름씨와 매김씨로 쓰이는 것이 있다.⁶⁾ ‘새(新)-, 웨(孤)’ 따위이다. 이는 방언에서 주로 매김씨로도 쓰이고, 이름씨로 쓰인다.

(6) ㄱ. 새 것, 웨 것

ㄴ. 새로 둘렁 쓰라.(새것으로 해서 쓰라.)

웨로 쓰라.(날개로 써라.)

(6)에서 ㄱ.은 매김씨인데, ㄴ.의 ‘새로, 웨로’의 형태는 표준어의 인식으로는 파생어씨씨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문헌어에서나, 방언에서는 그 뜻으로는 이름씨다(허웅 ; 1975 : 980, 고영근 ; 1987 : 141). ‘새로 산 책(책), 새로 ㅎ라’에서 ‘새로’와는 다른 것이다.

일곱째는 표준어에서는 파생어로 처리하고 있는 형태가, 방언에서는 파생어로 다루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답다, -긋다, -웃이(-없이)’ 따위는 방언에서는 훌륭한 자립실사로서 세력을 가지고 쓰이고 있다.

(7) ㄱ. 아방 답다.(아버지를 닮았다.), 꽃 답다.(꽃을 닮았다.)

ㄴ. 긋인 물(더러운 물), 모양이 긋다.(모양이 나쁘다.)

ㄷ. 으시대기다(없애다), 집 으시도 살아진다.(집 없이도 살 수 있다.)

6) 이런 현상도 일종의 영변화 파생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은 영변화에 넣지 않았다.

(7)의 ㄱ., ㄴ.은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ㄷ.은 ‘으시’는 표준어 ‘없이’에 대응되는 것인데 방언에서는 풀이씨나 파생 어찌씨로 쓰이고 있어서 실사이다.

여덟째는 음운교체로 인한 변이형태가 많다. 특히 방언에는 /ㄹ/가 쓰임으로 해서 표준어보다 더 많은 내적 파생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8) ㄱ.가물가물, 거물거물, ㄴ물ㄴ물
 ㄴ.민-닥-ㅎ-, 문-닥-ㅎ-

따위로 ㄱ.에서는 /ㄹ/가 더 있어서 뿌리나, 접미사의 형태가 더 복잡한 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ㄴ.에서는 홀소리의 교체로 뜻의 분화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일어나서 그 뿌리의 설정이 어려움을 겪게도 된다. 단순한 홀소리의 교체가 변이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홀소리의 다름으로 완전한 다른 뿌리로 보이기도 한다. 뜻으로는 유연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ㄹ/는 홀홀소리로서 어느 음과도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양한 변이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아홉째는 ‘몽글다, 둥글다’ 따위가 있어서 어휘적으로도 그 뜻의 다양하게 쓰이는 점을 들 수 있다. ‘몽글다’는 표준어로 ‘뚫다’인데, 방언의 뜻으로는 ‘굴러 먹다’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고, ‘둥글다’는 표준어와는 같은 뜻으로 쓰이나, 그외의 뜻으로는 역시 ‘굴러 먹다’의 뜻으로도 쓰여서 표준어어의 ‘뚫글다’의 뜻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뜻으로 보았을 때는 두 개의 씨로 갈리고 있다. 하나는 그림씨이고, 나머지 하나는 움직씨로 쓰여서, 같은 형태를 다른 말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같은 형태로서 다른 씨로 분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지 어려움이 있는 특징도 있다.

열째는 표준어에서는 그 말미를 캐기가 어려운 것들도 방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추정이 가능한 것들을 더러 발견할 수 있는 점도 있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따위는 말미를 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방언을 통해서 보면 ‘돛다’가 ‘돛돛ㅎ다’, ‘족다’가 ‘족족ㅎ다’ 따위로 쓰이는 점에서 보면 ‘갑갑하다, 답답하다’도 원래는 ‘*갑다, 답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방언에는 ‘가슴이 답다’로 쓰이는 ‘답다’의 형태가 나온다. 이것은 표준어의 ‘답답하다’의 말미가 되기에 충분하다. 방언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이 특징이다.

나. 접미사의 특징

방언이기 때문에 실사로 쓰이던 것인데도 접미사로 처리되는 것도 있다. 이것은 표준어와 접맥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언어의 능력이나, 사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한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본다.⁷⁾

첫째는 방언적인 접미사의 형태가 많다. 표준어와 같은 형태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지만 표준어의 접미사와 목록을 비교할 때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준어가 파생어를 가지고 있을 때, 방언에서는 파생어가 없을 수도 있으며,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사다리’같은 것은 표준어에서는 단일어로 처리하고 있으나, 방언의 시각에서는 ‘사-’나 ‘다리’는 분명한 실사로 보여 합성어로 처리해야 하고, 방언에서는 그에 대응되는 방언형은 ‘산-테, 사-드레’로 파생어가 된다. 뿌리 ‘사-’는 방언에서는 그 뜻이 ‘서-(立)’여서 형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접미사 ‘-다리’도 ‘다리(橋)’로서 방언 인식으로는 ‘선 다리’로 보여 뜻의 유연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언에서의 파생어의 형태는 다르다. ‘-테, -드레’는 형태적으로도 ‘-다리’와 유연성을 잃고 있어 접미사로 처리될 수 있다.

둘째는 입음·하임의 접미사의 형태가 다양하고 많다. 표준어에서는 ‘-이-, -히-, -기-, -리-, -우-, -구-, -추-’ 정도이나, 방언에서는 이와같은 형태 외에도 ‘-에기-(긋-), -지-, -후-’ 따위가 더 있다.

(9) ㄱ. 긋-에기-/에기-(긋게 하-), 입-지-(입히-), 굳-후-(굳게 하-)

(9)의 보기에서도 나타났듯이 ‘-에기-, -지-, -후-’ 들은 입음·하임의 접미사이다. 그런데, ‘-에기-/에기-’는 형태적으로 ‘-적이-/쩍이-’와 유연성이 있어 보인다. ‘긋-적이/쩍이-’는 ‘구제기-’인데, ‘꾸제기다’로 실현된다. 만일, ‘-적이-/쩍이-’와 유연성이 있다면, ‘긋-적이-, 옥-적이-, *빔-적이-’ 따위에서 뿌리 ‘옥-, *빔-’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에는 입음·하임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동작이 반복성을 드

7) 일종의 동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으로 방언이기에 실사가 접미사로 처리되는 것이 표준어에서보다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바위’같은 것은 방언의 처지에서는 훌륭한 실사이지만, 방언 사용자들도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형태나 대응어 자체도 다른 꼴로 나타나므로 동요의 접미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러내고 있다. 그런데, ‘궂-에기-’에서도 동작의 반복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셋째는 표준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도오(돕-)-애-(도와 주-), 덜-애-(덜어 주-)’의 형태가 있다. 이것은 그 뜻과 기능으로 봐서 수여 접미사라 할 만하다. 그러나 분포는 그리 넓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변이 형태라고 할만한 ‘도오(돕-)-앰-ㅎ-, 덜-앰-ㅎ-’가 있다. 이런 형태는 표준어에서는 단일어로는 대응되는 형태를 찾을 수가 없다. 방언에서 그 쓰임을 보면,

- (10) ㄱ. 줌을 덜-애다.(짐을 덜어 주다.), 일을 덜-애다.(일을 덜어주다.)
ㄴ. 손을 도오-애다.(손을 도와 주다.), 일을 도앰다.(일을 도와주다.)

(10)에서는 ‘-애-’ 접미사는 수여 접미사로 쓰였다. 그런데, ‘덜-애-다’에서 다른 뜻으로 쓰이는 일도 발견된다.

- (11) ㄱ. 줌을 덜-애-다.(어떤 연유로 해서 잠을 잘 자지 못했다.)
ㄴ. 늘-애-다(더 늘도록 했다)

(11)의 ㄱ., ㄴ.을 보면, ‘-애-’ 접미사에는 ‘수여’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음·하임의 뜻도 있고 다른 뜻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애-’ 접미사는 현재로서는 파생력도 약한 접미사지만 통시적으로는 여러 뜻으로 썼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수여 접미사의 뜻으로 변이 형태로 볼 수 있는 ‘-앰-’⁸⁾ 접미사는 뒤에 반드시 ‘ㅎ-’와만 통합되는 극히 제한적인 접미사지만 ‘수여’의 뜻을 드러내는 제주 방언의 고유 접미사이다.

- (12) ㄱ. 손 도앰흔다.(일손을 도와 주고 있다.)
ㄴ. 일 덜앰져.(일을 덜어 주고 있다.)

로 쓰인다. 그리고, ‘줌 덜앰져’는 ‘잠을 어떤 연유로 덜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때에는 ‘ㅎ-’가 나타나지 않으나 ‘ㅎ앰-’의 형태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8) 이러한 형태는 능엄경언해나, 월인석보에 쓰인 ‘나삼 들다’(1: 21)나, ‘나담나다’(10: 49) 따위의 ‘-앰-’과 일치하는 형태로 보인다. 방언 형태는 umlaut의 영향으로 ‘-앰-/-앰-’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월에서도 구체적인 대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어떤 봉사’를 전제로 해서 쓰여져서 ‘수여’의 뜻이 예측된다.

넷째는 <정도성> 접미사가 많다. 물론 표준어에도 많은 것으로 보이나 방언에서는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으’가 더 있으므로 더 다양한 형태의 접미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다섯째는 <잉여성> 접미사가 많다. 통어적으로 [+대치성]을 지닌 접미사들로서 뿌리의 형태에 안정된 파생어를 만들거나 뜻에서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환경적 의미를 보태는 기능을 한다.

여섯째는 변이 형태가 다양한 편이다.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다양한 변이 형태를 지니고 있다.

- (13) ㄱ. 곱-닥-하다, 곱-들락-하다, 곱-드글락-하다.
 ㄴ. 민-딱-하다, 민-들락-하다, 민드글락-하다,
 ㄷ. 꺾-앵이, 꺾-으쟁이, 꺾-갱이
 ㄹ. 시추-렁-하다, 시추-그렁-하다, 시추-그랑-하다

따위로 나타나서 방언적 특성을 더하고 있다.

일곱째는 다양한 형태의 강세 접미사를 가지고 있다. 표준어에서는 몇 안되지만 방언에서는 ‘-ㄱ-, -(으)대기-, -뜨-, -수-, -싸-/썰-, -쓰-, -아리-, -웁-, -치-’ 따위의 접미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 쓰이는 보기를 들면,

- (14) 문자-ㄱ-다, 거두-대기-다, 누르-뜨-다, 깨-수-다, 베르-싸-다, 세-아리-다, 건-웁-다, 거리-치-다

따위들이다.

여덟째는 ‘사-/살-념, 노-념’ 따위의 접미사 ‘-념’이 동족 목적어 접미사의 형태로 쓰이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파생어들은 ‘사념/살념을 살다(살림을 살다), 사-/살-념사리(살림살이), 노념노리(놀이), 노념하다(놀이하다)’ 따위로 표준어와는 다른 형태

9) 필자(1989c), 제주도 방언 파생 접미사 연구(III), 심전 김홍식교수 회갑기념논총, pp. 167~194.에서 그림씨 뿌리에서만 파생되는 접미사의 목록을 작성한 결과 정도의 높음 48개, 정도의 낮음 28개, 정도의 같음 3개 등을 고찰한 일이 있다.

의 접미사로 볼 수 있고, 다른 파생어의 형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접미사는 통시적으로 보고, 형태 분석을 할 때, 어찌꼴 씨꼴 ‘-아/-어’에 ‘-ㅁ’이 통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살리-어-ㅁ, 놀리(또는 놀-닐-어-ㅁ)-어-ㅁ’에서 여러 형태가 공시적으로는 통합되어서 ‘사-/살-념, 노-념’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시적으로 볼 때 ‘노-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사념/살념’의 경우는 두 형태가 비슷한 세력으로 쓰이고 있어서 대표 형태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4.1.2. 통합에 따른 특징

가. 형태 음소적 변동의 특징

첫째는 받침으로 쓰인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 표준어의 규칙과 다른 점이 있다. 표준어 파생어에서는 /ㄹ/받침이 탈락하는 형태들이 방언에서는 탈락하지 않는 것들이 더러 있다. 방언에서도 /ㄹ/받침이 ‘ㅅ, ㄴ, ㅂ, ㅈ’ 앞에서 수의적으로 탈락하기는 하지만 표준어의 규칙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파생어나 합성어의 그 보기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5) ㄱ. ㄱ을-내냥(가으내), 저술-내냥(겨우내), 하늘-님, 아들-님, 돌-님, 지우룻지
우룻(기웃기웃), 지웃지웃¹⁰⁾
ㄴ. 날날이, 돌돌이, 쫄장시(짜장사),

(15)의 ㄱ.은 파생어로 표준어에서 받침 /ㄹ/이 떨어지는 보기이고, ㄴ.은 합성어로 앞의 받침 /ㄹ/이 표준어에서는 떨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방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어긋나는 점이 있음도 한 특징이 될 수 있다. 특이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노-토매(놀며 지내는 아이)’는 표준어의 /ㄹ/탈락 규칙에 위배되는 현상도 나타난다.¹¹⁾

그리고, 파생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표준어에서는 겹받침에 /ㄹ/이 개입되었을 때, 주로 /ㄹ/이 발음되지만 방언에서는 /ㄹ/이 떨어지고 그 뒤의 소리가 발음되는 현상도 표준어와 다른 점이다. 표준어와 대비시켰을 때 방언에서는 ‘끓은-쟁

10) 방언에는 ‘지우룻지우룻’과 ‘지웃지웃’의 두 형태가 쓰이는데, ‘-웃’ 접미사의 통합에 의한 /으/의 개입과, /ㄹ/ 탈락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송철의(1977), 앞의 논문, p. 61.의 ‘-tense’로 규칙에 어긋난다.

이'가 '구문-쟁이'로, '뚫'이 '뚫'으로, '읽히다'가 '익히다'로, '넙-작-ㅎ-다'가 '넙-작-ㅎ다'로 된다. 그런데, '넙-직-ㅎ다'에서는 '넙-직-ㅎ-'로 발음되어 앞의 '넙-작-ㅎ-'와는 다르다.

둘째는 /ㄷ/ <---> /ㄹ/ 현상이 표준어와 다른 점이 있다.

'덧-세'가 '털-세'로, '저물다'의 영변화가 '즈뭇'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ㄴ'이 덧난 통합이 많다. 표준어에서도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따위가 있기는 하나 방언에서만은 수에서 모자란다. 방언의 이러한 형태는 '중이, 송애기, 몽생이, 가쟁이, 올랭이, 버랭이, 주녕이' 따위들이다. 이러한 파생어는 형태 분석에서 어려움을 주기는 하나, 방언이 도리어 표준어보다 더 비음성의 자질을 가진 소리의 사용이 다양한 편이라 할 수 있다.¹²⁾

넷째는 /ㅁ/ 탈락이 심한 편이다. 표준어의 규칙대로 그러한 조건에서는 다 이뤄지지만 그 규칙 이외에 /ㄹ/이나, /ㅣ/모음 뒤에서 /ㅁ/이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합성어에서 많이 보이지만 '혼란스런 합성어'일 때는 동요현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 파생어로 다룰 수도 있다.

(16) ㄱ. 대-왓, 보리-왓, 쇠(牛)-왕, 방의-왕, 보리-압, 대-오리.

ㄴ. 물-왓(물밭), 술-오리(살보리), 갈리(갈비).

따위이다.

다섯째는 사잇소리로 ㅅ과 ㅎ이 개입되는 일이 많다.¹³⁾

/ㅎ/이 형태소 경계에 개입되는 것은 방언의 특징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간접 통합에 드는 파생어나, 합성어들 중에 이러한 현상이 많다. 그런데, 'ㅎ'개입과 같은 특이한 현상이 있으므로 형태와 뜻이 유연성을 잃게 되어 접미사로 처리해야하는 일도 있게 된다. '지들-커'에서는 '-커'는 '-ㅎ 거'로 분석되어 '거'는 방언형 매인 이름씨인데, 'ㅎ'과 통합되므로 형태적으로 유연성을 잃고 있어서 접미사로 처리해야

12) 현평효(1985), 앞의 책, p.414.에서 이름씨에 덧붙은 것을 12개, 축소사에 붙은 것을 16개, 그의 예도 그림씨나, 어찌씨에 붙은 것을 열거하고 있다.

김홍식(1979), 앞의 논문, pp.51~65.에서 /-ㄴ/을 대표형태로 보고, 'a, o, u, ə'에 덧붙은 꼴들을 변이형태로 보고 있다.

13) 현용준(1956), 'ㅎ' 삼요음에 대하여, 제주문화 1.에서 그 특징을 지적한 일이 있고, 필자(1982), 'ㅎ' 개입에 관한 고찰.에서도 이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도 ‘-커’를 접미사로 다루고 있다.

(17) ㄱ. 비-차락(빗자루), 지들-커(떨감), 돌-챙이(석수장이)

ㄴ. 머릿-박, 방엿-귀, 낫-개미, 인삿-성, 컷-바위

ㄷ. 뒤-침, 조-팔, 누물-팔, 하나-토, 무털-크를

(17) ㄱ. 과 ㄴ.은 모두가 파생어에서 /ㅎ/과 /ㅅ/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올린 것이고, ㄷ.은 합성어에서 /ㅎ/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올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도 표준어의 파생어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인다. 이 때에 파생어에서 ‘ㅎ’이 개입된 간접 통합으로 다룰 때 표준어의 시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덧나는 ‘ㅎ’을 문헌어 ‘ㅎ곡용’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들-커’에서는 ‘지들-’은 이름씨가 아니라, 움직씨 ‘질-’에 ‘-크’씨끝이 통합된 형태로 ‘ㅎ곡용’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번-애(함께), 고단(고장), 버르쟁이’ 따위가 있다. ‘버르쟁이’는 표준어 사전에서도 ‘버르장이, 버르장-머리’로 올라 있지만, 형태 분석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는다.

‘번-, 곧-’은 통시적으로는 나타나지만 공시적으로는 ‘벗(友)-, 곳(處)-’으로 보이는데 접미사와 통합되면서는 ‘ㅅ’이 ‘ㄷ’으로 발음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표준어에서 받침규칙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ㅅ, ㅈ, ㄷ’은 서로 넘나들이 있었다는 견해를 따라야 할 지는 의심스럽다. 다만, 방언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올려 뒀다.

나. 낱말발 형성의 특징

첫째는 낱말발 형성의 특징을 들 수가 있다. 한 뿌리에 접미사를 교체함으로써 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파생어를 만드는 일이 있다. ‘누물(배추), 늪배(무우), 늪새(채소의 총칭)’에서는 ‘늪-’이 채소류의 뿌리로 나타나고, ‘아지방, 하르방, 아지방, 할망’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갈린다. 이들 말에서 ‘-방’은 남성 파생어의 접미사로 ‘-망’은 여성 파생어 접미사로 나뉜다. 그리고, 표준어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을 접두사로 보겠지만 방언의 입장에서는 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할-’을 접두사로 보았을 때는 ‘-방, -망’이 접미사이므로 뿌리가 없는 파생어가 되어 파생어 형성

규칙에 어긋난다.

둘째는 ‘-을락/-을내기’와 ‘-음재기/-음작’ 따위의 접미사가 있어서 분포에 거의 제약없이 움작씨 뿌리에 통합되는 접미사도 있다. 이러한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파생어는 ‘경기’나 ‘내기’의 뜻을 항상 나타낸다.

- (18) ㄱ. 둘을-락/들을-내기, 먹을-락/먹을-내기, 곱을-락/곱을-내기,
 걸을-락/걸을- 내기
 ㄴ. 들음-재기/ 들음-작, 곱음-재기/곱음-작, *걸음-재기/*걸음-작,
 *먹음-재기/먹음-작

(18)에서 ‘-을락/-을내기’가 ‘-음작/-음재기’보다는 더 생산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에서는 이와같은 뜻의 접미사로 ‘-내기’가 있는데 이름씨 뿌리나, 이름씨끝과 통합된 형태와만 통합되는 특징을 지니는데, 방언 접미사들은 풀이씨 줄기에만 붙는다고 할 수 있다. 방언에서도 움작씨에서 파생된 이름씨 뿌리에 통합된 ‘먹기-내기’ 따위가 쓰이기는 하는데 이는 표준어에 유추된 현상으로 보이고, 방언형은 ‘먹을-내기, 먹을-락’으로 보인다. 통시적으로 본다면 ‘들-을-내기’에서 ‘-을/-를’을 이름씨끝으로 볼 수 있지만, 공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셋째는 실사와 의존 형태소의 통합으로 다시 의존형태소를 파생하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실사 뿌리에 굴곡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뤄지는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19) ㄱ. 더-레, 굴-아, 앞-의
 ㄴ. 신-디

따위들인데 이들은 공시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통시적으로 보더라도 방언 사용자의 인식으로는 ㄱ.은 실사와 굴곡 접사의 통합이고 ㄴ.은 실사와 실사, 아니면 굴곡 접사와의 통합으로 복잡하게 얽힌 파생어다. 그러나, 이들은 토씨로 쓰여 의존 형태를 파생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런데, ‘굴-아’의 형태에는 표준어의 ‘가로다’라는 불완전 움작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방언의 기본 형태는 ‘굴다’이다. 방언에서는 다만 ‘ㄷ’ 불규칙으로 쓰일 뿐 씨끝 바꿈에는 어떤 제약도 받음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표준어의 형태가 불완전한 형태를 기본형으로 삼고 있다.

넷째는 영변화에 의한 파생이 표준어에서보다 많고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어에서도 나타나는데, 파생으로서 영변화가 어느 이른 시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파생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 2. 이름씨 파생의 양상

이름씨 파생의 양상을 살펴 보면,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름씨를 이루는 것은 모두 이 범주에 든다. 이러한 뿌리는 비교적 그 분포가 넓어서, 이름씨, 풀이씨, 어찌씨 뿌리(상징 뿌리 포함), 그리고 불구 뿌리가 있다.

이름씨 파생의 접미사는 형태적으로는 이른바 인칭 접미사, 사물 접미사, 행위 접미사로 불리는 ‘-쟁이, -질, -다리, -앵이 따위들이 대표적이거나, 그 외에도 많이 있는 편이다. 이들의 파생어를 목록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4. 2. 1. 접미사 목록

가. 이름씨 뿌리 + IV 유형 접미사

ㄱ. 직접 통합

-거리 : 코-(올가미, 그 외에도 매듭의 뜻으로도 쓰임) -거지 : 떼-(떼-) -갈 : 적-
-깔이 : 눈- -개/-게 : 활- -갱이/-갱이 : 득르-(자그마한 발 -랭이 : 돌), 꽃- -겻디 : 뱃(뱃, 뱃) -갱이/-갱이 : 개지-/가지-(바리 두껍) -곡시/-곡지 : 주먹-(주먹의 힘줄 말) -꽃 : 노-(새끼줄), 못-(쇠못) -꼬지 : 못-(못) -글래기 : 코-(올가미)

-기 : 궁-(구멍), 가매-(가마니), 놀개-(날개, 지느러미), 입술-(입술), 푸깨-(파리) -폼 데기 : 손-, 발-(손, 발의 낮은 말)

-내미 : 정-(정나미) -영/-녕 : 겹-(전복 껍질) -다귀/-데기 : 빼얌-/빼야당-(뺨) -닥 : 북-(입성) -다시 : 풀-(팔) -닥산이 : 철-(철) -대/-팔 : 누-(놀) -데가리 : 귀인-(귀

인성의 낮은 말) -대강이 : 철-(헤아림), 귀인 -(귀인성의 낮은 말) -데기 : 봉-(봉우리) -댕이 : 꽃-(끝), 등-, 흙- -도리 : 테-(테) -따리 : 등-(등), 포- -떼기 : 벨-(성깔) -둥이 : 모-(실꾸리) -둥이 : 굽-(밑둥) -때기 : 포-(보따리) -똥이/-똥이 : 몸- -덕 : 엉-(힘한 바위 밑)

-마기/-매기 : 굴투-(굴퇘, 심술), 모-(모서리) -망데기 : 불-(불따기)

-머리 : 말-, 성깔-(성깔머리), 심술-, 심정-(심술-), 속알-, 주변-, 채신-, 일성-(일성머리), 행실-(행실)

-바기/-배기 : 틈- -뺨 : 골- -발/-빨 : 뇌-(이), 신- -방뎡이 : 야단-(야단의 속된 말)

-배기 : 굵- -북닥 : 쥘-(지푸라기) -불 : 덩-(덤불)

-사가리 : 나위-, 맥-(힘의 낮은 말), 턱-/톡- -사리 : 꿈-, 맥-(맥)

새 : 그림-, 금-(가격), 뭍-(마음씨), 뭍-(뭍), 짝-(뭍) -새기 : 되악-(되박), 족박-(족박), 박-(바가지), 골박- -생기/-상귀 : 앞-(앞) -생이 : 곰-(곰팡이), 앞-(앞)

-아리 : 앞-, 툅-(툅), 상-, 창- -아지 : 독-(작은 독), 속-(마음), 툅-(툅) -애 : 알(下), 감-(가매) -악 : 툅-(토막) -악사니 : 꼴-(꼴) -안 : 곧-(고장) -알 : 간-(갯-, 다리, 거린가지), 작-(자갈) -암지 : 목-(목) -앙 : 곰-(구멍), 꽃-(꽃), 틈-(틈) -앙지 : 꼬리- -악 : 되-(되) -어리 : 등 -애기/-에기 : 검불-(검불어기), 종지-(종지)

-억 : 서들-(둘이 많이 쌓인 곳), 털-/꺄-(털), 앓-(아침) -영 : 쥘-(꺄질), 틈-(틈) -야뎡이 : 배-(배의 낮은 말) -야지 : 배-(배의 낮은 말)

-앵이/-앵이 : 가마-(가마니), 가지-/갓-(가지), 곧-(구덩이), 노릇-(노릇), 막대-(막대), 물-(뭍-, 마루), 벌-(벌레), 울-(오리), 주시-(찌꺼기), 조개-(조개 껍질), 임-(이마), 흙-(흙), 꼴-/ 꼬리-(꼬리), 꽃-(끝), 출-(초리-,꼬리) -역 : 테-(땃장)

-ㅇ이 : 주-/꺄-(꺄), 새-(참새) -와리 : 입수(입술-) -웁 : 쑥-(속) -우리 : 목-(목) -왈 : 자-(갯, 덩불) -웅 : 쥘-(기둥) -웃 : 금-(금) -이 : 샘-, 춘-(술동이), 문-, -으마지 : 툅-(툅) -웃 : 쥘-(꺄)

-장머리/-앙머리 : 버르-/ 버릇-(버릇) -재기 : 콧-(눈썹 따위, 원래는 비개이지만), 골-(골짜기) -쟁이/-앵이 : 버르-/ 버릇-, 노릇- -쟁이 : 복-(복어), 입(문설주), 흙- -정 : 수-(數) -죽 : 꺄-(꺄질), 가래-(삽) -쫓배기 : 코-(코) -지 : 금-(가격) -찍 : 쥘-(쌀)

-차락 : 비-(빗자루) -착 : 널-(널), 신-(신), 보선-, 상지- -채 : 빗-(빗) 치 : 골-(머리)
 -캐 : 고랑-(고랑방)
 -텃 : 종이-(종이)
 -태기/-테기 : 거적-, 불-(불때기), 오곰-(오곰의 낮은 말), 주럭-(형쥔 조각), 가맹이-(가마니) -토매기 : 셈-(생각) -톡 : 말-(말)
 -팔 : 누-(큰 물결)
 -패기 : 거림-(갈라진 곳), 무릅-, 영둥-(영덩이), 이명-(이마), 잠지-(불기)
 -형 /행이 : 굴-(구렁)

ㄴ. 간접 통합

-박 : 머리-스- -살 : 비-스-(빗 방울)

나. 이름씨 뿌리+ I 유형 접미사

ㄱ. 직접 통합

-각시 : 코-(코 안의 작은 부스럼) -간이 : 마-(장마의 간이) -감 : 세-/새-(빼기) -
 갱기 : 앞-, 깡-(앞갱기, 뒷갱기), 신-(신갱기),
 -거리 : 안-, 밧-, 동녘-, 서녘-, 모ㅎ-, 알녘-(안 채, 바깥 채, 동녘 채, 서녘 채, 아래
 채) -거리 : 연-(나이 또래) -거리 : 등-(간단하게 위에 걸치는 옷) -거리 : 일-(일감),
 국-, 반찬-, 말쌈- -걸리 : 날-(학질) -구데기 : 숭-(남의 흉을 잘 내는 사람) -국 :
 절-(물결 굽이) -굼데기 : 솟-(솟 먼지),
 -깅 : 눈-(눈초리), 세-(혀의 꼬트머리), 신-(짚신의 가장자리), 물-(물흐름의 하류),
 치매-(치마 끝) -께기 : 낭-(나무 조각), 푸-(파리) -곶 : 니-, 상-(향 조각), 띠-(띠 줄기)
 -경 : 불-(재) -깡이 : 젓-(겨드랑이) -꼬뱅이 : 머리-(머리꼬맹이) -꾸레기 : 간세-(
 게으름쟁이), 빗-(빗장이) -꾸베기 : 머리-(머리 꼬맹이) -꿀 : 눈-(눈총) -찌/-끼 :
 물-(무숫기)
 -내 : 속-(속 사정)
 -내기 : 땃질-(땃 길짜리), 닳 근-, 여간-(대단한 사람), 석 자-
 -다리 : 귀양-, 간곡-(게으름뱅이), 간세-(게으른 사람), 갈튀-(다리가 잘못된 말), 게음-
 (심술이 나쁜 사람), 팽절-(제 정신이 아닌 사람), 군눔-/군웁-(음흉한 사람), 모양-(일이

되어가는 꼴), 피-(피보), 둔충-(둔한 사람), 몰맹-(나약한 사람), 무충-(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밀세-(몰래 고자질하는 사람), 복쉬-(다리를 꼬고 잘 앉는 사람), 빈복-(복처리), 식충-(식추이), 심술-, 건풍-/허풍-(건풍다리), 맥-/맥-(곡물을 넣어 두는 짚으로 만든 그릇, 떡동구리), 목-(목 또는 길목), 역취-(약은 사람)

-다심 : 입-(입을 찌적하며 노리는 일) -데미 : 남-/남-(밀짚) -똥 : 배-(배꼽) -두세 : 눈-(양미간), -둥이 : 억지-(억보) -둥 : 문-(문의 바깥 근처) -들이 : 곳-(끝끝내) -등이 : 삼-(등이 두번 울통불통한 말) -떼기 : 두 말-(두 말 들이) -둘 : 신-(신의 끈)

-래 : 굴-(입안) -래기 : 하늘-(하늘다리) -(으)렁이 : 준-(겨드랑이)

-매/-메 : 손-(숨씨), 입-(식욕의 상태), 불-(대장간), 술-(살결), 집-(집 모양) -마치 : 사그-(사금파리) -막산이 : 코-(코막은 소리를 내는 사람) -막우리/-막쟁이 : 귀-(귀 먹은 사람) -멜썰기 : 코-(코가 납작한 사람) -묵 : 굴-(방을 때기 위한 아궁이) -미 : 불-(대장간)

-바데 : 뇌-(치열), 땀-(땀받이) -바리 : 악- -바위 : 입-(입 주위), 눈-(눈 겨울의 가장 자리) -바지 : 삼 대-(배의 돛이 3개인 것) -바치 : 구석(구석에 박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버릇 : 손지-(손자 뻔, 항렬에 다 붙을 수 있다) -발 : 글-(글씨), 물-(물 길) -배기/-배기 : 생 술-(한 복판에 상처가 난) -보 : 땅딸-, 땅감-, -부루기 : 배-(어린이의 배만 가리우는 간소한 옷가지) -부리 : 굵-(분화구) -부리 : 물-(담뱃대) -부리 : 입-(주둥이), 털-(털석부리) -붕테 : 숯- (숯보기) -비 : 따-(따부) -빨롱이 : 눈-(왕눈이)

-빼 : 상-(행주)

-사니 : 물고-(물골-, 모양) -사리 : 조금-(조금 때의 물끼의 형편) -사리 : 부-(숯 소) -사리 : 벼슬-(관직 생활) -새 : 곱-(곱사등이) -새 : 갓-(부부), 미역-(미역과 비슷한 해초) -살 : 물-(물이 흐르는 힘), 눈-(눈빛의 힘) -서리 : 몸-(몸서리) -설/-설매 : 눈-, 귀-(눈 결), 바람-(바람결) -성 : 일-(숨씨), 귀인-

-세/-새 : 몸-(몸으로 비빔), 본-(모양새), 입-(먹는 일, 입매), 털-(털세)

-세기/새기 : 독-(달걀), 똥-, 오줌-, 물 박-, 남 박-, 국 박-(박아지), 좁박-, 짚-/찍-(짚신)

-섭 : 부-(방안에 상설된 화로의 한가지) -소리 : 고-(소꿉 고리) -술 : 돛-(돼지 털)

-쉬 : 꺾대-(키가 큰 사람), 방-(비법), 헛대-(키가 큰 사람), -스랑 : 쉼- -시리 : 개발-(조의 일종), 맛-(조의 일종) -십새/-습새 : 푸-(채소) -싸구리 : 똥-, 오줌- -씨 : 글-, 숨-.

-아기 : 술-(싸라기) -아시 : 품-(값음) -악 : 벨-(벼락) -어러기 : 베(배에 반점이 있는 것) -억 : 굳-(바구니), 줌-(주먹) -아다리 : 귀-(-야지, -똥배기, -똥, 귀때기, 뺨) -야덜 : 귀-(귀 속에 난 부스럼)

-애/-에 : 둘-(다래), 볼-(볼래) 살-(찬장), 상감-(가매), 날-(곡식을 햇볕에 말리는 일), -애기 : 술-(싸라기) -어니 : 줌-, 움-(주머니의 일종) -앵기 : 줌- -앵이/-앵이 : 본-(음부), 앓-(아지), 좇-(꼬치) -에 : 무주-(아비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해서 성명을 짓지 못하는 아이) -여개 : 입-(남의 비평) -역 : 세-(썰기) -염 : 뇌-(잇몸) -옥쟁이 : 귀-(노랭이, 귀노래) -와치 : 바농질-(바느질아치) -움지 : 복-(주머니) -왁 : 태-(바다에서 타는 물건) -왓 : 거리-(마을 안의 밭), 보리-(보리밭) -왕 : 불미-(대장간), 쇠-(마굿간), 방의-(방앗간) -우리 : 박(바구니), 테-(마소를 돌보는 사람) -울 : 곶-(배의 뒤 쪽), 임-(앞쪽) -움지 : 박-(바구니) -옹이 : 불-(숫소) -유리 : 에미-(젓먹이 때에 어미를 여인 새끼) -이 : 맥-(막+이, 마지막의 ‘막’에서, 끝), 상곶-/항곶-(무지개)

-자락 : 옷-(옷깃), 이불-(이불) -장 : 거덜-(큰 못) -쟁기리 : 눈-(눈을 찡그리며 보는 사람)

-쟁이/-쟁이 : 코-(꼬챙이), 게으름-, 고집-(고집이 센 사람), 갓-, 겁(怯)-, 노름-(노름꾼), 도(屠)-, 무판-, 빗-(빗쟁이), 사농-(사냥장이), 산(山)-, 심술-, 야기염-, 예-(거적장이), 요인-(뚜장이), 웨통-(외눈통이), 앙토-(앙토장이), 철-(대장장이) -재기/-제기 : 곱-(기름 덩어리) -주리 : 밥-(잠자리) -주시 : 빗-(꾸렁이, 빗꾸러기) -지 : 코-(빨록 튀어난 곳) -지기 : 말-

-질 : 구성-(옥설하는 일), 굴레-(말질하는 일), 네-(노질), 동녕-, 마당-, 물-, 서름-(설 것이), 숨/숨비-, 정시-, 흙-, 마니-(도리질), 동냥-, 담-, 도깨-(도리깨), 목수-, 바농-(바느-), 배-, 부채-, 비-, 살쟁이-, 상제-, 선소리-, 손가락-, 심방-, 어부-, 이방-, 요동-, 장수-, 젓눈-(겉눈질), 채-, 마당-, 도둑-, 누비-, 낭-, 켓낭-, 퀘- 따위 이름씨에는 두루 통합이 된다.

-점 : 풀-(뒗짐) -징 : 떡- -찌 : 물-(무숫기) -작 : 말-(말과 같이) -차귀 : 해-(햇볕) -창 : 머리(도트락), 내-(넷가) -책이 : 살-(사리작문) -천 : 술-(술 바위) -천 : 물-(바닷 산물), 밀-(자본) -초관 : 담배-(용고뚜리) -치 : 눈- -치 : 말-(한 말 들이) -치 : 줌-(주머니) -치 : 미역-(미역처럼 생긴 물고기) -치 : 불-(재) -치 : 해-(띠) -치기 : 뒤-(뒤축)

-각 : 술-(송진이 엉킨 소나무 조각) -케 : 백-(돌들이 절벽같이 쌓아진 곳) -테 : 남
(나무 통) -테 : 등-(언치) -테기 : 서두-(석되 들이 술, 이 접미사에는 되나 말 단위를
나타내는 말과는 통합이 된다.) -투리왜기 : 입-(입이 비뚤어진 사람) -통이 : 눈-, 귀-,
배-(배통이)

-패 : 셀-(실꾸리) -포 : 달-(한 달여) -푸데 : 밥-(식충이), 줌-(잠꾸러기) -푼이 : 낭-
(양푼이) -피 : 몸-

-한디 : 불-(개똥 벌레) -홀채기 : 코-(코홀리개)

ㄴ. 간접 통합

-꼭 : 우스-(웃국) -귀 : 방에스- -군 : 간교스- -게염/-개염 : 녀스-(잇사이의 찌꺼
기) -게미/-개미 : 녀스-(잇사이의 찌꺼기) -꾸레기 : 메스-

-도 : 내스- -도리 : 아래스-, 우스- -돌래 : 코스-(코뚜레)

-바위 : 귀스-(귀 바퀴) -성 : 인사 스- -직 : 우스-(웃기) -자락 : 꺾-

다. 풀이씨 뿌리+II유형 접미사

ㄱ. 직접 통합

-게/-개 : 놀-(날개), 다-(닫-/닿-, 두껍), 돛-(돌-, 도리개), 두-(뚝-, 두껍), 배-, 좁-(좁개),
지-, 쫓-(싸개) 따위

-거리 : 떡-,

-갱이 : 꺾-(자루가 꺾인 손가락), 불-(불-, 머리털이 붉게 보이는 사람), 헛-(재치기),
-괭이 : 미치-(미치광이) -구래기 : 물-(므르-, 재단하다 남은 지꺼기) -기 : 못 빼-, 드
내-(들고 나기)

-넘 : 노-(놀-, 놀이), 비-(빌-, 비는 일), 사-(살-, 살림)

-다리 : 사-(서-, 사다리), 삭-(삭정이) -댕 : 검-(검댕이) -댕이 : 부짓-(부지깽이), 검-
(그으름) -드래 : 사-(사다리) -디 : 차-(자루)

-레/-래 : 꼴-(깎개), 놀-(노래)

-(으)래기 : 끌-(끄르-, 꾸러미), 썩-(썩은 것, 썩정이), 부글-(거품), 비크-(빗 ㄱ-, 비탈),
자부(자불-기울어진 것), 죽-(쭈그렁이)

-(으)랭이 : 걸-(떠), 물-(마르고 남은 조각), 받-(바지랑대) -리 : 굴-(가루)

-막 : 두루-(두루막)물 매 : 열-, 즈들-(걱정할 일) -먹 : 그실-(끄으럼), 꾸질-(꾸지람)
 -맹이/멩이 : 열-(엷-,어래미)
 -바리 : 뽕-(고기 이름) -배기 : 억-(엷-, 열금뱅이)
 -사리 : 득-(머슴) -세 : 차-(신차세) -세기 : 줍-(떠(茅)우의) -삼봉 : 궤-(특별히 귀엽게 사랑하는 일) -생이 : 아우-/아구-(아가미) -성 : 먹-(먹는 일), 입-(웃차림) -쉬 : 역-(약동이)
 -악 : 못-(매듭, 마디) -암지 : 늘-(짚을 엮어서 덮기 위하여 만든 것, 이엉)
 -애/-에 : 근-(근-, 고무래), 웃-(챙피 당함), 굴-(맷돌), 꺾-(가위), 돌-(돌래 떡), 놀-(노래), 막-(마개), 질-(키), 줄-(즈르-, 단), 뽕-(빨래), 툷-(트래) -억시 : 질-(길이)
 -양 : 동골-(대그릇) -어기 : 불-(부피)
 -애기/-에기 : 굴-(끓둥이), 동골-(동골-, 동그란 것), 착글-(착그르-, 짹짹), 유울-(시래기), 기들-(기어들-, 고동의 일종), 찌끌-(쓰래기), 줍-(수재비), 녀-(너비), 널-(넙이), 밀-(밀애), 빗-(비지), 좇-(지저깨비), 움-(떡의 일종) 몽글-(냠은 것), 엷(으)-(엷힌 것)
 -에미 : 거슬-(살갓이 거칠거칠하게 일어난 것), 죽-(시체) -억지 : 끌-(끄르, 크르-, 매듭, 꾸러미), 질-(길이) -영 : 곧-(정말), 그슬-(끄으럼) -영지 : 걸-(치네)
 -앵이/-앵이 : 굶-(호미), 그슬-(끄으럼), 꺾-(글개), 걸-, 앓-(아지), 독-(뚱-, 두껍), *좇-, 꺾-(꼬지),
 -영 : 움-(이동), -양 : 동골-(대 그릇), -엄 : 묻-, -오기 : 돌-(바퀴나, 도는 기구), 갈- : (가르-, 마을 또는 마을 안), 물-(모르-/모르-, 말을 못하는 사람) -와기 : 국주-(할퀴기 잘 하는 사람), 줍주-(꼬집기 잘 하는 사람) -우기 : 배불-(부르-), -우리 : 북-(붓-, , 소에 붙는 해충) -웁 : 늘-(누르-, 누룩), -울 : 굶-(구불) -움 : 맞-(마중), 줄-(주름)
 -웨 : 다리-(다리미), 두리-(제 정신이 아닌 사람)
 -음/-ㅁ : 갈-(가르-, 마을 안) 나무래-(나무람), 구무-(구물-, 그믐), 조라우-(조랍-, 줄림), 줄-(치마 주름), 즈꺾-(즈굴-, 간지럼), 육-(주걱), 옥-(겨드랑이), 오 르-(오르-, 얇은 산), 줍-(젓가락), 굳-(먼지, 티끌), 걸-(걸-, 걷-), 열-(열매), 재-
 -웃/-웃 : 오르-(올려받이), 늘-/늘(느리-, 느리-, 내리 받이), 떡-(떡새)
 -이 : 재떨-, 꺾-(꺾-, 재비), 동골-(알 사탕), 굶-(구비), 묻-(마디) -이개 : 웃-(농담), -
 으 : 굴-(굴-, 가루) -울 : 굴-(가루)

-제기 : 남-(남어지) -쟁이 : 늑-(늑정어), 본-(보비리) -치귀/-철귀 : 돌-(돌쩌귀) -챙이 : 얼-(얼-, 언청이) -치 : 놀-(날치, 많은 물고기 이름으로 쓰임) -토매 : 노-(놀기만 하는 아이) -파리 : 잡-(잡스런 놀이) -폐기 : 물-(독사의 일종)

ㄴ. 간접 통합

-갱이 : 정-(절ㄴ-, 버캐)

-내기 : 곱을-(숨바꼭질), 둘을-(달리기), 먹을-(먹기내기), 숨빌-(자맥질내기) 따위의 동작 동사에는 제약없이 통합이 가능하다.

-다니 : 준-(줄ㄴ-, 잔소리) -다리 : 쉼-(쉬ㄴ-, 쉼 음식으로 누룩과 섞어 만든 음료수) -데 : 부근-(붓그ㄴ-, 부검지) -동이 : 준-(줄ㄴ-, 잔등)

-라기/-락 : 앞의 -내기와 더불어 동작 동사에서는 통합이 자유로우며, 뿌리에 씨끝 ㄴ뒤에 통합이 되는 점으로 보아 변이형태로보아 둔다.

-래 : 출-(차, 잔 반찬)

-매 : 질-(지(負)ㄴ, 길마) -맹이 : 꼬질-(학 쫓지)

-배기 : 고른(고르ㄴ-, 맞섬), 아진-(앉은뱅이) -뱅이 : 비렁-(빌-영-, 비렁뱅이)

-성 : 두름-(두르ㄴ-, 머리 씌), 믿음-(믿음성), 우김-(우김, 떼쑈)

-앵이 : 눈-(놀ㄴ-누룽지)

-제기/-재기 : 곱음-(숨바꼭질), 둘음-(달리기) 따위의 동작 동사의 뿌리와는 자유롭게 통합되는 점이 앞에 나왔던 ‘-내기, -락/-라기’와 같지만 씨끝으로는 반드시 ‘-ㄴ’을 요구하는 점이 다르다.

-쟁이 : 논-(느ㄴ-, 나캐), 구문-(끓은-, 바다 고기 이름) -질 : 고침-, 나꿈-, 되쑈-(뒤집-), 부빔-(부비ㄴ-, 비게질), 부수닥-(부수는 일), 둘음박-(달음박질), 불림-, 설름(설것이),

-채 : 푼-(푸는-, 부치는 채) -챙이 : 머굴-(먹을, 막은 사람)

-커 : 지들-(질을-, 땀감) -퀴 : 그슬-(무명을 날 때 무명실을 끌어다니는 도구)

-태 : 느렁-(느리-영-, 느리팡이), 산-(사ㄴ-, 사다리), 전-(절ㄴ-, 다리가 전 사람) -태기 : 저곰-(저곰-ㄴ-, 간지럼을 잘 타는 부위)

라. 어찌씨 뿌리+II유형 접미사

ㄱ. 상징 뿌리

-애기 : 두들-(두드리기) -와리 : 버부-(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 자주-(재잘거리기를 잘 하는 사람), 차추-(더듬으면서 재깎이는 사람), 터투-(말을 더듬으면서 말하는 사람)

마. 불구 뿌리+접미사

-가리 : 땡-(덩이 부분), -개미 : 험-(밀기울) -고리 : 도- -것 : 병-(병거지) -깨 : 허-(허깨비) -깁이 : 도-(돌-回, 회오리 바람)

-다리 : 콩-(아이들이 무섭게 여기는 사람?), 웅-(문둥병 환자) -댁이 : 망-(항아리)
-당지 : 콩-(꼬리) -데기 : 번-(넓은 들판), 북-(부피) -뎡이 : 병-(덩어리), 웅-(웅덩이) -
독 : 몬-(먼지) -똥 : 무-(처마 밑) -둥이 : 궁-(영덩이), 목-(막대), 몽-, 방-(장난감), 주-
-뒤 : 방-(장난감)

-룻 : 늑-(산꼬대)

-바리 : 다금-(바닷고기 이름), 비-(처녀), 냉-(처녀) -배 : 돔-(도마) -뱅이 : 돌-(달팽이) -붕이 : 두루-(제 정신이 아닌 사람), 병-(모자란 사람) -빠 : 늑-(무우)

-사리 : 망- -살 : 닥-(깎질) -석 : 방-, 덕-, 명-, 초- -쉬 : 작-(작대기), 얼함-(엄병덤 병하는 사람),

-애 : 종-(종아리) -아리 : 동- -역 : 세-(썰기) -애기 : 병-(병아리), 봉-(등애) -앵이 : 봉-(등애) -오기 : 솔-(솔개) -이 : 중병-(가랑비) -올 : 늑-(나물)

-제비 : 허-(허수아비) -쟁이 : 콩-(겉이), 난-(난장이) -지 : 닥-(깎질) -지리 : 웅-(웅술)

-체기 : 덩-/둥-(등치) -치 : 덩-(등치) -치기 : 어중-(중간 따기)

-탱이 : 뎡-(짚으로 만든 그릇, 먹동구미), 몽-(몽텅이)

4.2.2. 뿌리의 유형

가. 이름씨 뿌리

이름씨 파생어에 이름씨 뿌리는 그 수가 많다. 특히 [+대치성] 접미사와 통합되는

이름씨 뿌리는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뿌리들은 뿌리 자체로서 자립, 실질성을 지니므로 완전 뿌리다. 대개는 상황적인 뜻을 더하는 접미사와 통합되거나, ‘안정성을 주는’ 접미사와 통합되었다. 접미사들은 ‘비칭, 지소, 안정’ 따위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뜻이나, 형태의 중심은 뿌리에 있다.

이름씨를 파생하는 뿌리를 가.와 나.로 나눠 살필 필요가 있다. 접미사와 통합되어 가는 통어적으로 [대치성]이지만, 나.의 뿌리들은 [+어휘성]인데, [+대치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뿌리들도 이름씨를 파생하는데는 생산적으로 참여한다. 이들도 자립, 실질성을 지니므로 완전 뿌리이다. 이들은 접미사와 통합해서는 ‘인칭, 사물, 행위’ 따위의 파생어를 이룬다.

나. 풀이씨 뿌리

풀이씨 뿌리에서 이름씨를 파생하는 것도 방언에서는 생산적으로 쓰인다. 풀이씨 줄기가 주로 뿌리로 쓰이기 때문에 줄기 자체는 자립성을 지니지 못하고, 실질성만 있으므로 불완전 뿌리다. 접미사와 통합을 이루어 이름씨를 파생하므로, 파생의 결과 ‘인칭, 사물, 행위’ 따위의 뜻을 주로 파생한다. 파생어와 뿌리는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 어찌씨 뿌리

어찌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름씨를 파생하는 것도 생산적이다. 풀이씨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되었을 때와는 달리, 어찌씨는 실질, 자립성이 있으므로 완전 뿌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상징어도 어찌씨에 포함시키는데, 파생에서만은 상징 뿌리는 주로 자립성이 없고, 실질성이 있어서 불완전 뿌리가 된다. 어찌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름씨를 파생했을 때 주로 ‘인칭, 사물, 행위’ 따위의 뜻을 파생한다. 어찌씨 뿌리이든 상징 뿌리이든 모두 이름씨 파생어와의 관계는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이다.

라. 불구 뿌리

불구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름씨를 파생하는 일도 방언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뿌리는 자립성이나, 실질성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동형

성의 원리에 의해서 뿌리로 인정해 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뿌리인지 불완전 뿌리인지는 분간이 되지 않는다. 다만, 추정에 의해서 뿌리의 씨를 가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어에 대해서 통어적 자질을 주기도 어렵다.

4. 2. 3. 파생의 양상

방언 파생어의 양상을 살펴 볼 때 접미사의 고유의 특성에 따라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의 목록은 접미사의 생산성의 높고 낮음은 고려하지 않고 형태, 뜻, 기능을 중시하여 씨별로 분류하여, 설명의 편의를 찾으려 하였다.¹⁴⁾

먼저 여기에 올린 이름씨 파생의 접미사들의 형태를 볼 때 표준어와 다른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지만, 방언에서 보면 모두 파생어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

가. 이름씨 뿌리 + IV유형접미사

ㄱ. 통합 양상¹⁵⁾

먼저, 이들의 통합 양상을 살펴 보면, 배열부터가 제한적으로 이름씨 뿌리에서 다시 이름씨를 파생하는 접미사들이고 통어적으로 [대치성]이 있는 파생어로 한정해 두었기 때문에 통합 양상을 살피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20) -거지 : 떼-, -데기 : 빼얌-(뻘), -머리 : 행실-(행실), -아리 : 잎-, -악서니 : 꼴-

따위에서, 형태적으로는 이름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이 되어, 다시 이름씨를 파생한 것들이다. 파생어의 구조는 동심 구성이다. 그리고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되면서 파생어의 일반적 통합 양상으로 나타나는, 즉, 뿌리와 접미사 사이에는 어떤 다른 요소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통합이다.¹⁶⁾ 그리고, 뿌리와 접미사가 반복어에서

14) 필자는 제주 방언의 접미사연구 I, II, III(1989)에서 인칭, 사물, 정도성으로 나누어 방언의 접미사들을 살펴 본 일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접미사의 일반적인 성질을 고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씨로 분류하기로 했다.

15) 하치근(1989), 앞의 책, p. 308.에서는 통합 양상을 일반적인 파생과 특수한 파생으로 나누었다. 일반적인 파생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나, 특수한 파생에서는 겹침 구조로 볼 수 있는 ‘가로다지, 산지기’ 따위를 들고 있는데 방언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6) 이름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이 되었을 때는 형태적 통합인지, 통어적 통합인지는 분간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직접 통합인지 간접 통합인지만 밝혀진다.

처럼 두 번씩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1회적 통합이다.¹⁷⁾ 파생어의 구조의 의미 성분은 뿌리가 중심 성분이 되고, 접미사는 의존 성분이 되었는데, 씨는 파생 전이나 파생 후나 변화 없이 이름씨이다. 즉, 뿌리나 파생어가 형태적으로는 다르지만, 뜻에서나 통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위의 보기에서 뿌리도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실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자립, 실사인데, 또한 파생어도 중심적인 뜻은 뿌리의 뜻과 같고, 접미사가 붙어서 중심적인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화용론적으로 가려 쓸 수 있는 파생어가 되었다.

이러한 파생어가 이루어지는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결과로 이루어진 파생어 형태는 다음에 연결되는 굴곡 접사와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 (21) ㄱ. 때거지를 쓴다. 때거지가 심^ㅎ다. 때거지도 심^ㅎ다. 때거지는 씨도.
 ㄴ. 때를 쓴다. 때가 심^ㅎ다. 때도 심^ㅎ다. 때는 씨도.

(21)의 ㄱ.에서처럼 토씨와 통합은 제약 없이 이루어진다. 파생어의 일반 규칙에 맞는 파생어가 되고, 뿌리도 이름씨의 뿌리이므로 완전한 뿌리이고, 접미사의 형태 분류로도 완전 접미사가 된다. 또 접미사의 뒤에 통합되는 굴곡 접사는 앞 말이 이름씨를 파생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주로 토씨가 중심이 된다. (21)의 보기 ㄱ.과 ㄴ.에서 보면, 통어적으로 볼 때에는 뿌리와 파생어가 대치되어도 월의 뜻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대치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뿌리와 파생어는 서로 같은 자리에서 바뀌 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대치성]이나 [어휘성]이 있고 없음을 가리게 된다.¹⁸⁾ 방언의 파생어에서도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의 목록 ‘가.이름씨 뿌리+ I 유형 접미사’라는 항의 파생어들은 모두 뿌리가 가진 통어적 월 성분의 자리에서 파생어와 서로 [대치성]이 있고, [어휘성]은 없다.¹⁹⁾ 그렇기

17) 고영근(1974), 앞의 책, p. 38.에서, 뿌리와 접미사는 대부분 1회적으로 통합될 뿐이며, 어찌씨 형성이 접미사 가운데는 각자 대립이 반복적인 접미사가 많다고 했다.

18) 통어적으로 보아 [+대치성]이면 [-어휘성]이고, [-대치성]이면 [+어휘성]으로 보게 된다.

19) 그러나, 이러한 대치성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암소가 새끼를 낳았다.’와 ‘암송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라는 월에서 앞엿것은 바른 월이 되나 뒷것은 바른 월이 되지 못한다. 이 때에 ‘적음, 귀여움’ 따위를 나타내는 접미사는 대치성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낱말의 파생어를 살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언어 현실에서는 ‘대, 소’로 뜻의 분화가 이루어 지는데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 ‘똥, 도새기’ 따위다.

때문에 이러한 접미사는 뜻더하는 접미사(가의적 접미사)의 일부이다.²⁰⁾ 이러한 파생어의 뿌리와 접미사의 형태를 분석하여 살펴 보면 대부분의 접미사들은 일반 규칙에 잘 들어 맞아 대부분 본래부터 접미사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접미사를 다시 기능별로 유형을 분류했을 때는 제Ⅳ유형의 접미사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접미사들은 일반적인 규칙에 잘 맞으므로 설명이 쉽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러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것도 있다.²¹⁾ 이러한 것들 중에는 실사에서 접미사화했거나, 동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몇몇이 접미사들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접미사들을 들어 보면,

- (22) 주먹-곡시/-곡지, 못-꼬지,²²⁾ 역쉬-다리,²³⁾ 쪼-태가리/태강이, 지헛-머리, 야단-방명이, 송-애기, 비-차락, 상지-착, 종이-팁

따위들로, 이들은 방언형의 접미사들인데, 표준어로 대응을 시키거나, 형태나, 뜻으로만 볼 때에는 파생어로서 접미사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는 실사이거나 합성어 따위로 보아야 할 것들도 있다(이석주 ; 1989). 이들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 보면,

- (23) ㄱ. -곡시/곡지, -꼬지, -태강이/-대가리, -머리, -방명이, -애기
 ㄴ. -차락(자락),²⁴⁾ -착(작),²⁵⁾ -팁(?조각, 오직 종이와만 통합이 된다)

20) 이러한 접미사를 여러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어휘적, 첨가적, 잉여적, 한정적’ 따위이다. 그리고 상황적 접미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이석주(1989), 앞의 책.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단일어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22) 김계곤(1969), 앞의 논문, p. 111.과, 국어대사전에서는 이름씨로, 한글 소사전에서는 뒷가지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방언에서는 표준어에 대응하는 형태를 찾는다면 ‘코쟁이, 꼬쟁이’가 될 것이다. ‘꼬지’의 형태는 방언에서는 자립성도 없고, 실질성도 없으며, 통합되는 뿌리도 ‘적-꼬지, 못-꼬지’ 따위와 통합이 될 뿐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꼬지’는 토박이의 언어 의식으로 접미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23) 김홍식(1983), 앞의 논문, pp. 15-20.에서 어기에 접미사 ‘-다리’가 후접하여 인칭명사를 파생시킨다고 하면서 29개의 어휘를 들고, 생산적인 비칭 접미사라고 했다. 그리고 사물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 2개의 어휘와, [+유정성]으로 4개, 지명으로 11개의 어휘를 들고 있다.

24) 고영근(1974), 앞의 책.에서는 ‘-꾸러기’ 따위의 말과 더불어 접미사의 비문법화로, 의존성을 탈피하고 자립성을 발휘하는 말로 처리하고 있다.

25) 방언에서는 자립성의 실사로 쓰이는 일도 있다. ‘그 신은 착글래기여’에서 이때의 ‘-착’은 자립, 실사로 보이나, 그 외의 보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인 이름씨로는 쓰이는 일이 있다.

(23)에서 ㄱ.은 표준어로는 자립성의 실사로 쓰여지는 것들이고, ㄴ.은 의존성의 실사(매인 이름씨)로 쓰인다. 그렇지만 여기의 목록에서는 접미사로 다룬다.

- (24) ㄱ. 감 곡지가 떨어졌져. 곡지가 돌린 그릇
ㄴ. 말곡지가 밍다. 주먹곡지로 쥐어 박았져.

이러한 말이 실제 쓰임을 살펴 보면, ㄱ.과 ㄴ.의 월에서 쓰이고 있는 ‘곡지’는 서로 다른 뜻과 기능을 하고 있다. ㄱ.에서는 자립, 실사로서 통어적인 구실을 하고 있지만 ‘말곡지’나 ‘주먹곡지’는 앞서서와 같은 ‘곡지’의 뜻이나 기능이 나타나지 않고,²⁶⁾ 다만 그 뿌리가 가지고 있는 뜻에 주관적인 감정(환경적)의 표현을 나타낼 뿐이고, 통어적으로도 뿌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같지만 뜻과 기능에서 다른 ‘곡지’라는 말과 ‘-곡지’가 유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만일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는 실사로, 하나는 접미사로 쓰인다면 혼란스럽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동음이어(homonym)로 본다.

오직, 형태론과 의미론적 입장을 고려하여, 여기에 보기로 든 뿌리들과 통합 되어 파생어가 되었을 때에는 자립, 실질성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접미사로 보아 둔다.²⁷⁾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외의 접미사들도 같은 처리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뿌리와 파생어 사이에서 통어적으로는 [+대치성]이 있으므로, 같은 뜻을 지닌 동의어(synonyms)로도 처리될 수 있다. 그런데, 동의어 어간에는 중심 의미만이 공통되고 연상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심재기외, 1984 : 28), <+대치성>이라는 것도 연상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²⁸⁾

ㄴ. 형태 음소적 변동

형태음소적 변동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통합하면서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변동을 말한다.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되면서도, 형태 음소적 변동은 일어난다. 이러한

26) ‘-곡지’의 뜻이 크게 변화했고, 기능도 뜻더하는 접사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접사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7) 만일 이들을 자립, 실질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말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다.

28) Collinson(1939)에서 동의어간의 차이를 가르는 9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1. 보다 일반적이다. 2. 보다 강하다. 3. 보다 감정적이다. 4.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5. 보다 전문적이다. 6. 보다 문어적이다. 7. 보다 구어적이다. 8. 보다 방언적이다. 9. 어린이 말이다. 따위이다.(심재기외, 1984, 의미론 서설, 집문당, p.28.에서 재인용)

변동은 특히 파생어나 합생어에서만 일어나는 변동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음운의 결합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들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에 따른 형태음소론적인 변동의 현상만을 살펴 본다면,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에서, 어떤 것은 뿌리의 형태가 변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접미사의 형태가 변했거나, 뿌리와 접미사가 변한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다.²⁹⁾ 그래서 그 성분의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불투명한(obsured) 파생어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변동 현상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25) ㄱ. 눈-꺀이, 가지-꺀이, 손-꺀데기, 맥-따리, 골-꺀, 비-차락,³⁰⁾ 널-착
 ㄴ. 궁-기,³¹⁾ 푸³²⁾-꺀, 포-따리, 웨약-새기, 가지-앵이(가쟁이),³³⁾ 오리-앵이(올랭이), 버르-장 -머리

따위 들인데, ㄱ.은 주로 음운론적으로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에 따른 사잇소리 ‘ㅅ/ㅎ’의 개입으로 접미사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변했거나, 거센 소리로 바뀐 보기들이지만,³⁴⁾ 형태론적으로 ‘ㅅ과 ㅎ’의 개입된 형태를 그대로 한 형태소로 보아 된소리나, 거센소리의 접미사로 보게 된다. 그러나, ㄴ.은 통합의 과정에서 뿌리의 형태가 변동을 입어서 성분 구조의 분석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만 없다면 단일어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다.

29) 김계곤(1969 : 76-84), 고영근(1974 : 39-49)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송철의(1977 : 45-46), M. Aronoff(1976 : 90), 하치근(1987 : 20)에서는 몇몇의 통합에 따른 규칙을 세우려고 시도하였다.

R₁ (‘ㅣ’탈락)

[-이-]→φ/[-압-/-어-] 따위이다.

30) 고영근(1974), 앞의 책, p. 75.에서는 ‘-자락’은 접미사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락’의 대응형이 방언에서는 ‘-차락’이어서 접미사로 보아 뒀다.

31) 두시언해, 박통사언해에는 ‘궁ㄱ’로 쓰였다.

32) 이 말의 말뒀(어원)은 ‘풀(草)’인지 ‘붓ㄱ’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단 ‘풀’로 보았다. 만일 ‘붓ㄱ’라면 방언의 특징인 첫소리가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났고, 접미사의 형태가 ‘-개’로 될 것이다.

33) 김홍식(1979), 앞의 논문.에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그 뿌리를 ‘꺀-’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시적인 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가지-’로 본다.

34) 현평효(1982, 1985), 앞의 책, p. 410.에서, 복합어에서 기음화하는 두음은 어느 복합어에서나 유성음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제주도 방언에서는 ‘ㅎ’이 사잇소리처럼 개입되어 거센 소리를 만드는 일이 흔히 있다.

‘궁기’는 ‘굵-³⁵⁾’에서 ‘ㄹ’과 ‘ㄱ’과 어우르는 과정에서 ‘ㄹ’이 ‘ㄱ’의 발음 위치로 이끌리면서 ‘ㅇ’이 되었고, ‘푸깨’에서는 그 뿌리가 ‘폴-’로 보이는데 접미사와 통합에서 ‘푸’로 끝소리 ‘ㄹ’이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환경에서도 발견된다. ‘부-사리’ 따위가 그런 보기이다.³⁶⁾ 그리고, ‘뒤약-새기’에서는 ‘뒤박-’이 ‘ㅂ’ 떨어진 것이다. ‘ㅂ’이 떨어진 이유는 뒤의 접미사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같은 환경의 ‘폴박-새기’에서는 ‘폴악새기’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것은 ‘뒤+박’에서 이미 ‘뒤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ㅂ’이 유성음화하여 탈락시킨 것인데, 방언에서는 ‘ㅣ’ 다음에 오는 ‘ㅂ’이 떨어지는 일이 흔히 있다(보리-왓(보리밭), 대왓(대나무밭), 보리압(보리밭) 따위). 합성어의 경우지만, 파생어의 경우가 서로 비슷한 변동을 하여 방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고영근; 1974: 49). 그런데, ‘뒤악-새기’는 접미사 ‘-새기’와 통합으로 생긴 변동이 아니고, ‘뒤+박’에서 이미 일어난 변동이 다시 ‘-새기’와 통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표준어 파생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뿌리의 ‘ㅣ’탈락 현상을 방언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³⁷⁾

(26) -앵이³⁸⁾: 가지-(갓-), 오리-(을-), 꼬리-(폴-), 주시-(줏-, 찌꺼기), 초리-(출-, 꼬리)

(26)에서와 같이, 뿌리의 ‘ㅣ’락 현상도 방언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을 아래와 같이 규칙화시킬 수 있다.

R₁ (‘ㅣ’탈락)

{-이-}→∅/{-앵이-/-앵이-}

35) ‘굵’은 문헌어에서는 ‘ㄱ’꼭용 체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36) 고영근(1974), 앞의 책, p. 41.에서 ‘ㄹ’받침의 뿌리는 ‘ㄴ, ㄷ, ㅂ, ㅅ, ㅈ’등의 접미사의 첫소리 앞에서는 탈락한다고 했고, 이러한 일은 비통사적 합성어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동적 교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교체의 조건이 용언의 어간과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보기로 ‘올다가, 줄다가’ 따위를 들고 있다.

37) 고영근(1974), 앞의 책, p. 43.에서는, ‘느리-’가 ‘늘-앵이’로 되는 것을 보기로 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용언의 활용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38) 김홍식(1979), 앞의 논문, pp. 58-60.에서는 통시적인 관점으로 ‘-앵이’ 접미사는 ‘-앙’이 1차 접미사이고, 다시 ‘-ㅣ’가 통합된 복합 접미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앵이’로 된 것은 umlaut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R+ㅅ’에서 ‘-ㅅ’의 이형태로 ‘-ә, -ә, un, -on’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버르-쟁이’에서 뿌리와 접미사를 보면, 그 뿌리를 ‘버릇-’으로 보고 접미사를 ‘-쟁이’로 보면 뿌리의 받침 ‘ㅅ’이 탈락한 것으로 보게 되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접미사를 ‘-앵이’로 보았을 때는 뿌리의 끝소리 ‘ㅅ’이 강음화 되어 소리의 이음으로 ‘쟁이/쟁이’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버르쟁이/쟁이’의 변이형태인 ‘버르장머리’가 있는 점으로 보면 ‘ㅅ’이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ㅅ’이 ‘ㅈ’으로 강음화된 것으로 보아 둔다. 만일, 접미사를 ‘-앵이’로 보면 뿌리의 끝소리 ‘ㅅ’이 ‘ㅈ’이 되어, 뿌리와 접미사가 다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버르장-머리’는 겹뿌리 ‘버릇-앙’이 통합되어 ‘버르장-’이 되고 다시 ‘-머리’가 통합된 것으로 본다. ‘-머리’는 비칭의 접미사로 두루 쓰인다. 그밖에 ‘ㄹ’탈락, 모음조화 현상도 있다.

그런데, 위에 올린 ‘궁기’와 같은 말은 공시적인 관점에서는 파생어로 처리하기보다는 단일어로 보아, 파생어의 뿌리와 접미사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즉 화석화(pertrification)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³⁹⁾ 이를 표준어의 입장에서라면 지금은 ‘굶’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구멍’이라는 말이 쓰임으로 해서 ‘궁기’와 ‘구멍’의 서로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어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방언에서는 아직도 ‘굶’이라는 말이 자립적으로 쓰이고 있고, 표준어에서도 ‘구멍’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궁기’와 서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파생어로 다루고, 형태음소론적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접미사의 처리는 통시적으로는 ‘-ㅣ’지만 공시적으로는 ‘-기’로 본다.

ㄷ. 대치성에 관한 문제

이러한 ‘대치성’에 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화용론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39) 고영근(1974), 앞의 책, p.111.에서는 ‘-웅’에 통합되는 것을 파생어로 다루고 있다. 즉, ‘집-, 맛-, 긴-, 배-, 꾸짖-’ 따위이다. 성광수(1988), 국어의 단어와 조어, 주시경학보 제 1집, p. 94.에서는 ‘마중, 기스락’ 따위를 단일어로 처리하고 있다. 만일, 이들을 형태소로 분석하면 형태론은 어원론(etymology)과 구분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공시적 형태론 성립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석주(1989), 앞의 책, pp. 102-103.에서는 원래는 파생어인데, 뿌리와 접미사의 형태나 뜻이 달라져서 뿌리와 접미사를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러한 말을 형태분석을 하지 않고 ‘원어화’한 것으로 보고, 단일어로 처리하기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보기로 13개의 낱말을 올려 놓고 있다.

있다. 방언에서 대치가 가능한 것들은 목록에 올린 뿌리와 그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파생어가 잘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목록에 올린 접미사들은 뿌리와의 관계에서는 ‘잉여적’이라 할 수 있고, [어휘성]에서도 뿌리의 뜻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여, ‘환경(상황)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처럼 환경적인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파생어가 문법적으로는 바른 월을 이루나 화용론적으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러한 제약이 따를 수 있는 파생어들은 특히 [+유정성]의 파생어들로서 월성분의 자리에서 대치가 이루어지면 문법의 규칙으로는 맞지만, 화용론적인 면에서는 맞지 않는 의심스럽거나, 바르지 못한 월이 형성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7) ㄱ. 우리 쇠가 풀 뜯었져./우리 송아지가 풀 뜯었져.

ㄴ. 우리 쇠가 새끼 낳았져./? 우리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져.

ㄷ. 우리 암퇘이 새끼 낳았져./우리 암토새기가 새끼 낳았져.

에서 대치된 ‘소’와 ‘송아지’의 관계는 ‘송아지’는 파생어로서 뜻으로도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 소’를 ‘우리 송아지’로 부를 수도 있다. ‘-아지’는 작음이나, 애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ㄱ.은 둘 다 바른 월이 되었지만, ㄴ.의 월은 하나는 바른 월이 되었지만 다른 월은 의심스럽다. 그런데, ㄷ.은 완전한 [+대치성]의 파생어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ㄱ.과 ㄴ.은 같은 지소 접미사로 쓰였지만, 뜻의 분화가 일어났으므로 이런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이렇기 때문에 [+대치성]에 대해서도 [유정성]자질의 파생어에서는 개별적으로 주의를 요하게 되고, 만일 같은 ‘작음’을 나타내는 접미사라도 어떤 것은 [대치성]이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은 [대치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물 접미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대치성]이 있고, 잉여적인 접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28) ㄱ. 이 뉘(升) 크다. ㄴ. 이 뉘약세기는 크다. ㄷ.이 뉘박은 크다.

에서 ㄱ.과 ㄴ.은 같은 뜻으로 쓰이나 ㄴ.과는 다른 뜻으로 말뜻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크고 작음이 용도의 차이뿐이어서 이런 접미사를 역시 잉여적인 접미사로

처리해 둔다. ‘뒤통-세기’와 ‘뒤통박’에서 ‘-세기’와 ‘-박’은 이 파생어에서는 중심 의미가 같고 연상 의미는 다른 것이 되었다.

나. 이름씨 뿌리+ I 유형 접미사

[어휘성]이 있고 [대치성]과 [문법성]이 없는 접미사들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고찰이 요구 된다. 다만 앞의 접미사들은 [어휘성]과 [문법성]이 없고, 대치성이 있어, 서로 공통되는 점과 다른 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ㄱ. 통합 양상

나.의 파생어들은 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통합과 간접 통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뿌리는 이름씨이고, 접미사는 역시 이름씨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이루어졌다.⁴¹⁾ 그런데 가.와 나.가 서로 다른 점을 찾는다면, 뿌리의 씨와 같은 말을 파생하고 있지만, [어휘성]의 유·무가 다른 점이다. 가.의 파생어에서는 [어휘성과 문법성]의 없었고, 나.의 파생어는 [어휘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뜻으로는 뿌리가 가지고 있는 뜻에 접미사의 뜻이 보태어져서 새로운 뜻이 되어, 뜻 더하는 접미사가 되었다. 가. 접미사가 뜻을 더하는 잉여적 접미사지만, 뜻을 더한다는 점에서는 나.의 접미사도 같다. 그러나, 통어적으로는 다른 기능을 하여 월 성분의 자리에서 가.는 [+대치성]이 있지만, 나.는 그러한 기능을 갖지 못하여 [-대치성]이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접미사의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 따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보기를 들면, 주로 인칭 접미사로 쓰이는 ‘-다리’라는 접미사는 때에 따라서 양쪽(대치성이 있는 쪽과 없는 쪽)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29) {-다리}

ㄱ. 간세-, 귀양-, 궤-, 군농-/군용- 빈복-

40) 염선모(1987), 앞의 책, p. 41.에서 형태가 다른데도 동의어라 하는 것은 ‘개념의 의미’가 같다는 것이고 주변적 연상 의미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라 하고 있다.

41) 이석주(1989), 앞의 책, p. 114.와, 유목상(1990), 한국어 문법 이론, 일조각, p. 182.에서, 접미사를 ‘첨가형 접미사’와 ‘대입형 접미사’로 나누고 있는데, 앞에 것은 뿌리의 수식적 기능을 하고, 뒤에 것은 전성이 본령이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서부터 말해 오던 용어로, 뒤에 것은 지배접사나 통어적 접사, 앞에 것은 가의적 접사나, 한정적 접사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ㄴ. 모양-, 목-

ㄷ. 원-, 삭-, 맥-

(29)에서는 다 같은 인칭 접미사 ‘-다리’의 꼴을 지니고 있지만, ㄱ.은 어휘성이 있어서 인칭 접미사로 쓰이고 있다. ㄴ.에서는 잉여성만 있어서, 실체성 이름씨로 쓰이고는 있지만, [어휘성]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ㄷ.에서는 인칭 접미사와 꼴은 같지만, 인칭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사물 접미사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접미사가 항상 개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같은 꼴의 접미사라 하더라도 통합되는 뿌리에 따라서 접미사의 기능이나, 의미 등이 다르게 나타남을 뜻한다. 몇몇의 접미사를 제외하고는 씨 별로 다양한 뿌리에 통합하는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올린 이 ‘-다리’는 ‘원-’과 통합했을 때는 사물 접미사로 쓰였고, 간접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때의 뿌리는 풀이씨이기 때문에 지배 접사로 기능하고 있다. ‘목-’과 통합이 되었을 때는 ‘사람의 목’이나, ‘길목’의 뜻으로 쓰여 인칭과는 거리가 먼 접미사가 된다. ㄱ.과 더불어 직접 통합되고 있다. 그런데,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의 문제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낱말의 접미사에서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

[어휘성]이 있고 [문법성, 대치성]이 없는 접미사의 간접 통합은, 풀이씨 뿌리에서의 통합이라면, 이음씨끝이 중심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름씨에서 이름씨 파생의 경우여서 개입되는 요소는 토씨가 된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이름씨 뿌리에서 사잇소리가 개입되어 접미사와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형태 음소적 변동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면, 뒷성분을 접미사로 보고 있는 것이 실사로 처리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보기를 들어 보면

(30) -곡/-국 : 웃-, -귀⁴²⁾ : 방엿-, -군 : 간곶-, -게미 : 낫-, -바위⁴³⁾ : 컷-

따위들인데, 사잇소리가 개입되어 있다. 그런데, 접미사로 보고 있는 말들은 통시적으로 보았든, 방언의 처지로 보았든 뿌리와 분리했을 때는 파생어에서 쓰였을 때

42) ‘-귀’는 문헌어 ‘고’에서 제주방언의 특징인 ‘전설 고모음화’가 이루어지고 홀소리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시적인 면에서 표준어의 ‘공이’에서 ‘ㅇ’이 떨어지고, ‘고이’가 되었다가, 다시 소리 마디가 축약되면서, ‘고’가 ‘ㄱ’로 교체되어 ‘귀’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앞의 현상으로 보아 둔다.

43) 이 말은 ‘월인 석보, 두시 언해’에서 ‘바귀’의 뜻으로 쓰이던 말이다.

와는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국/-국’은 ‘밥, 국’과는 액체로서는 유연성이 있어 보이지만, 파생어의 뜻은 ‘농주의 윗 부분’이어서 다른 뜻이 되므로, 접미사로 처리하였다. ‘-귀’(杵)도 말 듣는 귀와는 먼 것이다. 형태도 원래 ‘귀’가 아닌 것이 변화했다.⁴⁴⁾ 원래는 이름씨로 쓰이던 ‘고(杵)’인데 자립성을 잃었으므로 접미사로 처리하였다. 형태적으로도 유연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진다.

‘-개미’는 다른 환경에서도 쓰이는 일이 있다. ‘장개미, 메주개미’에서 쓰이고, ‘개미가 돌아, 쓰다.’라고 쓰일 때가 있지만, 뜻이 다른 것으로 보았다. ‘-바위’는 통시적으로 볼 때는 ‘바퀴나 돌레’의 뜻으로 쓰이던 말이고, ‘바위(岩)’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공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끝은 같고, 뜻은 다른 동음이의어가 되었다. ‘바위를 돌트라, 구덕 바위, 치매 바위, 입 바위, 꺾바위, 눈 바위’ 따위로 쓰이고 있지만, 표준어의 영향으로 ‘가(邊), 단(端), 입술, 귀바퀴’ 따위로 옮겨져서 실사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보아 접미사로 처리했다. 이것은 방언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토박이들의 언어 의식을 중시하면 접미사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름씨 뿌리에서 이름씨를 파생한 간접 통합의 보기를 살펴 보았는데, 실사이던 것이 접미사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온전한 파생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준파생어(고영근, 1974)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에 관계 없이 준파생어로 다루어져야 할 접미사들을 올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31) -각시(코-), -거리(안-), -구데기(송-), -국⁴⁵⁾(절-, 물결의 구비), -깁(눈-, 세-), -돌(신-), -메(손-), -바치(구석-, 침-), -부리(입-), -사리(조금-), -새기(독-), -시리(개발-), -애기(술-), -야덜⁴⁶⁾(귀-), -와치(바농질-), -왓(거리-), -찜(풀-), -징(떡-), -천⁴⁷⁾(물-, 밭-), -천(술-, 테두리), -치(불-), -토막이/-토맥이(쌈-), -푸데(밥-)

44) 훈몽자회에는 ‘고 저(杵)’로 되어 있고 글자의 뜻풀이에는 ‘방앗 고’로 되어 있다.

45) ‘-국’은 표준어에서는 ‘고개’란 말이 쓰이고 있고, 인체에도 ‘꼭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애’ 접미사가 붙지 않은 형태의 ‘꼭’에서 홀소리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언에서도 같은 뜻으로 ‘절 고개’란 말이 쓰이는 것도 방증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46) 방언에서 ‘야덜(子)’이 뿌리 ‘귀’의 영향으로 hiatus화하여 ‘야덜’이 되었다.

뜻과 형태에서 유연성을 잃었다고 보아 접미사로 보았다.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코-각시’ 따위는 완곡어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47) 월인석보 등 문헌어에서는 ‘천’이 ‘돈, 재물’의 뜻으로 자립·실사로 쓰였다. 방언에서는 ‘물천(해산물), 밭천(자본)’ 따위로 쓰이는데 같은 말로 보아진다.

따위들이다. 여기에 올린 것들도 모두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방언에서, 실사로 쓰이는 일이 있다. 뿌리와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립·실사로 쓰였을 때와는 다른 뜻과 기능을 지니므로, 접미사로 처리하여 두는 것들이다. 몇 개의 접미사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이면, ‘각시’는 방언에서는 ‘아내’의 뜻으로 쓰이나, 파생어 ‘코각시’는 ‘코 안에 난 부스럼’을 가리키는 말이고, ‘거리’는 ‘집’의 단위를 나타내는 ‘채’⁴⁸⁾와 같은 뜻’으로 쓰여서, 매인 이름씨로 볼 수 있다. ‘국’은 ‘고개’라는 말에서 ‘-애’가 떨어지고 홀소리 교체가 이루어져서 된 것이고, ‘깍’은 ‘거꾸로’의 말뼛(어원)이다. 방언에서는 ‘깍으로’의 뜻은 ‘뒤로’, ‘거꾸로’의 뜻이다. 방언에서는 ‘꼴찌’나 ‘꼴’을 나타내는 말로 잘 쓰인다. ‘돌’은 ‘돌다’>달다(懸)에서 영변화 파생이 이루어져서 이름씨가 되었지만, ‘신에 달린 끈’의 뜻으로 쓰였다.

‘메’는 방언에서 ‘메가 있다. 메가 짧다.’ 따위로 쓰이고 있지만 파생어로 쓰였을 때의 뜻과는 다르다. ‘시리’는 그 쓰임으로 보아 ‘조(곡식)’와 관련이 있는 말인데, 방언에서는 자립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그 쓰임에서 보면 ‘조(곡식)’라는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⁴⁹⁾ 그밖의 것들도 문헌어로나, 방언에서도 자립성이나, 실질적인 뜻을 지닌 것으로 보이더라도, 공시적인 관점과 방언이라는 사실로 동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접미사로 처리했다. 이러한 것들을 준접미사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에는 어휘성은 있으나, 대치성과 문법성이 없는 접미사들 가운데, 본래부터 접미사로 보이는 것들의 보기를 들어 보면,

- (32) -감(세-, 썰기), -거리⁵⁰⁾(일-, 국-), -굶데기(숫-), -께(줄-), 께기(낭-), -꼬뱅이(머리-), -쟁이(빚-), -찌(물-), -내(속-), -다리, -데기(봉-), -뎡이(남-/낭-), -똥(배-), -둥이(굽-), -둥(문-), -떼기(벨-), -레(굴-), -묵(굴-), -버릇(손지-), -발(글-), -비(따-)

48) 고영근(1974), 앞의 책, pp. 71-72.에서 ‘채’는 양단위 형식명사로 나타나지만, 특정 체언과 통합으로서 접미사화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방언에서 ‘-거리’는 표준어 ‘채’와 대응되는 말이다.

49) 현평호(1982, 1985), 앞의 책, p. 444.에서, ‘-시리’와 통합되는 말을 보면 ‘개밭-(이삭이 개밭같이 생긴 조), 밭-(쌀알이 잘고 매진 조), 소용-(쌀알이 검푸르고 매진 조)’라고 하고 있는데 ‘-시리’의 뜻은 ‘매진 조’인 듯하다.

50) 김계곤(1969), 앞의 논문.에서는 파생 이름씨로, 고영근(1974), 앞의 책, p. 87.에서는 접미사로 보고 있다.

-사니(물고-, 물팔), -새(곱-), -새⁵¹⁾(미역-), -성(일-), -섭(부-), -소리(고-), -술(돛-), -스랑(췌-), -십새(푸-), -악(벨-), -씨(글-), -억(굳-), -에(돌-)

따위가 있다. 위에 올린 접미사들 중에서 ‘-똥’은 원래는 형태적으로는 ‘便’과는 유연성이 있었지만, 파생어의 처지에서 보면 유연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방언에서도 그 소리를 피하기 위하여 ‘-또롱’이라는 변이형태를 사용하는 일도 있다. 그밖의 접미사들은 별다른 논의가 더 있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접미사로 올렸다.

다음은 특수한 파생을 하는 접미사를 들어 보면,⁵²⁾

(33) -간이(마-), -거리(코-), -글레기(코-), -내기(멧 근-), -다심(입-), -뎡이(낭-), -두세(눈-), -떼기(두 말-), -막산이(코-), -막우리(귀-), -바지(삼 대-), -백이(생 술-), -부루기(배-), -어레기(배-), -여께(입-), -옥쟁이(귀-), -유리(에미-), -쟁기리(눈-), -주시(빋-)

따위들인데 우선 이들의 형태 분석이 문제가 된다. 이들의 형태 분석을 먼저 해 보면,

(34) 마 / 간 / 이,⁵³⁾ 코 / 걸 / 이, 코 / 클르 / 애기, 멧근 / 내 / 기,⁵⁴⁾ 입 / 다슬 / 음

따위로 분석을 하였을 때, 어느 것이 뿌리인지, 또한 통합의 결과가 합성어인지, 파생어로 분석을 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뒤의 성분의 의미와 합성어의 뜻과의 사이에 어떤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 ‘마간이’에서는 ‘장마가 걷히-’의 뜻이 아니라 ‘장마가 걷힌 기회를 이용하여 조의 씨앗을 파종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걸이’는 ‘코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물같은 것의 ‘고’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과

51) ‘세(薪)’에서 유추되었을지도 모른다.

52) 김계곤(1968-1974), 고영근(1974), 유목상(1985), 하치근(1989a : 307-330)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서로 분석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53) 현평효(1982, 1985), 앞의 책, p. 444.에서 ‘마가지’의 뜻으로 ‘장마가 지난 뒤 하는 조농사’로 풀이되었다.

54) 김계곤(1969), 앞의 논문, pp. 40-47.에서는 파생 이름씨, 고영근(1974), 앞의 책, p. 91.에서는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다.

같이 분석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시 분석을 시도해 보면,

(35) ‘마/갈이, 코/거리,⁵⁵⁾ 코/글레기, 입/여깨, 귀/막우리,⁵⁶⁾ 입/다슴/다심’

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앞 성분을 뿌리로 보고, 뒤의 성분은 다시 형태나 뜻, 그리고 기능으로 보아 접미사의 설정 기준에 맞으면, 파생어로, 맞지 않으면 다른 말로 처리하게 된다. 뿌리는 그대로 놓아 두고, 접미사로 보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갈이’⁵⁷⁾는 따로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고, 앞에 다른 성분과 의존해서 쓰이는 의존성이 확인되므로 접미사로 보아야 하고,⁵⁸⁾ 방언 사전의 표기도 [가지]로 소리를 따라 쓰고 있다.⁵⁹⁾ 그리고, ‘-걸이, -글레기,⁶⁰⁾ -내기’ 따위도 같은 이유로 접미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마구리’는 자립적으로 쓰여지는 일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막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알아 듣지 못하거나, 꼭 막힌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어서 유연성이 먼 것으로 보아, 접미사로 처리한다. 만일 ‘기와의 마구리’라면 이것은 자립 실질의 낱말이 됨은 물론이다.⁶¹⁾

ㄴ. 형태 음소적 변동

형태 음소적 변동을 살펴 보면,

- 55) 김계곤(1969), 앞의 논문, p. 112.에서 ‘-걸이/-거리’는 모두 파생 이름씨로, 고영근(1974), 앞의 책, pp. 86-87.에서는 모두 접미사로 본다.
- 56) 이석주(1989), 앞의 책, p. 150.에서 ‘귀막우리’는 복합 구조로 보고, 보술구조형이라 한다. 또 위 책, p. 61.에서 ‘마구잡이’와 같은 구조는 통어론적 복합어로 보고, 복합어의 형성이 파생어의 형성보다도 뒤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통어론적 구조라고 보고 있는 점은 파생어로 보더라도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된다.
- 57) 이석주(1989), 앞의 책, p. 61.에서 ‘마구잡이’는 ‘잡이’로 파생이 먼저 일어났으므로 다시 ‘마구’와 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잡이’라는 말이 파생어로서 자립, 실사로 쓰이는지 않는다.
- 58) 하치근(1989a), 앞의 책, pp. 312-314.에서, 이러한 말은 토박이들이 파생과 복합의 겹침 구조로 보기보다는 단형태소적(monomorphemic)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파생어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라는(Bauer, 1983 : 44) 견해를 빌어, 형태, 음운, 의미상의 특수성에 의해서 파생 접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59) ‘-갈이’의 형태를 변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공시적으로는 ‘-걸이’로 홀소리가 교체되어 있고, 자립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평효(1982, 1985), 앞의 책, pp. 444.에서도 ‘-가지’로 쓰고 있다.
- 60) ‘코-걸이, 코-글레기’는 [+대치성]의 접미사이다.
- 61) 만일, 의존성을 중시하지 않고, 분포성을 중시한다면 복합어로 보아야 하지만, 접미사는 의존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36) -거리(일-), -점(폴-), -내(속-), -사니(물고-), -섭(부-), -십세(푸-), -야덜(귀-), -왕
(불미-), -왓(보리-), -치(불-)

따위들인데, ‘-거리, -점’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났고,⁶²⁾ ‘-내’에서는 뿌리의 ‘ㄱ’이 ‘ㅇ’으로 변동이 일어났고, ‘-사니, -섭, -십세’에서는 뿌리의 끝소리 ㄴ’이 떨어졌고,⁶³⁾ ‘-야덜’에서는 접미사화한 ‘-아덜’이 모음충돌회피 현상에 의해서 겹홀소리화하였다. 그리고, ‘-왓, -왕’에서는 본래의 형태가 ‘밧, 방’인데 ‘ㅂ’이 떨어지면서, 형태의 변동을 입어 접미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는 ‘재’의 뜻을 가진, 방언적인 현상을 지닌 말인데,⁶⁴⁾ 뜻으로 보면 자립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자립성을 잃고, 접미사화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불-채’의 ‘재(灰)’나 ‘채’(쌀겨)는 자립 실사로 쓰이는 일이 있으나, ‘불-치’는 반드시 뿌리 ‘불-’과 통합되어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점이 접미사로 처리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런데, 어떤 형태가 변동을 입어 변이 형태가 되었을 때, 그 변이 형태가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고 해서 접미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올린 것들은 형태가 다르고 자립성을 잃었고, 분리성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접미사로 본다.

다. 풀이씨 뿌리+유형 접미사

ㄱ. 통합 양상

풀이씨 뿌리에 유형 접미사가 통합되어 새로운 이름씨를 만들어 내므로, 접미사는 지배 접사가 되고, 문법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파생어는 방언에도 많이 있다. 여기에서는 풀이씨의 뿌리로 통합하여 쓰고, 움직씨 뿌리나 그림씨 뿌리로 나누지 않았다. 표준어에서도 움직씨와 그림씨를 구분하는 방법이 좀 복잡한 편이지만, 방언에서 움직씨나 그림씨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뿌리를 두 번 되풀이하여 ‘-ㄱ-ㄱ하다’

62) 성광수(1988), 앞의 논문, p. 97.

이강훈(1982), 앞의 논문, pp. 299-309.

63) 방언에서 형태 음소적 변동 중에 ‘ㄴ’탈락은 표준어의 그것과는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어긋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64) 현평효(1985), 앞의 책, p. 410.에서 표준어의 평음, 경음이 방언에서 기음화 경음화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김형주(1987), 어두 자음군 연구, 동아대학교 출판부, p. 24.에서도, 육지부에서 경음이나 평음인 ‘ㄱ’이 제주 방언에서는 격음인 ‘ㄱ’이나, 경음인 ‘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를 붙여 보고 말이 이루어지면 움직씨이고, ‘-ㄴ-ㄴㅎ다’를 붙여서 말이 이루어지면 그림씨가 된다. 보기를 들면,

- (37) ㄱ. 감감ㅎ다, 먹음먹음ㅎ다, 입음입음ㅎ다, 봄봄ㅎ다, 싸움싸움ㅎ다
 ㄴ. 고운고운ㅎ다, 미운미운ㅎ다, 먼먼ㅎ다, 검은검은ㅎ다, 둥근둥근ㅎ다
 ㄷ. 빔빔ㅎ다, 빈빈ㅎ다, 썩음썩음ㅎ다, 썩은썩은ㅎ다

에서 ㄱ의 ‘감감ㅎ-’ 따위는 줄기가 가진 뜻이 계속이나 과정성을 나타내므로 ‘가다’는 움직씨이고, ㄴ의 ‘고운고운ㅎ다’는 줄기가 가진 뜻이 정도(매우)를 나타내므로 ‘곱다’는 그림씨다, 그리고 ㄷ에서 ‘빔빔-’은 ‘빌다(借), 베다(割)’의 활용으로 움직씨이고, ‘빈빈-’은 ‘비-(空)’로 그림씨이다. 그런데, ‘썩음썩음ㅎ다’와 ‘썩은썩은ㅎ다’에서는 둘 다, 두 종류(-ㅁ-ㅁ, -ㄴ-ㄴ)의 씨끝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ㅁ-ㅁ’은 [+과정성]이 나타나고, ‘-ㄴ-ㄴ’에서는 [+상태성]이 나타난다. ‘썩다’와 같이 ‘-ㅁ-ㅁ’과 ‘-ㄴ-ㄴ’이 통합되더라도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한 씨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⁶⁵⁾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하여 풀이씨로 묶어 설정하게 되었다.

뿌리는 모두 풀이씨이고 접미사는 파생력을 고려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올려 뒀다. 그런데, 접미사 중에서도 본래 접미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실사에서 접사화했거나, 동요를 겪고 있는 것들이 있다. 먼저, 본래 접미사로 여겨지는 것들을 들어 보면,

- (38) -개, -거리, -쟁이, -쟁이, -구래기, -기, -넙, -다리, -댕, -댕이, -드레, -디, -래, -
 -(으)래기, -(으)랭이, -리, -매, -맹이, -세기, -생이, -성, -악, -암지, -애, -양, -
 어기, -애기, -애미, -억지, -영, -앵이, -엄, -오기, -와기, -우기, -우리, -옥, -울, -
 움, -(으)ㅁ, -웃, -이, -이개, -으, -제기, -쟁이, -챙이, -치, -토매, -폐기

따위들인데 이들은 접미사로 다루는데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본다. 이들은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로 여겨진다. 다음에는 실사에서 접사화했거나 동요한다고 보는 접미사들을 뽑아 보면,

65) ‘썩다’는 표준어에서는 제음적씨로 처리하고 있지만, 방언에서는 ‘-ㅁ-ㅁ’과 ‘-ㄴ-ㄴ’이 통합되는 점으로 보아 움직씨와 그림씨의 성질을 같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표준어에서도 ‘밝다’는(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움직씨와 그림씨로 같이 보고 있다.(새한글사전, 국어대사전)

(39) -광이/괡이, -다리(사-), -디, -막, -배기

따위로서 몇 안 되지만, ‘-광이’는 한자어에서 온 것으로 보이고, ‘-다리’는 ‘橋’에서 온 것인지, 인칭이나 사물 접미사에서 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일, 다리(橋)에서 왔다면 합성어가 되겠고, ‘-다리’에서 왔다면 파생어가 된다. 그러나 표준어에서는 단일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방언에서는 ‘사드레, 산테’ 따위로 불려지는 점으로 보아 ‘다리’의 자리에 놓인 ‘-드레’나 ‘-테’는 실사성을 잃고 접사화한 것이다. 그래서 ‘-다리, -드레, -테’가 모두 접미사로 처리해 둔다.

‘-디’는 ‘袋(ㄷ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지만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와 통합되는 뿌리 ‘차-’가 뒤에 실사를 붙일 수 있기에 추측해 본 것이다. ‘-막’은 ‘막다(防)’에서 온 것으로, 표준어로는 ‘두루마기’인데 방언에서는 ‘두루막’으로 되어 토박이의 언어 인식으로는 ‘두루-’는 뿌리로 느껴지고 ‘-막’은 ‘막다’에서 온 것이라기 보다는 한자어 ‘幕’에서 온 것으로 보여 접미사로 올렸다.

‘배기’도 ‘박이’에서 온 것은 확실하지만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유연성을 잃고 있어서 접미사로 올렸다.

이상으로 풀이씨 뿌리에 붙는 접미사들을 살피고, 그들의 통합양상을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으로 살펴 보면, 이들은 풀이씨 뿌리에 이름씨를 파생하는 접미사가 통합되므로 완전한 뿌리이고, 완전 접사이다. 그리고, 통합에서는 뿌리와 접사가 파생어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적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외적 통합에서는 토씨와 제약없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접미사이다. 그리고 파생어 자체는 통합되기 전의 뿌리는 자립성을 지니지 못한 실질 뿌리였는데, 접미사와 통합으로 자립·실질성을 갖춘 맺음 접사가 되었다. 그리고 뿌리와 접미사 사이에는 어떤 다른 요소도 개입할 여유가 없이 긴밀한 통합, 즉 직접 통합을 이루고 있다.

기능별로 접미사는 통합 전의 뿌리는 풀이씨였는데 통합을 이루고 나서는 이름씨가 되어, 씨를 바꾸는 접미사이고, 씨가 바뀌었으므로 통어 범주도 달라졌다. 그러므로 구성도 이심구성을 이루고 있다. 월 성분의 자리에서 뿌리가 놓일 자리에 파생어가 대치될 수 없으니 [-대치성]의 자질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접미사가 뿌리의 씨를 바꾸므로, [문법성, 어휘성]이 획득되어 [+어휘성]과 [+문법성]의 자질을 지니게 된다.

의미별로는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름씨가 파생되므로, 이름씨가 가지는 자질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의미의 유형으로는 인칭, 사물, 행위 따위가 중심을 이룬다.

인칭 접미사 : -깡이, -기, -배기, -사리, -삼봉, -와기/-왜기, -우기, -우리, -이, -쟁이, -챙이, -토매 따위

유생 접미사 : -바리,⁶⁶⁾ -배기, 생이, -우리, -치, -폐기 따위

사물 접미사 : -개, -거리, -갱이, -구래기, -기, -다리, -덩이, -드레, -디, -래, -래기, -랭이, -리, -막, -매, -먹, -맹이, -미, -세, -세기, -악, -암지, -에, -양, -애기, -애미, -억지, -영, -영지, -앵이, -엄, -자, - 오기, -웨, -웁, -제기, -쟁이 따위

행위 접미사 : -념, -성, -영, -음, -음, -파리, -이, -쟁이 따위

기타 접미사 : -어기, -울, -음, -이개 따위

그런데, 이 파생어들은 풀이씨 뿌리와 접사가 통합되어 이름씨를 파생하였다. 이 파생어의 씨를 바꾼 접미사의 기능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접미사가 씨의 결정 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라면 통어적인 기능도 지니게 되고, 문법적인 기능도 접미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접미 파생어는 접미사가 지배하는 범주에 의하여 전체의 범주가 결정된다(이석주, 1989 : 158).

그리고, 지배적 접미사와 통합된 파생어의 의미의 중심은 뿌리에 있고, 접미사는 씨를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의적 접미사 중에서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이 접미사와 통합된 파생어는 뿌리는 수식적 기능을 하고 접미사는 수식을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의미의 중심은 접미사에 있다.⁶⁷⁾ 그러나 잉여성의 접미사와 가의성의 접미사, 즉,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이 접미사와 통합되었을 때는 기능이나, 의미의 중심도 모두 뿌리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66) 김형주(1984), 국어 어휘 의미 통합과 분화, 언어와 언어교육 제1집, p.49.에서 마리(바리)로 보고서 '바리'는 '마리'보다 전 시대의 말로 이들을 변이 형태로 보고, 짐의 단위도 그렇게 쓰인다고 한다.

67) 이석주(1989), 앞의 책, p.173.에서 접미사가 첨가형일 때는 가의적이므로 접사가 의미 중심이 될 수 있고(잠꾸러기), 대입형일 때는 기능의 전성을 가져올 뿐, 의미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놀이).

ㄴ. 형태 음소론적 변동

앞에서도 살펴 본 바이지만, 실질(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의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파생어에서는 형태 음소론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몇가지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40) ㄱ. 된소리 되기(접미사의 첫소리가) : -개/-게 : 줍-, -거리 : 먹-, -쟁이 : 늑-,
븐-

ㄴ. 뿌리의 끝이 변한 것 : -개 : 다-(달-), 둥(두개/께), -넘 : 비-(빌 -'祈'), 노-(놀-'遊'), 사-(살-'살림살이'), -사리 : ㄷ-(돌-'테리-', '더불-'며슴), -(으)애기/-억지 : 끌-(크르-'풀-'), -쟁이 : 아구-/아우-(아귀), -토매 : 노-(놀-'遊'), -앵이 : 앓-(아지)

따위들인데, ㄱ.에서는 접미사의 첫소리가 뿌리의 받침의 영향으로 모두 된소리로 나서, 음운론적 변이 형태이나, '줍개'는 '줍개/께'로도 발음되어 뿌리와 접미사가 동시에 변하기도 한다. ㄴ.에서는 뿌리의 형태가 달라진 것들이다. '다개/게'는 '마개'의 뜻인데 방언의 뿌리는 '달-'인데 '다개'가 되었으며, '-넘, -사리, -토매/매'와 통합된 뿌리들은 모두 '-ㅁ'이 탈락한 형태들이다. 그리고, '둥개/께'(두깁)는 뿌리를 '둑-'이나 '덥-'으로 보는 것은 공시적인 태도가 아닐 지 모르지만 방언형을 찾는 입장이라 여기에 올려 뒀다.⁶⁸⁾ 여기에서는 수의적 변동에 의해서 '두개/께'가 된다. 그런데 방언에서 '두개/두께'의 변이형태로는 '두깁이, 더깁이' 따위가 쓰이고 있다. '끌억지, 끌에기(끈, 줄)'는 '크르다(매듭을 풀다)'라는 방언형인데 표준어의 대응형은 '풀다'이다. 제주 방언에서는 표준어 '표'에 대응하는 음은 'ㅋ'이 주로 쓰인다. '풀-쿨, 품 -쿰, 품다 -쿰다'로 대응되는데, '크르다'에서는 표준어에서처럼 '풀다'가 되지 않고 '크르-'가 되어 '으'가 고름 소리가 아니라 줄기의 끝소리가 된다.⁶⁹⁾ 이러한 현상은 방언에서 비교적 자연스럽다. 예를 들면, '같다 -ㄱ트다, 붙다 - 부트다, 씹다 - 서끄다' 따위로 된다. 이렇기 때문에 '끌억지'에서는 뿌리가 '크르-'로 보아야 하고 줄기의 끝소리 'ㄹ'이 탈락한 것으로 보게 된다. '끌-억지'에서 '끌-'은 외부의 영향

68) 방언에서는 표준어의 규칙에 꼭 일치하지만은 않은 점도 있다.

69) 김홍식(1977), 어간말 모음탈락에 대하여, 제대논문집 제9집. p.35.에서 방언에 있어서 용언 활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어휘에 따라서는 개음절 즉, 모음이 첨입된 모음형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으니, 이 모음은 '용언의 말음 모음'이라 하여 둔다고 하였다.

에 의해서 이끌린 형태로 여겨진다.

ㄷ. 간접 통합⁷⁰⁾

풀이씨 뿌리와 접미사 사이에 씨끝이나 토, 그외의 다른 요소가 개입하여 이름씨를 파생한 것을 간접 통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들의 통합은 통어적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뿌리나 접미사가 실사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뿌리와 접미사 사이에 개입되는 씨끝의 종류를 보면, 형태적으로는 이름씨 전성의 ‘-ㅁ, -ㅇ,⁷¹⁾ -닥⁷²⁾’과 매김씨끝 ‘-ㄴ, -ㄷ’ 따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름씨끝들도 접미사와 통합할 때에는 매김씨끝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두 이름씨가 통합될 때 앞 성분이 뒷성분을 수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씨 뿌리이지만 접미사를 꾸며 주어 앞에서 말한 가의적 접미사 중에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의 접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의 중심이 접미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접미사는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인데, 의미의 중심이 접미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뿌리와 접미사 사이에 수식적 기능을 하는 매김씨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파생어의 구성은 통어적 구성을 하고 있어서 접미사들은 앞에 수식적 기능을 하는 씨끝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식을 받는 위치에 있어 실사처럼 보이기도 하여 합성어적인 구성을 하는 것들을 준합성어, 또는 준파생어라고 하고 있다. 먼저 본래 접미사로 보이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70) 고영근(1974), 앞의 책, p. 38.에서는 ‘앉은-뱅이, 멜-뽕’을 간접 통합, 이익섭(1975), pp. 162-163.에서는 ‘앉은-’이나 ‘멜-’을 ‘어기(어근 및 어간) 보다 큰 언어 형식’, 하치근(1987a), 앞의 책, p. 39.에서는 ‘굴곡 접사로서의 기능을 잃고 뿌리의 요소로 녹아 붙은 풀’로 보고 이러한 통합을 직접 통합으로 보고, 뿌리를 겹뿌리로 처리하고 있다.

71) 고영근(1974), 앞의 책.에서 ‘-ㅇ, -억’과 같은 것은 명사형 전성어미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김홍식(1979), 앞의 논문, pp. 58-60.에서도 ‘ㄴ’의 변이형태로 ‘-ㅇ’을 들고, 1차 파생 접미사로 다루고 있다. 강정희(1982), 제주도 방언의 상태동사의 동작화과정에 대하여, 이화어문론집 제5집, p. 287.에서 ‘ㄴ’은 명사형 접미사 (-k)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라고 하고 예로 붉으락, 푸르락을 들고 이름씨로 보고 있다.

72) ‘-닥’을 접미사 사이에 개입된 요소로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만일 개입된 요소로 볼 수 있다면, 뜻과 기능은 강세 접미사로도 볼 수 있다. ‘부수닥질’에서 강세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뒤에 통합되는 접미사 ‘-질’이 이름씨 뿌리이거나, 이름씨끝과 통합된 뿌리와만 통합되는 점에서 이름씨끝의 기능을 하는 요소로도 아울러 보아 둔다.

(41) 부근-데, 돌을-락, 얹은-뱅이, 두름-성, 마굴 -챙이, 조금-테기

따위인데 이 중에는 통시적으로는 실사이던 것이 공시적으로는 형태적으로나, 의미, 기능적으로 서로 유연성을 잃고 접미사화한 것들도 있다. ‘-뱅이, -챙이’ 따위가 그런 것들로 보인다. 그 이외의 것들도 형태나, 기능, 의미면에서 접미사로 보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리라 여긴다. 그런데, 실사와 접미사의 중간에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접미사로 처리하는 것들을 들어 보면,

(42) 돌을-내기, 준-다니, 돌을-라기/-락, 족들-메, 곱음-작/-재기, 지들-커, 그슬-퀴,
산-테

따위들이다. 이들을 형태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 두 소리 마디여서 실사로 보이기에 안정성을 지녔고, 한 소리 마디로 되었더라도 앞에 매김씨끝이 있어서 매인 이름씨처럼 보여 실사처럼 쓰였다.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는 접미사로 보기도 한다.⁷³⁾ 그런데 여기에서는 접미사로 보고 올려 뒀다. 먼저 ‘-갱이’는 ‘꺾갱이, 원갱이’처럼 ‘___한 것’ 또는 ‘___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점에서는 매인 이름씨로 볼 수도 있지만 ‘-갱이’란 매인 이름씨는 설정할 수 없으며, ‘꺾갱이’에서처럼 뿌리에 바로 통합이 되는 점도 있어 접미사로 처리하여 둔다. 그런데, ‘정갱이’(배캐)의 형태는 많은 변동을 입어서 단일어로 처리할 수 있지만, 방언의 처지에서 보면 뿌리와 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 방언에서는 ‘절다, 절이다’ 따위는 많이 쓰이고, ‘전 것’, ‘전 테(절룩거리는 사람)’ 등도 보여 뿌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다니’라는 접미사는 구성이나 형태적으로 실사일 것 같기는 하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준다니’는 ‘잔소리’라는 뜻으로 쓰인다. 방언에서는 ‘준-’이라는 실사가 생산적으로 쓰인다. ‘준 일, 훌근 거, 준 거’ 따위로 쓰이고, ‘줄다, 훌다’도 많이 쓰이는 점으로 보아 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아 파생어로 본다.

‘-락/-라기’는 표준어의 ‘내기’와 비슷한 점도 있는데, 통합에서 차이는 ‘내기’는 이름씨 뿌리이거나, 이름씨 씨끝이 붙은 뿌리와만 통합되는데, 방언 접미사 ‘-락’은 이름씨 뿌리와는 통합이 되지 않고, 반드시 움직씨 뿌리에 매김씨끝 ‘-ㄴ’과만 통합

73) 김계곤(1969), 앞의 논문.에서는 실사로, 고영근(1974), 앞의 책.에서는 접미사로 다루고 있다.

하는 점이다.⁷⁴⁾ <동작성> 움직씨 뿌리에 매김씨끝 ‘-ㄴ’이 붙으면 거의 제약없이 붙을 수 있는 점으로 보면, 매인 이름씨로 볼 수 있는 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방언의 접미사 ‘-내기’와는 형태적으로 변이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기’는 이름씨 뿌리와도 통합이 되나, ‘-락/-라기’는 이름씨 뿌리와는 통합이 되지 않아서 변이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그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43) ㄱ. 돈내기, 먹기내기, 저녁내기 따위

ㄴ. 돈내기, 먹을내기, 곱을내기, 조냐내기

ㄷ. *돈라기 (돈넬락) 먹을락/라기, 곱을락/라기, *저녁락/저녁 먹(을)-락/라

기

(43)에서 보면 ㄱ.은 표준어에서 ‘-내기’와 통합된 보기이고, ㄴ.은 방언에서 ‘-내기’가 통합이 되는 보기이며, ㄷ.은 ‘-락/-라기’가 통합되는 보기이다. 그런데, ㄴ.과 ㄷ.의 접미사가 변이형태로 보이는 ‘-락’과 ‘-라기’에서 ‘-락’은 그렇지 않지만 ‘-라기’는 뒤의 ‘ㅣ’의 영향으로 ‘-래기’가 되어 ‘ㄴ’이 떨어져 ‘ㄴ’이 되어 ‘-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둘은 형태적으로 같게 보일 뿐 다른 것이다.

그러면, ㄴ.의 ‘-내기’와 표준어의 ‘-내기’는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 보면, 방언의 이름씨 뿌리와 통합된 것은 표준어의 ‘-내기’와 같은 형태, 의미,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ㄴ.에서 움직씨 뿌리에 매김씨끝과 통합된 것은 ㄷ.의 ‘-락/-라기’의 변이 형태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서 ‘먹기내기’와 ‘먹을내기’의 ‘-내기’는 서로 다른 것이다. 만일 이 둘을 같은 것으로 가정할 때는 통시적으로 ‘-ㄴ’이 이름씨로서의 자격이 밝혀지고 있지만,⁷⁵⁾ 공시적으로는 그같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져 여기에서는 다른 것으로 보아 둔다. 만일 그같은 기능이 방언에 실제로 쓰이고 있다면 이것은 층위적인 면에서 고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작/-재기’라는 접미사를 살펴 보면, 이 접미사도 풀이씨 뿌리에 이름씨

74) 통시적으로 볼 때 ‘-ㄴ’이 동명사적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래서, 풀이씨 뿌리에 ‘-ㄴ’이 통합되어 이름씨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75) 김완진(1957), -n, -l 동명사의 통사적 기능과 발달에 대하여, 국어연구 제2호, pp. 45-67.에서 ‘-n, -l’ 동명사의 기능과 발달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강성일(1982), 국어학논고, 형설출판사, pp. 20-22.에서도 ‘관형사형 ‘ㄴ’의 명사적 용법을 인정하고 있다.

끝 ‘-ㅁ’이 통합된 형태와만 통합이 된다. 그런데, 이 접미사는 <동작성> 움직씨 뿌리에만 통합되는 점이 앞의 ‘-락/-라기’와 비슷한 점이 있다. 뜻으로도 ‘돌음재기/작’이나 ‘돌을락/라기’가 ‘달리기’의 뜻으로 서로 같고, 이름씨 뿌리와는 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또한 같다. 다른 점으로는 생산적인 쓰임에서는 ‘-락’이 앞서고, ‘-작’은 제약이 더 있는 편이고, ‘-락’은 ‘-ㄹ’과만 통합이 되는데, ‘-작/-재기’는 ‘-ㅁ’과만 통합이 되는 점이 다르다. 그 보기를 들면 아래와 같다.

- (44) ㄱ. 곱음작, 돌음작 *곱을작, *돌을작
 ㄴ. 곱을락, 돌을락 *곱음락, *돌음락

이 둘은 비슷하거나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파생 이름씨인데, 환경만 맞으면 새로운 파생어도 생산할 수 있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즉, ‘걸을락, 걸락, 흘락’ 따위로 파생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능성의 파생어는 ‘-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내기’는 이름씨 뿌리나 ‘-기’가 통합된 이름씨 파생어에 통합되기도 하나, ‘-ㅁ’과 통합된 파생어와는 통합되지 않는 특징도 있다.

다음에는 ‘-질’ 접미사는 <실체성> 뿌리에 붙어서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⁷⁶⁾ 방언에서도 그러한 점은 발견이 되지만, 특히 통합에서 다른 점이 발견된다. 먼저 이름씨 뿌리에 통합이 되는 것은 제외하고 풀이씨 뿌리에 다른 요소가 연결되어 ‘질’ 접미사가 통합되는 것을 올려 보면 다음과 같다.⁷⁷⁾

- (45) ㄱ. -질 : 고침-(고치는 일), 나꿈(늑이)-, 뒤썰-(뒤집는 일), 부빔-(비게질), 불림-(불리는 일), 설름-(설겅이) 따위
 ㄴ. -질 : 부수-닥-(부수는 일), 빌-억-
 ㄷ. 돌-음-박-(달음질), 싸우-음-박-(싸움질)
 ㄹ. -질 : 매-닥-(서로 때리는 일)

76) 하치근(1989a), 앞의 책, p. 230.에서, 실체성을 동작화시키는 접미사로 ‘-질, 노릇, 노리’를 들고 있는데 방언에서는 ‘-질’을 제외하고는 실사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해 놓은 노릇을 보라. 처럼 실사로 기능을 한다.)

77) 하치근(1989a), 앞의 책, pp. 230-231. 표준어 파생어에서는 ‘-질’ 접미사는 이름씨 뿌리와는 직접 통합을 이루지만, 풀이씨 뿌리와는 매개 요소로 이름씨를 만드는 ‘-음, -이, -개’가 있어야만 통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언에서는 이름 씨를 만드는 요소 이외의 요소들과도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풀이씨 뿌리와 직접 통합의 보기도 나타난다.

여기의 1차적 뿌리는 ㄹ.을 제외하고는 모두 풀이씨의 뿌리이다. 나머지들은 간접 통합의 요소인 이름씨끝인 -(으)ㄷ이나, 그외, 겹뿌리 형성의 요소인 ‘-억,⁷⁸⁾ -닥, -박’ 따위가 개입해서 접미사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ㄷ.에서는 뿌리에 1차요소가 통합이 되어도 자립·실사로 파생될 수 있는데, 다시 2차 접미사가 통합되어 파생어를 이루고 있다. 먼저 분석의 편의를 고려해서 뿌리와 접사로 2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분석을 시도하여 보면 ‘-질’이란 접미사는 이름씨 뿌리와만 통합이 되므로 접미된 1차 요소 모두를 이름씨 파생 접미사로 보고 파생겹 뿌리가 형성된 후 ‘-질’과 통합된 것으로 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⁷⁹⁾ 그리고, ㄷ.에 2차 요소로 덧붙은 ‘-박’은 또한 이름씨 파생의 접미사로 볼 수도 있으나 이름씨 파생어에 다시 이름씨 파생의 접미사가 덧붙어서 다시 행위를 나타내는 ‘-질’이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세 접미사로 다루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⁸⁰⁾

이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면, ㄱ.은, ‘고치/-ㄷ/-질’로, ㄴ.은 ‘부수/-닥/-질’, ㄷ.은 ‘돌음/-박/-질’, ㄹ.은 ‘매/-닥/-질’로 분석을 하면 간접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간접 통합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질’의 앞선 성분들을 모두 접미사로 처리하여 파생 뿌리로 보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씨끝과 통합되는 것만 간접 통합을 인정하는 처지여서 이렇게 처리해 둔다. 그런데, ‘-박-, -닥-’에서는 동작의 반복의 뜻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 강세 접미사로 보려고 하는 요소(-닥-, -박-)들의 의미는 ‘돌음질’(달리는 행위)은 ‘그대로 달리는 행위’이나 ‘돌음박질’은 ‘세차게 달리는 행위’를 나타내고, ‘매질’은 ‘일방적으로 치는 행위’를 뜻하나, ‘매닥질’은 ‘서로 격렬하게

78) 이승녕(1961a), 중세 국어 문법, 을유문화사, p. 85.에서는 ‘-ㄱ, -악, -억, -옥...’이 어간에 연결되어 명사형을 만드는 예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1961b), 국어 조어론고, 을유문화사, p. 89.에서는, 국어에서 접미사 ‘ㄷ’이 모든 경우와 같이 어간+k가 완전히 어간+ㄷ과 병립되는 것이고, 이 접미사 -k도 전성 명사, 관형사형, 부사형 접미사가 된다고 하면서 변이형태를 ‘-악, -억, -옥, -옥, -ㄱ’을 들고 있다.

79) 하치근(1989a), 앞의 책, pp. 165—166.에서 뿌리의 종류를 홑뿌리와 겹뿌리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사물, 인칭 접미사는 홑뿌리와 통합이 이뤄지는데, 행위 접미사는 홑뿌리 외에 겹뿌리와 통합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80) ‘-박’을 강세 접미사로 보려고는 하지만 이름씨 뿌리에 강세 접미사가 통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만 ‘동작성’ 이름씨일 때는 동작이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때리고 맞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강세 접미사로 볼 수 있다.

다음에는 '단추'에 대해서 살펴 보면, 관점에 따라서는 단일어로, 또는 합성어나, 파생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말인데⁸¹⁾ 방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합성어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의 자립성을 먼저 들면 '저울 추, 시계 추'가 쓰이고 있고 '추를 달다' 따위의 월이 이뤄지는 점을 보면 합성어라고 보아진다.

'지들커(떨감)⁸²⁾'에서 '-커'를 접미사로 보아 둔다. '지들커, 입을커, 먹을커' 따위로 쓰여져서 '-커'는 매인 이름씨로, 표준어 '것'에 대응된다. 그런데 방언에서는 이제는 표준어 '것'과 대응된다는 인식도 없어진 것 같이 보이고, 만일 지금의 '지들커'라는 뜻의 말을 젊은 토박이들에게 말하도록 한다면, 아마 '연료, 떨감, 떨나무, 떨것' 따위로 말할 것 같아, 실사에서 유연성을 잃고 접미사화한 것으로 보든지, 동요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 준접미사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올려 됐다. '입을커, 먹을커' 따위도 거의 쓰이지 않으며, 만일 쓴다면 '입을 것', '먹을 것'으로 쓰일 것이 예측되므로, 공식적으로는 준파생어가 되고 있다.

'그슬퀴(끌어 당기는 도구)'에서도 '-퀴'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지금은 어떤 뜻인 지를 알 수 없으니, 접미사로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느렁테'는 단일어로 처리하려는 주장도 있지만 '-테'가 방언에서는 꽤 생산적으로 쓰이는 인칭 접미사이다. 보기를 들면 '전테(절룩거리는 사람), 자근테(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사람)' 따위로 쓰이는데 '느리+엥⁸³⁾+테'로 1차적 접사가 통합이 되어 다시 인칭 접미사와 통합된 파생어이다. 그런데 '-테'를 접미사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뿌리는 겹뿌리로 보아 '느렁-테'로 분석하여 둔다.

라. 어찌씨 뿌리+유형 접미사

어찌씨 뿌리에서 이름씨를 파생하는 경우는 대개 인칭 접미사나, 사물 접미사로 국한되는 것 같다. 그것은 어찌씨 뿌리가 갖는 속성이 인칭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81) 김계곤(1969), 앞의 논문, p. 39., 고영근(1974), 앞의 책, p. 120., 하치근(1987), 앞의 책, p. 40.에서는 '-추'를 접미사로, 최규일(1989), 앞의 책.에는 올라 있지 않다. 방언에서는 자립성이 인정된다.

82) '지들커'는 '지들+ㅎ+거'에 'ㅎ'이 덧난 형태다.

83) '-엥'을 어떤 씨끝으로 보아야 할 지는 의문이다. 이름씨끝이나 매김씨 끝으로도 가능한데, 매김씨끝으로 보면 뒤의 접미사는 실질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보기의 '전-, 자근-'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

등을 나타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쓰이는 어찌씨 뿌리도 본래 어찌씨에서보다 상징어 뿌리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6) -바리 : 절뚝-/철록-
 -에기 : 두들-, 몽글-, 굶질-,
 -와리 : 버부-/버버-, 자주-, 차추-
 -쟁이 : 발록-, 쿨록-
 -질 : 딸국- 따위

이들 뿌리는 본래는 반복 상징어인데, 접미사와 통합되면서 한쪽을 탈락시켜, 파생어를 만드는데, 이름씨나 어찌씨를 파생하는 ‘-ㅣ’계 접미사와의 통합을 제외하면 몇 안되지만, 이러한 형태의 결합은 생산적이다. ‘두들애기’는 ‘두드러기’로 일종의 부스럼의 이름으로 쓰였고, ‘-와리’와 통합된 파생어들은 인칭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인칭 접미사로 상징 뿌리와 통합된 파생어의 뜻은 대개 ‘모자람이나, 지나침’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상징 뿌리는 어찌씨로 다루어진다. 이 뿌리에서 다시 ‘-ㅣ’계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름씨나 어찌씨가 파생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

마. 불구 뿌리⁸⁴⁾+접미사

불구 뿌리란, 뿌리의 본래의 씨(품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불구 뿌리를 인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동형성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즉, 씨를 알 수 있는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된 파생어와, 씨를 알 수 없는 불구 뿌리에 꼴이 같은 접미사가 통합된 파생어가 형태나 의미, 기능이 서로 유연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될 때, 공시적으로는 그러한 뿌리의 씨를 알 수는 없지만, 예측되는 씨로서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믿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불구 뿌리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단일어로 처리하거나.⁸⁵⁾ 또 뿌리가 분명한 씨를 알

84) 허웅(1975), 앞의 책, p.215.에서 불구 뿌리는 오직 한 형태소와만 결합할 수 있거나, 또는 그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뿌리이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 드는 뿌리는, ‘-ㅎ다’ 이외의 다른 형태소와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불구 뿌리는 씨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85) 고영근(1974), 앞의 책, p.64.에서, 어근이 불규칙할 경우는 접사가 아무리 규칙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단일어적인 성격이 농후하다고 했다.

수 없고, 자립성도 없으므로 접두사로 보아 접두 파생어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 뿌리에 통합되는 접미사들은 모두 완전한 뿌리에 통합되었거나 통합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뿌리가 확실하지 못한데 접미사마저 완전하지 못하면 파생어로서 자격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구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된 파생어의 보기를 들면, 아래와 같다.

- (47) -가리 : 땡-(덩이 부분), -고리 : 도-(돌-) -깨 : 허-(허깨비) -쟁이 : 돛-(돌-
回, 회오리 바람) -다리 : 콩-(아이들이 무섭게 여기는 사람?), 용-(문둥병 환
자) -텍이 : 망-(항아리) -데기 : 번-(넓은 들판), 복-(부피) -땡이 : 병-(덩어
리), 용-(용당이) -독 : 문-(먼지) -똥 : 무-(처마 밑) -둥이 : 궁-(엉덩이), 목-
(막대), 몽-, 방-(장난감), 주- -뒤 : 방-(장난감) -룻 : 낙-(산끄대) -바리 : 다
금-(바닷고기 이름), 비-(치녀), 냉-(치녀) -배 : 돛-(도마) -땡이 : 돌-(달팽이)
-붕이 : 두루-(제 정신이 아닌 사람), 병-(모자란 사람) -뽕 : 늪-(무우) -사
리/-시리 : 망- -살 : 닥-(딱) : 방-, 덕-, 명-, 초- -쉬 : 작-(작대기), 방-(비법),
열합-(엄병덤병하는 사람), 횃대-/걱대-(키가 큰 사람) -애 : 종-(종아리) -아
리 : 동- -역 : 세-(썰기) -에기 : 병-(병아리), 봉-(등애) -앵이 : 봉-(등애)
-오기 : 솔-(솔개) -이 : 중병-(논개) -올 : 늪-(나물) -제비 : 허-(허수아비)
-쟁이 : 콩-(못겉이), 난-(난장이) -지 : 닥-(딱지) -지리 : 용-(용달솔) -채기
: 덩-/둥-(둥치) -치 : 덩-(둥치) -탱이 : 땡-(짚으로 만든 그릇, 떡동구미),

이러한 파생어들에서, 뿌리나 접미사는 많은 변이 형태를 가지고 있음이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변이 형태를 지니고 있음이 불구 뿌리를 인정하게 되는 근거다. 먼저 뿌리의 변이 형태들을 살펴 보면, ‘땡가리’에서 뜻은 ‘줄기를 따라 생긴 몽툭한 부분’으로 ‘데가리’로도 쓰인다.(예 : 마농땡가리, 감제땡가리) ‘데가리’는 방언에서 ‘머리’라는 뜻인데, ‘데-’에 ‘ㅌ’이 덧붙은 형태로도 보인다. 그리고, ‘데-’는 뿌리라는 점은 심증이 가는 것은 ‘데-땡이’라는 변이 형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땡가리’의 ‘땡-’을 불구 뿌리로 보게 되었다.

‘도고리’에서는 합성어적인 성격이 짙다. ‘돌-고리’에서 ‘ㄹ’이 떨어져 ‘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돌’의 뜻은 ‘石’인지 ‘回’인지는 모르지만 재료를 중심으로 하여 이름이 붙여졌으면 ‘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모양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라면 ‘回’가 될 것이다. 그런데, 둥근 모양일 때는 ‘돌/돌’이 쓰이는 일이 방언에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예 : 두래, 둘래 따위) 그리고, ‘-고리’는 실사로 ‘고리버들로 만든 그릇’의 뜻으로 알고 있지만 방언에서는 ‘고리’가 그리 쓰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변이된 형태로 ‘소코리/송코리’로 쓰여지고, 욕으로 ‘고리백정’이라는 말을 ‘고래백정’으로 받아 들이는 일도 있어서 자립·실질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접미사로 처리하여 둔다.

‘허깨’에서 ‘허-’는 한자어 ‘虛’에서 온 것으로 보이고, 접미사는 ‘-개’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뿌리와 접사 사이에는 사잇소리가 끼여들어서 ‘-깨’가 되었다. ‘허제비’ 등의 변이 형태가 있다.

‘돛-켄이’는 ‘회오리 바람’의 뜻인데, 뿌리 ‘돌(回)-’에 ‘-켄이’ 접미사가 붙어 회오리 바람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받침 ‘ㄹ’이 ‘ㄷ’으로 된 것이다.

‘콩다리, 용다리⁸⁶⁾’는 접미사 ‘-다리’가 인칭으로 많이 쓰이는 점은 앞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분명한 접미사에 붙은 뿌리는 ‘어린 아이들이 무섭게 여기는 사람?’이나 ‘문둥병 환자’를 가리킨다.⁸⁷⁾

‘망-대기/-테기’는 ‘물건을 담아 두는 ‘작은 항아리’인데 ‘-대기’는 사물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인다(예 : 차대기‘자루’, 작대기‘긴 막대’ 따위). 그리고, ‘망-’의 뜻을 추정해 보면 ‘물건을 담은 그릇’으로 ‘망-탱이’가 있고 ‘망-시리’가 있는데 이 ‘망-’과 같은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그릇을 만드는 재료는 다르다.

‘다금-바리’는 물고기 이름인데, ‘돔-바리’, ‘불-바리’라는 물고기가 있어서 ‘-바리’는 물고기 이름에 붙는 접미사라는 것은 확인된다. ‘돔-바리’는 ‘도미’이고, ‘불-바리’의 ‘불-’은 고기의 빛깔이 붉어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금-’은 무엇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는 없다. 그리고, ‘-바리’가 인칭 접미사로 쓰여지는데 ‘비-바리’는 ‘처녀’ ‘냉-바리’는 ‘결혼한 젊은 여자’를 말한다.⁸⁸⁾

‘병-탱이, 웅-탱이’는 ‘덩어리, 웅덩이’의 뜻인데, 접미사 ‘-탱이’는 이름씨 파생의

86) 문헌에는 ‘룡병’이 있어 ‘나병’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용다리’는 방언에서는 ‘나병 환자’를 가리킨다.

87) 훈몽자회(중 : 33)에 ‘룡병 회’가 나오는 점에서 ‘용다리’는 ‘문둥병 환자’임이 드러난다.

88) 김홍식(1983), 앞의 논문, pp. 12-13.에서 ‘비-바리’ 따위의 접미사에 대해, 인칭으로 ‘왜-바리(왈가닥), 보통명사를 파생하는 말로는 ‘곰-바리(곰팡이), 죽-바리(병신 우마)’를 들고 있다. 그리고 ‘비바리’에서 ‘비-’는 ‘여성을 의미하는 어사일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의존 형식인 조어 성분’ 즉, 기어로 보았다.

접미사로는 생산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뿌리 ‘병-, 웅-’의 뜻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다만 변이 형태의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 ‘병에, 웅텡이’이 따위로 볼 때, 뿌리로 쓰인 ‘병-, 웅-’이 실질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웅-지리(웅달솔)’와 같은 ‘웅-’이 쓰인 말에서 추측으로 그 뜻을 짐작해 보는 것이다. ‘병-’은 ‘덩어리나, 뭉툭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고 ‘병겅(병거지)’도 같은 뿌리의 파생어로 다룬다.

‘늑물/늑물(나물), 늑뻘(무우)’가 방언에서는 생산적으로 쓰이는데, 표준어에서는 ‘나물’이 쓰이고 있을 뿐이고 ‘늑뻘’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뿌리 ‘늑-’은 우리의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말일 것 같다. 표준어에도 ‘나물, 남새(심어서 가꾸는 나물. 무우, 배추, 아욱 따위)’가 있는 점에서 보면 방언 ‘늑뻘’이 있는 것은 오히려 잘 짜여진 말만들기(well-formed word formation)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⁸⁹⁾ 같은 뿌리에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늑-’은 ‘채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접미사 ‘-을/을’은 ‘배추’를, ‘-뻘’은 ‘무우’를, ‘-새’는 ‘채소의 총칭’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구 뿌리를 설정하였을 때 말밑(어원)을 살피게 되고, 파생어의 뿌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단일어로 보았을 때는, 이 세 낱말을 다른 말로 보게 되는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어휘 수의 증가가 필요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방석, 명석, 덕석, 초석’에서 뿌리의 뜻과 접미사의 뜻을 살펴 보면, ‘방석’은 한자로 ‘方席’, ‘초석’은 한자로 ‘草席’, ‘덕석’은 ‘추울 때에 소 등을 덮어주는 명석’, ‘명석’은 ‘짚으로 새끼 낱을 싸서 결은 큰 자리’로 되었는데, ‘방석, 초석’은 한자어로, ‘명석, 덕석’은 고유어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앞 성분이 한자로 되었거나, 고유어로 되었거나 뒷 성분의 형태는 모두 같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방석과 고유어로 된 덕석은 소리만 같은 것이고, 뜻으로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지가 문제이다. 그러면 한자어로 이뤄진 것은 다를 수가 없다 하더라도, 고유어로 이뤄진 것은 단일어가 아니라면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덕+석’으로 분석을 하고 ‘-석’을 접미사로 보아둔다.

89) 현평효(1969, 1985), 앞의 책, pp. 255-278.에서 ‘늑물’ 따위의 형태가 ‘*늑>늑>늑물>늑물>나물’로, ‘늑뻘’도 ‘늑’에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본다.

‘빙애기(빙아리)’를 뿌리와 접미사로 나누어 보면 ‘빙-애기’, ‘빙액-이’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의 분석 방법은 ‘송-애기’, ‘몽-생이, 강-생이’ 따위가 있어서 가능하고, 뒤엣것은 상징어 ‘비악비악, 빙약빙약’에서 상징 뿌리 ‘빙약-’에 ‘-이’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비악비악’에서 ‘비아기’가 되고 다시 뿌리의 첫소리에 ‘ㄴ’이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같이 여겨진다. 날짐승의 이름에는 이런 딸만들기 방법이 더러 쓰이고 있다.

‘공쟁이, 난쟁이’에서, ‘-쟁이’는 주로 인칭 접미사로 쓰이는 접미사인데, ‘공쟁이’는 사물로 ‘걸어 두도록 만든 도구’여서 ‘동형성의 원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난쟁이’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인칭의 뜻이고, 하나는 들나물(냉이)의 뜻이다. 그런데 방언에서는 ‘난-드르, 난-전’ 따위로 쓰이는 일이 있어 인가와 멀리 떨어진 들이나, 밭을 일컫기도 하는데, ‘난’에도 실질적인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확증을 잡지는 못했다. 다만, 여기에서는 ‘난-’이 불구 뿌리로 보아 둔다. 이러한 점에서 사물에 쓰인 ‘공-’도 불구 뿌리로 보아 둔다. ‘난-쟁이’를 인칭 파생어로 썼을 때는 ‘난쟁이(냉이)’에서 ‘낮게 땅에 붙어 있는 모습’에서 유추에 의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접미사와 통합하여 이름씨를 파생하는 불구 뿌리를 살펴 보았는데, 방언의 파생어를 다루면서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표준어의 입장에서는 통시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는데, 어원론적인 시도로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다만 방언을 사용하는 토박이의 언어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길을 중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3. 움직씨 파생의 양상

움직씨 파생의 양상을 살펴 보면, 주로 움직씨, 그림씨, 이름씨, 어찌씨, 불구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움직씨를 파생하게 된다. 그런데, 움직씨가 파생되므로, 움직씨의 뜻이나, 기능에 따른 파생어가 형성된다. 강세 접미사와 같은 것은 [+대치성]을 지니는 파생어를 이룰 수 있다. [+어휘성] 접미사 중에는 방언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수여 접미사’ ‘-애-/-에-’가 있다. 움직씨 파생의 접미사들 중에는 표준어 형태와 다른 것도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방언에서는 움직씨와 그림씨의 자질을 가진 형태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유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들의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 3. 1. 접미사 목록

가. 움직씨 뿌리+

(1) 강세 접미사와 통합(Ⅳ유형 접미사)

-ㄱ- : 묻지-(만지다),

-(-으)대기- : 거두-(거두다), ㄱ리-(ㄱ리다), 다-(닿-,부딪다), 두루-(두루다), 벨르-(떠들썩하다), 부수-(부수다), 뿌리-(뿌리치다), ㅅ-(-부수다), 세우-(큰 소리로 외치다), 안주-/언주-(영구다), 웃이-(웃애다), 직-(찍 어대다), 추-/치-(떨다), 후리-(후리치다), 훈드르-(뒤흔들다), 홍이-(큰소리로 외치다)

-뜨- : 누르-(눌르다)

-수- : 깨-(깨뜨리다), 방-(날카롭게 하다)

-싸/-썰- : 놀-(날래다), 베르

-쓰- : 베르-(헤치다)

-아리 : 세-(헤아리다), 조-(좃-,조아리다)

-옴- : 걷-(걷다‘收’)

-치- : 거리-(놓히다), 굿-(그치다), 내-(내놓다), 넘-(넘치다), 덮-(덮 치다), 데우-(데우다), 뿌리-

(2) 하임 · 입을 접미사와 통합(I 유형 접미사)

구- : 돛-(돛게 하-), 솟-(솟게 하-), 엉-(두루 차지하다)

기- : 국-(국끼-, 언치다), 냉-(남기-), 념-(넘기-), *동-(동이다), 맬-(기-), 발-(벌리다)
벧-(벗기-), 숨-(숨기-), 안-/앵-(안기-), 좇-(從), 줌-(잠기-)

리- : 갈-(가르-), 갈-(磨), 걸-(掛), 꼴-(깎-), 놀-, 놀르-(누르-), 놀-(날아가게 하-), 돌-
들-(든-), 둘-(縣), 말-(못하게 하-), 물-, 빌-, 올-(오르-)

에기- : 굶-(굶게 하다)

우- : 거늘-(보살피-), 걸-(걸게 하-, 시험하-), 꺾-(받히-, 꺾게 하-), 깨-, 꽃-, 끼-, 느리-
(내려가게 하-), 놀-(날아가게 하-), 데-(덥히-), 들-(들라지게 하다), 둘-(따르-)
뜰이-(따돌림을 당하다), 메-(매게 하-), 발르-(바르게 하-), 벌-(벌리-), 베-(뵈-)
불-(불어나게 하-), 비-(비게 하-), 뿔-(뺨지게 하-), 소들-(시들게 하-), 썰-(쏘이-)
에우-(외우-), 잇-, 일-(이루-), 재-, 즈들-(괴롭히-), 절-(절게 하-), 조르-(조르-), 쥘-
(조이-), 지-(지게-), 질-(기르다) 즈글-(간지럽히-), 즈물-(잠기-), 체-(차이게 하-)
케-(태우-), 터지-(터뜨리-), 태-(태우-), 툇-(뜨게 하-), 틀-(틀어지게 하-), 폐-(폐
지게 하-), 혈-(혈게 하-)

이- : 째-, 거슬-(건들이-), 건너-(넘겨 주다), 걸-, 꺾-(꺾질을 벗기-), 궁글-(흔들-)
꺾-, 놀-, 꺾-, 기실-(끄올리게 하-), 나-(出), 놀-(날게 하-), 버물-(더럽히-), 놓-, 눅-
다-(닿-), 둘-(달리 ‘縣’), 맥-(먹이-), 문들-(떨어뜨리-), 밀-, 물-(말리-), 불-, 빗나-
(빔을 지-), 속-, 일-(일게 하-), 올르-(오르게 하), 올-, 익-, 자블-/자울-(기울이-)
절-(저리-), 줄-(옴추리-), 지울-(기울-), 질들-(길들이-)

이우- : 트-, 서-, 꾸-, 차-

지- : 굶-(굶기-), 곱-(감추-), 곱-(감기-), 까-(까-/주-,깨이-), 누금-(눅게 하-), 빗-(빗기-)
, 심-(잡히-), 신-(신기-), 싹-(싹기-, 스치-), 앓-/앗-(앓히-), 얻-(아내나, 남편을
얻게 하-), 엮-(엮히-), 웃-(웃기-), 입-(입히-), 염-(여물게 하-), 적-(젓게 하-), 줍-
(꼬집-), 쿨-(안기-), 타-(뛰지-)

치- : 추-(치기-)

치우- : 그르-(잘못되게 하다)

후- : 돛-(돛게 하-), 굶-(갓추-), 받-(받치-),

-히- : 맞-(마추-) ,땃-(말기-, 멈추-)

(3) 수여 접미사와 통합(I 유형 접미사)

-에/-애 : 도오-(도와 주다), 덜-(덜어 주다), 늘-, 없-, 뵈-

-들- : 다-(닿-, 더듬다)

-디- : 언-(얼-, 영기다, 굳다)

-주- : 잡-(참소하다), 줍-(재피다), 꺾-(활꺾다)

-질-/지- : 잼-(줍-,비뚤어 짜다)

-클-/클- : 내-(나-, 나아서 일을 서두르도록 하다, 마음을 내키도록 하다)

나. 이름씨 뿌리+II유형 접미사

-사- : 곤-(소금끼가 끼다) -다슬- : 정-(경치다) -들- : 얼-(애쓰다)

-먹- : 게심-/게슴-(심술을 부리다) -지- : 칭-(충계를 이루다)

-치- : 고론배기-(맞서다), 정-(경-) -털- : 마니-(고개를 설래설 짓다)

-테우- : 귀-(암시를 주다) -트- : 질-(기지개를 켜다)

다. 그외 뿌리+접미사

ㄱ. 풀이씨 뿌리+접미사

-가- : 들러-(훑쳐 가다) -나- : 업어-(책임지다)

-들- : 다-(닿-, 떠듬떠듬하다), 졸-(움추리다)

-디- : 언-(얼-, 영기다, 굳게 하다)

-울- : 순-(일의 순서를 조차, 서로 도우면서 일하다)

-주- : 잡-(참소하다), 줍-(꼬집다)

-질- : 잼-(짜-, 비뚤어 짜다)

-긋-/긋- : 내-(나아서 일을 서두르게 하다)

ㄴ. 어찌씨나 불구 뿌리+접미사

-다시리- : 몽-(자꾸 잔소리를 하다)

대- : 글근-(자꾸 괴롭히다), 늪-(어지럽히다), 험-(어지럽히다)

-지- : 던덕-(덩어리가 되다)

-치- : 별적-(배정적하다)

-차- : ㄹ로-(갈음하다)

라. 그림씨 뿌리+Ⅱ유형 접미사

-구- : 달-(달아 오르게 하다)

-우- : 걸-(땅을 걸게 하다), 낫-(勝, 낫게 하다), 늘-(勝, 늘게 하다), 발르-(바르-, 바르게 하다), 비-(空, 비게 하다), 어질-(어지럽히다)

-이- : 등글-(등글게 하다), 몽글-(뭉아진 상태, 뭉게 하다), 모질-(비뚤다), 버물-(더럽히다), 붉-(밝히다), 숙-(숙이다), 얼-(영기다), 익-(익히다), 지울-(기울이다),

-지- : 답-(답끼다)

-후- : 곧-(바르게 하다), 굳-(굳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낮-(낮추다)

-히- : 곱-(꾸부러지게 하다), 굵-(꾸부리다)

4.3.2. 뿌리의 유형

가. 움직씨 뿌리

(48) ㄱ.거두-대기-, 깨-수-, 베르-쓰-

ㄴ. 돌-구-, 거늘-우-, 깎-이-

ㄷ. 도오-애-, 덜-애

(48)에서 ㄱ.은 강세 접미사와, ㄴ.은 하임·입음 접미사와 통합된 보기이고, ㄷ.은 방언 파생 접미사의 특징인 수여 접미사와 통합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뿌리의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ㄱ.은 움직씨 뿌리에 강세 접미사를 통합시켜 [+대치성]의 파생어를 이루는 뿌리이다. 이러한 뿌리는 주로 [+동작성] 뿌리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뿌리들은 자립성이 없고, 의존·실질성을 지니고 있어서 불완전 뿌리가 된다. 파생어가 움직씨가 되므로, 동작성 움직씨가 뿌리가 되어 접미사와 통합되어, 뿌리가 가지고 있는 동작의 강도보다 더 강렬한 동작을 나타내는 파생어를 이룬다.

ㄴ.은 움직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입음·하임의 뜻을 나타내는 뿌리들이다. 이러한 뿌리도 동작성을 지닌 것이 대부분이다.

ㄷ.에서처럼 방언에는 특이한 접미사와 통합되어 수여의 뜻을 나타내는 파생어가

있다. 뿌리 수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돕-, 덜-’과 통합이 되었을 때는 ‘도와 주다, 덜어 주다’의 뜻을 파생한다. ‘늘-에/-애-, 없-에/-애-’일 때는 하임의 뜻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도오-암/-엠 험저’따위와 통합하여 ‘도오-애-’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나. 이름씨 뿌리

이름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움직씨를 파생하는 ‘-하다, -지다, -되다, -시키다’ 따위를 같이 다루었을 때는 많은 파생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분들은 다루지 않는다. 이름씨 뿌리는 자립·실사이기 때문에 움직씨 파생의 접미사와 통합되었을 때, ‘임자+풀이’의 구조를 이루어 파생어로 다루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언어 인식을 중시하여 이름씨 뿌리를 올려 뒀다.

다. 그외 뿌리

풀이씨 뿌리를 다시 설명하는 것은, 강세, 수여, 입음, 하임 접미사와 통합되는 뿌리를 제외하고, 다른 접미사와 통합되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들은 관점에 따라서는 합성어나, 다른 낱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파생어로 보고 다룬다.

그리고, 어찌씨 뿌리는 자립성을 인정하므로 완전 뿌리이나, 상징 뿌리와 불구 뿌리는 불완전 뿌리이다.

라. 그림씨 뿌리

그림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움직씨를 파생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다. 특히 차원 낱말에 접미사를 통합시켰을 때는 많은 파생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아, 남움직씨나, 입음·하임의 접미사와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파생어가 대부분이다. 그림씨 뿌리도 줄기를 뿌리로 하기 때문에 불완전 뿌리가 된다.

4.3.3. 파생의 양상

(1) 유형 접미사

가. 움직씨 뿌리+

움직씨 뿌리에서 움직씨를 파생하는 경우는 움직씨 뿌리에서 움직씨 파생어로 되는

경우가 전부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하-’나 ‘지-’ 따위와 통합되어 풀이씨를 이루는 낱말들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접미사들만을 다루게 되므로 많은 양은 되지 못한다. 움직씨에서 움직씨 파생이 접미사는 하임·입음의 접미사들도 포함되지만, 이들은 통어론적인 면에서 대치성이 없지만, 어휘성은 모두 있으므로 앞의 접미사들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풀이씨 파생어에서 어휘성이 없고, 대치성이 있는 접미사로 한정하면, 움직씨에서 움직씨를 파생하는 접미사가 된다. 이 범주에 드는 접미사는 움직씨에서는 강세 접미사이다. 여기에서는 그림씨의 접미사는 다음으로 미루고 방언에서의 움직씨의 강세 접미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49) -ㄱ- : 문지¹⁾-(만지-)

-대기- : 거두-, (거두다), ㄹ리-(후려 치다), 다-(뺨-, 다닥치다), 두루-(힘차게 두루다), 벨르-(외치다), 직-(찍-), 홍이-(외치다) 따위

-뜨-/트- : 누르-(꼭 누르다)

-수- : 깨-(깨뜨리다), *바-(뺨, 몹시 날카롭게 하다)

-싸-/썰- : 놀-(날래다), 잼-(잼싸다)

-쓰- : 베르-/벨르-(헤치다, 펼치다), *헤-(헤치다)

-아리 : 세-(헤아리다)

-웁- : 건-(거두다)

-치²⁾ : 내-(내어 놓다), 넘-(넘치다), 덮-(덮치다), 테우-(데우다), 떠리-/터리-(떨어뜨리다), 뿌리-(뿌리치다),

위에 올린 접미사들은 제주 방언에서 강세의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가장 파생력이 높은 접미사는 ‘-대기-’와 ‘-치-’다. 나머지들도 파생력은 있는 편이라고 보아진다. 표준어에서 파생력이 높은 접미사 ‘-뜨리-’³⁾는 방언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방언 강세 접미사가 통합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뿌리에 접미사가 직접 통합된다. 표준어의 강세 파생어에서는 뿌리와 접미사 사이에 매개 요소인 씨끝이 결합되는 일도 있으나(보기 : 떨-어-뜨리-) 방언에서는 뿌리와 접미사 사이의 다른 요

1) ‘문지다’의 방언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2) 강세의 뜻과 하임의 뜻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경우(1981),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의미 변화, 국어교육 제 39-40호, p. 243.에서도 ‘-뜨리-’는 강세 접미사가 아니라 ‘여기의 의미+게 하다’로 사동 접미사라고 했다.

소를 요구하는 강세를 나타내는 파생어는 없다. 이러한 방언의 접미사들을 살펴 보면, 기능적으로는, 뿌리의 뜻을 강하게 하고 있으면서, 문법적으로는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통어적으로도, 뿌리가 월에서 가지고 있던 문장 성분의 자리에 파생어로 대치시킬 수 있는 [대치성]을 지닌 접미사이다. 형태적으로는 ‘거두-대기-’의 형태가 되어 접미사는 자립성을 지니지 못하고 의존성만 있어서 뒤에 다시 굴곡 접사가 있어야만 자립 실사를 이루므로, 안맺음 접미사다. 씨끝 바꿈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완전 접미사다.

뜻으로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뿌리에 힘줄을 더하고 있어서 강세 접미사다.⁴⁾ 그런데, 이 접미사들이 서로 통합하는 양상을 보면, ‘-대기-’는 다른 접미사의 뒤에 통합하기도 하는 속성을 지닌다.

- (50) ㄱ. 깨-수-대기-다, 거리-치-대기-다, 헤-쓰-대기-다
 ㄴ. 부스-(불-)이-대기-다, 거늘-우-대기-다, 굽-히-대기-다

따위로 접미사가 둘 이상으로 통합되는 일이 있다.⁵⁾ ㄱ.은 강세 접미사에 다시 ‘-대기-’ 접미사가 통합된 보기이고, ㄴ.은 입음이나, 하임의 접미사에 통합된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면 ‘-대기-’ 접미사는 놓이는 자리로 보아, 씨끝과 접미사의 중간의 위치에 놓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뿌리가 가지는 뜻에 강세의 뜻을 더하고 있다. 다른 강세 접미사들은 ‘-대기-’처럼 놓이는 일은 없다.

그리고, 표준어에서는 강세 접미사로 주로 3개의 접미사를 내세우는데, 방언에서는 그보다 더 많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특이한 기능을 하는 접미사도 있다.

‘깨-수-다, 바-(방-)수-다, 내-치-다’들인데, ‘-수-’에서 인지되는 점은 강세의 뜻도 있지만 하임·입음의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깨수다’의 뜻은 ‘깨뜨리다’의 뜻으로 보더라도 ‘깨어지게 하다’라는 하임의 뜻이 있다.

‘바-(방-)수-다’는 ‘칼날이나, 뿔죽한 끝을 날카롭게 하다’의 뜻인데, ‘날카롭게 하다’의 뜻으로 보면 하임의 뜻이 있다. 방언에서 쓰이는 ‘바(방)수다’는 문헌어에서

4) 예측성, 잉여성의 접미사라고도 할 수 있다.

5) 국어의 접미사는 굴곡 접사에서는 둘 이상의 접사가 통합되는 일이 있지만 파생 접사에서는 드물다.

‘발다’의 형태는 찾지를 못했지만 ‘바히다’는 찾을 수 있었다.⁶⁾ 방언에서도 ‘뽕다, 바수다’, ‘바이다’가 ‘끝을 뽕죽하게 하다’, ‘날을 잘 들게 하다’, ‘어떤 도구에 같다/만들다’의 뜻으로 문헌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깨수다’, ‘까주다’에서도 나타난다. 뜻은 ‘깨어지게 하다, 깨뜨리다’로서 방언에서는 나타나는데, 이것이 앞의 ‘바수다’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지닌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깨수다’와 ‘바수다’의 ‘-수-’는 강세의 뜻이 강하게 파악되므로, 강세 접미사로 처리하나, 하임의 뜻도 있는 것으로 본다.

‘-치-’도 역시 하임과 강세를 함께 지닌 접미사이다. 그런데, ‘세-아리-’에서 ‘-아리-’가 강세의 뜻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여기에 포함시켜 뒀다.

(2) I 유형 접미사(입음·하임의 파생⁷⁾)

입음·하임의 접미사는 씨의 파생의 관계에서 보면, 풀이씨의 하위 범주이지만⁸⁾, 여기에서는 꼭 입음·하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형태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처지여서, 그림씨에서 움직씨를 파생하는 접미사도 아울러 살핀다.

이 논문에서는 입음·하임을 가리지 않고, 입음·하임의 꼴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올려 뒀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표준어에서 다루고 있는 입음·하임의 접미사들과, 방언의 접미사들이 형태적으로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고, 파생을 이루는 뿌리의 형태가 다른 것도 있다. 또 통합에서도 표준어와 다른 점이 발견된다.

6) 월인석보에 ‘제 모뻏 고기를 바혀 내는디시 너겨 하며’가 쓰였는데, ‘바히다’의 뜻은 ‘베다(斬)’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방언의 뜻 ‘날카롭게 하다’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허웅(1975), 앞의 책, pp. 77-80.에서 하임·입음의 가지가 굴곡의 가지와 가까운 점도 있으나, 파생의 기지로 보고 있다. 고영근(1974), 앞의 책, p. 24.에서도 문법적으로 선어말 어미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나 ‘-당하다, -되다, -발다’와 같은 특수한 접사와 ‘-어지다’ 같은 통사적 절차에 의한 피동도 있어 규칙성을 띠지 않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피동보조 어간은 접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김봉모(1986), 입음월과 형태소 ‘-이-’, 난정 남광우박사 회갑기념논총, p. 168.에서 ‘-이-’가 굴곡의 가지가 아니라, 파생의 가지임을 들고 있다.

1. 분포의 빈 간, 2. 변이형태가 형태적, 3. ‘-이-’는 명제 안에 포함됨, 4. 접미사와 단순어의 교체 가능, 5. 굴곡의 가지는 호응관계를 이루나, 파생의 가지는 지배관계(government)를 지님.

8) 유목상(1986), 사동사·피동사 문법 처리고, 난정 남광우박사 회갑기념논총, p. 143.에서 사동사와 피동사는 동사의 하위 분류에 의한 개념이라 한다.

하임 접미사는 전통적으로 풀이씨 뿌리에 ‘-이-, -히-, -기-, -리-, -우-, -추-’ 따위의 접미사가 붙어서 ‘떡-이-다, 입-히-다’ 따위가 되어 뿌리의 뜻에 ‘하게 하다’의 뜻을 나타낸다.⁹⁾ 이러한 파생법을 단형 사동이라 하고, 풀이씨 뿌리에 이음씨끝 ‘-게’와 도움 움직씨 ‘하다’가 붙어 ‘뿌리-게 하다’를 이루어서 위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을 장형 사동이라 한다¹⁰⁾. 그런데, 형태론적인 관점에서는 단형 입음·하임이 중심이다.

입음 접미사는 풀이씨 뿌리에 ‘-이-, -히-, -리-, -기-’ 따위¹¹⁾가 통합되어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는 뜻’¹²⁾을 지니게 되는데, 사동 파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단형 피동이라고 하고, 보조적 연결 어미 ‘-어’에 도움 풀이씨 ‘지다’가 통합되어 ‘남기 -어 지다’ 따위를 이루어 입음을 나타내는 간접 피동이 있다.¹³⁾

그리고, 하임과 입음의 유형을 살펴 보면, 하임에서는 (ㄱ) ‘제움직씨+하임 접미사’, (ㄴ) ‘남움직씨+하임 접미사’, (ㄷ) ‘그림씨+하임 접미사’ 따위가 있고, 입음의 유형으로는 (ㄱ) ‘움직씨+입음 접미사’가 단형에 있다.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형도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비슷한 점도 있어서, 하임과 입음은 파생어만 가지고서는 잘 분별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¹⁴⁾ 이것은 형태론적으로, 입음이나 하임을 파생하는 접미사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같은 점도 있고, 또 형태가 제움직씨나, 남움직씨가 같은 꼴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서 겉으로 드

9) 최현배(1986), 우리 말본, 정음문화사, p. 350.에서 움직씨 몸에 붙어서, 다른 것(객체)으로 하여금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하임) 것이니 : 이것이 제움직 씨에 붙어서는 그것을 남움직씨로 되게 하고, 남움직씨에 붙어서는 겹남움직 씨로 되게 한다고 했다.

10) 서정수(1986), ‘-게’ 사동법, 난정 남광우박사 회갑기념논총, p. 171.에서 ‘-게 하다’나 ‘-게 만들다’를 장형 사동으로 부르는 일이 있다고 한다.

11) 최현배(1986), 앞의 책, p. 424.에서는 ‘-히-, -기-, -리-, -우-’ 따위는 변이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고영근(1974), 앞의 책, p. 114.에서는 ‘ㄹ, ㄷ, ㄷ’를 말음으로 가진 어간과 통합하는 ‘-리-’를 ‘-이-’와 동일하게 보아 ‘-이-, -히-, -기-’만 인정하고 있다. 즉,

‘누르다 ^{피동화}→눌리다’에서 ‘눌르+이’로 분석하는 것이다.(배희임, 1988 : 23 참조)

12) 최현배(1986), 앞의 책, p. 352.에서 움직씨 몸에 붙어서, 다른 것(객체)으로 부터 그 움직임을 입음을 보이는 것이니 : 이는 남움직씨 뒤에만 붙고, 제움 직씨 뒤에는 붙는 일이 없다고 했다.

13) 배희임(1988), 국어 피동연구, 고대 민족 문화 연구소, p. 5.에서 이러한 피동사는 접미 피동사보다는 피동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동 이외의 다른 자질도 가지므로 간접 피동이라 했다.

14) 유목상(1986), 앞의 논문, p. 147.에서는 하임·입음의 꼴을 지녔어도 죄다 사동사나 피동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 보기로 1, 자동사 뿌리+사→타동사(앉히다), 2, 타동사 뿌리+사→사동사(잡히다), 3, 형용사 뿌리+사→타동사(넓히다), 4, 자동사 뿌리+사→사동사(춥다), 5, 타동사 뿌리+피→피동사(뚫이다, 쌓이다), 6, 타동사 뿌리+피→(쫓기다)가 된다고 했다.

러난 것만 가지고는 식별이 어려운 것들도 있다. ‘보이다’ 같은 것은 ‘책이 잘 보이냐’에서는 입음이 되고, ‘책을 보여라’에서는 같은 ‘보-이-’이지만 하임이 되는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이은말이나 월을 만들어 보고서 인접한 성분들과의 관계에서 입음이나, 하임을 가려 낼 수밖에 없다.(보기 : 묻히다) 그리고, 월에서 입음과 하임은 성분을 바꿈으로 서로 바뀌어서 쓸 수도 있는 인접한 형태이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움도 있게 된다. 여기에 올린 보기들을 입음이나, 하임으로 나누지 않고, 같이 다루는 것은 이 파생어들을 통어론적으로는 하나 하나 따져 보아 결정해야 하는데, 형태론적으로 파생어를 다루는 데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묶어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파생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¹⁵⁾

그런데, 하임이나, 입음의 접미사들은 앞에서 말한 유형에서 환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두 통합되지는 않는다. 다른 파생어들보다는 통합에 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씨끝처럼 통합이 되지는 않는 점, 즉 제약성도 있다.¹⁶⁾ 표준어에서 ‘박다, 풀다, 덮다, 가다’ 따위는 모두 남음직씨나 제음직씨로 쓰여 하임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임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입음에서도, 일반적으로 남음직씨의 뿌리에 붙어서 입음의 뜻을 나타내지만 ‘넣다 ↔ *넣이다’가 되어 파생어 이루지 못한다.¹⁷⁾

15) 유목상(1986), 앞의 논문, p. 147.에서도 국어의 사(피)동사는 접미법에 의한 어형성의 결과이지 결코 변형문의 결과일 수는 없다고 했다.

16) 김봉모(1986), 앞의 논문, p. 163.에서 분포의 제약으로 설명의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고, 제약되는 9개의 보기를 들고 있다. 송문준(1989), 앞의 논문, p. 98.에서도 굴곡의 가치와 달리 입음의 뒷가치가 붙을 수 있는 범위는 꽤 제한되어 있다. 한자리 음직씨에는 물론 붙을 수가 없다. 그러나, 두자리나 세자리 음직씨에 있어서도 씨끝처럼 아무 뿌리나 다 붙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p. 114에서는 입음말도 두 개의 짜임새를 보이는데 하나는 제힘말에 낱말 만드는 가치가 붙어 된 것과, 다른 하나는 ‘지다’가 붙어 이뤄진 것이 있는데, 앞것은 파생어로서 형태론적 짜임새를 이루고, 뒷것은 이은말로서 통어론적 짜임새를 이룬다고 했다.

17) 성광수(1986), 앞의 논문, p. 410.에서 현대 국어에 있어서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 파생(또는 피동사화)의 공백은 동사의 특성에 의거한 동작 피동 불능의 동사가 소위 피동조동사 ‘지다’에 의해 간접(또는 우설 ‘迂說’)적인 상태 피동으로만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하고, ‘하다’ 동사의 피동으로서 어휘 차용이 의사 피동은 ‘하다’ 동사가 현대어에서 접미사에 의한 피동법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동작 피동을 실현하기 위해 모색되는 피동 표현의 혼란상이라 할 수있다고 했다.

하임이나, 입음의 파생어를 다루면서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것에서는 뜻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알아 내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같은 말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꼴도 같은데 하나는 사동이 되고, 다른 것은 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 즉, ‘떡-이-다’에서 ‘밥을 먹이다’에서는 사동으로 쓰였는데, ‘소를 먹이다’에서는 ‘먹이다’가 새로운 타동사가 된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파생과 의미의 변화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는 밝혀져야 한다.¹⁸⁾

‘소를 먹이다’에서 ‘먹이다’가 ‘기르다, 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은 의미의 변화이지만, 먼저 파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형태론의 관점에서는 의미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에 올린 방언의 보기에서, 입음·하임의 접미사들이 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를 살펴 보면, 파생력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는 ‘-구-, -주-, -지우-’ 따위가 있고¹⁹⁾, 나머지 ‘-기-, -리-, -우-, -이-, -지-, -히-, -후-/추-’는 생산성이 있어서 표준어에서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올린 것들은 모두 움직씨 뿌리에 통합이 된 것들이라, 한정적 접사로서 문법성과, 통어적으로 대치성은 지니지 못하고, 어휘성만 지닌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에 나타나지 않는 ‘-주-, -지우-, -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는 보기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파생력이 높은 접미사이다.

그리고, 방언에서는 ‘-후-’ 접미사가 있는데, 받침이 ‘ㄷ, ㅈ’과는 통합이 잘 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후-’로 올려 ‘-추-’는 ‘-후-’의 변이 형태로 처리해 두었다.

그리고, 접미사끼리 뿌리와 통합해서 겹접미사의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의 자리가 앞에 놓이고 뒤에 놓이는 것이 있다. ‘-우-’는 겹접미사가 될 때는 항상 뒤에 놓인다. 즉, ‘냉-기-/냉-기-우-’, ‘갈-리-/갈-리-우-’, ‘결-이-/결-이-우-’, ‘입-지-/입-지-우-’ 따위

18) 유목상(1986), 앞의 논문, p. 147.에서 어휘상으로 보아 사(피)동형에서 형성된 것들이라 하더라도 많은 부의를 지니는데 이런 것은 다른 말도 그런 점을 지니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를 먹이다’에서 ‘먹이다’도 사역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임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p. 155에서 ‘넓히다’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타동사이므로, 사동사로는 보지 않으나, 분명히 사동의 접미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며 그 뜻은 ‘넓게 하다’라고 했다.

19) 최현배(1986), 앞의 책, pp. 411-414.에서는 첫째 갈래에 ‘-이-, -리-, -우-, -기-’를, 둘째 갈래에 ‘-히-, -후-, -구-, -키-’를 들고 ‘-키-’의 보기로는 ‘숨-키-다’를 들고 잘 안 쓰인다고 한다.

로 된다. 이렇게 겹접미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도 뜻으로는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선명한 ‘하임’의 뜻은 드러난다. 그런데, ‘일-이-’와 ‘일-우-’에서는 뜻의 분화가 드러나는데, 앞엿 것은 ‘누운 것을 일어나게 하다’의 뜻이고, 뒷것은 ‘이루다’ 또는 ‘이루게 하다’의 뜻으로 갈리지만 예외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우-, -기-우-, -리-우-, -지-우-’ 따위는 겹접미사로 쓰였지만 변이 형태로 다룰 수도 있다.

그밖에는 ‘-이-’ 접미사가 ‘-우-’의 뒤에 놓이어 ‘-우-이-’로 되는 일이 가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그리 흔한 일도 아니어서 다룰 정도가 못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나의 뿌리가 입음이나, 하임의 접미사와 통합될 때는 같은 뜻으로 ‘놀-이-/놀-우-’처럼 쓰이는 일도 두드러진 것이다. 이것은 언젠가는 ‘놀-이-’의 형태로 표준어의 영향을 입어 되겠지만, 아직은 둘로 쓰이는 일이 많다. 그밖에 뿌리가 표준어의 형태와 다른 것이 많다든지, 고어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든지, 접미사의 형태가 특이하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방언의 특징으로 보고 넘긴다. 그리고, ‘까-주-다’에서 ‘-주-’는 독립된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지-우-’에서 축약과 단모음화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까-지-우-’로 쓰이는 일이 있고 뜻도 같기 때문이다.

위의 목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파생력의 순서는 ‘-우-, -이-, -지-, -기-, -리-, 기타’의 순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I유형 접미사

표준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파생어가 있다. ‘도오(돕-)-애-(도와 주-), 덜-애-(덜어 주-)’의 형태가 있다. 이것은 그 뜻과 기능으로 봐서 수여 접미사라 할 만하다. 그러나 분포는 그리 넓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변이 형태라고 할만한 ‘도오(돕-)-앰-ㄹ-, 덜-앰-ㄹ-’가 있다. 이런 형태는 표준어에서는 단일어로는 대응되는 형태를 찾을 수가 없다. 방언에서 그 쓰임을 보면, 아래와 같다.

(51) ㄱ. 짐을 덜-애다.(짐을 덜어 주다.), 일을 덜-애다.(일을 덜어 주다.)

ㄴ. 손을 도오-애다.(손을 도와 주다.), 일을 도오-애다.(일을 도와 주다.)

(51)에서는 ‘-애-’ 접미사는 수여 접미사로 쓰였다. 그런데, ‘덜-애-다’에서 다른 뜻으로 쓰이는 일도 발견된다.

잠을 덜-애다.(어떤 연유로 해서 잠을 잘 자지 못했다.)의 뜻으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늘-애다’에서는 ‘더 늘도록 했다’는 뜻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애-’ 접미사는 현재로서는 파생력도 약한 접미사지만 통시적으로는 여러 뜻으로 썼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수여 접미사의 뜻으로 변이 형태로 볼 수 있는 ‘-앰-’도 있다. ‘-앰’ 접미사는 뒤에 반드시 ‘하-’와만 통합되는 극히 제한적인 접미사지만 뜻으로는 수여 접미사의 뜻으로 쓰인다.

(52) 손 도웁히려다.(일손을 도와 주고 있다.)
 일 덜앰히려다.(일을 덜어 주고 있다.)

로 쓰인다. 그리고, ‘좀 덜앰려’는 ‘잠을 어떤 연유로 덜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파생어 ‘볶-애다’에서는 말할이와 들을이 사이에 서로의 관계가 나타난다.

(53) 야, 너미 볶-앰려(너무 재촉하고 있다).

에서는 말할이가 상대에게 ‘재촉을 당하-’여서 입음의 뜻이 나타나고, 상대는 들을이에게 ‘볶게도록 하-’는 하임의 뜻이 나타난다. ‘볶-애-앰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하다’의 뜻이거나, ‘상황이 복잡함’을 뜻하게 된다.

그리고, 표준어에도 ‘없-애-다’가 있는데 우리말 사전들에서 ‘없이 하다’의 준말로 처리하고 있다. ‘없이 하다’는 ‘없게 하다’의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때에도 ‘-애-’에는 하임의 뜻이 드러난다. 방언에서 보면 ‘없-애-’는 ‘없이 하-’의 준말이 아니고 ‘-애-’는 접미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애-’ 접미사는 어휘적인 뜻으로 수여와 하임·입음을 나타내는 접미사라 할 수 있다.

위의 ‘-애-/-에-’ 형태의 접미사와, 강세 접미사나 하임·입음의 접미사를 제외하고, 움직씨 뿌리에 통합되어 움직씨를 파생하는 것들이 있다. 몇 안되는 것들이지만 여기에 올려 둔다.

(54) -들- : 다-(닿-, 더듬다)
 -다- : 언-(얼다-, 엉기다, 굳다)
 -주- : 잡-(참소하다), 줍-(재피다), 굶-(할퀴다)

-질-/지- : 잹-(줍-,비뚤어 짜다)

-쿓-/컷- : 내-(나-, 나셔서 일을 서두르도록 하다, 마음을 내키도록 하다)

이들 ‘-들-, -디-, -주-, -질-/지-, 쿓-/컷-’은 접미사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다들다’에서는 ‘혀가 입안 어느 부위에 닿아서 말이 떠듬떠듬한다’는 뜻이고 보면 접미사는 동작성을 나타낸다. ‘언디다’는 ‘얼어 굳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디-’는 ‘말기다’가 ‘맞디다’에서 ‘-기-’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engi다’가 되어, 접미사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뿌리는 ‘얼-’인데 ‘ㄹ’이 떨어지고, 씨끝 ‘-ㄴ’이 붙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말다’와 ‘말기다’는 ‘하임’의 뜻으로 같으나, ‘얼다’와 ‘언디다’는 형태는 다르지만 뜻으로는 그리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 (55) ㄱ. 얼음이 얼었져. 청이 얼었져.
 ㄴ. 얼음이 언디었져. 청이 언디었져.

(55) 에서 ㄱ.과 ㄴ.의 풀이말의 뜻에서 파생 전이나, 파생 후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디-’는 동작성이나 과정성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잡-주-’나 ‘잹-질-’에서도 ‘-주-, -질-’은 실사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접미사로 보고, ‘내쿓’에서 ‘쿓’이 ‘견다’의 변이 형태로 보이기도 하지만 형태적으로 유연성을 잃어 접미사로 처리한다.²⁰⁾

이상에서 풀이씨 뿌리에서 풀이씨를 파생하는 접미사를 찾아 보았는데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그리 많지 않다. 만일 ‘동요’를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더 나타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름씨 뿌리+II유형 접미사

이름씨에서는 많은 풀이씨가 파생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에서는 ‘하다, 시키다’ 따위와 통합되는 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다. 그리고, 이름씨와 접미사의 통합은 이름씨가 월에서 주성분으로 기능하게 되므로 접미사와의 구성 관계가 ‘임자+풀이’의 구성을 이루게 되어 파생어로 다루기가 힘든 일면도 있다(Sel-

20) 방언의 특징으로 예사 소리가 거센 소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견다(步)’가 ‘권다’로 쓰이는 일이 있는데,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kirk ; 1982, 유목상 ; 1985, 이석주 ; 1989 : 147) . 분명한 ‘임자+풀이’의 구성인 것은 제외하고, ‘임자+풀이’이더라도 파생어로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을 살펴 보면,

- (56) ㄱ. -사- : 𐄂-(소금끼가 끼다), -다슬- : 정-(경치다) -트- : 질-(기지개를 켜다), -치- : 별적-(배정적하다), 양작-
 ㄴ. 떡- : 게-, 게심-(심술을 부리다), 테우- : 귀-(암시를 주다),

따위로, 이들 ㄱ., ㄴ.의 구성은 ‘임자+풀이’로 이루어져서 통어적 구성의 합성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ㄱ.에서는 풀이말의 위치에 있는 말들이 자립, 실질성을 잃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접미사로 보고 올려 둔 것이고, ㄴ.은 실질성이 있는 것으로 합성어의 뒷 성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차이를 살펴 보면, 접미사 ‘-사-’는 방언에서는 ‘서(立)’의 뜻으로 쓰이지만, ‘𐄂-사-’에서는 ‘서-’의 뜻으로는 쓰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과 통합되어 파생어로 ‘소금끼가 끼-’의 뜻으로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풀이 같지만 의미적으로는 다른 말(homonymy)로 보이고, 또, ‘𐄂-’이라는 특수 뿌리(unique morpheme)²¹⁾와 통합되는 특수성도 있어서 접미사로 보았다.

‘-다슬-’은 풀이씨로 쓰였을 것이란 추측은 해 볼 수 있다. 다만, 원래의 형태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스리-’에서 왔는 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정-다슬-’에 대응 되는 표준어도 ‘경치다’이고 보면 ‘경-’이 방언에서 흔히 일어나는 입천정소리 되기에 의해서 ‘정-’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보면 ‘도둑을 징계하여 쓰는 형벌, 거의 죽을 옥’으로 되어 있고, ‘경치다’의 뜻은 ‘도둑놈이 혹독한 형벌을 받다, 거의 죽을 옥을 당하다’의 뜻으로 올라 있다. 그런 점에서 방언의 ‘정-다슬-’도 ‘경으로 다스리다, 경으로 다스림을 당하다’의 뜻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역시 ‘임자+풀이’의 구조가 되어 접미사로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방언에서는 이러한 뜻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매우 혼이 나서 다시 할 생각이 없다’란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정-’도 ‘경’으로 받아들여지

21) 특수 뿌리를 특이 형태소나, 불규칙 뿌리라고 부르고 있다. 보기로는 ‘오술-길’의 ‘오술-’과 같이 겨우 한 형태소와만 결합할 수 있는 뿌리를 일컫는다.

그런데, 표준어에서나(간이 짜다, 간이 맞다처럼) 방언에서는 ‘𐄂-’은 자립성도 인정은 되지만 일단 특수 뿌리로 보아 둔다. 이제는 별로 쓰이지 않는 말이다.

지 않고, ‘정(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 ‘다슬-’을 ‘다스리다’와는 유연성이 먼 것으로 보아, 접미사로 보았다.

‘질-트-(기지개를 켜-)’에서 ‘트-’를 살펴 보면, 방언에서 ‘트-’는 실사로 쓰이지만 파생어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 먼저 ‘트-’의 뜻은 ‘막힌 것을 뚫다, 붙은 것을 떼어 내다’이지만 접미사의 뜻에서는 표준어의 대응에서 보면 ‘켜다’와 대응을 이루어서 뜻으로 서로의 유연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ㄴ의 ‘게-떡-, 게슴-떡-’과 ‘귀-테우-/귀-티우-’는 접미사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임자+풀이’의 구조가 분명하게 들어날 뿐 아니라, 후행 성분으로서 실사의 기능과 뜻을 지니고 있음에서 합성어로 다루어야 편리하다. 방언에서 ‘떡-’과 함께 ‘임자+풀이’의 구조를 이루는 말들을 찾아 보면, ‘게-떡-, ‘게슴-떡-, ‘응-떡-, ‘복-떡-’ 따위로 비교적 많은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 뒷 성분이 실질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파생어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떡-’은 표준어에서도 도움 움직씨로도 쓰이고 있고(되어 떡다), 뜻도 여러 갈래로 나오지만 여기에서 쓰인 ‘개-떡다’에는 ‘일부러 하려는 뜻을 품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심술을 부리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게-떡-’에서는 접미사가 아니다. 그리고, ‘귀-테우-/티우-’도 같은 맥락에서 접미사가 아니라고 본다. ‘테우다’는 ‘먹술을 테우다(먹줄을 텅기다), 손톱으로 테우다’에서도 ‘텅기다’의 뜻으로 쓰인다. 표준어에서도 ‘거문고를 타다’와 같이 쓰여 ‘타-’와 ‘테우-’가 유연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다. 그외 뿌리+접미사

어찌씨 뿌리나, 불구 뿌리에서 움직씨를 파생하는 접미사는 보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다, -거리다, -대다’ 따위와 통합된 파생어들을 제외하고 다루고 있으므로, 몇 안 된다. 파생어의 목록을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57) -다시리- : 뭉-(말을 중언부언하다)

-대- : 늑-(어지럽히다), 험-(정신없이 어지럽히다), 글근-(자꾸 괴롭히다)

따위들인데, 이 파생어의 뿌리들 가운데는 상징어 뿌리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뭉뭉, 글근글근, 던덕던덕’에서 뿌리로 ‘뭉-, 글근-, 던덕-’이 나왔고, ‘늑-, 험-’들은 불구 뿌리로 보이나 이들의 형태도 다시 변동을 입어 ‘늑-(-늑-), 허-’에 ‘-뻑-’이 덧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몽-다시리-’에서 ‘다시리-’도 방언에서는 ‘땡시나 모양이 나에게 잔 손질을 하는 것’의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꾸 잔소리를 하다, 또는 반복하다’는 뜻으로 보아 접미사로 보아 두었다. 그리고, ‘늑-, 험-’은 불구 뿌리이면서 ‘-대-’와 통합되어 파생어를 이루고 있지만 ‘-ㅁ-’이 떨어진 형태로 ‘허-대-(무어라고 지껄이다)’로 쓰이는 일도 있다. 그리고, ‘-대-’는 표준어에서도 이의 없이 접미사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더 이상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 그림씨 뿌리+Ⅱ유형 접미사²²⁾

그림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남음직씨나, 하임의 파생어를 이루는 것은 움직씨에서보다 많지는 않지만, 접미사가 움직씨의 뿌리에 통합된 것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즉, 다른 면은 그림씨를 움직씨로 바꾸는 기능을 하고 있고²³⁾, 그림씨 뿌리에서는 접미사가 통합되어 입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입음이 안되는 그림씨의 뿌리에는 입음이 되기 위하여 ‘-어지다’가 붙어서 생산적으로 입음을 만드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표준어에서도, 입음의 접미사는 하임에서보다는 수가 적지만 파생이라는 점에서는 움직씨에 못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하임의 접미사를 살펴 보면,

(58) -구- : 달-(달아 오르게 하다)

-우- : 걸-(땅을 걸게 하다), 낫-(勝, 낫게 하다), 늘-(勝, 늘게 하다), 발르-(바르-, 바르게 하다), 비-(空, 비게 하다), 어질-(어지럽히다)

-이- : 둥글-(둥글게 하다), 몽글-(닿아진 상태, 닿게 하다), 모질-(비뚤다), 버물-(더럽히다), 붉-(밝히다), 숙-(숙이다), 얼-(영기다), 익-(익히다), 지울-(기울이다),

-지- : 답-(답끼다)

-후- : 곧-(바르게 하다), 굳-(굳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낮-(낮추다)

-히- : 곱-(꾸부러지게 하다), 굵-(꾸부리다)

22) 유목상(1986), 앞의 논문, p. 155. 그림씨에서 하임을 파생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임의 개념을 복잡하게 하는 점도 있다. 하임은 움직씨와 통합이 되는 접미사의 끝이 하임의 접미사와 같기 때문에 형태적인 면에서 그렇게 붙여 둔 것이다. 또 그렇게 ‘하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3) 최현배(1986), 앞의 책, pp. 678-679.에서는 움직씨에서처럼 ‘도움 줄기’에서 다루지 않고 뒷가지에서 다루고 있어서, 그림씨에 통합되는 이러한 것은 접미사로 보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수도, ‘-히-, -후-, -구-, -우-, -이우-’로 5개를 들고 있다. 그리고, ‘높-이-, 깊-이-’ 따위는 표음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높히다, 깊히다’가 맞다고 한다.

따위이다. 그런데, 이들의 뿌리가 모두 그림씨일까는 의심이 간다. 표준어 사전에는 움직씨로 다루어진 것들도 있다. 그것은 ‘달-, 늘-, 숙-’ 들이고, ‘익다’는 그림씨와 움직씨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방언의 인식으로는 ‘불이 달다’는 표준어로 대응을 시켰을 때 ‘불이 뜨겁게 달아오르다’로 대치가 될 것 같은데 이 대치도 움직씨로 보이는 점이 있어 잘 맞지 않는다. 씨끝을 바꿔 보면, ‘달고, 달아서, 단’ 따위는 되지만, 이때의 ‘다-ㄴ’에는 매김의 뜻만 있고, ‘*달은’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도 그림씨로 보이고, ‘늘다’도 ‘살림이 는다’라고 했을 때는 움직씨로 보이지만, ‘가네 살림이 우리 살림보다 늘다’라고 했을 때는 ‘нат다’는 뜻으로 그림씨로 보인다. ‘숙다’도 방언에서는 ‘수그러진 상태’의 뜻으로 보아 같은 쓰임인 것이다. 그래서, 위에 올린 ‘달-, 늘-, 숙-’은 그림씨와 제움직씨의 양쪽으로 쓰이는 것으로 본다.²⁴⁾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림씨로 쓰인 것으로 보고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씨가 다름으로 해서 언어 현상에서 큰 차이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방언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에서, 이것들은 앞의 움직씨 뿌리에서 하임·입음을 파생하는 형태와는 문법성에서 차이를 보여, 여기에서는 문법성을 지녀 씨를 그림씨에서 움직씨(남움직씨)로 바꾸고 있다.

4. 4. 그림씨 파생의 양상

4. 4. 1. 접미사 목록

그림씨 파생에 참여하는 뿌리는 이름씨 뿌리, 움직씨 뿌리, 그림씨 뿌리, 상징 뿌리 따위가 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다, -지다’ 따위를 제외시켰으므로, 그리 많지는 않다. 방언의 목록을 올리면 아래와 같다.

24) 표준어에서도 두 개의 씨로 쓰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통시적으로는 그림씨와 움직씨의 미분화의 견해가 이런면에서는 들어 맞는다. 이런 말에서는 영변화가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가. 이름씨 뿌리+접미사

- 스럽- : 가쉬-(가소롭다), 괴삭-(괴상하다), 악착-(악착스럽다), 악독-(악독스럽다), 야단-, 험상-(꼴이 흉하다), 어른-, 자랑-
-롭- : 이-, 가소-, 순조-, 궤-(괴-)
-슬- : 느-(느-, 날카롭다)

나. 움직씨 뿌리+접미사

- (으)럽- : 붓ㄱ-/부치-(부끄럽다)
-ㅁ- : 미-(밋다), 설우-(섷다), 실리-(차점다),
-브- : 쫄-(두렵다, 어마어마하다), 싫-(실증나다), 꿔-(꿔브->골프-)
-압/-업 : 놀라-(놀랍다), 믿-(미덥-/미드럽-, 미덥다), 무시-(무섭다), 실리-(차갑다),
싸물-(사납다), 아끼-(아끼다), 졸-(졸리다), 지ㄱ-(기쁘다), 지지-(뜨겁다)

다. 그림씨 뿌리+접미사

- 롭- : 얹-(얹-, 얹다랴다)
-으럽다 : 눅-(누그럽다)
-삭- : 역-(찌 빠르다)
-싸- : 겹-(행동이 폭이 크다)
-성그르다/-성부르다/-성밟다 : 밋-(알밋다)
-압/-업- : 거칠-(거칠다), 겹-(겹끄럽다), 낮다-(낮다), 싸물-(사납다)

라. 상징 뿌리+접미사

- 압/-업- : 민들-(미끄럽다), 보들-(부드럽다), 서늘-(서느럽다)
-지다 : 버닥-(버닥버닥하다), 알록-(알록달록하다), 으쓱-(으쓱하다)

4.4.2. 뿌리의 유형

가. 이름씨 뿌리

이름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그림씨를 파생하는 일은 방언에서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목록에도 3개의 접미사만을 올려 두었는데, ‘다-슬-, 외-롭-, 어른-, 자랑-

스럼-' 따위를 제외하고는 주로 한자어 뿌리와 통합되어 그림씨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름씨 뿌리이기 때문에 완전 뿌리여야 하는데, 완전성이 의심스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로 접미사와 통합으로 자립성을 얻는 뿌리들이다. '궤-롭-'은 표준어에서 '괴롭-'이 되는데, 불구 뿌리로 다루어질 것이다. 방언의 입장에서는 '고이'에서 축약으로 '궤-'가 된 것으로 보아 '이름씨'로 보고 같이 처리하였다.

나. 움직씨 뿌리

움직씨 뿌리에서 그림씨를 파생하는 뿌리들은 주로 표준어에서는 공식적으로 형태 분석이 어려운 뿌리들이지만 방언에는 많이 쓰인다. 이러한 뿌리는 주로 고유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움직씨 줄기에서 뿌리가 되었으므로, 불완전 뿌리들이다.

다. 그림씨 뿌리

그림씨 뿌리에서 그림씨를 파생하는 뿌리는 방언에는 더러 있다. 이러한 뿌리들은 접미와 통합하여 환경적인 뜻을 나타낸다. 이들은 통어적으로도 대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이름씨, 움직씨 파생에서 나타나는 대치성의 현상과도 일치하는 것들이다.

라. 상징 뿌리

뿌리에서 그림씨 파생의 경우는 '-하-, -지-' 따위를 통합시키면, 많은 수가 나타나겠지만 여기서는 제외시켰으므로 얼마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접미사들도 많은 뿌리에 통합되어 파생어를 이루고 있기에 대표적으로 올려 둔 것이다.

4.4.3. 파생의 양상

방언에서, 파생 그림씨의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 양상을 살펴 보면, 이름씨 뿌리에서 접미사와 통합되어 그림씨를 파생하는 일이 있고, 풀이씨 뿌리에 그림씨 파생이 접미사가 통합되어 그림씨 파생어를 만드는 일이 있으며, 상징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그림씨를 파생하는 일도 있다.

가. 이름씨 뿌리+접미사

- (59) -스럽-²⁵⁾ : 가쉬-(가소롭다), 궤삭-(괴상하다), 악착-(악착스럽다), 악독- (악독스럽다), 험상-(꼴이 흉하다), 어른-²⁶⁾, 자랑-
-롭- : 궤-, 웨-, 이-, 가소-, 순조-
-슬- : 느-(느-, 날카롭다)

이름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그림씨를 파생하는 것을 찾아 보았다. 여기에는 위에 올린 ‘-스럽-’과 ‘-롭-’이 중심이었다.²⁷⁾ 그밖에 접미사화한 것으로는 ‘-슬다’를 찾을 수 있었다.

‘-스럽-’ 접미사가 통합되는 뿌리 ‘가쉬-’나 ‘괴삭-’은 표준어와 대응시켰을 때 ‘가소-’나 ‘괴상-’일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한자어에서 온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스럽-’이라는 접미사가 대개는 이러한 뿌리와 통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나머지 뿌리들은 추상성의 뿌리와 통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부는 뿌리가 이름씨 인지도 분명하지는 않은 것과 통합되는 일이 있다.²⁸⁾ 그렇지만, 이름씨로 보아 두고, 이름씨 뿌리에서 그림씨를 파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둔다.

‘-롭-’은 이름씨 뿌리에 통합되어 그림씨를 파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분포나, 그외의 여러 현상으로 보아 ‘-스럽-’과는 별개의 접미사로 보인다. ‘-슬-’는 원래는 ‘마경초집 언해(인조 때 李曙 지음)’에 ‘슬다’로 되어 그 뜻은 ‘스치다, 문지르다’의 뜻을 지니고

25) 허웅(1975), 앞의 책, p. 205.,

이현규(1982), 접미사 ‘답’의 형태·구조·의미 변화, 조규설교수 회갑기념 국어학논총, p. 582.에서 ‘-스럽-’이 접미사로 나타나기 이전인 15세기 경에는 ‘답다(ᄃᆞ다~롭다(ᄃᆞ다))’가 동일형태소의 이형태 관계에서 ‘-스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송철의(1977), 앞의 논문, p. 31.에서는 ‘그같이 못났다’의 뜻으로 보았고, 이경우(1981), 앞의 논문, pp. 228-229.에서는 [+human]과 통합도 되지만, [+abstract]와 통합되기도 한다고 보고, 뿌리와 접사 사이에 도움 토씨의 개입도 된다고 하였다. 방언의 처지에서는 언어 현상을 중시했을 때 하나의 규칙으로는 분포나 뜻을 규정할 수 없는 접미사로 보아진다.

26) 송철의(1977), 앞의 논문, p. 31.에서는 예외적인 통합으로 보고 있다.

27) 하치근(1989a), 앞의 책, p. 290.에서는 ‘-스럽-, -답-, -롭-’의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와 ‘인간 접목’의 두 편의 소설에 나온 빈도수를 수로 보이고 있는데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스럽-’이 47회, ‘-답-’이 6회, ‘-롭-’이 0이고, ‘인간 접목’에서는 ‘-스럽-’이 29회, ‘-답-’이 0, ‘-롭-’이 5회로 나타나 단연 ‘-스럽-’이 생산적임을 밝히고 있다.

28) 이 뿌리들이 이름씨라면 자립 실질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립성이 모자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있던 것이어서, ‘ㄴ-술다’는 ‘날을 날카롭게(잘 들게) 내다’의 뜻으로 부림+풀이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러한 구조가 통합되면서 뿌리의 형태도 변하고 뜻도 유연성이 떨어져서 접미사로 된 것이다. 특히 뿌리 ‘ㄴ-’는 ‘ㄴ-(ㄴ)’에서 ‘ㄴ’이 떨어져졌고, ‘-술다’는 ‘ㄷ→ㄴ’로 유음화하여 형태가 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뜻도 ‘날이 잘 들다’가 되어서 유연성을 잃고 있다. 그리고, 통합에서도, 오직, ‘ㄴ-’과만 이루어져 특수성과 의존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접미사로 보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표준어에서 이름씨 뿌리에 붙어 파생 그림씨를 만드는 접미사로 알려진, ‘-답-’은 방언에서는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일면이 있다. ‘-답-’²⁹⁾은 방언의 인식으로는 표준어 ‘-답-’ 접미사와는 다른 일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루지 않았다.³⁰⁾ 표준어에서는 ‘-답-’ 접미사가 통합되는 뿌리는 실체성을 지닌 ‘사나이-, 사람-, 아들-’ 따위나, 무정성의 ‘꽃-, 기물-’ 따위와 통합되어 파생어를 이루지만, 방언의 인식으로는 이은말로 보인다. 즉, ‘사나이 답다’는 ‘사나이의 행위나 모습을 닮았다’로 인식이 되고, ‘꽃답-’에서도 ‘꽃을 닮았다’로 느껴져 ‘-답다’가 접미사로 인식되지 않는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답-’에 씨끝을 바꾸었을 때, 홀소리 씨끝이 올 때만 ‘답-’으로 나타나고, 닿소리 씨끝에서는 ‘-답-’으로 나타나서 접미사로 느껴지지 않는다(답-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지만 표준어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비실체성³¹⁾의 상태성 뿌리나 불구 뿌리와 통합되었을 때는 ‘-답-’이 접미사로 느껴진다. (참-, 아름-)

그리고, ‘심술-궂³²⁾-, 암상-궂-’ 따위의 ‘-궂-’도 방언에서는 접미사가 아니다. ‘궂다’는 방언에서는 실사로 ‘ 좋지 않다, 나쁘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 앞에 이름씨가 오면

29) 허웅(1975), 앞의 책, p. 203에서 ‘-답-’은 원래 이 말은 불구풀이씨인데, ‘-롭-’과 거의 같은 뜻을 가진 가지로 쓰인다고 했다.

30) 박용후(1988), 제주도 방언 연구, 고대 민족 문화 연구소, p. 123.에서, 표준어 ‘답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답다’로 보고, 그 쓰임은, ‘답-’에 닿소리 씨끝이 통합될 때에는 [답]으로 발음이 되고, 홀소리 씨끝 앞에서는 표준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답]이 된다고 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지가 문제가 된다.

31) Lyons(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 Press, p. 422.에 따르면 일차 실재(first-order entity)는 물체, 이차 실재(second-order entity)는 사태(사건, 과정, 상태등) 삼차(third-order) 실재는 사실이나 명제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 실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2) 이경우(1981), 앞의 논문, p. 229.에서 접미사로, 이름씨와 어찌씨스런 뿌리와 통합된다고 하였다.

임자+풀이의 구조가 된다.

나. 움직씨 뿌리+접미사

(60) -(으)럽- : 붓ㄱ-/부치-(부끄럽다)

-ㅂ- : 미-(미다), 설우-(설다), 실리-(시리다),

-브- : 쥔-(두렵다, 어마어마하다), 싫-(싫증나다), 꿔-(골프→고프-)

-압-/업- : 놀라-(놀랍다), 믿-(미덥-/미드럽-, 미덥다), 뭇시-(무섭다), 실리-(차갑다), 싸물-(사납다), 아끼-(아끼다), 졸-(졸리다),

지ㄱ-(기겁다), 지지-(아주 뜨겁다)

위에 올린 파생어들은 움직씨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그림씨를 파생하고 있다. 이러한 접미사는 지배 접사로서 [어휘성, 문법성]을 동시에 지니게 되고, 통어론적으로는 월에서 [대치성]을 지니지는 못하게 된다.

문헌어에서 ‘무섭다’는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방언에서는 움직씨 ‘뭇시다/무시다’³³⁾에서 ‘-업-’이란 접미사가 통합되어 그림씨 ‘무섭다/뭇섭다’가 파생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지ㄱ-’라는 뿌리는 문헌어 ‘깃ㄱ-’의 방언형으로서 수의적 변동을 입어 ‘지ㄱ-’가 되어, 움직씨의 뿌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뜻은 ‘기뻐하다’가 된다. 그러나 방언에서도 과거에는 쓰였던 것으로 여겨지나, 지금은 ‘깃ㄱ-’ 형태의 움직씨로는 쓰이지 않지만, ‘지꺼지다(기뻐하다)’는 쓰인다. 그 뿌리에 접미사 ‘-브-’가 통합되어 표준어 ‘기쁘다’의 뜻으로 방언형 ‘짓브다/지쁘다’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씨에서 그림씨를 만드는 접미사 ‘-브-’가 여기에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쥔-브-다’는 ‘저프다’로 발음되는데, 문헌어의 뜻은 ‘두렵다’인데, 방언에서의 뜻은 ‘능력 이외의 힘을 발휘할 때의 놀라운 상태’의 뜻으로 쓰이게 된다.

다. 그림씨 뿌리+접미사

(61) -툼- : 알-(알-, 알다랴다)

-으럽다 : 눅-(누그럽다)

33) 허웅(1975), 앞의 책.에서도 ‘무섭다’의 움직씨의 형태가 문헌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움직씨의 재구형을 ‘*무시다’로 추정했다.

-삭- : 역-(피 빠르다)

-싸- : 걸-(행동이 폭이 크다)

-성그르다/-성부르다/-성밟다 : 밟-(알밟다)

-압-/-업- : 거칠-(거칠다), 꺾-(꺾끄럽다), 낮-(낮다), 싸물-(사납다)

위에 올린 뿌리들은 모두 그림씨로 쓰이는 줄기들로서 접미사와 통합이 되더라도 파생어는 역시 그림씨이다. 이 때 접미사의 기능을 살펴 보면, 뿌리의 씨를 바꾸지 못하므로, [문법성]을 지니지 못하고, [어휘성]도 제대로 지니지 못하여 <정도성>을 더할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통어적으로 뿌리가 월에서 차지하는 월 성분에, 파생어를 대치하더라도 월 성분에서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대치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 월의 뜻은 파생어로 대치시키더라도 환경적인 뜻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라. 상징 뿌리+접미사

(62) -압-/-업- : 민들-(미끄럽다), 보들-(부드럽다), 서늘-(서늘럽다)

-지다 : 버닥-(버닥버닥하다), 알록-(알록달록하다), 으쓱-(으쓱하다)

위에 올린 파생어들은 상징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되어 그림씨를 파생한 것이다. 상징 뿌리이기 때문에 어찌씨 범주에서 그림씨로 파생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접사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씨도 풀이씨의 하나이기 때문에 씨끝이 필요한 형태가 되어 안맺음의 형태가 되고, 접사가 통합되어 파생되더라도 다시 씨끝의 통합되어야 하는 안맺음 접사가 된다.³⁴⁾ 그런데, 상징 뿌리는 반복되는 형태를 유지하는데, 접미사와 통합할 때는 반복되는 형태의 한 쪽을 줄이고, 접미사와 통합되는 특징을 지닌다.

4. 5. 매김씨 파생의 양상

4. 5. 1. 접미사 목록

매김씨 파생은 문헌어에서나, 표준어에서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방언에서도 몇

34) 이익섭, 임홍빈(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p. 117.에서 안맺음 접미사를 선어말 접미사(prefinal suffix)라고도 했다.

안되는 것이 발견된다. 대개는 풀이씨 뿌리에 씨끝이 통합되어 매김말로 기능하던 것이 매김씨로 화석화하여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문헌어에서, 이름씨로도 쓰이고, 매김씨로도 쓰이던 것이 방언에는 그대로 유지되어 쓰이는 것들이 있어, 고찰의 대상이 된다. 그 목록을 올리면 아래와 같다.

-간/-건 : 좋-(好), 하-(多)

-은 : 곱-

-운 : 굵-(군-), 노라-/놀라-

-ㄴ : ㄴ다-(右의)

-젯 : 말-

흔 : 족-

-스 : 세-(사이)

-φ : 새(新), 웨(孤)

4.5.2. 뿌리의 유형

매김씨 파생의 뿌리는 대부분 풀이씨 뿌리이거나, 이름씨 뿌리인데, 씨끝이 접미사화하여 파생 매김씨화한 것이다. 이들은 통시적으로나, 말밀으로 본다면, 파생으로 볼 수 없지만, 공시적으로는 파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새, 웨’ 따위는 표준어에서는 접두사나, 매김씨로 보고 있는데, 방언에서는 접두사로 볼 수 없고, 매김씨나, 이름씨로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영변화 파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3. 파생의 양상

통시적으로 볼 때, 매김씨에는 이름씨에서 영변화 파생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표준어에서 이미 매김씨로 쓰이는 것도 방언에서는 그대로 이름씨로 쓰이는 것들이 있다. 새(新), 웨(獨,孤)는 표준어에서는 매김씨나 접두사로 다루어지나, 방언에서는 지금도 이름씨와 매김씨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변화 파생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는 문헌어에서도 이름씨로 쓰이고 있고,

방언에서는 물론이고 ‘웨’도 이름씨로 쓰이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보기를 들면,

(63) 그것을 새로 돌링 쓰라.(그것을 새것으로 하여서 써라)

그것을 웨로 쓰라(그것을 한 개씩 써라, 또는 날 개로, 날으로 써라)

(63)에서처럼 쓰여, 여기서 쓰인 ‘새, 웨’는 다음에 오는 토씨와는 통합에 제약을 받지만, 이름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방언에서도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매김씨나 접두사의 형태로 쓰이고 있음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상태의 매김씨의 형성은 영변화를 거치든지, 풀이씨 줄기에 매김씨의 기능을 하게 되는 씨끝의 통합으로,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를 이루었을 때, 매김말의 파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굴곡 접사 가운데 매김말의 기능을 하는 것은 몇 안되고, 토씨나 그외의 것도 몇 안되어 극히 드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이런 현상을 감안하여 매김씨 파생의 접미사를 방언에서 찾아 보면, 표준어에서도 매김씨를 파생하는 접미사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씨끝의 통합으로 보아 매김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것은 주로 자립성과 실질성을 어느 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방언에서 매김씨 파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4) -은 : 곱-(曲)

-운 : 굵-(均-), 노라-/놀라-

-ㄴ : ㄴ다-(右), 웨-(左)

-겻 : 말-(末)³⁶⁾

-건/-간 : 좋-(好), 하-(多)

-스 : 새-(사이)

따위인데, ‘곱-은’은 방언에서는 ‘곱-’이 풀이말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실사로서 충분히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나, ‘고분 자(까과 같이 생긴 자‘尺’)'에서는 매김씨로

35) 허웅(1975), 앞의 책, pp. 259-260.에서는 문헌어에서도 매김씨 파생의 예는 드물다고 하면서 ‘.맛/-맷, -인’만을 접미사로 올려 놓고 있다.

36) 이 말의 형태분석을 ‘말재’가 월인천강지곡(기 : 74)에 나타난다. ‘마왕이 말재야 나아드니’에서 보면 ‘말재+스’이 되어야 하고, 뿌리도 고유어로 볼 수도 있다.

보았다. 이 때에 ‘곰-은’은 밀착되어 쓰이므로 ‘-은’을 접미사로 보았다.

‘굶-, 노라-/놀라-’ 따위의 뿌리는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움직씨 줄기인데, ‘-ㅂ-’이 덧붙여 그림씨가 되었고, 다시, 접미사 ‘-ㄴ’이 붙어 매김씨로 되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굶-은’은 ‘굶다’에서 홀소리가 교체된 형태인데, 여기에 매김씨끝이 통합된 것이다. 표준어에서 접두사로 쓰이는 ‘군-’은 ‘굶-’에서 ‘ㅎ’이 떨어지고 나서 ‘글-’에 매김씨끝이 통합되면서 ‘군-’이 된 것으로 쓰인다. 그리고, 방언에서는 ‘군’은 접두사가 아니라, 매김씨로 자립, 실사로 보인다. 또한, ‘노라-/놀라-’는 그림씨 ‘놀랍다/노랍다’에서 매김씨끝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겹접미사의 통합 형태 ‘-ㅂ-’과 씨끝 ‘-ㄴ’이다. 여기에서 접미사의 형태를 ‘-운’으로 하는 것은, 겹접미사로 실지 발음이 ‘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처리하여 왔다. 이렇게 접미사의 형태가 변하여서 매김씨의 기능으로 유연성을 잃고 화석화한 것으로 보고, 매김씨 파생의 접미사로 올려 왔다.

그리고, ‘늑단’은 방언에서는 ‘오른’의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늑다’는 ‘오른 쪽’으로 이름씨로 쓰이는 일이 간혹 있다. 그러나 거의 쓰이지않는 이름씨인데, 거기에 ‘-ㄴ’이 붙어서 매김씨를 파생한 것으로 보았다. 지금 다룬 접미사들을 ‘-은/-는’ 따위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도 하였으나, 뿌리의 씨가 다르고, 중간 과정(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말밑으로 보면, 파생의 과정을 거친 점도 발견되므로)이 다르고, 실제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접미사로 설정하여 왔다.

‘말져’에서는 ‘자이>째/채’가 방언에서는 이뤄지는데, ‘첫째, 둘째’ 따위로 쓸 때에는 매인 이름씨이지만, ‘말져’이라고 쓸 때는 그 특수성을 들어 접미사로 보아 둔다. 뿌리 ‘말-(末)’은 한자어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째’는 한자어 뿌리와 통합이 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百, 千’ 따위의 말과 통합이 될 때에는 뿌리와 사이에 ‘번’을 개입시키고 통합이 이뤄지는 점에서도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잇소리가 붙어서 매김말의 역할을 더 하고 있는 점도 방증은 된다고 본다. 만일 사잇소리가 쓰이지 않았을 때는 ‘째’를 접미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말져’에서는 매김씨이나 ‘말째/말채’가 ‘나중’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이름씨가 되는 것이다.

‘ 좋건’은 ‘좋은, 아까운’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뜻으로 보아 뿌리를 ‘ 좋-(好)’로 보아 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건/-간’을 접미사로 처리해 두었다. 그것은 그 뒤에

오는 ‘하간’이란 말이 ‘여러 가지의’ 뜻으로 방언에 쓰이는데, 뿌리는 뜻의 유연성으로 보아 ‘하-(多)’로 여겨지고, ‘-간’은 접미사로 그림씨를 매김씨로 파생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간’과 ‘-건’은 홀소리 교체에 의한 변이 형태다.

끝으로 ‘셋’은 ‘사이+ㅅ’의 형태임은 표면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 뜻은 ‘사이의’가 아니라 ‘둘째의’란 뜻으로 뿌리와 의미에서 유연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ㅅ’을 접미사로 다루어 둔다. 그런데, 꾸밈을 받는 말이 ‘사람’일 때는 위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나, 그런데, ‘셋 문’(사잇문)과 같이 사물일 때는 ‘사이의’란 뜻이 그대로 남게 되어, 형태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지만, 통합의 긴밀성으로 보아, ‘-ㅅ’은 원래는 사잇소리의 형태이지만, 인칭어와 통합되었을 때는 접미사로 보는 것이다.

4. 6. 어찌씨 파생의 양상

4. 6. 1. 접미사 목록

어찌씨 파생은 많은 뿌리와 접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계 접미사와 통합에 의한 파생은 목록을 다 실지 못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파생어를 이 논문에서는 생략하였다. 여기에서 다룰 목록을 올리면 아래와 같다.

가. 이름씨 뿌리+Ⅱ유형 접미사

(1) ‘-이’계

고단고단-(여러 가지로), 곳곳-, 고망고망-(곳곳이), 면면-, 칭칭-(충충이), 집집-
날날-(나날-), 돌돌-(다달-), 번번-, 툼툼-
날날-, 줄줄-, 그만-

(2) 기타 접미사

-껏 : 눈치, 맛음, 심(힘), 양(한껏) -내 : 맛침 -덜 : 그-(그렇게) -로 : 억지, 츠(차),
춤말, 질(지) -새 : 앞(전에) -악 : 솥(가득한 모양) -애 : 번(함께) -이 : 그만(그 정
도로) -흔 : 뿔-(쪽)

-시리 : 어른(어른스럽게), 궁상(궁상스레), 야단-, 궁상-, 공연-, 주연-(-스럽-과 통합되

는 뿌리와는 거의 통합된다.)

골척-, 곱닥-, ㄱ잡-, ㄱ득-, 높직-, 버작-, 질척-

나. 풀이써 뿌리+II유형 접미사

(1) ‘-이’계 접미사

게을-, 곧-, 궤로-(괴롭-), ㄱ득-, 곧나웃-(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넘-(너무)
늘-(늘게), 늦-, 늦-(늦게), 더레-(더럽-), 두물-, 돌-(달게), 막-/맥-(없음), 서툰-
, 수고로-(수고롭-,수고롭게), 쉬-(쉽-), 싹프-(싹+브-[싹피]), 심들-(힘들게)
적-, 짓거-(기쁘게), 줌질-, 좇-

다. 겹뿌리+접미사(반복에 의하여 상징어가 되기도 하는 것)

(1) ‘-ㅣ’계 접미사

골척-(꺾-직-, 꺾게), 곱닥-(곱‘麗’-닥), 곱웃-(곱‘曲’-웃-), 곱웃-(곱‘曲’-웃-),
그만-(그만큼), ㄱ잡-(답답하게), ㄱ득-(가득히), 골로락-(꺾-으락, 竝), 감작-
(갑작이), 너브작-(넙-우작-), 높직-, 느릿-(늘‘慢’-웃-), 들팍-(*듬-박-), 돛돛-
(따뜻-), 멜락-(푹 주저 앉은), 멜썩-(앞과 같음), 무랑-(무르-앙-), 물치락-(무르-
치락-), 버작-(벌-작-), 버젓-(벌-젓-), 부드낫-(븐-으낫-, 겨우), 비듯-(비스듬히),
슬몃-(슬그몃-,살그머니), 실쿠룻-(싫-쿠룻-‘싫은 태도로), 싫죽-(싫-죽-), 슬썩-
(살그머니), 아웃-(아우-/오-스-, ‘벌린 상태’), 올랏-(오르-앗-), 조조룩-(쫓-오
룩-, ‘오뚝하게’), 질긋-(질‘長’-긋-), 질썩-(질‘長’-직-), 좇좇-(자세하게), 코삿-
(코-삿-,흙죽한 모양), 크등-(크‘大’-등-), 헐무랑-(헐‘毀’-무랑-), 헐파리-(헐-
파리-)

따위인데 위에 올린 파생어들 가운데는 2차 요소인 ‘-이’나 ‘-하-’가 통합
되지 않더라도 자립성을 지녀, 실사로 쓰이는 것들이 있다.

(2) 기타 접미사

-곰 : 족-(조곰) -구 : 들-(자꾸), 잣-(자꾸) -로 : 세(새)-
-시리 : 답-(답-, 답게) -아/-어 : 굳히-(구태여), 들-(계속해서)
-어니 : 든직-(든직하게), 든 직-(든직하게), 회뜩-(회미스름하게)
-양 : 고-(곱-, 고이, 곱게) -영 : 족-(적게), 하-(많게)

-우이 : 굴-(굴 것으로) -입더 : 들-(계속해서)

-작 : 찢-, 곧-, 곧-, 뵈-, 웃- -죽 : 죽-(적게, 조금씩)

-히 : 골로랑-, 낄-(차분하게), 독-, 툄툄-(튼튼하게) 돌-(달콤하게)

-오/-우 : 가르-(가로), 것구르-(거꾸로), 고르-(고로, 골로로), ㄱ르-(ㄱ로),
넘-(너무), 되-(되게, 심하게), 따르-(따로), 배부르-(배불리), 외-(반
대로), 줄바르-(바르게), 좇-(자주)

-악 : 굳-(뻘뻘하게), 뭉쓰-(뭉썩, 폭삭하게), 벌-(벌작하게), 솟-(가득하게)

라. 불구 뿌리+접미사

-착 : 물-, -찍 : 번-, - 싹 : 벌-, 펼-

-곰 : 훑-(조금) -냥 : 내-(내내) -룻 : 미-(미리)/-웃 : 밀-

-시리 : 괜-(괜히) -춤 : 거-/건-(거의) -로 : 간대-(맘대로)

마. 상징 뿌리+접미사(뿌리의 씨를 알 수 없는 것)

(1) ‘-이’계 접미사

깡고룻-, 껌껌-, 껌껌-, 냉구룻-, 듄박-, 던덕-, 밀껌-/밀껌-, 바락-, 배룻- 복-([보끼]),
아늑-, 펜두룻- 따위

(2) ‘-이’ 접미사

어찌씨 뿌리에 ‘-이’ 접미사가 통합된 보기는 생략한다. 그 이유는 반복어로 쓰이는 대부분의 뿌리가 반복어의 한 쪽에 ‘-이’를 통합시키면 모두 어찌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바. 어찌씨 뿌리+Ⅳ유형 접미사

-앵이/-어니 : 일찍 -딱 : 툄-/툄-/툄-(모두) -끼 : 훑-(날렵한 동작으로), 복-(매정하
게 앓는모양) -새 : ㄱ-(금방), 앞-(전에) -내 : ㄱ침- -상 : 늘-(常) -양 : 늘([느랑],
늘) -로 : 또-(다시), 역불-(부러로) -이 : 바락-/버락-

4.6.2. 뿌리의 유형

어찌씨를 파생하는 뿌리의 유형은, 이름씨, 풀이씨, 풀이씨에서 1차 파생을 거친

뿌리, 상징 뿌리, 불구 뿌리, 어찌씨 뿌리들이다. 이러한 뿌리들 중에는 이름씨, 어찌씨 뿌리들은 자립, 실질성을 지니므로, 완전 자립 뿌리이고, 나머지는 불완전 뿌리들이다. 이러한 뿌리들은 특히 방언적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점도 특징이다.

4.6.3. 파생의 양상

어찌씨를 파생하는 접미사나 뿌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당수에 이를 수도 있다. 그만큼 어찌씨를 파생하는 뿌리는 이름씨, 풀이씨, 그리고 상징어 등 분포도 넓고, 접미사도 다양하여 여러 가지의 어찌씨의 파생어를 만들어 낸다. 또 어찌씨가 가진 특질에 따라, 의미, 형태, 기능적으로나, 통어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한다. 어찌씨를 파생하는 데는 ‘-이’계 접미사의 역할이 크다.

가. 이름씨 뿌리+II유형 접미사

(1) ‘-이’ 접미사

‘-이’ 접미사가 통합되어 어찌씨를 파생하는 뿌리는 이름씨, 풀이씨, 풀이씨에서 일차 통합된 <정도성>의 뿌리, 그리고 상징 뿌리 등 아주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이렇게 많은 뿌리에 통합되는 것을 어휘의 생산성에 따르면, 어느 접미사도 따를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뿌리에 통합되는 ‘-이’ 접미사도 이름씨 뿌리에는 그리 많은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³⁷⁾ 이를 살펴 보면,

- (65) ㄱ. 고단고단-(여러 가지로), 곳곳-, 고망고망-(곳곳이), 면면-, 칭칭-(충충이),
 집집-
 ㄴ. 날날-(나날-), 돌돌-(다달-)³⁸⁾, 번번-, 틈틈-
 ㄷ. 날날-, 줄줄-, 그만-

-따위인데 ㄱ.은 공간을 나타내는 뿌리, ㄴ.은 시간을 나타내며, ㄷ.은 갯수를 나타내는 이름씨가 반복되어 형성된 뿌리들이다. 이러한 뿌리들은 이름씨만으로는 뿌리를

37) 최현배(1986), 앞의 책, p. 675.에서도 이름씨를 어찌씨로 만드는 뒷가지로 12개의 낱말을 들고 있다.

38) 하치근(1989b), 앞의 논문, p. 63.에서 ‘다달이, 집집이’ 따위에서 ‘다달, 집집’은 자립해서 쓰일 수 없고, 파생 접사 ‘-이’를 붙여 어찌씨를 만드는 데만 쓰이므로 불완전 합성 뿌리라고 했다.

이루지 못하고, 반복된 형태만을 취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이름씨 뿌리는 반복되면, 어찌씨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어찌씨라도 소리 마디의 수에 따라서 어찌씨의 형성이 완전한 것도 있지만, 1음절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dotdot, jotjot’ 따위는 온전한 파생어를 형성하지 못해서, 여기에 다시 ‘-이’ 접미사가 통합이 되어야 완전한 어찌씨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2음절의 반복이라도 ‘-이’ 접미사가 통합되어야 안정된 파생어로 느껴지는 점에서 ‘-이’ 접미사는 어찌씨를 파생하는 기능은 물론, 어찌씨를 확실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³⁹⁾

그런데, ‘-이’ 접미사는 통시적으로 볼 때에는 위치 자리 토씨 ‘익, -의, -에, -애’ 따위가 변화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언에서 ‘툼툼에’는 앞 높은 소리가 되어 ‘-이’로 나타나는 일이 많고, 또, 위치 자리 토씨로 접미사의 자리에 대치를 시키더라도 어찌씨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보기를 들면 ‘날날-이’의 뜻으로 ‘날날에’라고 하더라도 같은 뜻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위치 자리 토씨가 붙었을 때는 뿌리는 이름씨로 남아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뿌리가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표준어와 다른 점은 방언에서는 ‘날날, 달달’로 되풀이 되더라도 표준어처럼 앞의 ‘ㄹ’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 기타 접미사

이름씨 뿌리에 통합되어 어찌씨를 만드는 접미사들을 찾아 보면 아래와 같다.

- (66) -곶: 눈치-, 맛음-, 심(힘)-, 양(한곶)- -내: 끝-, 맛침- -대로⁴⁰⁾: 그-, 마음-
-로: 간대⁴¹⁾-, 억지-, 진실-, 날(生)-, 본다-, 당시-, 촛(차)-, 춤말-, 질(지)-

39) 심재기(1982), 앞의 책, p. 405.에서 2음절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릇그릇, 구석구석, 사이사이’ 따위를 어찌씨로 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명사의 첩형들은 그 의미가 원래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것들이어서 후행하는 어간 형태가 ‘-마다’라는 부사화 형태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그런데 1음절의 반복으로는 부사화가 완결되지 않고, 다시 ‘-이’의 결합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40) 심재기(1982), 앞의 책, p. 409.에서는 ‘-곶, -이, -은, -대로’의 어원을 밝히면서, ‘-대로’는 중세어 ‘-답-+이’의 과정으로 ‘-답이’라는 형태를 유지 하다가/-ㅁ-/이 탈락으로 ‘대’가 되고, 그것이 다시 이중모음으로부터 단모음으로 바뀌자 그 형태소의 음장을 유지하려는 보상적 대응책으로 ‘-로’를 부가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41) 허웅(1975), 앞의 책, p. 255.에서 ‘제멋대로, 함부로’의 뜻으로 ‘간대로’를 들고 있다. ‘석보’에는 ‘世間어 邪魔外道엿 妖怪로된 스승을 信하야 간대엿 禍福을 닐어든 곧 두리본 ㅼ들 내야’가 있고, 방언에서도 ‘간대로’가 나온다.

-수/-소 : 몸-, 손- -새 : 앞(전에)- -악 : 솟(가득한 모양)-
 -애 : 별⁴²⁾(朋, 함께)- -은 : 실-, 탄- -이 : 그만(그 정도로)-
 -시/-시레 : 어른(어른스럽게)-, 궁상(궁상스레)- -흔 : 뭉(푹)-

따위들이다.⁴³⁾ 그런데, 표준어의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 양상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들이 더러 있다. 방언에서는 ‘-대로’ 접미사와는 ‘그대로, 마음대로, 너대로, 멋대로’ 따위와는 잘 이루어지는 편이나, 때에 따라서는 ‘-냥’이라는 형태로 바뀌 쓰는 일이 있고, ‘-내’는 방언에서는 위에 올린 ‘끝내, 뭉침내’ 정도와는 잘 통합이 되지만, 표준어 ‘겨우내, 가으내, 여름내’ 따위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방언에서는 ‘내냥’이 붙어서 ‘여름 내냥, 겨울 내냥’ 따위로 쓰여, ‘끝내, 뭉침내’에서의 ‘-내’와는 다른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여름 내냥, 겨울 내냥’에서 ‘내냥’은 표준어에서 ‘내내(어찌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실사로 쓰인 것이고, ‘-내’와는 이형태가 아닌 별개의 낱말이다.

그밖에도, 표준어와는 같은 형태를 겹으로는 취하는 것 같지만, 다른 곡용, 활용에 의해서 쓰이는 일이 많다.

그러한 접미사들을 살펴 보면, ‘-껏⁴⁴⁾, -새, -흔’들은 실사에서 실질성을 잃고, 접미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흔/-흔’은 한자어 ‘限’에서 온 것같이 보인다. 그리고 ‘-새’도 ‘사이’에서 변화한 형태로 보인다. 방언에서 ‘그 새(그 사이)’가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사이’의 축약임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밖의 접미사들은 이름씨와는 통합이 덜 되더라도 다른 뿌리들과는 파생력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시리/-시레’는 ‘-스럼-’이라는 접미사에서 다시 ‘-이’ 접미사가 통합되어 겹접미사가 되었지만, 두 개의 접미사가 녹아 붙은 것으로 보고, ‘-시리/-시레’를 이름씨 뿌리나 불구 뿌리에서 어찌씨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다루었다. 만일 ‘-스럼-’이라는 접미사가 녹아 붙지 않았다면, 그림씨

42) ‘별(朋)’의 표기는 이조 초기 두시언해에도 나타나고, 이조 중기의 소학언해에도 나타난다. ‘나 그내 버리 혼갓 使星을 변호니,

43) 심재기(1982), 앞의 책, pp. 408-409.에서는 이름씨에서 어찌씨를 파생하는 접미사를 ‘-껏, -소, -내, -은, -이, -대로’를 들고 있다.

44) 심재기(1982), 앞의 책, p. 409.에서 ‘-껏’은 중세어 ‘又(邊, 端), 근(端, 末)’에 기원하는 것으로, 현대 국어의 후치사 ‘-까지’와 같은 어원의 접미사라고 한다.

즐기가 될 것이다. 방언에서는 상당한 파생력을 지니고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시리’ 접미사가 이름씨 뿌리에 통합되는 예를 보면 ‘야단-, 걱정-, 즈연-’ 따위로 ‘-스럼-’이 비실체성 이름씨 뿌리에는 거의 제약없이 통합되어 어찌씨를 파생한다.

그리고, 불구 뿌리에 붙어 어찌씨를 만드는 ‘괜-시리’ 따위도 있다. 그리고, ‘답-시리’는 움직씨 뿌리에 붙은 것이고, ‘곰닥-시리’는 겹뿌리에 통합된 것이다. ‘-시리’가 통합되는 뿌리는 다양한 편이다.

나. 풀이씨 뿌리+Ⅱ유형 접미사

(1) ‘-이’ 접미사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접미사는 풀이씨 뿌리에 통합되어 많은 파생어를 만든다. 이들을 살펴 보면,

- (67) 게을-(게으르-), 곧-, 케로-(괴롭-), ㄱ득-, 곧나웃-(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녀-(너무), 늘-(늘게), 늦-, 늦-(늦게), 더래 -(더럽-), 두물-, 돌-(달게), 막-/맥-(없음), 서툴-, 수고로-(수고롭-, 수고롭게), 쉬-(쉽-), 실프-(싫+브-[실프]), 심들-(힘들게), 적-, 짓거-(기꺼이), 줌질-(자디잘게), 좇-

따위들이다. 먼저 뿌리를 살펴 보면 본래부터 풀이씨로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차 다른 요소와 통합을 이룬 것들도 있다. 그런 뿌리를 들면, ‘케로-, 수고로-, 실프-, 짓거-’ 따위들인데, 풀이씨로 고정된 것으로 보고 뿌리로 삼았다. ‘케롭다’는 형태 분석을 하면 ‘케-롭-’이 되어 ‘케-’는 불구 뿌리가 되나, ‘-롭-’과 통합되어 그림씨의 겹뿌리가 된 것이다. 이것이 다시 어찌씨를 만드는 ‘-이’와 통합되어 어찌씨를 파생한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나머지 ‘수고-롭-, 싫-브-’도 다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짓거-이’는 표준어 ‘기꺼이’와 대응되는 말인데, 뿌리를 설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문헌어에서는 ‘깃ㄱ’로 뿌리가 되어 있는데 방언에서는 입천정 소리되기와 줄기의 끝소리 갖추기로 ‘깃그-’가 되어 다시 씨끝 ‘-어’가 통합이 된 형태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접미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어찌씨이다.

‘-이’ 접미사에 대해서 살펴 보면, 표준어에서는 다른 형태의 접미사와 통합되는 일이 있지만, 방언에서는 ‘-이’로 통합되는 일이 많이 있다. ‘넘-이, 좇-이, 늦-이’ 따위들인데, ‘너미, 좇이’는 표준어에서는 ‘-우-’와 통합되는 것이고, ‘넘-이, 좇-이, 늦이’

는 표준어에서는 ‘저지규칙’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파생되거나 씨끝에 의해서 ‘낮게, 짚게’ 따위로 어찌말로 된다.⁴⁵⁾

나. 그외 접미사와 통합된 것

‘-이’ 접미사를 제외하고 풀이씨 뿌리에 통합되어 어찌씨 만드는 접미사를 올려 보면, 아래와 같다.

- (68) -곰 : 훑-(조금), 족-(조금) -구 : 들-(자꾸), 잣-(자꾸)
 -시리 : 답-(답-, 답게) -아/-어 : 굳히-(구태여), 들-(계속해서)
 -악 : 굳-(뻘뻘하게), 땀쓰-(땀씩, 폭삭하게), 벌-(벌작하게)
 -양 : 고-(곱-, 고이, 곱게) -영 : 족-(적게), 하-(많게)
 -오/-우 : 가르-(가로), 것구르-(거꾸로), 고르-(고로, 골로로), ㄴ르-(ㄴ로), 넘-(너무), 되-(되게, 심하게), 딱르-(따로), 배부르-(배불리), 외-(반대로), 줄바르-(바르게), 좇-(자주)
 -우이 : 굴-(굳 것으로) -입더 : 들-(계속해서)
 -작 : 꺾-, 곧-, 굳-, 벌-, 웃- -죽 : 족-(적게, 조금씩)
 -히 : 돌-(달콤하게)
 -으로 : 꺾-(거꾸로)

이들은 몇 안되는 뿌리와 접미사들이지만 방언적인 요소가 다분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뿌리들을 살펴 보면, ‘훑-, 답-, 땀쓰-, 굴-’ 따위들은 표준어에서는 이미 쓰이지 않는 말들이거나 다른 형태로 쓰이는 말들이다. 그리고, 하나의 뿌리에는 많은 이형태(꺾-, 곧-, 곧-)가 있어서 복잡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씨에서 만들어진 ‘족족’⁴⁶⁾은 반복어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로 보아야 할 지가 문제이다. 다른 한 음절의 뿌리가 반복하는 경우에는 온전하지 못한 어찌씨를 이루어 다시 ‘-이’ 접미사를 붙여서 어찌씨가 되는데, ‘족족’은 그냥 온전한 어찌씨가

45) 하치근(1987a), 앞의 책, p. 19.에서 ‘짧-이, 낮-이, 얇-이, 좁-이’는 정상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말로 보고,

Leech(1976), Semantics, Penguin Books, p. 213.의 어휘 규칙과 관련된, 잠재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말(potential acceptability word)로 보고 사전에 올리기 위해서는 파생에서 제외시킬 제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46) 문헌어 ‘간데 족족, 하는 족족’에서는 토씨나 매인 이름씨로 쓰였지만, 방언에서는 ‘족족 먹으라.’에서는 표준어 ‘적게’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서 ‘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똥똥-(따뜻), 좇좇-(자세히), 굵굵-(갑갑히)’ 따위에서는 반복되는 것만으로는 어찌씨가 되지 못하는데, ‘족족’만은 온전한 어찌씨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접미사를 살펴 보면, 거의가 본래 접미사로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표준어 접미사의 형태와 다르다는 느낌이 짙게 드는 것들이다. ‘-시리’는 ‘-스럼-이’가 녹아 붙어서 된 겹접미사인데 표준어에서는 ‘-스러이’에 대응되는 것이다. ‘-우이’ 접미사도 파생력은 없는 것 같지만 ‘굵-’과 통합되어 어찌씨를 파생하고 있다. ‘굵-’은 매김씨끝과 통합되어 ‘군-’이 되는 것인데 표준어에서는 접두사로 처리되지만 방언에서는 실질성과 자립성이 있는 것이다. 그외 ‘-입더’는 ‘계속해서’의 뜻을 지닌 것인데, 표준어의 ‘넙다’와 같은 구조를 이룬 것으로 보여, 특이한 형태의 접미사로 보고 올려 뒀다. 그러나, 이말의 뿌리를 ‘드리-ㅁ더’로 보고, ‘ㅁ더’를 접미사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문헌어에 많이 나타나는 ‘-오/-우’의 접미사들도 상당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들은 어느 면에서는 영변화(zero-modification)로 볼 수도 있다. ‘것구르, 고르, 배부르’ 따위에서 끝소리 ‘ㄹ’을 가진 말의 발음에서 그리 선명하게 ‘-오/우’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⁴⁷⁾

다. 겹뿌리+접미사

(1) ‘-이’계 접미사

꿀척-(꿀-척-, 꿀게), 굵닥-(굵‘麗’-닥), 굵웃-(굵‘曲’-웃-), 굵웃-(굵‘曲’-웃-), 굴꺾락-(굽-으락, 竝), 너브작-(넙-우작-), 늣직-, 느룻-(늣‘慢’-웃-), 똥똥⁴⁸⁾(따뜻-), 땀락-(땀 주저

47) 허웅(1975), 앞의 책, p. 254.에서 ‘모도’는 ‘몬-’에 ‘-오’가 붙은 것으로도 볼수도 있지만 ‘-오’가 이 자리에서는 풀 없이(풀없는 변이 형태)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여기에서는 무형의 가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심재기(1982), 앞의 책, p. 415.에서 영변화에 속하는 동사의 부사화에는 외견상 단모음으로 보이는 ‘-오/-우’를 또 들 수 있다고 하고, ‘ㄷ초’에서 그 자체가 어간 형태로서 ‘-오’를 분리해 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너무, 마주, 되우’ 따위들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48) ‘똥똥, 좇좇’은 뿌리가 반복된 형태로서 여기에 올린 말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뒷성분이 불완전 접미사들과 같은 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같이 올려 뒀다. 같은 점으로는 외적 통합으로, ‘-이, 하-’와만 통합이 되며, 통합된 상태에서 반복을 시키더라도 ‘똥똥똥똥하다’가 되어 ‘꿀척꿀척하다’처럼 ‘똥’이 ‘-척’처럼 같이 반복이 되고 있으며, ‘똥똥’이나 ‘꿀척’이 자립성을 지니지 못하는 점 등이 같은 점이 있다. 그러나, ‘똥똥’은 반복으로 다룰 수도 있다.

얇은), 땀-(-앞과 같음), 무랑-(무르-앙-), 물치락-(무르-치락-), 버작-(번-작-), 버젓-(번-젓-), 부드낫-(븐-으낫-,겨우), 실쿠룻-(싫-쿠룻- ‘싫은 태도로’), 싫죽-(싫-죽-), 아웃-(아우-/오-스-, ‘벌린 상태’), 올랏-(오르-앗-), 조조룩-(죇-오룩-, ‘오뚝하게’), 질긋-(질‘長’-긋-), 질찍-(질‘長’-직-), 좇좇-(자세하게), 크등-(크‘大’-등-), 헐무랑-(헐‘毀’-무랑-), 헐파리-(헐-파리-) 따위

위에 올린 파생어들 가운데는 2차 요소인 ‘-이’나 ‘-하-’가 통합되지 않더라도 자립성을 지녀, 실사로 쓰이는 것들이 있다.

‘너브작, 땀, 땀, 땀’ 따위들인데, 이들은 이 상태에서 어찌씨로 쓰이기도 하고, ‘-이’ 접미사를 다시 통합하여 어찌씨로 쓰기도 하는데, 뜻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위에 올린 파생어들은 방언답게 하는 요소가 많은 말들이다. 이 말을 분석할 때는 뿌리와 1차 파생의 단계를 거치고, 다시 맺음 접사 ‘-이’나 안맺음 요소 ‘하-⁴⁹⁾’, ‘지-⁵⁰⁾’ 따위와만 통합이 이뤄지는 소위 불규칙한 파생어들이다.⁵¹⁾ 따라서, 내적, 외적 통합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 것들이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통합된 접미사들은 대개 그림씨 뿌리에 <정도성>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뿌리가 가진 뜻에 정도의 높낮이를 더할 뿐 씨를 바꾸거나, 월 성분을 바꾸지는 못하는 접미사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1차 통합에서 <정도성>⁵²⁾을 나타낸다는 것은 별다른 이론이 없겠지만,

49) 심재기(1982), 앞의 책, pp. 355-364.에서는 ‘하다’가 지닌 의미론적 허구성, 즉, 구체적 동사의 의미를 내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통사적으로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보다 엄격하게 파생 접사의 범주 내에 묶어 두려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는 서술 기능 대행, 서술 기능 완결, 서술 기능 이행이라 하는 세 가지 통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50) 심재기(1982), 앞의 책, pp. 370-375.에서 ‘-지-’는 이 각 단계에 두루 작용하되, 양극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의미 영역으로 이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지-’야말로 단일한 형태소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언어 경제성을 극대화한 독특한 서술 기능 완결소 및 서술 기능 이행소라 하겠다고 했다.

51) 허웅(1983), 앞의 책, p. 143.에서는 특수 뿌리로 다루고 있다.

하치근(1989a), 앞의 책, p. 69.에서는 위의 접미사들을 불완전 파생 접사로 처리하면서, 이들 불완전 접사는 대부분 상태성 뿌리에 결합되어 뿌리의 씨의 범주를 바꾸지 못하고, 뜻만 더하므로 한정적 기능을 가진 접사다.

차원 낱말: 넘데데하다, 길쭉하다, 길쭉막하다

상태성: 둥그스름하다, 비스름하다, 느지막하다

감각어: 들쭉하다, 곱살스럽다, 땀팡스럽다 따위를 들고 있다.

52) Scalise(1987), 앞의 책, pp. 171-172.에서는 자질 스며들기도 이뤄지지 않는 평가 접미사라고 하고 있다.

접미사와 통합된 파생어의 씨는 결정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파생을 한 채로 씨의 결정도 없이 파생어로만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씨가 결정되어야 기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씨를 어찌씨로 본다면 월 성분이라든지, 기능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이름씨로 보더라도, 그 같은 점은 마찬가지이다.⁵³⁾ 이러한 접미사는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⁵⁴⁾ 이러한 접미사의 수도 많지만, 또한 많은 변이 형태가 있어서, 다 수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같은 생활문화권에 사는 사람이라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변이 형태의 보기를 들면 ‘곱-(麗)’에 일차 접미사로 ‘곱-닥-, 곱-들락-, 곱-드글락-’로 나타난다. 다시 ‘넙-(廣)’에는 ‘넙-작-, 너브-작-, 너브-작작’ 따위로 나타나 변이 형태의 규칙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거의가 개별적이며, 수의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이런 파생을 하는 말에는 대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2차 통합이 되는 ‘-이’는 어찌씨 파생의 접미사로서, 이름씨, 풀이씨 상징 뿌리에 통합되어, 어찌씨를 만들기도 하지만, 1차 접미사가 통합된 형태와도 통합이 이루어져서 어찌씨를 파생한다. 그리고, ‘하-, 지-’는 1차 통합의 형태와 다시 통합되었을 때는 그림씨나 움직씨를 파생한다.

그리고, 앞에 올린 1차 접미사와 통합된 형태들은 반복된 꼴(골칙골칙, 곱웃곱웃 따위)로도 쓰일 수 있다. 반복되었을 때는 바로 온전한 어찌씨로 쓰인다. 그런데, 거기에도 다시 ‘-이’ 접미사를 통합하더라도 어찌씨가 되는데, 이때의 ‘-이’ 접미사는 뜻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지 못하므로, 잉여 접사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 지-’가 통합이 되는 일도 있는데, 이때는 풀이씨가 되어 달라지게 된다. 만일 통합에 따른 분리성을 따진다면 이때 ‘하-, 지-’는 분리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⁵⁵⁾

53) 이승녕(1961a), 앞의 책, pp. 13-178.에서 이름씨 파생의 접미사나 어찌씨 파생의 접미사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불그룽, 노리룽’ 따위의 ‘ㅇ’을 이름씨로 만드는 접미사로 보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이름씨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1차 파생의 결과 어떤 씨가 결정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4) 개인의 심리적 상태라든가 발화의 분위기에 따라 나타나는 개별성을 말한다.

55) 하치근(1989a), 앞의 책, pp. 322-323.에서도 분리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 불구 뿌리⁵⁶+접미사

- (69) -곰 : 𐏃⁵⁷-(조금) -낭 : 내-(내내) -룻 : 미-(미리)/밀-
 -시리 : 켜-(켄히) -쭈 : 거-/전-(거의)

불구 뿌리는 씨를 알 수 없는 뿌리로서 다른 파생어들과 동형성을 가지고, 뿌리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불구 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통합이 이뤄진 것은 모두 단일어가 된다. 여기에서는 불구 뿌리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방언에서 어찌씨 파생의 불구 뿌리가 적게 나오는 것은 반복어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루었다. 불구 뿌리에서 접미사와 통합되어 이루어진 파생어는 형태, 기능, 의미별 유형에서 바로 다룰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다만, 결과적으로 파생된 씨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마. 상징 뿌리+접미사

(1) ‘-이’ 접미사

- (70) 쟁고룻-, 갑작-, 냉구룻-, 듬박-, 던덕-, 밀껍-, 바람-, 벼룻-, 아늑-, 켜두룻- 따위

위의 뿌리에 통합된 접미사는 ‘-이’인데, 어찌씨를 파생한다. 이러한 뿌리는 물론 반복어로도 쓰이지만 주로 ‘-이’와 통합된 형태로도 잘 쓰이는 것들이라 따로 올려 뒀다.

바. 어찌씨 뿌리+Ⅳ유형 접미사

(1) ‘-이’를 제외한 접미사

다음의 뿌리들은 ‘-이’ 접미사가 아닌 다른 접미사와 통합되는 그런 뿌리들인데, 뿌리의 씨는 어찌씨로서 다시 어찌씨를 파생한다. 같은 씨로 파생하더라도, 월 성분에

56) 허웅(1975), 앞의 책, p. 36. 가상적 뿌리로 보고 있는데, 완전한 뿌리로서는 자격이 모자라지만 다른 여러 말과의 관련상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단 뿌리로 잡고(가상하고) 풀이한다고 했다.

57) ‘훅다’란 방언에는 쓰이지 않는다. 문헌어 ‘훅다’에서 온 것이 아닌가 여겨서 불구 뿌리로 올려 두었다.

대치가 가능한 것도 있고(뜯 : 뜯-네기),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선생 : 선생질), 어찌씨 뿌리에서 어찌씨를 파생하는 경우는 모두 대치성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진다.

- (71) -앵이/-어니 : 일찍 -딱 : 툐-/툐-/툑-(모두)
 -끼 : 흑-(날렵한 동작으로), 복-(매정하게 앓는 모양)
 -새 : 곤-(금방), 앞-(전에) 내 : 뭉침-
 -상 : 늘-(常)
 -양 : 늘([느랴], 늘)

(2) ‘-이’ 접미사

어찌씨 뿌리에 ‘-이’ 접미사가 통합된 보기는 생략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반복어로 쓰이는 대부분의 뿌리가 반복어의 한 쪽에 ‘-이’를 통합시키면 모두 어찌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4. 7. 토씨 파생의 양상

4. 7. 1. 접미사 목록

토씨 파생에 대한 고찰은 자립이나, 실질 형태소에, 의존, 형식 형태소가 통합되어 의존, 형식형태소가 파생된 것을 다루게 되는데, 언어 현실로 보아,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문 일로 보인다. 그러나, 표준어에서나, 방언에서도 몇 있어 여기에서 다룬다. 목록을 올리면 아래와 같다.

- 에 : 들-(드레-)
 -은 : 굴-,
 -이 : 굴-, 만-, 꽃
 -의 : 앞-
 -디 : 신-

-(으)로 : 데-/대-, 양-(양-),
 -씩 : 만-
 -양 : ㄱ지-
 -아/-어 : ㄷ리-, 아우르-, 굴-, 불-
 -양 : 딸-
 -티 : 안-

4.7.2. 뿌리의 유형

토씨 파생의 뿌리는 풀이씨, 이름씨, 풀이씨에 씨끝이 통합된 형태등 다양한 편이다. ‘안-, ㄱ지-, 신- 앞-’ 따위는 완전 뿌리고, 그 나머지는 불완전 뿌리다.

4.7.3. 파생의 양상

토씨의 파생을 다룬다는 것은 하나의 씨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지, 엄밀한 파생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다.⁵⁸⁾ 파생어는 자립성이나 실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토씨는 파생이 되더라도 실질성을 지닐 수 없고, 문법적 의미와 기능만을 하여, 굴곡 접사로서 의존성만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생에서 다루어 보려는 것은 토씨 중에서는 실질성을 지녔던 뿌리에서 접미 형태소가 붙어 토씨를 이룬 것들도 있다. 형태론적인 입장에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후치사를 설정하려는 주장도 있지만 그냥 토씨로 다루어 둔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표준어에서는 대개는 통시적으로 실사이던 것이 접미 형태소와 통합되어서 토씨를 이룬 것들이 대상이 되는데, 방언에서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점들이 있어서 공시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다만, 이러한 토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방언에서도 표준어에서 쓰이는 토씨들의 형태나, 뜻, 기능에서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제외하고 보다 방언적인 것을 고려하여 찾아 보려 했다.

58) 씨의 설정이 언어 특성에 의한 것이라면 토씨의 설정도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어에서 뿌리가 있는 토씨로 다뤄지는 것들은 주로 ‘부터, 까지, 마저, 만, 조차, 나마’ 따위인데 방언에서도 이러한 토씨들도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제외한다.⁵⁹⁾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한 바 있지만, 표준어의 입장에서 보면 통시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방언의 입장에서 보면 공시적인 것이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에 올리는 토씨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방언의 입장에서 보면 표준어와는 다른 것이다. 특히, ‘ㄷ려’ 같은 것은 문헌어에서는 15세기 석보상절 등에 쓰이던 형태인데, 방언에서는 얼마든지 지금도 쓰이고 그 뿌리 ‘ㄷ리-’는 풀이씨로 쓰여서 ‘ㄷ려’의 형태는 실사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ㄷ리-’는 표준어 ‘테리-’와 대응되는 형태이다.

(72) -레 : 드-

-이 : 끝-, 만-⁶⁰⁾, 꽃-⁶¹⁾

-의 : 앞-

-디 : 신-

-(으)로 : 테-/대-⁶²⁾, 양-(냥-),

-씩 : 만-

-앙 : 꽃-⁶³⁾

-아/-어 : 끝-, ㄷ리-(率)⁶⁴⁾, 맞-⁶⁵⁾, 아우르-, 불-,

59) 강영봉(1981), 앞의 책, p. 6.에서는 ㄱ. 용언적인 후치사 : /아올라, ㄱ라, 아자, 신디, 만이/를 ㄴ. 체언적인 후치사 : /디, 안티, 아피/로 나누었다.

60) 김승곤(1978), 한국어 조사의 통시적 연구, 대체각, p. 207.에서 ‘만큼’은 19세기까지는 대비 부사격 조사였으나, 20세기에는 보조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61) 이승녕(1961a), 앞의 책, p. 158., 유창돈(1973),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pp. 30-31.에서 ‘까지’는 ‘ㄱ/긔(端, 極, 邊)’에 ‘-이’가 통합된 것으로 본다.

강성일(1982), 앞의 책, pp. 195-196.에서는 문헌어에서 발견되는 것을 3류로 나누고 있다.

1류 : ㄱ장, ㄱ장, ㄱ지, ㄱ지, ㄱ재. 2류 : ㄱ장, ㄱ장, ㄱ지, ㄱ지, ㄱ지. 3류 : ㄱ장(= ㄱ장), ㄱ재 이다.

62) 김승곤(1978), 앞의 책, p. 102.에서는 ‘티로’는 16세기에 처음 이룸씨로 쓰여 이룸씨로 하여금 어찌말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방언에서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63) 홍사만(1983), 국어 특수 조사 연구, 학문사, p. 39.에서 /긔/+/-앙/→/ㄱ장/, /-스-/+/-ㄱ장/→/ㄱ장/→/ㄱ지/가 파생되었는데, 부사 ‘가장’을 파생하는 한편, 조사 ‘까지’로 허사화하는 양립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64) 이승녕(1961b), 앞의 책, p. 150.에서 ‘ㄷ려’는 동사 ‘ㄷ리다’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ㄷ려’로 고정되어 후치사가 되었다고 한다.

-양 : 말-
 -정 : 만-(만큼)
 -타 : 안-

방언에서 토씨로 많이 쓰이는 ‘-드레’는 분포도 넓고, 다른 토씨들과도 통합이 잘 이뤄지고, 변이 형태도 많다. 표준어와 대응되는 뜻으로는 ‘에게, 으로/로, 에’의 뜻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다. 그 쓰임을 살펴 보면,

- (73) ㄱ. 나-드레⁶⁵, 어-드레, 동-드레, 산-드레, 밭-드레, 첫째 번-드레, 곡석-드레,
 밭쉬-드레 따위
 ㄴ. 뒤-드레, 서러레, 밭실르레, 동네레, 누게-신드레 따위
 ㄷ. 드렌, 드렐, 드레영, 드레부팀, 드레ㄱ장, 드레사 따위(이상의 보기말은
 강근보, 1977 : 11-34에서 가려 뽑은 것임)

ㄱ.은 분포를 보인 것이고, ㄴ.은 변이 형태를 나타내며, ㄷ.은 외적 통합의 경우 배열 순서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드레’의 형태 분석은 ‘곶’을 나타내는 ‘드/디/테/더/’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그리고, 후행 성분 ‘-레’는 15세기 국어의 ‘-라/리’에서 연유한다고 했다.(강근보, 1977 : 11-34)

이처럼 ‘-드레’는 입자말에 토씨가 붙어 실사로 쓰이던 것인데, 뒤에 실질성을 잃고 토씨가 된 것이다.⁶⁷⁾

그리고, ‘앞-의’는 ‘앞(前)’과 ‘의’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⁶⁸⁾ 토씨로 잘 쓰이는 말이다. 그 쓰임을 보면,

허웅(1975), 앞의 책, p. 81.에서, 토씨 ‘드려, 브터’는 풀이씨 ‘드리-, 붙-’의 끝바꿈 끝에서 온 것인데, 이 경우에 씨끝 ‘-어’는 풀이씨를 토씨로 파생하는 가지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한다.
 65) 홍사만(1983), 앞의 책, p. 38.에서 ‘마저’는 /뫓(뫓, 뫓‘終’-/+/-아/ → /ㅁ자/)/마저/(부사)로, /뫓-/+/-어/→/ㅁ저/)/-마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66) 강근보(1977), 앞의 논문, pp. 11-34.에서는 ‘드레’가 인칭과 통합이 되는 것으로 올라 있지만 지금은 잘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방언도 지역과 세대차에 의한 차이를 많이 나타낸다.
 67) 강성일(1982), 앞의 책, p. 197.에서 역사적으로 소급할 때, affix는 단독으로 쓰였던 시기가 있었으며, 또 있었다고 상상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
 68) 표면적 형태는 ‘-이’로 나타나나 어원적인 형태는 ‘-이’로서 훌훌소리가 되면서 ‘-이’로 된 것으로 보인다.

(74) ㄱ. 느앞의 준다. 느앞원 안 준다. 가 : 의앞의 가 보라.

(너에게 준다. 너에겐 안 준다. 그 아이에게 가 보아라)

ㄴ. 느신디 준다. 느신딘 안 준다. 가 : 의신디 가 보라.

(너에게 준다. 너에겐 안 준다. 그 아이에게 가 보아라)

따위로 쓰인다. 표준어에서 대응되는 토씨를 찾으면, ‘에게’로 여격으로 쓰이는 것이다. 만일 탈격으로 쓰인다면, ‘앞의’로는 안되고(쓰이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앞의’나 ‘앞의서’의 준말로 보인다), ‘앞의서(에게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면 ‘신디’라는 토씨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디’도 여격이나 탈격에서는 ‘신디’, ‘신디서’가 되는 점도 일치한다. 이 토씨들이 쓰임도 거의 〈유정성〉의 임자말 뒤에 붙어야만 토씨의 기능과 뜻을 지닌다. 그러나, 〈무정성〉의 임자말일 경우는 토씨가 아니라 어찌씨나 어찌말의 기능을 하는 점도 또한 같다. 그런데, 〈무정성〉의 임자말과 통합이 될 때는 그 사물이 〈유정성〉으로 비유, 비교가 될 때는 쓰이는 일은 있다.

(75) 느앞의 곧느니 낭토막앞의 곧주. 느신디 곧느니 낭토막신디 곧주.

(너에게 말하느니 차라리 나무 토막에게 말하는 편이 낫겠다.)

쓰임이 같은 두 개의 토씨는 세력으로는 ‘신디’가 ‘앞의’보다는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신디’를 살펴 보면⁶⁹⁾ ‘앞의’의 쓰임과 일치하는데, ‘앞의’는 이름씨 뿌리이나 ‘신디’는 ‘시(있-)-ㄴ-디’로 ‘있는 데의’의 뜻으로 여러 형태가 섞여 이루어진 것이다. 방언에서는 토씨로 쓰일 때를 제외하고는 실사로 쓰이는 말이다.

임자말과 토씨의 구조를 보면, ‘너앞의’는 ‘임자+매김+임자+처소’의 구조가 되고, ‘너신디’는 ‘임자+풀이+매김+임자+처소’로서 차이가 있다.

‘양으로/냥으로’는 문헌어에서도 이러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데 방언에서는 오직 토씨로만 쓰인다. 뿌리 ‘양-/냥-’이 어디에서 온 것인 지는 잘 모르지만 ‘樣’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쓰임을 보면,

69) ‘디’에서는 ‘딤’의 형태가 ‘디’로 재구조화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76) ㄱ. 느냥으로 ㅎ라(너 스스로 하라). 가 : 의냥으로 헛져(그 아이 스스로 했다). 나냥으로 ㅎ다(내 스스로 한다).
 ㄴ. 지냥으로 ㅎ다(자기 스스로 한다). 선생냥으로 ㅎ다(선생이 손수한다).
 ㄹ. 막음냥으로 ㅎ다(마음 내키는대로 한다).

따위로 쓰여서 표준어 ‘대로’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또 인칭 대이름씨나, 사람과 관련을 맺고 있는 직위나, 사람의 소유에 의한 이름씨와 통합이 이뤄지는 분포의 제약도 나타내는 토씨이다.

그리고, 앞 월에 나타난 ‘ㄱ-(-ㄷ)’에 ‘-아/-어’가 통합되었을 때, 토씨로 파생되는 일이 있는데 이 ‘ㄱ-’이라는 뿌리는 표준어에서는 불완전 뿌리로 보나, 방언에서는 불규칙 뿌리로 씨끝 바꿈을 하는 말이다. 그래서, ‘ㄱ-’로 나타나더라도 같은 뜻이다. 그리고, 이 ‘-아/-어’ 접미사와 통합되어 토씨가 되는 뿌리들은 그외에도 ‘ㄷ리-, 불-, 아우르-’가 있는데, ‘ㄷ리어>ㄷ려’는 ‘에게’의 뜻을 지닌 토씨로 굳어져, 뿌리의 ‘ㄷ리-(데리-, 同行)’와는 유연성이 떨어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실사로도 쓰이고, 토씨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 ‘ㄹ라’는 뒤에 풀이말과 일치하는 통어적 특징을 지닌 독특한 기능을 하는 토씨다.⁷⁰⁾

- (77) ㄱ. 가 : 의ㄹ라 공부ㅎ랭 ㄹ르라(ㅎ라). (그 아이더러 공부하라고(말)하라)
 ㄴ. 널ㄹ라 집이 오랜 ㄱ더라(ㅎ더라). (너더러 집에 오라고(말)하더라)
 ㄷ. 가 : 의신디 공부ㅎ랭 ㄹ르라(ㅎ라). (그 아이더러 공부하라고 말하라)
 ㄹ. 느신디 집이 오랜 ㄱ더라(ㅎ더라). (너더러 집에 오라고(말)하더라)

여기 월에서 표준어로 옮긴 것은 겉구조로만 맞춘 것인데, 속구조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월에서 ‘가 : 의그라 ㄹ르라’는 풀이말의 자리에 ‘ㄹ르라’가 오면 앞의 임자말에 다른 토씨가 쓰이더라도, ‘ㄹ라’라는 토씨를 쓰면 맞는다. 그리고, ‘ㄹ르라’는 대동사 ‘하다’ 또는 ‘전하다’로 대치가 가능하고, 같은 뜻을 지니고 있음도 인정되는 것이

70) 방언에서나, 표준어에서도 토씨에 따라 풀이말이 일치를 이루는 일이 있지만, 이것은 높 낮이를 나타내는데 중점이 이뤄지지만, ‘ㄹ라’는 뿌리가 되는 ‘ㄱ-’을 반드시 풀이말의 자리에 와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다.⁷¹⁾

다음으로 ‘안티’는 표준어로는 ‘한테’⁷²⁾로 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토씨들과 마찬가지로 실사에서 파생되어 토씨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거나 파생되고 나서는 뜻으로 실질성을 잃고, 토씨로만 쓰인다. 형태를 분석해 보면 ‘안-티’로 분석되고, 뿌리 ‘안’은 ‘內’의 뜻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접미사 자리에 있는 ‘-티’는 원시 추상 명사 ‘ㄷ’에 ‘-이’가 녹아 붙은 ‘티’가 되어 ‘곳’을 나타내는 매인 이름씨가 다시 ‘-ㅎ-’의 개입으로 ‘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방언에서는 ‘티’의 형태가 ‘티’로 나타나는 일이 많이 있다.(갈 티야, 먹을 티야 따위). 그리고, 방언에서는 ‘익, 의’의 겹홀소리의 형태에서 ‘으’나 ‘으’를 떨어뜨리고 홀홀소리 ‘ㅣ’로만 쓰이는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안티’라는 토씨가 이루어진 것이다. 통어적으로 볼 때 이 토씨는 <유정성>의 임자말에만 붙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방언에서도 표준어 ‘한테’에 이끌리어 ‘한티’로 쓰이는 일이 많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토씨의 파생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 토씨의 파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형태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위의 보기에서 보면 ‘-아/-어’이다. ‘-아/-어’는 풀이씨끝으로도 쓰이는데, 또한 접미사로도 쓰여 굴곡 파생 접사로 다루어지고 있다(심재기 ; 1982, 하치근 ; 1989).

이와 같이 ‘-아/-어’는 통어범주로 어찌말이나 씨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방언의 토씨 파생도 그런 범주에 드는 것이다.⁷³⁾ 방언 토씨로 쓰이는 ‘드레, 앞의, 신디, 깃장, 안티’ 따위에도 어찌씨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통합되어 있다. 특히, 방언에서 쓰이는 ‘-이’는 문헌어 ‘익, 의’나 표준어 ‘에’의 형태가 변이되어 ‘-이’의

71) 문헌어나, 표준어에서 ‘ㄱㄹ샤티’, ‘가로대’의 기본형을 ‘ㄱㄹ다/굴다, 가로다’로 보고 있지만, 방언의 처지에서는 ‘굴다’가 맞는다. 문헌어 ‘ㄱㄹ티’나 ‘ㄱㄹ샤티’에서 기본형을 ‘굴다/ㄱㄹ다’로 보고 있는데 방언에서 보면 ‘굴다’가 맞다. 형태, 의미, 기능에서 ‘굴다’여야 한다. 그리고 불완전 움직씨도 아니고, 다만 ‘ㄷ’ 불규칙 움직씨이다.

72) ‘안티’와 ‘한테’는 뜻으로는 대응을 이루고 있지만 어원적으로는 다른 것이다. ‘안티’는 앞에서 밝힌 바고, ‘한테’는 ‘훈-티’가 굳어져 이루어진 것이다. 김승곤(1978 : 42)에 따르면 ‘훈(一)-티’는 원래는 이름씨로 쓰이던 것인데, 조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73) 홍사만(1983), 앞의 책, p. 37.에서, 어원적으로 관찰하면 국어 특수 조사의 상당수가 실사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고, 사적으로는 토씨도 명사, 부사, 동사처럼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로부터 전성된 것이 많은데, 사적으로 이들이 조사의 기능어가 되는 파생과정에서 반드시 부사어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점이 노출된다고 하고 있다.

형태로 많이 쓰이는 점을 고려하면 능히 어찌씨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어찌씨 요소인 토씨들이 앞의 뿌리들과 통합되어 다시 토씨를 파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4. 8. 영변화 파생¹⁾

영변화 파생이란 어떤 언어 형식에 있어서 밖으로 언어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없다는 것, 즉,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영형태(zero-form)이라고 한다.(하치근, 1989 : 65) 그리고 영변화 파생은 형태에 어떤 대응하는 변화없이 한 형태의 형태류 즉, 통어 범주를 바꾸는 것이라 하고, 영변화 파생은 학자에 따라서 범주변환(conversion)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이석주 ; 1989 : 105). 그런데, 뿌리와 접사의 분석에 따른 관점은 학자마다 다른 점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굴곡어(inflecting language)에서도 나타나지만, 첨가어인 우리말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굴곡어와 첨가어는 서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말 만들기의 과정에서도 다른 점을 나타낸다. 굴곡어에서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씨를 달리 나타내는 일도 있다, 특히, 뜨내기 소리(초분절 음소 supra segmental phoneme)²⁾ 자질의 위치에 따라서 씨나 뜻을 달리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형태론적으로는 하나의 형태로서 씨를 달리하는 일은 그리 흔한 일도 아니다.³⁾ 뜨내기 소리 자질에 의해서 뜻을 달리 한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⁴⁾ 이러한 점에서, 굴곡어와 첨가어 사이에서 영변화를 정의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변화 파생 자체를 다루는 태도는 서로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⁵⁾

1) 심재기(1982), 앞의 책, p.305.에서 세 가지 어휘 형성 기제는 1, 영변화, 2, 접미법(suffixiation), 3, 반복법(reduplication)이라고 하면서, 영변화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논의되어 왔다고 했다.

2) 박창해(1990), 한국어 구조론 연구, 탑출판사, p.189.에서는 없힘 형태소(suprasegmental morphemes)에는 없힘 음운의 종류와 같이 1. 개리 연결 형태소(open transition morphemes), 2. 음세 형태소(stress), 3. 음고 형태소(pitch), 4. 장단 형태소(duration), 5. 절종결 형태소(terminal)들이 있다고 했다.

3)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는 ‘깊이, 정말, 밤낮, 잘못’ 따위가 파생어나 합성어로서 통어적으로 이름씨, 어찌씨로 쓰이는 일이 있다. 방언에서는 ‘새(新), 외(孤, 單)’ 따위가 이름씨와 매김씨로 쓰인다.

4) 15세기 국어에서는 성조를 달리함으로써 씨나 뜻을 달리하였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일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의 소리의 길이도 언어 생활에서 옳게 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굴곡어에서는 복수 접미사, 악센트에 의한 뜻의 분화 등을 다루나, 국어에서는 복수 형태의 불안정이라든지 악센트에 따른 뜻의 분화는 없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나, 형태론적으로 영변화 파생에 해당하는 예를 현대 국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방언의 처지에서는 표준어에서보다는 많은 보기를 찾을 수 있다.⁶⁾ 그리고, 이러한 것도 말만들기의 한 방법으로 특수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어론적으로 범주 변환(conversion)을 일으키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보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형태론적인 파생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어 범주 변환은 일단 접어 둔다.

그리고, 방언은 표준어와는 달리 음운 체계도 다르고 쓰내기 소리 바탕도 다른 점이 있어서⁷⁾ 영변화 파생은 표면형에 의한 형태만을 기준으로 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변화 파생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파생어를 관점에 따라서는 이름씨에서 풀이씨로 파생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⁸⁾ 풀이씨에서 이름씨로 파생이 되었다는 관점이 있지만,⁹⁾ 이것을 일률적으로 단정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 하나의 낱말들이 처음 생길 때, 그 낱말에 따른 하나의 씨로 만들어서 쓰이는 동안 필요에 따라서 파생도 되고 합성도, 활용도 되어서 다른 씨의 기능의나 뜻,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낱말이 이름씨면 이름씨 하나로부터 출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낱말에 따라서는 이름씨로 출발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풀이씨 등 다른 씨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쓰이는 동안에 필요에 따라, 그러한 낱말이 파생도 하고, 전성도 하며, 활용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영변화에서 뿌리를 단정하는 것은 어렵고, 또 접미사를 드러낼 수가 없어서 파생어로 다루면서 외부적으로 형태 분석에서 약점을 지닌다. 그러나, 어떤 유연성이 있는 말이 서로 씨를 달리하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¹⁰⁾ 국어에서 영변화에 대한 관점은 3가지로 나뉘었다고 볼

6) 방언에서 현대 표준어에서보다 더 많은 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문헌어나 고어에서는 더 많은 영변화 파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 현평효(1971), 제주도 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 pp. 97-106.에서 길이나, 높이, 세기에 의한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8) 김계곤(1969), 앞의 논문, pp. 35-39.,

심재기(1982), 앞의 책, p. 353.에서는 이름씨에서 풀이씨가 파생된 것으로 본다.

9) 송철의(1977), 앞의 논문, pp. 10-11.에서 용언에서 체언이 된 것으로 본다.

10) ‘신다, 떠다, 빚다’ 따위와 ‘신, 떠, 빚’ 따위를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처리 방법에서 이러한 말들을 별개의 단어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이석주, 1989 : 108)

수 있다.

첫째는 굴곡어에서 다루는 관점에 따라서 국어에서는 영변화 파생은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점이고,¹¹⁾ 둘째는 풀이씨의 기본형에서 줄기만 가지고 이름씨나 어찌씨가 되면 그것을 영변화로 보는 입장이고,¹²⁾ 세째는 통어론적인 관점으로 형태를 중심으로 같은 형태에서 다른 씨로 갈리거나, 뜻이 다르면 영변화로 보려는 입장 따위가 있다.¹³⁾

4.8.1. 이름씨 <一> 풀이씨

이름씨와 풀이씨 사이에서 영변화 파생이 일어난 것으로 볼수 있는 목록을 올려 보면 아래와 같다.

갈>칼 : 갈다(磨)¹⁴⁾ 갱기(감개) : 감기다 갓(갓, 皮) : 갓그다(刻) 거리(감) : 거리다(건져 올리다) 거피(껍질) : 거피다(껍질을 벗기다) 건지(건데기) : 건지다(收) 걸리(큰 배에 딸린 작은 배) : 걸리다(掛) 곱(倍) : 곱다(곱다) 낫(釣) : 낚다¹⁵⁾ 날(날, 經) : 날다(피륙의 날) 날우치(날씨가 좋지 못할 징조를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 : 날우치다(날씨가 좋지 않다) 널(板) : 널다(편다) 누비 : 누비다 놀(노적) : 놀다(놀을 쫓다) 누리(나무) : 누리다(내리다) 다데기(여러 사람과 충돌을 자주하는 사람) : 다데기다(부딪히다) 데미(데미) : 데미다 돌비비(돌리며 비비는 목수의 도구) : 돌비비다 되(升) : 되다 드르(덩이) : 드르다/들르다(擧) 띠(帶) : 띠다 둘(신 끈) : 둘다(달다) 무렵>무렵 : 무렵다 못(못) : 못다 발(길이의 단위)>팔 : 발다(팔로 재다)

11) 이익섭, 임홍빈(1983), 앞의 책, p. 114.에서는 국어에서는 틀림없이 영형태 소라고 일컬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듯하다고 하고 있다.

12) 허웅(1966), 서기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 방법과 몇가지 문제점, 동아문화 제 6집, p. 19., 박지홍(1986), 앞의 책, p. 29.에서 다루는 것이 보기로 들 수 있다.

13) 이석주(1989), 앞의 책, pp. 105-108.에서는 ‘밤낮, 잘못, 대대로, 내기’ 따위들은 동시에 두 범주를 지닌 것이 아니고, 영변화 파생에 의해서 두 범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14) 심재기(1982), 앞의 책, p. 196.에서는 고어에 나타나는 영변화 파생의 보기를 들고 있다.

갓+다>깎다=皮>刻, 갓+다>꺾다=表>切, 굿+다=긋다=端>劃, 끈+ㅎ>끊다=線>斷, 스이+다>새다=間, 隔>漏, 曉, 김+다>김다=綱, 布>裁縫, 비+다>비다=腹>孕, 受胎, 신+다>신다=靴>履, 띠+다>띠다=帶>帶, 밧+다>밧다/밧다=外>脫, 안+다>안다=內>包, 갈+다=刀>磨, 술+다>술다 : 살다=肉>生, 活, 커+다>켜다=曆>分, 갈피를 내다, 쪼개다, 묻+다>묻다>陸地>埋, 누리+다>누리다=世>享, 享有하다, 흰+다>회다=日, 太陽>白 따위의 17 개의 낱말을 들고 있다.

15) 허웅(1975), 앞의 책, p. 207.에서 이 말은 꼬트머리 두 닿소리가 자리를 바꿀 뿐 아니라, 성조의 변동도 일으킨다고 한다.

배(腹) : 배다(孕) 부찌(불이) : 부찌다(불이다) 봄/뽕(뽕) : 봄다/뽕다(뽕으로 재다) 빗(梳) : 빗다 빼비(종이나 실을 끈 것) : 빼비다(종이나 실을 꼬다) 사리 : 사리다 소도리(고자질) : 소도리다(고자질하다) 속 : 속다(숨-) 숨비(자떡질) : 숨비다 신 : 신다 아귀>아위 : 아귀다>아위다 안 : 안다 여물 : 여물다 옷 : 옷다(옷놀이하다) 자 : 자이다>재다 자불>저울 : 자불다>저울다(기울다) 조지(모춤) : 조지다 주룻(저녁) : 주룻다(저물다) 콤/폼 : 콤다/폼다 태우(뗏목) : 태우다 혈리(상처) : 혈리다

방언에서 이름씨 <一> 풀이씨의 영변화 파생은 지금 상태로서는 이 정도로 찾았지만 더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은 ‘갱기(갱기다), 혈리(혈리다)’ 따위들인데, ‘갱기, 혈리’는 바로 ‘감-’에 ‘-기’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혈리’에서는 ‘혈-’에 어찌씨나 이름씨 파생의 접미사 ‘-리’가 통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럴 때, 영변화 파생의 적용 범위가 애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다른 파생에 의해서 된 것으로 처리하고, 영변화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도 합리적이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을 이중의 방법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올린 영변화의 파생어들은 몇 개의 낱말을 제외하고, 거의가 방언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방언적인 낱말이 많다는 것은 파생의 방법으로 영변화 파생을 생산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문헌어와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몇 낱말에 대해서 살펴 보면, 대부분의 낱말들은 풀이씨의 기본형에서 씨끝 ‘-다’만 있고 없음에 따라 씨가 갈리고 있다. 어떤 낱말은 이름씨와 풀이씨가 어울어져 ‘임자+풀이’ 구조를 이룬 후에 다시 ‘-다’가 있고 없음에 따라 씨가 갈리고 있다. ‘날우치다, 숨 비다’는 ‘부림+풀이’의 합성 구조에서 씨끝 ‘-다’가 있고 없음에 따라 씨가 갈린 것이다. ‘날우치, 숨비’는 이뤄지지만, ‘날, 숨’이 없는 ‘우치, 비’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돌비비다’는 ‘풀이+풀이’의 합성 구조를 가진 합성어로 보이는데 도구의 뜻으로는 ‘비비’는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주룻(저녁)’은 ‘주룻다’에서 둘째 음절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어 된 것이고, ‘낫ㄱ’은 끝소리가 바뀜으로 해서 이름씨가 되기도 하고 풀이씨의 줄기가

되기도 하는 낱말이다. 표준어에 이름씨만 있고 풀이씨는 없는 것들도 있다. ‘거피, 더미/데미’의 풀이씨는 표준어에는 없지만 방언에서는 ‘거피다, 데미다/데미다’가 있고, ‘웃 울다’ 같은 말은 ‘웃’의 끝소리가 ‘ㄷ’으로 바뀌고 다시 ‘ㄹ’로 흐름 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울-’이 된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리고, 이미 표준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 방언에는 있어서, 말밑(어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더러 있다. ‘저울’¹⁷⁾이라는 말은 방언 ‘자불다>자울다’ (기울다)에서 홀소리가 교체되어 ‘저울다’가 되어서 거기에서 ‘저울(秤)’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귀(口)¹⁸⁾/어귀(入口)’는 표준어에는 풀이씨의 형태가 없지만, 방언에 아우다/아위다가 있는 점으로 보아, ‘*아귀다>아위다(벌이다)’를 추정할 수가 있어서 ‘아귀’와 ‘아위다’는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방언에서는 ‘아귀’와 관련 있는 말이 ‘아구생이(아가미), 아우생이(손가락 사이), 아웃아웃(입을 벌리는 모양)’ 따위가 있다.

4.8.2. 풀이씨 <一> 어찌씨

풀이씨 <一> 어찌씨에서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씨에서 어느 씨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¹⁹⁾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름씨 <一> 풀이씨보다는 숫자로는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파생법으로는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영변화 파생의 방법이 모든 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파생어를 올려 보면,

곧다(直) : 곧(即時) 그르다(잘못하다) : 그르(잘못) ㄹ득다(滿) : ㄹ득 내리다(降)
: 내리(계속해서) 느리다 : 느리(낮게) 늘다(勝) : 늘(항상) 늦다(晚) : 늦(晚, 늦 되

16) 이병선(1985), 고대 국어 t의 파찰음화에 대하여, 국어학 제14호, p. 40.에서 받침으로 쓰이는 ‘ㄷ (ㅌ) : ㅈ(ㅊ) : ㅅ’는 원래 같은 음에서 변이한 것이니, 이들의 조음점도 같다고 했다.

17) 석보상절, 두시언해 등에서부터 쓰이고 있는 말이다. 그런데, ‘저우름 돌(寅月), 저우름 날(寅日)’이 은역방과 구황피온에 나타나는데 ‘저우름/름’에서 ‘저울다(기울다)’란 풀이씨에 이름씨끝이 통합되면서 삼입모음 ‘-오-/-우-’가 개입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헌어에서 ‘저울다’란 풀이씨는 나타나지 않는다.

18) 노걸대언해에 ‘아귀 쟈 물, 아귀 드른 물’)이 나온다.

19) 이석주(1989), 앞의 책, p. 108.에서 ‘신 : 신다’ 따위에서 우연 일치일 지도 모르니 별개의 낱말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 늦추다 : 늦추(늦게) 더오다 : 더(加) 덜다 : 덜(減) 두르다 : 두르 모도다(모
오다) : 모도(모두) 버르다(破) : 버르(한계가 없이) 부수다(破) : 부수(닥치는대로)
스몯다 : 스몯(사몯) 앞서다 : 앞서 제우다(겹다) : 제우(겨우) 하다(多) : 하(많이)
허피다(낭비하다, 실속이 없다) : 허피(쓸모없이, 낭비)

이상에 올린 보기들 가운데, 유연성이 의심스러운 것도 더러 있다. ‘곧다 : 곧, 늘
다 : 늘, 스몯다 : 스몯’ 따위인데, 나름대로는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올렸다.

5.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방언 가운데 접미 파생어를 대상으로 하여 접미 파생어 목록을 작성하고 형태적, 형태음소적 특이성 및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에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형태적으로는,

1) 표준어 접미 파생어와 방언 접미 파생어 사이에는 그 목록이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제주도 방언에는 고어의 잔영을 반영하는 어휘가 많음을 알 수 있고, 방언 특유의 어휘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다.

2) 방언 파생의 목록에는 불구 뿌리가 많았다. 다른 파생어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나타날 때, 토박이의 언어 직관에 의거하여 불구 뿌리를 인정하고 파생어로 처리했다. 언어 직관으로 파생어로 인식될 때, 불구 뿌리를 인정하여 파생어로 다루었다. 이러한 처리는 토박이의 언어 인식을 중시하기 위한 것이다.

3) 동요 현상을 겪고 있는 접미사가 많았다. ‘방엿-귀, 입-바위, 모흥-거리’ 따위에서 ‘-귀, -바위, -거리’들은 자립, 실사로 쓰이던 말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표준어에서나 방언에서도 형태, 의미, 기능에서 거의 자립성을 잃었다. 특히 표준어에서도 이러한 뜻의 말이 다른 형태의 말로 쓰이고, 방언에서도 형태와는 유연성을 잃었다. 형태나 뜻에서 거의 유연성을 잃고 있는 것은 접미사로 처리했다.

4) 풀이씨 파생어에는 표준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세나, 입음·하음의 접미사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수여 접미사 ‘-애/-에’가 있는 것은 제주도 방언 파생 접미사의 특이한 양상이다.

5) 이름씨 뿌리나 풀이씨 뿌리에 통합되는 ‘-닥-, -박-’ 따위의 접미사가 반복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강세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동작성 이름씨 뿌리에 붙어서

강세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방언에서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6) 이름씨 뿌리나 풀이씨 뿌리에 굴곡 접미사가 통합되어 토씨를 파생하는 것도 특이한 양상이다. ‘앞의, 안티’ 따위는 인칭을 나타내는 뿌리와 통합되었을 때는 토씨로 쓰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뿌리와 통합되었을 때는 실사로 쓰인다, ‘ㄴ라, ㄷ려, 드레, 신디’ 따위들은 풀이씨 뿌리에 씨끝이 통합되어 토씨로 파생된 것들이다. 이러한 점도 제주도 방언 파생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7) 방언 풀이씨에서는 움직씨와 그림씨가 함께 쓰이는 것들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분류할 때 혼란을 가져 오기도 한다.

8) 영변화 파생어가 목록 작성의 결과 표준어보다는 많음이 드러났다.

통합에 따라서는,

1) 파생어는 뿌리에 접미사가 바로 통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논문에서는 뿌리에 씨끝이 통합되고 다시 접미사가 통합된 것을 간접 통합으로 보았다. 그러나 ‘매-닥-질 보비-닥-질, 들음-박-질’ 따위에서 ‘-닥-, -박-’을 이름씨 파생의 접미사로 보고 다루어야 할 지, 아니면 간접 통합으로 보고 다루어야 할 지는 그리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통합되는 ‘-질’ 접미사가 이름씨와 통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표준어에서나 방언에서는 공시적으로 ‘-닥-, -박-’이 이름씨 파생의 접미사로 쓰이는 일이 없지만, ‘매-닥-, 부수-닥-, 보비-닥’ 따위를 이름씨 파생으로 보아 겹뿌리로 처리했다.

2) ‘-내기, -라기/-락, -작/-재기’ 따위가 통합되어 거의 같은 뜻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이름씨를 파생하는데 이러한 현상도 제주도 방언 파생의 특이한 현상이다. 특히 ‘-내기’, ‘-락-’은 매김씨끝 ‘-ㄴ’과, ‘-작-’은 이름씨끝 ‘-ㅁ’과 통합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3) 표준어에서는 접미사로 다루어지는 ‘-답-, -긋-, 웃-(웃-)’ 따위는 제주도 방언에서는 자립실사로 쓰여 접미사로 처리하지 않았다.

형태 소음적 변동에서는,

1) 형태 음소적으로는 표준어에서 나타나는 변동 현상들이 거의 방언 파생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드러나는 것도 있다. ‘ㄱ슬-내낭, 저슬-내낭, 날날이, 들들이’에서는 /ㄹ/이 탈락하지 않는다.

2) /에, 어, 애/나 /ㄹ/ 다음에 오는 /ㅁ/탈락이 방언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췌-왕, 방의-왕, 대-왓, 슬-오리, 갈이(갈비)’ 따위들은 /ㅁ/이 탈락한 것이다. ‘대-빳, 슬-보리’에서는 ‘빳, 보리’가 자립성을 지니는데, ‘-왕, -왓, -오리’는 자립성이 없다.

3)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될 때, ‘ㅅ, ㅎ’ 따위가 개입되는 파생어가 많다. 표준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주로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나타나지만 제주도 방언에서는 특히 ‘ㅎ’이 개입되는 형태가 많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제주도 방언 파생어의 형태 음소적 변동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점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 제주도 방언에서는 실사와 접사의 동요 현상으로 인하여 ‘대빳, 슬보리’는 합성어가 되나 ‘대-왓, 슬-오리’는 파생어가 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참고자료

-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상), 서울 : 일조각, (1965).
- 김영돈외, 제주 설화집성, 제주 대학교 탐라 문화 연구소, (1985).
- 박용후, 제주 방언 연구, 제주 : 동원사, (1960).
- _____, 제주도 방언 연구, 서울 : 고대 민족 문화 연구소, (1988).
- 석주명, 제주도 방언집, 서울 : 서울 신문사, (1947).
- 현용준, 제주 무속 자료 사진, 서울 : 신구문화사, (1980).
- 현평효, 제주도 방언 연구, 제1집 자료편, 서울 : 정연사, (1962).
- _____, 제주도 방언 연구 자료편, 태학사, (1985).

참고문헌

- 강근보,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 연구”, 제대 논문집, 제9집, (1977).
- _____, “제주도 방언의 곡용에 대하여”, 제대 논문집, 제10집, (1978).
- 강성일, 국어학 논고, 대구 : 형설 출판사, (1982).
- 강영봉, “제주도 방언의 후치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_____, “제주도 방언의 어명 연구”, 제대 논문집, 제23집, (1986).
- 강위규, “맺음씨끝의 파생 가지 되기”, 부산대 국어 국문학, 제24호, (1987).
- 강정희, “제주 방언의 상태 동사의 동작화 과정에 대하여” 이화어문론집, 제5집, (1982).
- 고영근, 국어 접미사의 연구, 서울 : 백합출판사, (1974).
- _____, 국어 문법의 연구, 서울 : 탐출판사, (1983).

- _____,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 : 서울대 출판부, (1989).
- 권숙렬, “『답, 립, 슥』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39, 한국국어교육학회, (1984).
- 김계곤,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앞가지에 의한 파생법-, 인천교육대 논문집 3집, (1968).
- _____, “현대 국어의 뒷가지 처리에 대한 관견”, 한글 144호, 한글학회, (1969a).
- _____, “현대 국어 조어법 연구”-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인천교육대학 논문집 4집, (1969b).
- _____,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허릿가지 파생법의 설정 여부에 대하여-, 백영정병욱 선생 환갑기념 논총, (1982).
- 김광웅, 제주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 : 세종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 김규철, “단어 형성 규칙의 정밀화”-방해현상을 중심으로-, 언어 제6권 제2호, (1981).
- 김두봉, 김더 조선말본, [역문, I -23, 서울 : 탑출판사], (1922).
- 김봉모, “매김말의 기능”, 한글 162호, 한글학회, (1978).
- _____, 국어 매김말 연구, 부산 :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3).
- _____, “국어 입음움직씨 연구”, 부산사범대 어문교육논집8, (1984).
- _____, “입음월과 형태소” ‘-이-’ 국어학 신연구, 난정 남광우 박사 회갑기념 논총, (1986).
- 김봉주, 형태론, 서울 : 한신문화사, (1984).
- 김석득, 국어 구조론, 서울 : 연세대 출판부, (1971).
- _____, “구성요소의 뜻과 총합체의 뜻과의 관계” 동방학지 제59집, (1988).
- 김수호, “접미사 -답다, -롭다, -스럽다의 어휘론적 기능 연구”, 문학과 언어 제7집, (1986).
- 김승곤, 한국어 조사의 통시적 연구, 대제각, (1978).
- 김완진, “-n, -l 동명사의 통사론적 기능과 발달에 대하여, 국어연구 제2호, 국어학회, (1957).
- 김창섭,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국어학회, (1983).
- 김태곤, 중세 국어의 다의어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김형주, 국어학사, 서울 : 학문사, (1983).
- _____, “국어어휘 의미의 통합과 분화”, 언어와 언어교육 제1집, 동아대 어학연구소 (1984).
- _____, 어두 자음군 연구, 부산 : 동아 대학교 출판부, (1987).
- _____, “국어 어두 파열음 체계의 음소 생성 과정 고찰”, 언어와 언어 교육 제3집, 동아대학교 어학 연구소, (1988).
- _____, 국어학사, 대구 : 형설출판사, (1991).
- 김홍식, “용언 말음 모음에 대하여”, 제대 논문집, 제9집, (1978).
- _____, “제주도 지방의 지명에 대하여”, 제대 논문집, 제10집, (1979).
- _____, “제주도 방언 ‘가쟁이’ 어고”, 제대 논문집, 제11집, (1980).
- _____, “『비바리』어고”, 연암 현평효 박사 회갑 기념 논총, (1980).
- _____, “제주도 방언 ‘낭’ 어고”, 제주 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82).
- _____, “접미사 ‘개’에 대하여”, 북천 심여택 선생 회갑 기념 논총, (1982).
- _____,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고”, 탐라 문화, 제2집, (1983).
- _____, “제주도 지방의 지명 어휘고(1)”, 제주 대학교 논문집, 제20집, (1985).
- _____, “제주도 지방의 지명 어휘고(2)”, 제주 대학교 논문집, 제22집, (1986).
- 노대규, “국어 접미사 ‘답’의 의미 연구”, 한글 172호, 한글학회, (1981).
- _____, 국어학 서설, 서울 : 정음사, (1987).
- 박병수, “동사 ‘하-’의 문법”(서평), 언어 2권 제1호, (1977).
- 박승빈, 조선어학, [역문, I - 48, 서울 : 탑출판사], (1935).
- 박지홍, 우리 현대 말본, 서울 : 과학사, (1986).
- 박창해, 한국어 구조론 연구, 서울 : 탑출판사, (1990).
- 박태권, “사성통해 속의 우리말 어휘(I)”, 김종우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1977).
- _____, “‘번역노걸대’의 가르킴말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 언어연구1집, 부산대 어학연구소, (1978).
- _____, “사성통해 속의 우리말 어휘(II)”, 현암 현평효박사 회갑 기념 논총, (1980)
- 배희임, “‘지-’와 피동”, 국어학 신연구, 난정 남광우 박사 회갑기념 논총, (1986).
- _____, 국어 피동 연구, 고대 민족 문화 연구소, (1988).

- 백원국, “중첩어의 형태 구조적 연구”－고유어를 중심으로－, 명지어문학 제17, 18호, (1987).
- 서정수, 동사 “하-”의 문법, 대구: 형설출판사, (1975).
- _____, “‘-게’ 사동법”, 국어학 신연구, 난정 남광우박사 회갑 기념 논총, (1986).
- 서태룡,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국어학회, (1988).
- 성광수, “국어 간접피동에 대하여”, 문법연구 3집, 문법연구회, (1976).
- _____, 국어 조사의 연구, 대구: 형설 출판사, (1981).
- _____, “국어 피동사 공백과 의사 피동의 원인”, 국어학 신연구, 난정 남광우 박사 회갑 기념 논총, (1986).
- _____, “국어의 단어와 조어”, 주시경 학보 제1집, (1988).
- 송문준, “입음말에 대하여”, 언어학 제11호, (1989).
- 송병학, “한국어의 수동태”, 언어 4-2, (1979).
- _____, 현대 국어의 분석, 서울: 한신 문화사, (1984).
- 송상조, “제주도 방언의 파생 접미사 연구(I)”, 덕재 신용준 박사 회갑 기념논총, (1989a).
- _____, “제주도 방언의 파생 접미사 연구(II)”, 국어국문학 제9집, 동아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1989b).
- _____, “제주도 방언의 파생 접미사 연구(III)”, 심전 김홍식 교수 회갑 기념 논총, (1989c).
- 송석중, “사동문의 두형식”, 언어 3-2, (1977).
- 송창선, “명사화소 ‘-(으)ㄴ, -기’의 통사 특성”, 국어교육연구 제22호, 경북대 국어 교육 연구회, (1990).
- 송철의, “파생어 형성과 음운 현상”, 국어연구 38호, 국어연구회, (1977).
- _____, “파생어 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12, 국어학회, (1983).
- 심재기, “명사화의 의미 기능”, 언어 5권 1호, (1980).
- _____, 국어 어휘론, 서울: 집문당, (1982).
- _____, 의미론 서설, 서울: 집문당, (1984).
- 염선모, 국어 의미론, 대구: 형설 출판사, (1987).

- 오정란, “국어 복합어 내부의 경음화 현상”, 언어 12권 1호, (1987).
- 유목상, 연결 서술어미 연구, 서울 : 집문당, (1985).
- _____, “사동사. 피동사 문법 처리고”, 국어학 신연구, 난정 남광우 박사 기념논총, (1986).
- _____, 한국어 문법 이론, 서울 : 일조각, (1990).
- 유창돈, 어휘사 연구, 서울 : 선명문화사, (1973).
- 이강훈, “국어 복합 명사에서의 경음화 현상”, 언어 7권 2호, (1982).
- 이경우,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의미 변화”, 국어 교육 제39·40호, (1981).
- 이기동, “생성문법에 있어서의 파생어 취급 방법의 고찰”, 언어와 언어학 제3집, 한국외국어대학 어학연구소, (1975).
- _____, “한국어 피동형 분석의 검토”,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논총 9집, (1976).
- _____, “조동사 ‘지다’의 의미 연구”, 한글 161호, 한글학회, (1978).
- 이길록, 국어문법연구, 서울 : 일신사, (1975).
- 이병근, “국어 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제22권 제3호, (1986).
- 이병선, “고대 국어 t 파찰음화에 대하여”, 국어학, 제14호, (1985).
- 이석주, “국어 파생법 연구”-의미론적 접근에 의한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의 구별을 위하여-, 홍익어문 제7집, (1988).
- _____, 국어 형태론, 서울 : 한샘, (1989).
- 이승녕, 고등 국어 문법, 서울 : 을유문화사, (1960).
- _____, 중세 국어 문법, 서울 : 을유문화사, (1961a).
- _____, 국어 조어론고, 서울 : 을류문화사, (1961).
- _____,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재판) 서울 : 탑출판사, (1985).
- 이익섭, 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제30호, (1965).
- 이익섭·임홍빈, 국어문법론, 서울 : 학연사, (1983).
- 이희승, 국어학 개설, 서울 : 민중서관, (1955).
- 임지룡, “의미 성분 분석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 교육 연구 제22호. 경북대 국어 교육 연구회, (1990).
- 임홍빈, “명사화의 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국어학회, (1974).

- 정인승, 표준 중등 새 말본, [역문, I - 79, 서울 : 탑출판사], (1949).
- 조일규, “국어 파생법과 한계”, 언어와 언어교육 제3집, 동아 대학교 어학연구소, (1988).
- 주시경, 국어 문법, [허 응 · 박지홍 ·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서울 : 과학사], (1910).
- _____, 조선어문법, [허 응 · 박지홍 ·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서울 : 과학사], (1910).
- _____, 말의 소리 [허 응 · 박지홍 ·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서울 : 과학사], (1914).
- 최규일, 한국어 어휘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최낙복, 주시경 말본의 형태론 연구, 부산 : 동아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최현배, 조선어 품사 분류론 [역문, I - 79, 서울 : 탑출판사], (1930).
- _____, 우리말본, 서울 : 정음사, (1965).
- _____, 우리말본, 서울 : 정음사, (1975).
- 하치근, “국어 접미사의 기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9집, (1984).
- _____, “조어론 연구의 경향에 대하여”, 부산한글 4집, 한글학회 부산지회, (1985a).
- _____, “국어 접미사의 분포 유형 연구”, 새결 박태권선생 회갑기념논총, (1985b).
- _____, 국어 파생접미사 연구, 부산 :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a).
- _____, “국어 파생 형태론 연구”, 언어와 언어 교육 2집, 동아대 어학 연구소, (1987b).
- _____, “국어 파생 접미사의 유형 분류”, 한글 제199호, 한글학회, (1988).
- _____, 국어 파생 형태론, 서울 : 남명 문화사, (1989a).
- _____, “국어 파생 접미사의 통합 양상에 관한 연구”, 언어와 언어 교육4집, 동아대 어학연구소(1989b).
- 허 응, 언어학 개론, 서울 : 정음사, (1963).
- _____, “서기 15세기 국어의 사역, 피동의 접사”, 동아문화2, (1964).
- _____, “서기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 방법과 몇가지 문제점”, 동아문화 제6집, 동아문화 연구소, (1966a).
- _____, “서기 15세기 국어의 통사적 합성어”, 동방학지 제8집, 연세 대학교, (1966b).

- _____, 우리 옛말본, 서울 : 샘문화사, (1975).
- _____, 언어학, 서울 : 샘문화사, (1981).
- _____, 국어학, 서울 : 샘문화사, (1983).
- _____, 음운학, 서울 : 샘문화사, (1985).
- 한평효, “제주도 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1).
- _____, “제주도 방언 연구에 대한 사적 고찰(상)”, 제주도 제76호, 제주도, (1979).
- _____, “제주도 방언 연구에 대한 사적 고찰(하)”, 제주도제77호, 제주도, (1980).
- _____,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서울 : 이우 출판사, (1985).
- _____, “제주도 방언의 연구사 및 연구 방향”, 국어학 연총, 허당 이동림 박사 정년 퇴임 기념 논총, (1988).
- 홍기문, 조선어 문법 연구, [역문, I - 39, 서울 : 탑출판사], (1947).
- 홍사만, 국어 특수 조사 연구 -의미 분석-, 서울 : 학문사, (1983).
- _____, 국어 어휘 의미 연구, 서울 : 학문사, (1985).
- 홍재성, “한국어 자동사/타동사 구문의 구별과 사전”-이른바 동족 목적 보어의 경우-, 동방학지 제63호, (1989).

- Aronoff. M.(1976) *Word-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1, The MIT Press.
-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 Press.
- Bierwisch. M. “*Formal and Lexical Semantics*”, *Linguistische Berichte* 80/80.
- Bloomfield. L.(1933)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London.
- Bybee. J.L.(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homsky, 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 Chomsky, N. & Halle, M.(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and Row, New York.
- Hall, R.A.(1967) *Introduction Linguistics*, Chilton Co., Philadelphia (강윤희 역, 언어학 서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 Halle, M.(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Formation”, *Linguistic Inquiry* Vol.4

Number I(winter, 1973).

Hockett, C.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The MacMillan Co., New York.

Lees, R.B.(1960)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s*, moulton, The Mague.

Leech, G.(1976) *Semantic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ightner, T.H.(1975) *The Role of Derivational Morphology in Generative Grammar*, Language.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_____(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 Press.

Marchand, H.(1969) *English Word-Formation*, Verlag C.H.Beck.

Malkiel, Y.(1978) "Derivational Categories"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 3, Stanford Univ. Press.

Martinet, A.(1961) *Elements de linguistique generale*, Paris(김방한역, 언어학원론, 입조각 1963).

Matthews, P.H.(1974) *Morphology*, Cambridge Univ. Press.

Nida, E.A.(1963) *Morpholog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Radford, A.(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ussure, F.(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Cambridge.

Scalise, S.(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t, Foris publications(전상범역, 생성형태론, 한신문화사, 1987).

Selkirk, E.O.(1982) *The Syntax of words*, The MIT Press.

Siegel, D.(1978)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s", *Linguistic Inquiry* Vol.9 Number 2(spring, 1978).

Ullmann, S.(1962) *Semantics*, Basil Blackwell, London.

SUMMARY

A Study of Suffixal Derivatives of Cheju Dialect

by Song, Sang-Jo

*Dept. of Korean Lang. & Lit.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make a list of suffixes and to find out the rules applying to them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derivatives of Cheju dialect. In view of standard Korean, we may find out the forms of different language stratum in Cheju dialect.

Making a list of suffixes of Cheju dialect seems to be more difficult than compiling the list of suffixes of standard Korean for three reasons : (1) the criteria to establish the suffixes are not easily made ; (2)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uffixes and the neighboring morphemes is not clear • (3) language change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suffixes.

The suffixes of standard Korean and Cheju dialect are of the same form in some lexical items which have the same meaning, but they have different forms in many other cases. It is natural that the lexical items of the same meaning have different forms of derivatives due to different suffixes. I think that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which distinguish Cheju dialect from standard Korean. For example, 'sadari' (ladder) of standard Korean is treated as a simple word, but it looks like a compound word in the dialect. And its equivalent of the dialect is 'san-te' in which '-te' is a suffix for a person or a thing.

The function of the derivatives of the dialect is not totally contrary to the rules in

standard Korean. However, we can find many differences in morphophonemic changes. These differences are conspicuous in vocal harmony and the omission of /r/. These phenomena present in the dialect are not always congruent with those of standard Korean. Although the rules of standard Korean seem to be applicable to the dialect, We can notice that in reality they cannot always be applied to the dialect.

Using the data of the appendix we can explore the derivatives from several angl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zero-modification derivatives. We can find some zero-modification derivatives only in Cheju dialect and the language of old books of standard Korean. This reveals that in the past zero-modification derivation was a productive process of word-formation.

A case in point is the suffix of standard Korean which has only one function to make new words by combining with the root. And the word ending and particle are combined with a word to form the constituent parts of a sentence. Nevertheless, we cannot sometimes distinguish the function of a suffix from that of the word ending and particle. In addition, the meaning of a suffix is often replaced with a phrase or a clause. For example, in ‘dol-chengi’ (a man working with stone), the root ‘dol’ (stone) modifies ‘chengi’, and the suffix has the main function to add a new meaning.

The form of derivatives of standard Korean is not always in accordance with that of the Cheju dialect. There are instances where a simple word and a compound of standard Korean are formed in the dialect by the derivation. It is my sincere wish that this issue will be resolved through a further comparative study.